연구보고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오승근(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권두승(명지전문대학・교수)
전명기(산울림청소년수련관・관장)
조대연(숙명여자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김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위촉연구조원)
한지연(한국청소년개발원・위촉연구조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최근 방과후 활동에 대한 국가 정책 차원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별 방과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예컨대,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방과후 학교(교육인적자원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여성가족부) 등.
- 하지만 방과후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적, 통합적인 실증 연구가 미흡함.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 활동도 효율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음.
- 방과후 학교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학원에 비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음. 반면에 수준별 학습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비해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교사들의 경우 과다한 업무와 동기부족으로 적극적 참여가 안 됨.
-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교사 및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고,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며, 성적향상은 물론 성격의 긍정적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음.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가 보육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점, 참가 학생의 심리적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님. 그러나 운영시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예산 운용상의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지도자의 처우문제, 저소득층이 다니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낙인 효과가 있음.

-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관계성 증진, 학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감소, 교사의 헌신적 보살핌 등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 특히 가정과의 연계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다른 두 기관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인해 교사 수급과 급식 제공의 곤란, 수업의 질 저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시설의 열악성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를 지님. 지역아동센터 역시 가난한 집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참가 학생들이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문제가 발생함.

3.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첫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로드맵 제시).

둘째, 가칭 방과후활동지원센터가(법안 상정 중) 신설 또는 기관 지정되어 방과후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지원이 되어야 함.

셋째,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지역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효과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이 필요하며, 기관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 추진

●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 향상

첫째, 방과후 활동 담당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직무 연수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과 자격증 이수 과목에도 방과후 활동 관련 교과를 포함시킴.

둘째, 방과후 활동 지도자의 처우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방과후 활동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셋째, 방과후 활동에 큰 영향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고, 자원 봉사를 유도해야 함. 참여한 부모에게 자녀의 방과후 활동 참가 경비를 면제해 주거나 바우처를 무상 지급함.

넷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진흥센터와 같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인증받게 함.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재정 지원은 물론 프로그램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실시

첫째, 사회적으로 방과후 활동 현황을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실시하여 방과후 활동의 인지도를 높임.

둘째, 방과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를 마련하여 각종 교육 자료 및 교구 등을 쉽게 참조 또는 이용할 수 있게 함.

●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확대

첫째, 방과후 활동에 참가한 비용에 대해 공교육과 동일한 수준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임.

둘째, 방과후 활동에 자원 봉사한 인력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킬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함.

셋째, 학교 수업 이전에 아동 보육 서비스, 학습지도를 필요로 한 대상자에게 방과 전(before-school) 활동서비스를 제공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제한점 ····· 8

Ⅱ. 이론적 고찰 ·····11

1.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개념 ·····13
2.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과 그 의미 ·····15
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기대 효과 ·····20
4.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실태 ·····26

Ⅲ. 국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 ·····29

1. 방과후 학교의 운영 실태 ·····31
2.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실태 ·····48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 ·····60
4. 방과후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 ·····74

Ⅳ. 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 ·····85

1. 미국 ·····87
2. 일본 ·····106
3. 독일 ·····120

Ⅴ. 조사 결과 분석 ·····139
1. 심층면접조사 결과 ·····141
2. 설문조사 결과 ·····196

Ⅵ. 요약 및 결론 ·····377
1. 요약 및 결론 ·····379
2. 정책 제언 ·····387

참고문헌 ·····402

부 록 ·····413

인터뷰 프로토콜(청소년용, 학부모용, 기관용) ·····415
설문지(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청소년용,
학부모용, 기관용) ·····656

표 목차

<표 Ⅱ-1> 바람직한 발달의 조건 ·····15
<표 Ⅲ-1> 방과후 학교 실시학교 및 참여학생 비율현황 ···32
<표 Ⅲ-2> 방과후 학교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수 ·····34
<표 Ⅲ-3> 방과후 학교에서의 외부위탁 프로그램 수 ·····35
<표 Ⅲ-4> 외부기관의 인력지원 현황 ·····35
<표 Ⅲ-5> 학생 1인 당 월평균 수강 강좌 수 및 부담액 36
<표 Ⅲ-6> 저소득층 학생 수 및 방과후 학교 지원학생 수 ··36
<표 Ⅲ-7> 저소득층 대상 대학생 멘토링 현황 ·····37
<표 Ⅲ-8> 수련시설유형 및 운영주체별 운영 현황 ·····50
<표 Ⅲ-9> 지역별 지원유형별 운영 현황 ·····51
<표 Ⅲ-10> 유형별 청소년 참가 인원 현황 ·····52
<표 Ⅲ-11> 학년별 청소년 참가 인원 현황 ·····52
<표 Ⅲ-12> 참가 학생의 출석률 현황 ·····52
<표 Ⅲ-13> 유형별 운영인력 현황 ·····53
<표 Ⅲ-14> 운영기관 현황 ·····61
<표 Ⅲ-15> 신고여부 현황 ·····62
<표 Ⅲ-16> 국고지원 유무 ·····62
<표 Ⅲ-17> 운영주체 ·····63
<표 Ⅲ-18> 운영기간 ·····63
<표 Ⅲ-19> 이용아동 현황 ·····64
<표 Ⅲ-20> 종사자 현황 ·····65
<표 Ⅲ-21> 자격증 현황 ·····66
<표 Ⅲ-22> 제공프로그램 내용 ·····67
<표 Ⅲ-2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 결과 ·····68

<표 Ⅲ-24> 방과후 전담 시설의 운영주체별 현황 ……76
<표 Ⅲ-25> 방과후 전담 시설의 지역별 현황 ……77
<표 Ⅲ-26> 아동의 연령별 취업모 가정의 자녀 현황 ……78
<표 Ⅲ-27〉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78
<표 Ⅲ-28〉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79
<표 Ⅲ-29〉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1순위 ……79
<표 Ⅲ-30〉 만족도 ……80
<표 Ⅲ-31> 학생의 가족 환경(D 방과후 보육시설) ……81
<표 Ⅲ-32> 주요 일과 활동(D 방과후 보육시설) ……82
<표 Ⅳ-1> 21st CCLC와 관련된 프로그램 ……91
<표 Ⅳ-2> 로웰지역 학생들의 수학·읽기 영역의 성취수준 …99
<표 Ⅳ-3> 후생노동성 방과후 아동건전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110
<표 Ⅳ-4> 과거 5년간의 실시개수, 아동수, 실시시정촌의 추이 ·111
<표 Ⅳ-5> 실시장소 현황 ……111
<표 Ⅳ-6> 문부과학성 신어린이 플랜의 사업개요 ……113
<표 Ⅳ-7> 지역 어린이교실 추진사업사례 ……116
<표 Ⅳ-8> 운영 주체별 시설현황 ……129
<표 Ⅳ-9> 청소년사업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영역 ……130
<표 Ⅳ-10> 5학년 종일제 프로그램 ……132
<표 Ⅳ-11> 6학년 종일제 프로그램 ……132
<표 Ⅳ-12> 11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35
<표 Ⅴ-1> 심층면접 대상자수 ……141
<표 Ⅴ-2> 학생집단 심층면접 대상자 ……142
<표 Ⅴ-3> 학부모집단 심층면접 대상자 ……143
<표 Ⅴ-4> 교사집단 심층면접 대상자 ……144
<표 Ⅴ-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심층면접 결과 요약 …154
<표 Ⅴ-6> 방과후 학교 비참여 집단의 심층면접 결과 요약 …163
<표 Ⅴ-7> 방과후 아카데미 집단 심층면접 결과 요약 ·183

<표 Ⅴ-8> 지역아동센터 집단 심층면접 결과 요약 ·····194
<표 Ⅴ-9> 설문조사 대상자 수 ·····197
<표 Ⅴ-10> 설문지의 측정 영역과 측정 변인 ·····199
<표 Ⅴ-11>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조사대상자의 수 ···200
<표 Ⅴ-1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생의 연령별 분포 ·201
<표 Ⅴ-1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생 부모의 결혼상태 201
<표 Ⅴ-14>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경제수준 ·····202
<표 Ⅴ-1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생의 지각된 성적수준 ·202
<표 Ⅴ-16>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 ··203
<표 Ⅴ-17> 방과후 학교 학생의 학부모 교육수준 ·····203
<표 Ⅴ-18>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참여기간 ·····204
<표 Ⅴ-19>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의 학년별 참여기간 ···204
<표 Ⅴ-20> 방과후 학교 중학생 참여집단의 학년별
참여기간 ·····205
<표 Ⅴ-21>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참여이유 ·····205
<표 Ⅴ-2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향후 참여의지 ·····206
<표 Ⅴ-2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태도 ·····207
<표 Ⅴ-24> 방과후 학교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의도 ·····208
<표 Ⅴ-2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향후 불참의도 이유 209
<표 Ⅴ-26>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행동변화 지각 ·····211
<표 Ⅴ-27> 방과후 학교 학부모 조사대상자 수 ·····212
<표 Ⅴ-28>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연령 ·····212
<표 Ⅴ-29>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결혼상태 ·213
<표 Ⅴ-30>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학력 ·····213
<표 Ⅴ-31>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소득수준 ·214
<표 Ⅴ-3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 ·215
<표 Ⅴ-3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참여이유 ·216

<표 Ⅴ-34>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운영시간에 대한 적절성 판단 ·····216
<표 Ⅴ-3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수강료에 대한 태도 217
<표 Ⅴ-36>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자녀를 맡기고 싶은 기관 ·····217
<표 Ⅴ-37>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가 지도를 원하는 강사 ·····218
<표 Ⅴ-38>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가 원하는 활동 218
<표 Ⅴ-39>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태도 ·····219
<표 Ⅴ-40>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태도 ·····221
<표 Ⅴ-41>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태도 ·····222
<표 Ⅴ-4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행동변화 정도 ·····223
<표 Ⅴ-4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225
<표 Ⅴ-44> 방과후 학교 교사의 성별 분포 ·····225
<표 Ⅴ-45> 방과후 학교 교사의 연령 분포 ·····226
<표 Ⅴ-46> 방과후 학교 교사의 학력 분포 ·····226
<표 Ⅴ-47> 방과후 학교 교사의 경력 ·····227
<표 Ⅴ-48>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담당여부 227
<표 Ⅴ-49> 방과후 학교 교사의 담당하지 않는 이유 …228
<표 Ⅴ-50>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담당을 원하지 않는 이유 ·····228
<표 Ⅴ-51>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종류 ·····229

<표 Ⅴ-52> 방과후 학교 교사의 담당 아동수 ……229
<표 Ⅴ-53>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담당시간 230
<표 Ⅴ-54>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담당시간에
대한 태도 ……230
<표 Ⅴ-55>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231
<표 Ⅴ-56> 방과후 학교 교사의 강사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 231
<표 Ⅴ-57>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수강료에
대한 태도 ……232
<표 Ⅴ-58>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급식에 대한 태도232
<표 Ⅴ-59>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방과후 활동의
어려움 정도 ……233
<표 Ⅴ-60>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만족도 ……234
<표 Ⅴ-61>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 방안 ……235
<표 Ⅴ-62>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방과후 활동의 효과236
<표 Ⅴ-63>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238
<표 Ⅴ-64> 방과후 활동 담당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239
<표 Ⅴ-65>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 ……243
<표 Ⅴ-66>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 방안 ……251
<표 Ⅴ-67> 방과후 학교 비참여 집단의 성별 분포 ……258
<표 Ⅴ-68>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연령 분포 258
<표 Ⅴ-69>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성적 분포 259
<표 Ⅴ-70>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부모 결혼상태 ·259
<표 Ⅴ-71>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학부모 학력 260

<표 Ⅴ-72>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 학부모의
맞벌이 여부 ·····260
<표 Ⅴ-73>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집단의 경제수준 ·261
<표 Ⅴ-74> 비참여 집단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관련 태도 262
<표 Ⅴ-75>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연령 분포263
<표 Ⅴ-76>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학력 분포 ·263
<표 Ⅴ-77>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결혼상태 ··264
<표 Ⅴ-78>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경제수준 ··264
<표 Ⅴ-79>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월평균
교육비 ·····265
<표 Ⅴ-80>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방과후
학교관련 태도 ·····266
<표 Ⅴ-81>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267
<표 Ⅴ-8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설문 조사 결과 요약267
<표 Ⅴ-83> 방과후 학교 비참여집단 설문 조사 결과 요약 269
<표 Ⅴ-84>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조사대상자의 수 ·····269
<표 Ⅴ-85>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연령분포 ·····270
<표 Ⅴ-86>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지각된 성적분포 ·270
<표 Ⅴ-87>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부모 결혼상태 ·····271
<표 Ⅴ-88>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부모의 맞벌이 여부 ····271
<표 Ⅴ-89>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경제수준 ·····271
<표 Ⅴ-90>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참여기간 ·····272
<표 Ⅴ-91>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272
<표 Ⅴ-92>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알게 된 경위 ·····273
<표 Ⅴ-93>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참여이유 ·····273
<표 Ⅴ-94>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276

<표 Ⅴ-95>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이 자신의 아카데미 참여를 알렸는지 여부 ·····277
<표 Ⅴ-96>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친구들에게 참여를 알리지 않은 이유 ·····277
<표 Ⅴ-97>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아카데미에 대한 전반적 태도 ·····278
<표 Ⅴ-98>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278
<표 Ⅴ-99>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 ·····279
<표 Ⅴ-100> 방과후 아카데미의 지속적 참여의사 ·····279
<표 Ⅴ-101>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향후 불참 이유 ·280
<표 Ⅴ-102>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행동변화에 대한 지각 281
<표 Ⅴ-103>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연령분포 ·····281
<표 Ⅴ-104>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 분포 ·····282
<표 Ⅴ-105>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 결혼상태 ·····282
<표 Ⅴ-106>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학력 ·····283
<표 Ⅴ-107>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 ··283
<표 Ⅴ-108>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 284
<표 Ⅴ-109>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자녀 참여기간 ·284
<표 Ⅴ-110>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285
<표 Ⅴ-111>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알게 된 계기 ·····285
<표 Ⅴ-112>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는 이유 ·····286
<표 Ⅴ-113>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는 주요 이유 ·····286

<표 Ⅴ-114>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아카데미에 대한 태도 ·····287
<표 Ⅴ-115>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정도 ·····287
<표 Ⅴ-116> 방과후 아카데미가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해주기 바라는 부분 ·····288
<표 Ⅴ-117>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자녀참여 의도 ··288
<표 Ⅴ-118>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 ·289
<표 Ⅴ-119>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보낼 의향정도 ·····289
<표 Ⅴ-120>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맡기고 싶은 기관 ·····290
<표 Ⅴ-121>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자녀의 행동 변화지각 ·····291
<표 Ⅴ-122>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292
<표 Ⅴ-123>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성별 분포 ·····292
<표 Ⅴ-124>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학력 ·····293
<표 Ⅴ-125>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직위별 수 ·····293
<표 Ⅴ-126>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연령 ·····294
<표 Ⅴ-127>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아카데미 경력 ··294
<표 Ⅴ-128>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과거 청소년 지도 경력 분포 ·····295
<표 Ⅴ-129>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담당대상 ·····295
<표 Ⅴ-130>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담당 아동수 ·····295
<표 Ⅴ-131>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근무시간 ·····296
<표 Ⅴ-132>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업무수행시간의 적정성 ·····296

<표 Ⅴ-133>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보수 수준에 대한 만족도 ·····297
<표 Ⅴ-134>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운영시간의 적절성 297
<표 Ⅴ-135>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교사생활만족도 ·298
<표 Ⅴ-136>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생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어려움 ·····299
<표 Ⅴ-137>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생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300
<표 Ⅴ-138>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변화정도 ·····301
<표 Ⅴ-139>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생각하는 추진목표 부합도 ·····302
<표 Ⅴ-140> 방과후 아카데미의 문제점 ·····303
<표 Ⅴ-141> 방과후 아카데미의 활성화 방안 ·····314
<표 Ⅴ-142> 방과후 아카데미 집단 설문자 결과 요약 ·322
<표 Ⅴ-143>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성별분포 ·····323
<표 Ⅴ-144>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연령 분포 ·····324
<표 Ⅴ-145>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지각된 성적분포 ····324
<표 Ⅴ-146>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부모 결혼상태 ·····325
<표 Ⅴ-147>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학부모 학력 ·····325
<표 Ⅴ-148> 지역아동센터 학생부모의 맞벌이 여부 ····325
<표 Ⅴ-149>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경제수준 ·····326
<표 Ⅴ-150>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참여기간 ·····326
<표 Ⅴ-151>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된 경위 ·····327
<표 Ⅴ-152>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참여이유 ·····327
<표 Ⅴ-153>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 328
<표 Ⅴ-154>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참여 만족도 ·····328

<표 Ⅴ-155>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요구 ·····329
<표 Ⅴ-156>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향후 참여 의사 ·····329
<표 Ⅴ-157>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학교친구들에게
참여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329
<표 Ⅴ-158>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을 알리지 않은 이유 ·····330
<표 Ⅴ-159>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태도 ·····331
<표 Ⅴ-160> 지역아동센터 학생이 스스로 지각한 행동변화 332
<표 Ⅴ-161>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분포 ·····333
<표 Ⅴ-162>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연령분포 ·····333
<표 Ⅴ-163>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결혼상태 ·····333
<표 Ⅴ-164>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학력 분포 ·····334
<표 Ⅴ-165>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 ····334
<표 Ⅴ-166>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소득수준 ·····335
<표 Ⅴ-167>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자녀 참여기간 ····335
<표 Ⅴ-168>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된 경위 ·····336
<표 Ⅴ-169>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자녀의 참여 계기 ··336
<표 Ⅴ-170>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337
<표 Ⅴ-171>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자녀참여 이유 ····337
<표 Ⅴ-172>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자녀를 맡기기
원하는 기관 ·····338
<표 Ⅴ-173>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만족도 338
<표 Ⅴ-174>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생각하는 도움 정도 339
<표 Ⅴ-175>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요구 ·····340
<표 Ⅴ-176>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참여의지 ·····340
<표 Ⅴ-177>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동기 341

<표 Ⅴ-178>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행동변화정도 ……342
<표 Ⅴ-179>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추진목표 부합도 ……343
<표 Ⅴ-180>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성별 분포 ……343
<표 Ⅴ-181>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연령 분포 ……344
<표 Ⅴ-182>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학력 ……344
<표 Ⅴ-183>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주요 역할 ……345
<표 Ⅴ-184>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경력 ……345
<표 Ⅴ-185>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담당 아동수 ……346
<표 Ⅴ-186>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근무시간 ……346
<표 Ⅴ-187>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태도 ….347
<표 Ⅴ- 188>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347
<표 Ⅴ- 189> 지역아동센터 교사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도 ……348
<표 Ⅴ- 190>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담당아동 수 ……348
<표 Ⅴ- 191>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운영상의 어려움 ‥349
<표 Ⅴ- 192>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교사생활 만족도 ……350
<표 Ⅴ- 193>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 ……351
<표 Ⅴ-194>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352
<표 Ⅴ-195>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학생들의 행동변화 정도 ……353
<표 Ⅴ-196>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추진목표 부합도 ‥354
<표 Ⅴ-197>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 ……355
<표 Ⅴ-198>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 ……361
<표 Ⅴ-199> 지역아동센터 집단 설문조사 결과 요약 ‥366
<표 Ⅴ-200> 집단별 학생들의 행동변화 지각 정도 ……369
<표 Ⅴ-201> 집단별 학부모의 목표추진 부합도 인식차이 ·371

<표 Ⅴ-202> 집단별 교사들의 목표추진 부합도 인식차이 ·372
<표 Ⅴ-203> 집단별 교사들의 학생 행동변화 지각 차이 ··373
<표 Ⅴ-204> 집단별 교사들의 방과후 활동 운영상의 어려움 374
<표 Ⅴ-205> 집단별 교사들의 방과후 활성화 방안 ·····375
<표 Ⅵ-1> 청소년 방과후 활동 분야별 정책 방안 추진 계획 ··401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9
[그림 II-1] 청소년 생활과 청소년 개발의 지표 ·····18
[그림 II-2] 방과후 활동의 의미 ·····19
[그림 II-3] 방과후 활동에 따른 변화과정 ·····20
[그림 II-4] 방과후 활동에 대한 기대 ·····25
[그림 Ⅳ-1]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체계 ·····128
[그림 Ⅵ-1] NAA 프로그램 개선과 인증 절차 단계 ·····39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대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확대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2005년 46개소에서 2006년 100개소로 두 배 가량 확대하였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그 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좋은 학교만들기라는 기치 하에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재원 확충은 물론 방과후 활동을 핵심 교육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소규모 공부방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인정되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밖에도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목적과 맞물려 체계적인 방과후 보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방과후 활동이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의 기조와 방과후 활동의 운영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여성인력의 경제 참여율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방과후 활동이 청소년 문제와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정책적인 관심과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듯 정부의 적극적 관심에 힘입어 국내에서 방과후 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부처별 방과후 활동 정책이 본래 목적한 바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방과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와 기관 운영자들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추진 방향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고 향후 방과후 활동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문헌을 살펴보면, 방과후 활동 유형별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다룬 토론회가 몇 차례 개최된 바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경상북도, 2006; 김현미 외, 2005;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2003). 또한 방과후 활동 운영을 다룬 문헌 연구 및 실증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기도 하였다(강무섭, 1997; 김수동·김정주, 2004; 김영호, 2006; 김희화, 2003; 맹영임 외, 2005). 이 연구에서도 방과후 활동 유형별 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방과후 아카데미나 방과후 보육시설 등 방과후 활동의 특정 유형에 한정하여 그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관점으로 방과후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도 방과후 활동 유형 전반을 모두 검토할 수 없기에 통합적인 관점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중심을 두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각 부처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들이 정책 도입 시 목적한 바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각 정부 부처에서 제시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대한 성취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방과후 활동이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사교육 기회 격차로 인한 학력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등의 도입 목적에 어느 정도나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방과후 활동 수요자들이 각종 방과후 활동 유형별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수요자들의 방과후 활동의 욕구가 어떠한지도 분석해 볼 것이다.

둘째, 앞으로 방과후 활동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방과후 활동 정책의 도입 배경은 외국과 달리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방과후 활동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단지 소외계층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향후 일반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방과후 활동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일반 청소년 모두에게 의미있는 활동으로 전개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다룬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활동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방과후 활동에 대한 혼란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방과후 활동이 청소년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연구 문헌을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과후 활동의 기대효과, 방과후 청소년의 세계에 대하여 선행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 국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현황

현재 각 정부 부처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서 방과후 활동 유형별로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을 정리하였고, 유형별 우수 운영 사례를 선정하여 향후 운영 방향의 함의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유형별 방과후 활동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사례 분석

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사례 중에서 향후 우리나라 방과후 활동 운영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국가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국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을 특별 선정하여 방과후 활동의 정책 방향,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과후 활동에 주는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4)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조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 즉,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심층 면접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학생, 학부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의견 즉, 방과후 활동 참여 여부, 만족도, 도입 목적과의 부합도,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5)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국내 방과후 활동의 유형별 운영 실태와 국외 방과후 활동 사례 분석, 그리고 방과후 학교 관련자-학생, 학부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문헌 연구

선행 연구 문헌을 통해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의 개념과 그 의미, 기대 효과, 방과후 실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 문헌과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방과후 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형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유형별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3) 심층 면접

학생, 학부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문헌연구에서 자세하게 발견하지 못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특성 및 문제점, 프로그램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분석할 내용을 추출하였다.

4) 설문 조사

방과후 활동 유형 중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학부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방과후 활동의 현황, 교육적 요구, 활동의 효과와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방과후 활동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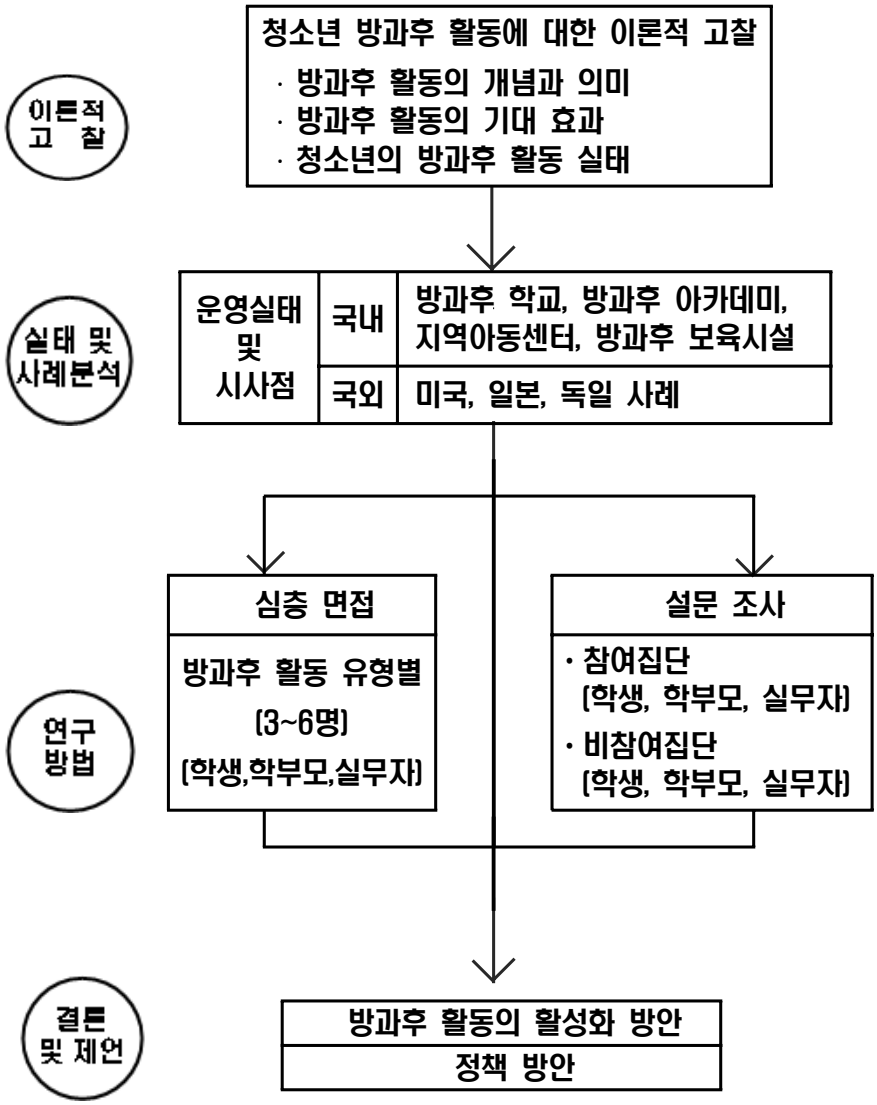
5) 정책 협의회 개최

연구진들이 위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방과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정책 실무자 및 정책전문가와 그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방안인지를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전반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방과후 활동 중에서도 공적시스템 운영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의 제한점이 있다. 즉,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시설 등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정부 지원 계획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와 면접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연구의 흐름도】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Ⅱ.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개념
2.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과 그 의미
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기대 효과
4.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실태

Ⅱ.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개념

방과후 활동은 그 개념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0: 121). 예컨대, 방과후 활동은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간대의 측면과 활동 내용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 정의를 각각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방과후' 라는 용어에는 시기적으로 학교교육이 진행된 시간 이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이 실시되기 이전 즉, '방과전(before-school)' 에 실시하는 보육이나 각종 교육 활동,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도 포함시키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된다(박영미, 2005: 111). 또한 활동 시기에 따라 방학(vacation school), 주말 프로그램(weekend school)도 방과후와는 별도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재인 외, 2002). 그러나 '방과후' 라는 용어가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학교교육 이전 즉, 방과전(before-school)에 수행되는 활동 시간이 극히 짧을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활동 내용도 보육이나 학습 등 극히 제한적인 활동에 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after-school), 학교 시간외 활동(out of school time), 방과후 확장 학교(after extension school) 등의 용어를 기관의 운영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방과후 활동(after-school program)이라는 용어가 연방정부나 주정부 단위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시기적으로 방과후(after-school)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학교 정규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 뿐 아니라 휴무 토요일, 공휴일 등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을 포함한 시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활동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과후 활동은 넓은 의미

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활동을 포함한다. 즉,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규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활동과 지원이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방과후 활동의 의미를 규정하면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사교육이나 비형식적인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 방과후 활동은 가정에서 제공하는 사교육 활동을 제외한 학교나 지역사회, 국가가 방과후에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맹영임 외, 2005: 13). 그 밖에 방과후 활동을 중도적인 의미로도 개념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 정의 단계에서 먼저 방과후 활동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과후 활동에 대한 도입 취지와 그 의미가 강조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 정의를 올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맹영임 외(2005)의 연구에서는 방과후 활동의 공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좁은 의미로 방과후 활동을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방과후 활동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명확한 개념 구분이 가능하려면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편이 옳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시기적으로는 학교 정규교과시간 이후나 주말, 계절별 방학과 학교수업이 없는 날을 포함하며, 내용적으로는 사교육을 제외하고 공적인 지원을 받는 학교나 지역사회,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적·조직적인 활동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 활동의 범주로 학교 수업 이후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방과후 활동 관련 사업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과 그 의미

앞서 방과후 활동의 개념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은 학교교육 과정과는 다른 차원인 동시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만약 단지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방과후 활동이 진행된다면 방과후 활동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표 II-1> 바람직한 발달의 조건

긍정적 상황	특 성	위험 상황
• 신체적으로 안전한 공간 • 편안함을 느낌	신체적· 심리적안전	• 신체적 또는 건강상의 위험 • 시달리거나 위협받을 걱정을 함
• 규칙과 활동이 또래나 어른에 대한 성숙한 관점에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관리됨	적절한 구조	• 규칙이나 활동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며,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음
• 프로그램에서 친구가 있으며, 스스로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낌	지원적인 관계	• 프로그램에서 친구가 없거나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함
• 여러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받음 • 직원은 배타적 행동(누군가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줌	소속감의 기회	• 패거리를 짓거나 제대로 지도받지 못함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에서 배제당하는 경험을 함
• 직원은 높은 기대감을 갖고 격려하며 긍정적 행동의 모델이 됨	긍정적인 사회규범	• 지도자가 부정적 행동을 허용하고 방치함
• 프로그램이 도전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흥미와 능력에 기초함 • 향상 정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됨	유효성	• 아동과 청소년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음 • 활동이 도전적이지 못함 • 다른 사람과 비교됨
• 적절한 기술을 배움 • 지도자가 기량을 형성할 기회를 찾도록 도움 • 계속 기량을 형성해감	기량형성의 기회	•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지 못함 • 계속 기량을 쌓아나갈 수 없음
• 부모와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함	가정-학교-사회의 통합	• 부모, 프로그램, 학교간의 의사소통이 없음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2000);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2001).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방과후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방과후 활동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 Ⅱ-1>은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발달 조건 즉, 긍정적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활동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체적,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소속감, 긍정적인 규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이 필요하다. 만약 긍정적인 상황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상황 즉, 신체적 건강상의 위험, 지원 결핍, 배제 경험, 부정적 행동 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학교교육 이후에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로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청소년 방과후 활동 중 보육 중심의 사업이나 학습지원 중심 사업을 제외한 가장 광범위한 사업의 토대가 되고 있는 청소년개발론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청소년개발론의 관점은 미국의 방과후 활동은 물론, 영국의 ConneXion 정책과 그에 따른 방과후 사업의 확대 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Pittman 등에 의해 정립되어 온 청소년개발론에서 '청소년개발 (Youth Development)'은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능력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에게 지원(support)과 관계(relationships), 그리고 기회(opportunities) 등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촉진하는 의도적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청소년개발은 가족, 또래 집단, 학교,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청소년개발을 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사회적·도덕적·정서적·신체적·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research-based) 것이다. 청소년개발을 함으로써 일련의 통합적(coordinated) 진보적 체험(experiences)을 제공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Pittman,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은 청소년개발의 핵심 사업 영역이 된다. 즉, 청소

년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은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여건에 따라),
- 지원과(청소년의 성장과 자기계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 관계 형성(세대간 만남과 다양한 삶의 경험)이 가능한 기회를 갖고
- 그것을 실현해가도록(자발적 활동)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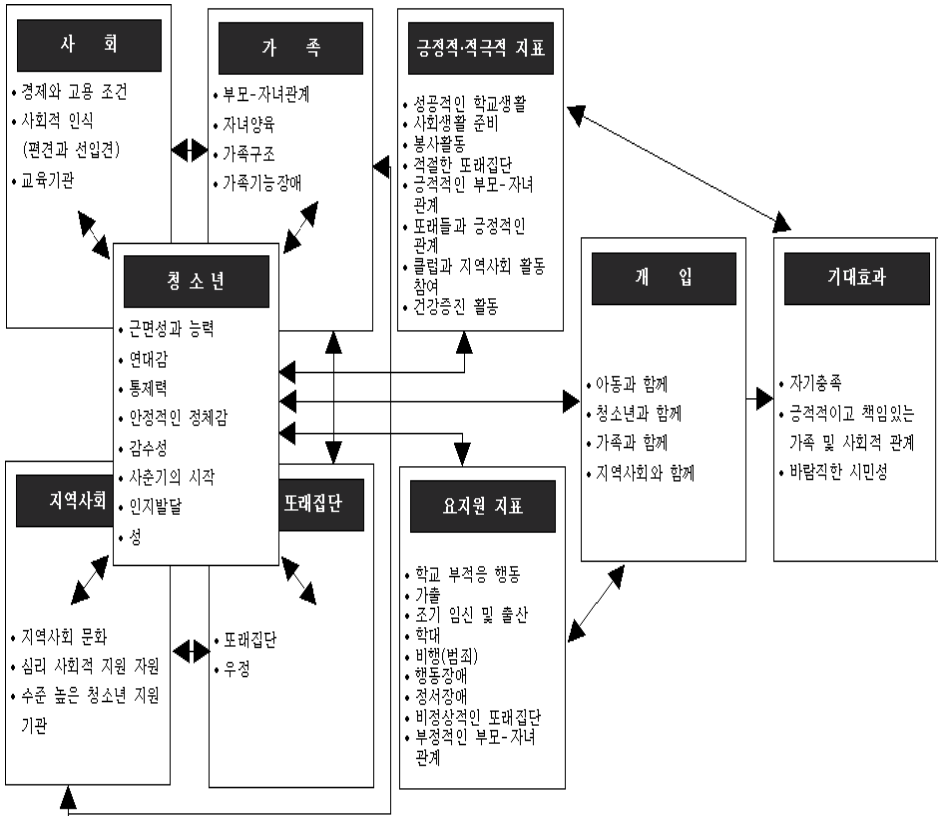
단, 학교교육 이외에 청소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 적용되는 사업을 의미하게 된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고 또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정향(orientation)의 확인과 이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의 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활동의 취지에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의미 확인과 함께 정책적 관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청소년의 성공적 성장과 이행이라는 정책 기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위 목표들이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해 대사회적인 설득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일반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세계의 목표'로서 제시하고([그림 Ⅱ-1] 참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로서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과 청소년 자신으로부터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청소년의 일상에 다가서지 않고 실제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청소년정책은 무의미하다. 청소년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고, 청소년정책의 '브랜드화'를 통해 의도적으로라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 확인과 새로운 가능성 창출이 중요한 정책 과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정책 일선에서는 절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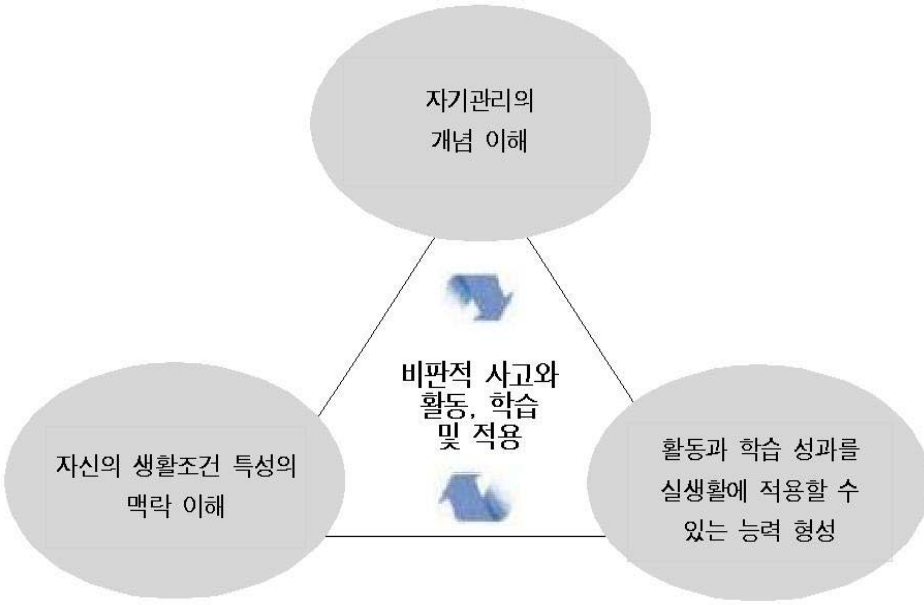
자료: Family and Youh Services Bureau by CSR, Incorporated(1997). p. 3.

[그림 II-1] 청소년 생활과 청소년 개발의 지표

이러한 청소년개발의 관점 외에도 방과후 활동의 의미는 영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영국의 정책개발 평가기관인 FPM은 방과후 활동은 전체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활동, 그리고 학습 및 적용을 위한 활동의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의 개념 이해, 자신의 생활조건 특성의 맥락 이해, 그리고 활동과 학습 성과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FPM, 2004).

방과후 활동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Ⅱ-2] 와 같은 전제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참가자 자신의 바람직한 실행 사례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원과의 연계와 그것을 통한 학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과 활동한다는 것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신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정책과 청소년 발달뿐만 아니라 청소년 생활의 저변에서 나타나는 폭넓은 경향과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현장에 적용가능한 전략과 계획을 통해 청소년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의 개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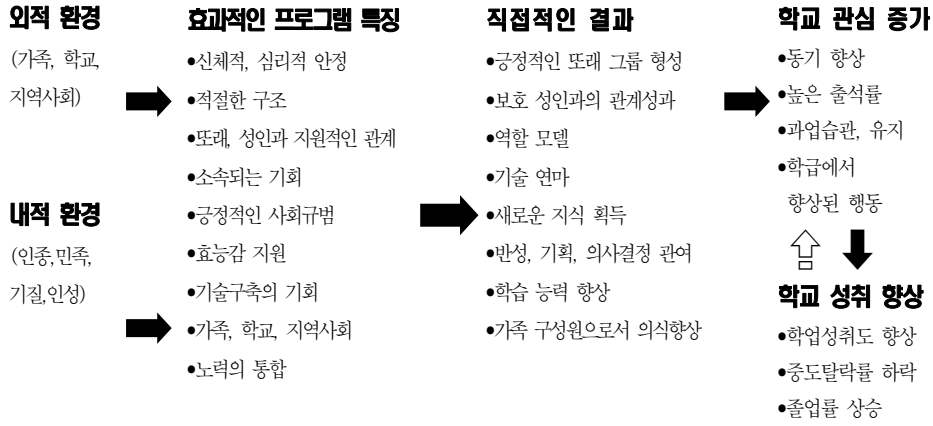


자료: FPM(2004). Managing Extended Schools (Leicester: FPM). p. 3.

[그림 II-2] 방과후 활동의 의미(비판적 사고와 활동, 학습 및 적용)

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기대 효과

외국의 방과후 활동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방과후 활동에 따른 효과가 경험적 연구 결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NMEF (Nellie Mae Education Foundation)에서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연구 결과로서 방과후 활동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난 변화 과정을 보면 다음의 [그림 Ⅱ-3]과 같다(Miller, 2003).



[그림 II-3] 방과후 활동에 따른 변화 과정

[그림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변화의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에 대한 관심과 학교 성취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NMEF에서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참여 효과가 있음을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Miller, 2003). 첫째, 가족 이외의 성인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획득한다. 둘째,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할 수 있

는 활동에 관여한다. 셋째, 반성, 기획, 의사결정, 문제해결력에 관여한다. 넷째, 긍정적인 열정을 가진 또래 집단과 연결된다. 다섯째,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의 주류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화와 학교 문화 간의 경계선을 찾게 된다. 여섯째, 학교중심의 프로그램에서 긍정적 경험을 함으로써 좀 더 학교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곱째, 학습자라는 자신에 대한 감정이 증가한다. 여덟째, 자신의 삶에서 가정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증가한다. 요컨대, 방과후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이 증가하며, 학술적인 성취가 증가한다.

위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질 높은 프로그램과 막대한 자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첫째, 방과후 활동이 공적 서비스로서 지원체계를 갖추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수의 필요성에 접근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비용상 큰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저렴한 비용은 물론,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사교육 시장에 집착하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 · 실행 · 관리 능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질 때, 얻게 될 방과후 활동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해 증가되는 홀로 방치되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여성인력의 경제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차원

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공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혼 등 가정 해체 가속화로 인한 가족의 양육기능과 청소년 생활환경이 취약해지는 추세에 대비한 사회적 양육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가족기능의 취약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방과후 활동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 성장 기회의 제한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보충적 서비스의 의미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가족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방과후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수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 규모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대부분의 가구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비용 부담과 교육격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교육 내적인 측면의 대책은 물론 학교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방과후 활동과 같은 공적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효과 외에도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할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장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즉 청소년의 실제 생활에 유의미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청소년개발의 관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Pittman, 2002).

- 안정적인 장소(Stable Places)
- 기본적 관심과 보살핌(Basic Care and Services)
- 또래 및 성인과의 건전한 관계
  (Healthy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Adults)
- 높은 기대와 기준(High Expectations and Standards)
- 역할 모델, 자원과 네트워크
  (Role Model, Resources and Ne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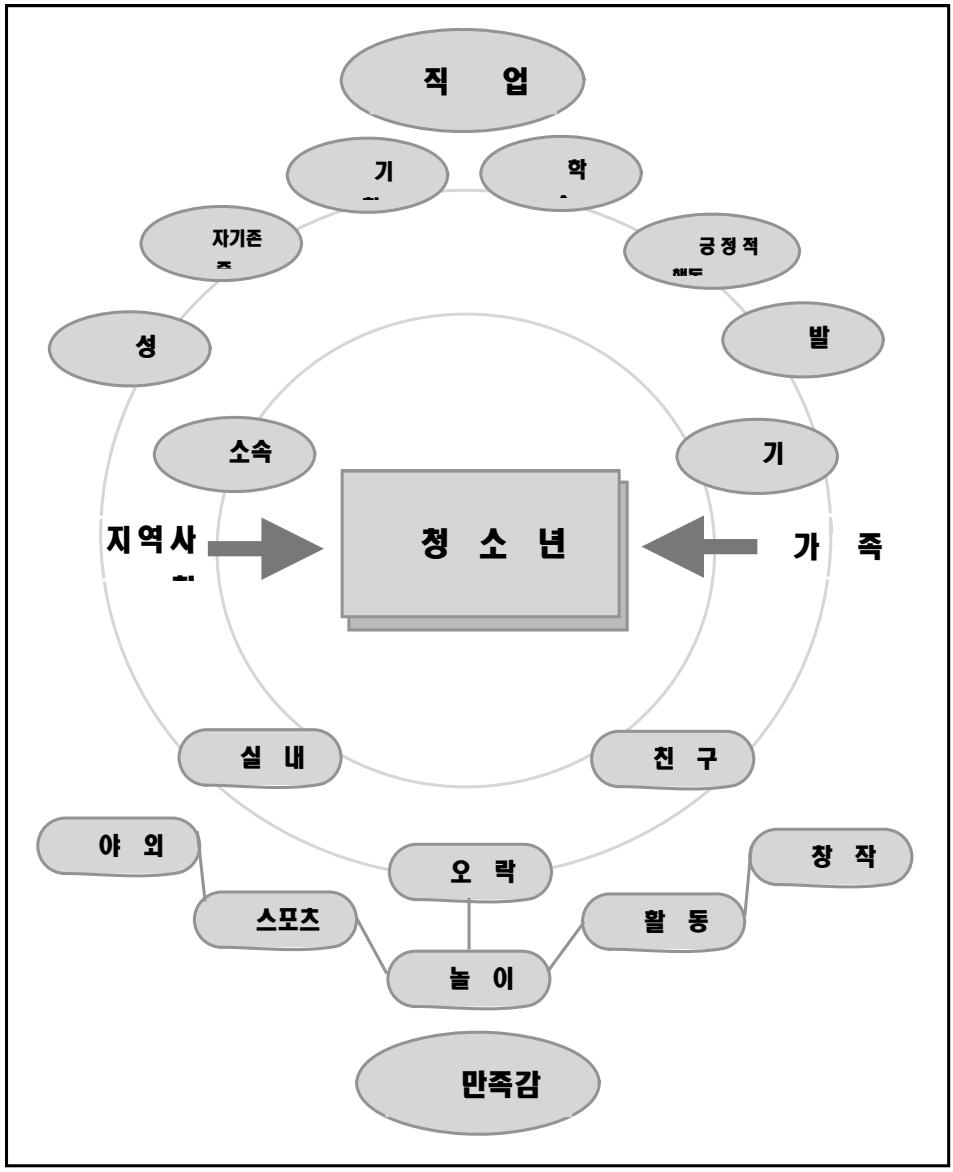
- 참여와 기여를 위한 도전적인 경험과 기회(Challenging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and Contribute)
- 양질의 학습과 훈련(High Quality Instruction and Training)

청소년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반 위에서 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어 성공적인 이행(transition)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ittman, 2002).

- 신뢰감(Confidence)
  - 자기존중(Self-Worth)
  - 숙달과 장래성(Mastery & Future)
- 인성(Character)
  - 책임감(Responsibility)
  - 영성(Spirituality)
- 연계(Connection)
  - 안전과 체계(Safety & Structure)
  - 소속감과 귀속감(Membership & Belonging)
- 능력(Competence)
  - 시민적 · 사회적 능력(Civic & Social)
  - 문화적 능력(Cultural)
  - 신체건강(Physical Health)
  - 정신건강(Emotional Health)
  - 지적능력(Intellectual)
  - 직업능력(Vocational)
- 사회적 기여(Contribution)
  - 참여(Participation)
  - 권한(Power)

청소년들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노력과 자원의 확보 및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학교에 있건 학교 밖에 있건 간에 청소년들은 항시적인 서비스(services), 지원(supports)과 기회(opportunities)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적절하고 편안하며 가능하면 개별적인 기본적 관심과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만으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장하고 성인기로 이행하거나 문제로부터 보호될 수 없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십대들은 자신들을 지도해주고, 기대어 얘기하고 싶은 성인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자극을 주는 가정, 학교, 청소년시설, 단체, 작업장, 공원 등의 장소를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은 지식과 기술을 쌓고 활동과 봉사 또는 진전된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로 도전적인 활동과 교육을 통해 실현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공백을 없애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더 바람직한 상태에 대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Pittman, 2002).

다른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영국의 방과후 활동 관점에서도 그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정한 활동의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통한 기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영역은 청소년들의 실생활 영역에 청소년 개인의 실질적 욕구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Scottish Executive, 2003: 19).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욕구와 부합되는 다양한 활동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Scottish Executive(2003). *School's Out: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Out-of-school Care*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p. 19.

[그림 II-4] 방과후 활동에 대한 기대(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4.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실태

주5일제 수업이 확대 실시되면서 청소년들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선택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라이프스타일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생활 변화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추정된다(우룡, 2002). 첫째, 청소년의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둘째,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이 증대된다면 방과후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몇 몇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방과후 생활 모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국가청소년위원회(2000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무 토요일에 비교육적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이 51%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지적한다.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실태를 조사한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김희화, 2003), 청소년들은 방과후에도 학원공부(1일 3시간 이상 34.8 %)나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의 조사 결과에서도 방과후에 여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답한 학생이 19.5%, 1시간 미만이 46.2%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외, 2000).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현 실정과 활동 요구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생활 및 여가 욕구 중에서 잠자는 시간(46.4%), 친구만나는 시간(20.8%), 오락취미 놀이 시간(12.2 %)을 늘려주는 반면에 학교 공부시간(74.9%), 과외 및 자습시간(7.7%) 등을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다(우룡, 2002: 64에서 재인용).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동아리 활동(37.1%), 놀기(25.7%) 순으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원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김진희 외, 2000).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은 예술관련 활동(36.3%), 컴퓨터 관련 활동(24.9%), 스포츠 관련 활동(14.9%), 취미(9.6%), 독서(4.5%) 순이었다.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시간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데 저해 요인 중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바람직한 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김진희 외, 2000). 또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시간 부족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재 청소년 방과후 활동은 운영이 저조한 실정이며, 제공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조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청소년들은 방과후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주로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는 스포츠(66%), 특별활동(62%), 자원봉사(60%), 신앙 생활(54%), 예술 활동(52%) 순으로 나타났다(Yahalem et al., 2005 : 4에서 재인용). 즉,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각종 방과후 활동에 한 가지 이상씩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방과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가? 그 답변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풍토에서 학교급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부담이 더 커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가 시간이 과외활동이나 사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일까? 이러한 현실 상황 때문에라도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활동은 더 소중한 의미를 지니며, 방과후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방과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고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단순 암기 위주의 지식에서 탈피하여 체험학습, 자기주도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방과후 활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자 측면에서 방과후 활동 정책의 변화를 알고, 그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알게 될 때,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방과후 활동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국내외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Ⅲ. 국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

1. 방과후 학교의 운영 실태
2.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태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
4. 방과후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

Ⅲ. 국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

1. 방과후 학교의 운영 실태[1)]

1) 추진 배경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으로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을 제안하였다. 이후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보충수업 등의 형태로 방과후 교육활동이 운영되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했고, 초·중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04년 대통령은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의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5년 초·중·고 48개교에서 방과후 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2006년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대신하는 '방과후 학교'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 학습(고교)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지칭하게 되었다.

방과후 학교가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부터 변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장 중심, 현직교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육장소가 본교시설 위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운영주체의 개방성이 확대되었고,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지도 강사가 다양화되었다. 또한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의 교육대상이 본교 재학생에 국한되어 있던 것과 달리, 타교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의 활용으로 극대화되었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1) 이 자료는 방과후 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에서 김홍원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방과후 학교는 소외계층의 집중적 지원과 보살핌, 청소년 보호·선도를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의 경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한 평생학습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통해 5년 안에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2) 방과후 학교 운영 실태[2)]

(1) 방과후 학교 실시 학교 및 참여 학생 비율 현황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비율을 보면, <표 Ⅲ-1>과 같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98.4%, 고등학교의 97.6%(인문계고 99.2%, 실업계고 94.2%), 전체적으로는 98.9%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의 36.4%, 중학생의 28.9%, 고등학생의 72.2%(일반계고 82.2%, 실업계고 45.0%), 전체적으로는 42.6%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학생 중에서 중학생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고, 일반계고는 대학진학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 방과후 학교 실시학교 및 참여 학생 비율 현황

참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일반계	실업계	계	
참여학교 비율	99.6	98.4	99.2	94.2	97.6	98.9
참여학생 비율	36.4	28.9	82.2	45.0	72.2	42.6
총 학교수	5,728	3,007	1,456	686	2,142	10,877
총 학생수	3,861,157	2,046,671	1,290,961	473,958	1,764,919	7,642,747

2) 본 통계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것임. 이 자료는 계속 수정·보완 중에 있음.

(2)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

① 특기적성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참여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의 36.4%, 중학생의 15.2%, 고등학생의 25.0%(인문계고 7.0%, 실업계고 23.7%), 전체적으로는 25.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급별 프로그램 수를 보면(프로그램 수/운영학교 수), 초등학교는 학교당 평균 8.9개, 중학교는 6개, 고등학교 6.5개(일반계고 5.5개, 실업계고 7.8개)로 나타났다. 참여강사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직교사가 37.5%, 외부강사가 62.5% 참여하고 있고, 현직교사 중 무급이 2.7%, 외부강사 중 무급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5,500명 정도의 외부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② 교과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참여현황을 보면, 중학생 15.8%, 인문계고 103.5%, 실업계고 25.9%, 전체적으로는 47.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급별 프로그램 수를 보면, 학교당 중학교는 5.8개, 고등학교 21.6개(일반계고 26.3개, 실업계고 8.5개)로 나타났다. 참여강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직교사가 95.6%, 외부강사가 0.4% 참여하고, 현직교사 중 무급이 2.0%, 외부강사 중 무급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618명의 외부강사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교육이 강조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외부강사의 참여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과프로그램 참여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2.0%, 중학생 1.4%, 인문계고 0.6%, 실업계고 1.0%, 전체적으로는 1.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급별 프로그램 수를 보면, 학교당 초등학교는 3.0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6개(일반계고 1.5개, 실업계고 1.9

개)로 나타났다. 참여강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직교사가 39.6%, 외부강사가 60.4% 참여하고, 현직교사 중 무급이 44.1%, 외부강사 중 무급이 29.9%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947명의 외부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3)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학교급별로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수를 제시하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선호되고, 중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국어 등 교과 프로그램의 선호도가 높고, 음악과 체육 역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는 영어, 수학, 국어 등 교과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선호되었으며, 실업계고에서는 컴퓨터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표 III-2 > 방과후 학교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수

학교급		국어 관련	사회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중국어	일어	컴퓨터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체육 관련	기타	계
초등	계	3,863	81	2,393	3,536	4,718	925	191	9,186	7,922	7,159	5,169	4,757	49,998
	비율	7.7	0.2	4.8	7.1	9.4	1.9	0.4	18.4	15.8	14.3	10.3	9.5	100.0
중	계	3,210	1,436	3,746	2,175	4,643	862	1,220	1,836	3,065	1,414	3,281	2,897	29,785
	비율	10.8	4.8	12.6	7.3	15.6	2.9	4.1	6.2	10.3	4.7	11.0	9.7	100.0
일반계	계	7,288	7,357	7,216	6,382	7,058	159	304	314	463	412	610	884	38447
	비율	19.0	19.1	18.8	16.6	18.4	0.4	0.8	0.8	1.2	1.1	1.6	2.3	100.0
실업계	계	933	302	961	237	1134	52	142	2,074	295	201	356	0	1,420
	비율	65.7	21.3	67.7	16.7	79.9	3.7	10.9	146.1	20.8	14.2	25.1	0.0	100.0

* 특기적성, 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교과와 관련하여 작성함.
* 논술관련은 국어관련, 수학탐구는 수학관련, 스포츠댄스는 체육관련에 포함됨.

(4) 외부위탁 프로그램

외부위탁 프로그램은 강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대학 등 비영리 단체와 위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영역에서 위탁프로그램 수가 많았다. 중학교에는 음악, 영어, 체육 영역에서 위탁 프로그램 수가 많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위탁 프로그램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방과후 학교에서의 외부위탁 프로그램 수

학교급	국어 관련	사회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중국어	일어	컴퓨터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체육 관련	기타	계
초등	108	3	51	102	161	32	4	685	231	170	260	213	2,020
중	54	11	85	31	115	25	40	60	115	54	103	178	871
일반계	35	18	39	21	38	5	9	3	15	11	23	42	259
실업계	7	2	15	2	10	1	1	5	11	9	9	24	96

(5) 외부기관의 인력지원 현황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외부 기관의 강사 수를 분석하면,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2,83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은 지자체(1,007명), 군(447명), 기업(365명), 퇴직교원(228명), 경찰(92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 외부기관의 인력지원 현황

구분	지자체		일반기업		대학			군부대		경찰		퇴직교원		기타		계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학교수	교수	대학생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초등	388	741	120	225	197	43	1,064	84	323	52	71	133	172	466	1,416	5,495
중등	77	161	20	84	191	62	1,423	32	110	12	19	45	46	250	780	3,312
고등	22	105	22	56	66	55	188	2	14	3	2	6	10	82	324	957
계	487	1,007	162	365	454	160	2,675	118	447	67	92	184	228	798	2,520	9,764

(6) 학생 1인 당 월평균 수강 강좌 수 및 부담액

학생 1인 당 월평균 수강 강좌 수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2.1개, 일반계고 4.7개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수강료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초등학교 약 20,800원, 중학교 약 19,800원, 고등학교 약 28,300원 수준이었다.

<표 III-5> 학생 1인 당 월평균 수강 강좌 수 및 부담액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평균
수강 강좌수	1.5	2.1	4.7	2.7
월 평균 부담액	20,819	19,785	28,274	24,708

* 1인당 강좌 수 : 총 신청 강좌 수(중복계산) / 신청학생 수
* 1인당 부담액 : 유료전체 부담액 / 수익자 부담을 하는 학생 수
(무료 프로그램 제외)

(7) 저소득층 학생 수 및 지원자 수

방과후 학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학생 및 차상위 계층 중 급식학생은 전체적으로 약 452,000명이고, 이 중 지원학생 수는 약 210,000명으로 4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6> 저소득층 학생 수 및 방과후 학교 지원학생 수

구분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계
기초생활 수급자	115,342	86,965	53,861	10,604	266,772	62,144	38,432	38,200	2,621	141,397
차상위계 층급식자	80,791	51,252	44,611	9,377	186,031	33,481	17,182	17,819	897	69,379
계	196,133	138,757	98,472	19,981	452,803	95,625	55,614	56,019	3,518	210,776

(8) 저소득층 대상 대학생 멘토링 현황

2006년 6월 현재 대학생 멘토링을 받는 학생 수는 9,557명이며, 3,654명의 대학생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표 III-7> 저소득층 대상 대학생 멘토링 현황

구분	참여 학생 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곤란자)	참여 대학생 수
계	5,729	4,278	3,654

(9)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2006년 상반기 국가수준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개별 학교의 여건, 열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여부, 학교급 등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사와 해석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구·시범학교가 되는 경우,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이 많고 학교와 교사가 많은 열정을 기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일반학교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몇 가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2004)은,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해 고등학생의 39.9%가 '만족', 60.1%가 ' 불만족 '으로 응답하였고, 학부모는 56.1%가 ' 만족 ', 43.9%가 ' 불만족 '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 38.8%가 '만족', 51.2% '보통', 10.0%가 '불만'이라고 각각 응답하였다. 2006년 3월부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S중학교의 경우, 39.0%, 46.3%, 14.7%의 학생이 각각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응답하였다. 올 상반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별로 조사 대상수를 할당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각각 74.5%, 58.3%, 48.8%가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에는 각각 22.3%, 32.5%, 37.5%가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의 각각 71.4%, 61.5%, 54.8%가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에는 각각 25.8%, 32.5%, 34.0%가 응답하였다(김홍원, 2006: 19에서 재인용).

3) 방과후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방과후 학교는 기존에 수행되던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롭게 운영되는 체제이며, 2005년 처음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방과후 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측면

첫째,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의 선택권이 축소되어 있고, 수요자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지 않다.

둘째, 사교육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건이 되면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려고 한다. 실제로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다시 사교육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학기별, 학년별로 교육프로그램의 계열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일정한 내용 영역에서 보충, 심화 학습을 심도 있게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부모의 귀가 때까지 연장하고,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으나, 아직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학교시설 등의 준비가 부족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제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 및 피드백, 학교나 교육청, 국가에서 수행하는 평가 및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수요자의 요구가 정확히 조사, 분석, 피드백되지 않고 있다.

(2) 교원 측면

첫째, 방과후 학교의 성격과 필요성, 방과후 학교 실천에 대한 일반적 교원들의 열의가 부족하여, 방과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학교현장에서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다.

둘째, 학교행정업무 담당교원의 동기와 적극성이 미흡하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동기가 미흡하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교감, 교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학교경영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학교장의 관심과 태도는 방과후 학교가 내실화,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 관심이 적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 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방과후 학교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편리를 생각하기보다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가능한 한 먼저 생각하고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강좌의 존속이 결정되고, 강사료 등도 차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참여하는 교·강사들이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강좌와 강사를 선택하는 기회가 제한되고, 수업의 질도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농산어촌의 경우, 유능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적 자원풀 구성, 강사료 현실화(교통비 지급 등),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유능한 외부강사를 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3) 학부모 측면

방과후 학교는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 격차 해소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면 굳이 방과후 학교를 통하지 않고 기존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이나 방과후 교실 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아직도 학부모들은 방과후 학교는 가격이 싸고, 질적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저소득층 대상에 맞출 경우 학생들이 참여를 꺼려하여 실패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학부모가 방과후 학교에 바라는 것이 학습 지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다보면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방과후 학교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4) 지역사회 측면

첫째,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덜 갖춰져 있고, 학교의 개방적, 능동적 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학교에서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 제반 여러 가지 업무를 전담하여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이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건과 인력, 담당부서의 적극적 태도 등이 부족하여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개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조직(지자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 관련 조직, 복지관과 같은 제반 시설 등)과 밀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5) 국가 지원 측면

첫째, 방과후 학교가 효율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실, 설비, 자료 등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교실, 설비, 자료 등에서 부족함이 많다.

둘째,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 이동에 대한 교통수단이 미흡하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성공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학교와 집, 학교와 학교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이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치 못하다.

셋째,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선정 및 지원, EBS 수능 및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하드웨어 지원,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수강료 감면 등을 통해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자세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이 부족하다.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 학교와의 차이, 방과후 학교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원들도 많다. 또한 방과후 학교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여기는 교원들도 있다.

4) 방과후 학교 운영 사례

□ 강원도 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우수 사례[3)]

강원도는 약 75%의 학교가 농산어촌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환경 및 지역내 기초 기반 여건이 취약하며, 소규모 학교의 우수강사 확보 및 지역내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고, 위탁 운영기관(단체)이 부족하여 현직교원의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이 가장 취약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학교 간 연계 운영 강화, 학생의 발현기회 확대, 지원예산 확충, 운영 도움자료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학교 강사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3) 이 방과후 학교 운영 사례는 교육인적자원부(2006b)에서 펴낸 “누구나 방과후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이라는 사례집에서 발췌한 것임.

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협동 ‘두레 방과후학교’ 운영, 군장병(가족)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푸른교실’ 운영, 초등보육프로그램 ‘행복 찾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사이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① 목적 : ‘사이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강원도 지역의 벽지 및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 요구충족을 목적으로 함.

② 내용 : 지역특수성 및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동영상 웹자료 제작 및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1차적으로 총 10개 강좌(리코더, 그리기, 서예, 단소, 탁구, 영어연극, 사물놀이, 자수공예, 음악줄넘기, 종이공예)를 개발하여 3개 군지역 소규모학교에 시범·적용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전 지역 학교 지원을 위하여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고 별도 프로그램운영 사이트 개설을 추진함.

③ 효과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가능, 참여학생 증대, 무료수강 지원확대, 현직교원의 업무 경감, 소수희망 프로그램 개설 등 소규모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 교원 및 학부모의 자율연수 자료로 활용, 소규모학교 학생 1인1기 계발 프로그램으로 활용. 학부모 교육 만족도 제고

④ 보완 : 향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성과를 위하여 on/off 라인 상의 병행 프로그램 운영방안(blended learning) 모색, 사이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문제점 등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2) 소규모학교 협동 ‘두레 방과후 학교’

① 목적 : 두레 방과후 학교는 전교생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50%를 넘는 강원도 교육여건상 소규모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3-4개의 소규모 학교간 협동체제를 구성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내용 : 현재 20개 두레, 68개교 학교 간 활발하게 운영됨, 단위학교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방과후 학교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동(협력)운영됨. 운영결과 보고회 및 연합 어린이 축제 개최, 우수 운영사례 및 프로그램의 공유, 학생들의 재능 발현기회 제공.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추진

③ 효과 : 열악한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과 소인수가 가지는 제한된 교육활동을 극복하는 효과를 거두어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소질 계발, 학력신장 및 교원의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함.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 요구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3) 군장병 활용 ‘방과후 학교 푸른교실’

① 목적 :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도 지역특성상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접적지역의 소규모학교에서 자격증 및 특기가 있는 군장병과 군인가족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자 함.

② 내용 : 태권도, 독서논술, 축구교실, 영어, 한자 교실 등 5개 부서 운영(화천군 실내초등학교), 영어회화, 논술, 논리수학, 마술, 리코더, 태권도, 영상물편집 등 7개 운영(양구군 방산중학교) 등

③ 효과 : 군 자녀 학부모 및 군장병 부인의 도우미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부족한 인적자원의 문제를 일부 해결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함.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

생들의 참여 의욕을 높였고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계발은 물론 실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④ 보완 :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주둔 군부대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함. 보다 밀접한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협력체제 구축의 확대가 필요함.

(4) 초등보육 프로그램

① 목적 : 강원도교육청이 2005년도 방과후 학교 도입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별 모델학교 1개교를 선정, 총 18개교를 운영 중인「초등보육프로그램」은 저학년 중심의 교육·보육의 통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제반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특색화한 것임

② 내용 : 현장의 조기 정착 및 운영의 확산을 위하여 지원예산 확충, 지역 유관기관 및 보육기관 협조체제 구축 운영과 지역교육청 단위 방과후 학교 운영 장학팀(Consulting – Team) 구성·운영, 보조교사·학부모 도우미·사회복지사 활용,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 및 각종 연찬회·교원연수시 우수사례 발표 실시 등을 추진함.

③ 효과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보완 : 지속적인 예산 확충·지원,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 확대 추진, 그리고 농산어촌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추진.

이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 선택 폭 확대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증가, 다양한 특기·적성계발 기회 확대제공 및 시·공간을 초월한 운영 가능성 확보, 그리고 소수희망 학생 프로그램 개설 운영 확대, 그리고 사이버프로그램의 교과 및 실기연수 자료 병행 활용, 소규모학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인식 확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실현 및 학교교육 서비스증대, 지속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제고, 교사, 학생 학부모간 공동체 의식 확산 등에 기여하였다.

5)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1) 프로그램 측면

첫째,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수요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간의 학기별, 학년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조사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귀가시, 방학 중, 주5일제 토요일에도 방과후 학교 운영을 들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보육을 위한 학교내 시설 및 보육교사 지원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단위학교, 교육청, 국가 수준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한다. 또한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평가 및 피드백 체제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한다.

넷째, 방과후 학교의 기본취지와 성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중·대도시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는 소위 학원 종합반과 같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현재 중학교에서도 사교육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패키지형 프로그램). 그러나 모든 학교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므로, 수준별, 주제별, 탐구 방법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2) 교원 측면

첫째,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홍보·연수를 통해 방과후 학교의 성격과 필요성, 방과후 학교 실천에 대한 일반 교원들의 이해와 열의를 제고해야 한다.

교육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의 참여 없는 교육 정책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둘째, 방과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교감, 교장에 대한 인센티브(수당, 인사점수, 해외 연수기회 제공, 표창 등)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 관련 연수, 인센티브 제공, 우수교장(교감) 표창, 시·도 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교경영자의 리더십을 강화해 야 한다.

넷째, 방과후 학교 우수 강사에 대한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 강사료 차등 지급, 인터넷, 팜플렛 등을 통해 수요자에 대한 지도강사의 인적정보 제공 등의 방법을 확대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경쟁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적 자원풀 구성, 강사료 현실화(강사료 차등지급, 교통비 지급 등), 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유능한 외부강사를 보다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에서 개인이 방과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보다, 부서(방과후 학교부, 또는 평생학습부)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일곱째, 지도강사(현직교사 및 외부강사)에 대한 평가 및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지도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기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조사 및 결과 제공, 학부모나 교사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외부 강사 측면

첫째,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학교 교사들의 협조와 함께 외부강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강사들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 기존 학교 교사들 예컨대, 교장, 교감, 교사들도 강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사라는 생각으로 강사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강사를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의 연수를 실시하고 강사 개인의 연수 실적이 강사 채용에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 운영의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강사협의체가 구성되어 정기적인 협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의 많은 부분을 강사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우수강사에 대한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 강사료 차등지급 등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너무 싼 수강료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강사별로 차별화 된 수강료 책정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과후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조직(지자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 관련 조직, 복지관과 같은 제반 시설 등)에 관한 정보풀을 구성하고, 이러한 기관 및 조직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러한 정보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은 먼저 지역, 본 교육청 수준에서 실시하고, 정보를 단위학교에 제공해 줌으로써, 학교단위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5) 국가의 지원 측면

첫째, 방과후 학교가 효율적,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필요한 교실, 설비, 자료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학생, 강사 이동 수단 또는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자세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과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안하고, 이 안에서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등), 지자체, 교

육청, 학교, 유관연구기관, 민간조직이나 단체, 종교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6) 기타

시범학교 운영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 시범학교가 시범학교 혜택이 없는 일반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방안을 구안하도록 하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라는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관계 법령 제정과 예산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현황

1) 추진 배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추진 배경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곤 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국가 정책적인 목적도 방과후 아카데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이광호, 200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방과후 관련 국가 대책을 검토하면서 2005년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 대책' 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계획을 구체

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전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방과후 생활 실태 조사를 2004년, 2005년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 발족 시 4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상정되었다.

2005년 7월 방과후 아카데미의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방과후 아카데미가 1, 2차 46개 지역, 2,35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에는 아카데미를 100개소로 확대하였고, 아카데미 운영지원단을 발족하면서 컨설팅, 운영관리 지원 등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150개, 2008년도 이후에는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하여, 2009년에는 234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 운영 실태[4)]

(1)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현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2006년 11월 현재 유형별로 청소년수련관 72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4개소, 기타 2개소로 총 100개소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공공 위탁 형태가 31개소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민간위탁 26개소, 공공 직영 14개소, 민간 직영 1개소, 기타 2개소이다.

4) 운영 실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에서 한도희 전문위원(국가청소년위원회)이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였음.

<표 III-8> 수련시설유형 및 운영주체별 운영 현황(방과후 아카데미)

구 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기 타	합 계
공공 직영	14	0	4	0	18
공공 위탁	31	0	9	0	40
민간 직영	1	0	0	0	1
민간 위탁	26	2	11	0	39
기 타	0	0	0	2	2
합 계	72	2	24	2	100

(2) 지역별 운영 현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지역별, 지원유형별 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첫째, 지역별 운영 현황이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14개소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은 경남(8개소), 대구·충남·광주(6개소) 순이었다.

둘째, 지원유형별로는 지원형이 93개소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반형과 혼합형은 각각 3개소, 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61개소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은 혼합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27개소,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곳이 12개소였다.

<표 III-9> 지역별 지원유형별 운영 현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	참여현황												
	계	지원				일반				혼합			
		소계	초	중	혼	소계	초	중	혼	소계	초	중	혼
서울	14	10	6	4		3	3			1		1	
부산	4	4	2	1	1								
대구	6	6	6										
인천	5	5	4		1								
광주	6	6	3	1	2								
대전	5	4	3		1					1			1
울산	3	3	1		2								
경기	14	12	7	2	3					2	2		
강원	5	5	1		4								
충북	4	4	3		1								
충남	6	6	5		1								
전북	5	5	4	1									
전남	5	5	4		1								
경북	5	5	2		3								
경남	8	8	1	1	6								
제주	5	5	4	1	0								
계	100	93	56	11	26	3	3	0	0	4	2	1	1

(3) 계획 인원 대비 참가 청소년 현황

방과후 아카데미의 당초 계획 인원 대비 참가 청소년 현황은 다음의 <표 Ⅲ-10>과 같다. 전체적으로 총 계획 인원은 4,220명이고, 현재 인원은 4,171명으로 98.8%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당초 계획 인원 140명 중 116명(82.8%)이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고, 지원형은 계획인원 3,880명 대비 현재 3,873(99.8%)명이 참여하고 있다. 혼합형의 경우는 계획 인원 200명 중에서 현재 인원 182명(91.0%)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다.

<표 III-10> 유형별 청소년 참가 인원 현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 체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계획 인원	현재 인원	비율	계획 인원	현재 인원	비율	계획 인원	현재 인원	비율	계획 인원	현재 인원	비율
4,220	4,171	98.8%	140	116	82.8%	3,880	3,873	99.8%	200	182	91%

(4) 학년별 참가 청소년 현황

학년별 참가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1>과 같다. 초등학생이 전체 3,130명인데, 4학년, 5학년, 6학년이 각각 837명, 1,265명, 1,028명이다. 중학생은 전체 참가 인원이 1,041명인데 그 중에서 1학년, 2학년 학생이 각각 552명, 489명이다.

<표 III-11> 학년별 청소년 참가 인원 현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총계	초등학생				중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소계
4,171	837	1,265	1,028	3,130	552	489	1,041

*대상 외 : 초1-2명, 2-5명 초4에 포함 / 중3-10명 중2에 포함

(5) 출석 현황

참가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출석하는 비율은 재적수 4,171명 중에서 3,745명이 출석해서 약 9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12> 참가 학생의 출석률 현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 간	재 적 수	출 석 수 (%)	결 석 수 (%)	비 고
주간평균	4,171	3,745(90%)	426(10%)	

* 현재 인원과 29명 차이가 나는데 대상외 학생들의 출석률은 시설에서 별도 관리.

(6) 운영인력 현황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인력 현황은 다음 <표 Ⅲ-13>과 같다. 방과후 아카데미 전체를 관리하는 PM이 99명이고, 실제로 각 반별로 스케줄을 관리하는 SM이 224명이다. 기본공통과 전문선택 과목을 가르치는 인력이 각각 380명, 780명이며, 또한 자원봉사자 850명이 현장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I-13> 유형별 운영인력 현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구 분	지원형	일반형	혼합형	계
PM	92	3	4	99
SM	207	7	10	224
기본공통	347	12	21	380
전문선택	739	24	34	797
자원봉사	792	15	43	850
계	2,177	61	112	2,350

(7) 참여자 만족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6년 6월에 실시한 방과후 아카데미의 만족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은정, 2006: 79-84).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조사 영역별로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리커어트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매우불만족 1점, 매우만족 5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 및 인식 변화 영역에 대한 만족도이다. 청소년들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또래관계 증진' (4.12)이라는 항목에 가장 큰 만족감을 표하였다. 그 다음은 '컴퓨터 게임 축소' (4.05), '일상생활의 즐거움 향상' (3.98), '새로운 분야 탐색' (3.92), '부모-자녀관계 향상' (3.87)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방과후 아카데미가 행동, 인식변화를 통해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 및 수업 관련 영역에 대한 만족도이다. 청소년들은 활동 및 수

업 영역 중에서 ‘학습 흥미 증진’ (4.02)이 방과후 아카데미가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야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체험 학습 프로그램’ (3.99), ‘선택활동 시간’ (3.98) 순으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 (3.75)과 ‘자기주도 학습 방법’ (3.73)은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의 학습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방과후 지도 및 생활지원에 대한 만족도이다. 먼저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성실한 수업 진행’ (4.05), ‘지도능력’ (4.04), ‘친절’ (3.99), ‘전문성’ (3.97) 등의 항목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 (3.2)영역에 대해서는 참가 청소년들이 교사들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급식에 대해서는 ‘맛’ (4.04), ‘양’ (4.19) 모두에서 참가 학생들이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다.

요컨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전반적으로 소외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사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운영 지원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기관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지역별로 현실 여건과 특수성을 잘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 J청소년수련관의 “꿈을 여는 교실”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시 설 명 : 서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꿈을 여는 교실”)
◇ 운영 유형 : 지원형
◇ 운영 현황
– 참가 학생
· 참가 정원은 총 60명이나 현재는 63명이 참가하고 있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 15명,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각각 24명씩임.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58%), 차상위 저소득 계층(38%), 추천(4%)을 받아서 참가하게 됨.

· 모집 방법은 주로 인근 교회, 동사무소나 학교(교육청)에서 추천 / 공개 모집하거나 동장, 부녀회장과 연계하여 추천 의뢰를 받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개글 발송 홍보

– 운영 인력

사업책임자 (관장)	사업총괄 (특화팀장)	운영총괄 (PM)	담임교사 (SM)	기본공통 강사	전문선택 강사	자원 봉사자
1명	1명	1명	3명	9명	9명	50명

– 급식 관리: 수련관 내 식당을 이용하여 월 25회 제공(간식 월 5회)하며, 식습관 개선과 급식 지원과 교육을 병행 실시

– 귀가 지도: 셔틀버스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6명 이용), 귀가 안전 지도 실시 및 귀가 여부 확인

– 주요 시설: 교실 3곳(꿈여울반, 미리내반, 한마루반), 독서실, 체육관, 극장, 식당, 청소년 열린공간 등 수련관 시설 활용

– 주요 프로그램: 학년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식사 시간)이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됨.

· 학습지도는 수준별 일대일 지도, 과목별 보조 강사를 활용한 숙제 지도 및 심화 학습, 연4회 학습 능력평가, 자기주도 학습 등.

· 특성화 교육: 국제어학(영어회화, 한자, 컴퓨터 등), 생활체육(축구, 농구, 수영 등), 정서예능(댄스, 종이공예), 과학 능력 등.

· 체험활동: 생태체험, 과학체험, 대학탐방, 전통역사체험 등.

– 특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복지 :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보건소 연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소방서), 무료급식, 귀가차량 운행

· 청소년상담 : 각종 심리 검사 서비스 및 미술 치료 등

· 가족생활 지원 : 부모 간담회, 부모 아카데미, 부모 상담, 가족동반 체험활동 등.

◇ 중점 운영 방안

– 찾아가는 자원봉사 공연 발판 마련

· 경로당 및 시니어스타운 봉사 공연 활동 실시 등

– 지역, 기관 연계사업의 활성화

· 독도특강, 심리검사, 응급처치특강, 지역축제 초청 공연 등

– 기업 연계 사업의 특성화

· 삼성제일모직(패션교육), 삼성증권(경제증권교실), 이봉주선수특강

– 홍보사업의 활성화

·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보도자료 등

◇ 운영 결과 및 평가

– 청소년 대상

· 2006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1/4분기 자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73.4%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가장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은 특기적성(46.7%)이었고, 그 다음은 체험활동(26.7%), 학습지도(20.0%) 순으로 조사됨.

·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발전된 부분으로는 생활습관(33.3%), 성적향상과 건강증진(26.7%)이라고 응답

– 학부모 대상

· 프로그램 만족도는 약 93%가 만족한 편으로 응답함.

· 만족한 프로그램은 학습지도(46.7%), 생활지원(33.3%) 순서임.

·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이후 사교육비 절감, 자녀 성적 향상, 학교 공부 보충 효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추진 계획

– 종사자들의 정기교육, 연수 실시

– 수요자 발굴

– 지역사회 찾아가는 봉사활동 특성화

– 프로그램 운영 현실화를 반영한 탄력성 부여

– 전문 프로그램 구축

– 정책 당국 차원의 홍보

◇ 시사점

서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J 청소년 수련관 내부 인력과 아카데미 인력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활동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고자 외부 연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업체, 지역 사회 기관, 공공 기관 등의 업무 협조와 자원 봉사를 받아서 고급 인력이 방과후 활동에 자원 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학생이 단지 수혜만을 받는 집단이 아니라 외부 소외 계층이나 지역 사회에 초청 공연을 하는 등의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참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뜻 깊은 일이다. J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자원 봉사자 연계 및 활용,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의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좋은 모형이 된다고 사료된다.

4) 운영의 문제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자에 대한 처우 수준이 열악하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상근지도자는 프로젝트 관리자인 PM과 스케줄 관리자(반담임) SM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자의 근무 요일은 월~토요일까지 주 6일이고, 근무시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략 13시부터 22시까지이다. 주6일 동안 저녁 중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소진된다. 처우 수준에 있어서도 SM의 경우 월 수령액이 90만원을 조금 넘는 열악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지도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수준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근무안정성이 떨어진다.

둘째,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운영단체간의 소통의 문

제가 발생한다. 2006년부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국가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일적인 운영 및 지원시스템에서 지자체의 특성이 추가되었다. 더불어 예산집행·보고체계 등이 변화되어 추가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협조관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지역 간 자원 편차에 따른 지방 소재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조건이 열악하다. 중소도시 및 농·어·산촌을 근거로 한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제반 운영상의 모든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전문 선택과목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수급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넷째, 지역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환경의 편차가 심하다. 전국 100개소의 방과후 아카데미 중 시설환경 지원은 일반형의 경우만 1,0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형과 혼합형 97개소의 경우 시설환경 및 기자재를 자체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아카데미의 시설환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몇 몇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반 운영 기자재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서 기증받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책상과 걸상을 비치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일반형과 혼합형 운영에 대한 운영 방법 및 노하우가 부족하다. 방과후 아카데미 유형 중 대부분은 지원형이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일반형과 두 가지를 병행하는 혼합형의 경우에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받지 않는 일반 대상에게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이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형의 경우 일반 사교육과 비교 차원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5) 개선 방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방과후 활동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불과 2년 미만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

미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고, 기관별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요구 사항과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지역별 방과후 아카데미의 공적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자들은 주6일 동안 근무하면서도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신분 보장도 되지 못하였다. 참가 청소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뀐다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수요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만일 담당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그들의 처우 조건을 대폭 향상시키고, 수련관에서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 인력(다양한 전문인력)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은 전담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사회 인력풀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들과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참가 청소년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방과후 아카데미의 장기 과제로서 중학교 3학년 이후의 방과후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방과후 아카데미의 대상이 초등학교에서 중2까지였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생 이상에게도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서울 J 수련관 ** 방과후 아카데미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빈곤가족 청소년들이 대다수다. 그들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수혜자로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 이로 인해 자존감도 낮은 상태이다. 이들

에게 자신도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봉사정신을 갖게 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5)]

1) 추진 배경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1항).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아동의 학습능력 재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이 방과후 활동의 추진배경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가 정부 정책 즉, 위로부터 시작된 것과는 달리 민간운동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가정 형태의 이용시설이라는 점,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역아동정보센터, 2006a).

지역아동센터의 모태는 1985년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원봉사 중심의 공부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IMF 이후 가정 해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빈곤 및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이 증가하였다. 2001년 아동복지 민간단체 공청회에서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법적 보호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 아동복지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공부방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2년 5월 3일 아동복지법안이

5) 이 자료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경림 사무국장(부스러기사랑나눔회)이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국회를 통과하였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지역아동센터가 합법적인 시설로 발의되었다. 이 후에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1항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 시설로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2006년 3월말 현재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전국 1,796개소로 3년간 7배가량 증가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 운영 현황

(1) 운영기관 현황

① 지역별 운영기관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1분기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역에 1,79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운영기관 현황은 다음의 <표 Ⅲ-14>와 같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1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남(11.0%), 서울(9.5%), 전북(7.5%)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I-14> 운영기관 현황

지역	빈도(기관)	백분율(%)	지역	빈도(기관)	백분율(%)
서울	170	9.5	강원	93	5.2
부산	97	5.4	충북	120	6.7
대구	29	1.6	충남	83	4.6
인천	101	5.6	전북	134	7.5
광주	85	4.7	전남	198	11.0
대전	67	3.7	경북	93	5.2
울산	35	1.9	경남	116	6.5
경기	343	19.1	제주	32	1.8
합계	**1,796**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6),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② 신고여부 및 국고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 전체 1,796개소 중에서 신고시설은 1,507개소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15> 신고여부 현황

구분	빈도(기관)	백분율(%)
신고	1,507	83.9
미신고	289	16.1
합계	1,796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6),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847개 기관으로 전체 기관의 약 47.2%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16> 국고지원 유무

구분	빈도(기관)	백분율(%)
국고 지원 받음	847	47.2
국고 미지원	949	52.8
합계	1,796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6),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③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면, <표 Ⅲ-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 단체 및 교회(39.3%)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은 개인(33.7%), 사회복지법인(12.1%), 시민단체(6.1%) 순으로 나타난다. 종교단체 및 교회가 많은 것은 초창기 빈민지역 선교 차원에서 종교단체 특히 교회가 지역사회에 공부방을 개설,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표 III-17> 운영주체

구분	빈도(기관)	백분율(%)
시민단체	110	6.1
사단법인	64	3.6
재단법인	80	4.5
사회복지법인	217	12.1
종교단체 및 교회	707	39.3
개인	605	33.7
지차체	13	.7
합계	1,796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6),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간은 1년 미만이 2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년 이상~2년 미만(19.2%), 3년 이상~5년 미만(18.0%) 순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운영기간 5년 미만이다.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 빈곤층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요가 많아진 때문이다. 그러나 IMF 이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입법화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된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18> 운영기간

구분	빈도(기관)	백분율(%)
1년 미만	466	25.9
1년 이상~2년 미만	344	19.2
2년 이상~3년 미만	243	13.5
3년 이상~5년 미만	323	18.0
5년 이상~10년 미만	287	16.0
10년 이상	133	7.4
합계	1,796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6),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2) 이용아동 현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78.5%가 초등학생이며, 일부 중학생(13.5%), 미취학 아동(5.5%), 고등학생(2.2%)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크게 고려대상이 아닌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전체의 불과 0.2%밖에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어떤 빈곤지역 아동보다 이민자 가정의 방과후 활동 지원이 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외된 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차원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9> 이용아동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미취학 아동	2,667	5.5
초등학생	37,940	78.5
중학생	6,511	13.5
고등학생	1,083	2.2
결혼 이민자가정 아동	115	0.2
기타	68	0.1
합계	48,384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6),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3) 운영자 현황

① 종사자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사가 40.0%로 가장 많고, 시설장(33.0%), 급식보조(13.8%)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 종사자 수가 5,392명으로 지역아동센터 당 평균 3.0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아동복지법 제13조 별표5에 따르면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곳이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742곳을 제외한 약 1,000개소 정도는 30인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소규모 기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0> 종사자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시설장	1,782	33.0
생활복지사	2,155	40.0
영양사	70	1.3
급식보조	742	13.8
기타	643	11.9
합계	5,392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6),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② 종사자 근무환경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의 월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 31만원~70만원이 45.3%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71만원~100만원 22.1%, 무급의 경우도 17.9%나 되었다. 실무자의 평균 급여는 약 48만원에서 52만원 사이로 나타났다(2005년 6월 조사 결과). 반면에 실무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일 이상 근무자가 91.8%였고, 이를 세분화해보면 5일 근무자가 48.0%, 주 6일 39.8%, 주 7일 근무 4.0% 순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실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은 65.1%가 재정지원이었고, 그 다음은 인력지원(27.4%), 프로그램지원(4.7%) 순으로 나타났다.

③ 종사자의 학력 수준

종사자의 학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졸 실무자가 48.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대학원졸(8.4%), 전문대졸(7.9%), 고졸(19.6%) 순이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근무하는 경우도 11.1%가 있었고, 중졸의 경우도 2.1%가 있었다(조리사 포함). 참고로 대표자의 학력은 대학원 졸(52%), 대졸(33.9%) 순이었다.

④ 자격증 소지 현황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설종사자 자격기

준에 준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2005년 하반기 조사에 의하면, 대표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30.2%)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교사자격증(12.7%), 보육교사(7.3%), 간호사(1.3%), 영양사(0.6%)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40.5%나 되었다.

실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없는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실무자는 23.6%, 교사자격증 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어떤 자격증도 없는 경우가 각각 40.5%, 39.8%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결여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III-21> 자격증 현황

구 분	대표자 자격증 현황		실무자 자격증 현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사자격증	59	12.7	93	11.2
사회복지사	**140**	**30.2**	**196**	**23.6**
보육교사	34	7.3	135	16.2
간호사	6	1.3	14	1.7
영양사	3	0.6	3	0.4
기타	34	7.3	60	7.2
없음	188	40.5	331	39.8
합계	464	100.0	832	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5),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 운영프로그램 현황

① 프로그램 내용

2005년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세부내용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내용들을 보면 <표 Ⅲ-16>와 같다.<표Ⅲ-16>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교과학습, 숙제, 영어), 예체능(독서, 체육), 문화(각종 체험, 견학), 보호

(급식, 간식), 생활교육(예절, 생활습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제공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 프로그램	교과학습지도, 숙제지도, 영어지도, 한문교육
예체능 프로그램	독서지도, 체육활동, 미술프로그램, 종이접기
문화 프로그램	체험학습, 견학, 공연관람
보호 프로그램	급식, 간식
생활교육 프로그램	예절교육, 이미용, 양치질 훈련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5),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학습, 예체능)(5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급식 · 간식(22.1%), 생활교육(14%), 그리고 복지서비스(4.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체 응답자의 47.2%가 아동양육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일자리 제공(28.7%), 가족상담(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중 약 76%가 아동양육과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운영경비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주로 정부지원비와 후원금, 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지원비는 운영비로 월 200만원씩 년 2,400만원이 지급된다. 급식비는 아동당 1끼 3,000원 내외이다(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결식이 확인되어야 함으로 국민기초수급권 자녀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자녀 위주임. 따라서 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평균 1일 25명 아동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경우 월 25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80만원 정도이며 년(방학

중 점심, 저녁 2끼) 약 3천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식비는 80%정도가 급식비 용도로 지출되며 20%정도만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기, 가스, 인건비 등)(지역아동정보센터, 2005).

(6) 참가자 만족도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2006년 4월 25일~4월 28일(4일간) 임의표본을 추출하여 총 61개 기관의 1,62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응답률은 81.3%). 보호, 교육, 문화, 복지 4개 분야 총 19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참가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개 분야 모두에서 평균 이용 만족도가 4.0 이상으로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 결과

서비스구분	응답 아동수	**평균**
보호	1,527	4.40
교육	1,525	4.26
문화	1,361	4.51
복지	1,528	4.38

3) 운영 사례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어 공적 영역에서 운영된 지는 만 2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진 사례를 각각 소개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우수 운영사례

사례. 탈북 이주자 가정 아동 중심 운영사례

◇ 시 설 명 : 서울 ○○지역아동센터

◇ 시설형태 : 28평 규모의 일반 건물(공부방 3개, 놀이치료실1개/옥탑, 거실, 부엌)

◇ 운영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이용아동 : 20명 (전원 탈북 이주자 가정)

– 초등학생 9명, 중등학생 10명, 고등학생 1명

가정형태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국민기초 가정	빈곤 (채무등)	저소득 맞벌이
인원	6		19	1	

◇ 아동현황 및 지역적 특성

1994년 성인 탈북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 이후 최근 가족 단위의 탈북자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 탈북자가 늘어남.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동은 대단위 임대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이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주.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탈북아동들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용 아동 전원이 이와 같은 탈북자 가정 자녀. 이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및 지역사회 부적응. 이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겪지 못한 일을 겪었고, 외국에서 많이 채류 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됐을 때 또래 친구들 보다 나이도 많고 학습도 뒤져 있어 더욱 적응하기 어려움. 맞벌이 부부 가족이 많아 방과 후 지도와 보호 필요.

◇ 운영인력

상근교사 2명, 급식조리사1명, 놀이치료사1명, 청소년상담사1명

◇ 제공프로그램

1. 학습프로그램

2. 현장체험 프로그램

3. 행사 및 자치활동

– 2주년 축하글 쓰기, 졸업생 축하, 목동아이스링크 나들이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 그림전 응모

– ○○상, 깔끔이상 시상: 출석과 청소를 잘하는 학생에게 시상

- 월1회 노인종합복지관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 자원봉사활동
- 축구활동 : 백두산축구단 활동, 축구동호회 활동

4. 급식 프로그램

- 급식 재료는 80%이상 유기농재료를 구입
- 세스코를 이용한 해충구제, 재료의 엄격한 관리

5. 상담 프로그램

- 놀이치료사 1명, 청소년상담가 1명 각 주 1회
- 초등학생 주1회 놀이치료 실시, 중학생 주 1회 청소년상담실시
- 부모상담 실시

6. 부모모임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 부모교육 :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추석맞이 북한식 송편 빚기
- 수시 전화 상담 및 가정방문, 경조사 참여, 부모님들의 내방.
- 송년잔치, 자원봉사활동

(2) 지역아동센터 부진 운영 사례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빈곤 때문에 결식하는 아동이 많고, 이 아동들이 지역을 배회하고 학교가 끝난 후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많은 곳이다. 평소 아동에게 애정이 있던 A라는 사람이 아동에게 급식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는 개인이며, 해당 자격증이 없다. 시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결식, 방임, 한부모 가족 아동이 갈 곳이 없어 점점 이용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운영자는 정부에 시설 운영 신고도 할 수 없고, 신고도 받아주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은 해주고 싶어도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 조건부 신고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동의 위와 같은 원인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비 지원의 경우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실무자 1인과 자원봉사자 2-3인이 하루 20명이 넘는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외부로부터 지원은 많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가끔 빵, 아동학습지, 책 등을 받기도하고 넌 1-2차례 정도(명절이나 연말) 동사무소에서 쌀이 지원된다.

이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크다. 현재 미흡하나마 △△지역아동센터가 기본적 기능(보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4) 운영의 문제점

방과후 활동 운영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오랜 전통과 경험을 축적한 기관이다. 그러나 시설이나 인력적인 측면 등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의 부족이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국가로부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수입원이 없다. 지원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는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도 열악한 상태이며, 근무 시간은 많은 편이어서 종사자들의 헌신만으로 방과후 활동을 이끌어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의 열악성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교회나 민간단체의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중에는 최근 설립된 것을 제외하면 운영된 지 오래다. 따라서 시설이 낡았거나 열악한 환경이다. 따라서 방과후 참여 학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

셋째,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 문제는 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종사자가 오랜 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률이 높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여타 다른 기관의 종사자에 비해 자격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대부분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교육 활동 지도 등에서 전공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몇 몇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참여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주변 시설 및 단체와 네트웍을 구축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섯째,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급식 및 숙제 지도, 특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구에 기반하기보다는 실무자나 자원봉사 인력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체계적,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 개선 방향

지역아동센터는 오래전부터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저소득, 빈민층 대상 방과후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 양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기존 공부방이라는 정체성에도 혼란을 갖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공부방에서 파생된 별개의 기관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이경희, 2003: 93). 그러나 현 단계에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기존 공부방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운영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노하우와 아동복지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진 특징과 장점을 살린 방과후 활동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유예기간을 두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과후 활동 운영기관의 종사자와 비교해 볼 때, 자격 기준을 포함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는 물론 기존 인력에 대한 연수 및 정기적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아동 30인 이하의 경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1인을 법적으로 두게 되어있는데 이 정도로는 아동을 충분히 보

호,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소 아동 10인당 지도인력 1인을 둘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정익중, 2006).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형태, 가정의 기능을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설립 초기부터 빈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지원과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손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지도나 급식, 학습지도 등을 해왔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활동 방향은 학습 지도 및 향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생활 전반의 지도와 심리·정서적 보호, 체험 활동 등 아동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편이 옳다고 사료된다. 지역아동센터는 해당 지역의 아동을 보호하는 센터로서의 역할 즉, 아이들의 집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안미숙, 2006)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월 200만원으로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진행, 기타 운영에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추정한 적절한 비용은 월 600만원 정도라고 한다(이경림, 2006).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별로 동일한 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의견(정익중, 2006)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아동의 학습지도, 특별활동, 상담 지도 등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 외부 기관이나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거나 전문기관과의 협약 내지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나 위상을 확대하여 양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행히 최근에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널

리 알림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운영에 도움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한다. 지역별 형태 즉, 농·어촌형, 탈학교형, 도시빈민형, 재능지원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05). 지역아동센터의 우수 운영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 이주자 가정을 위한 특수 목적 형태의 운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표준화된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로 방과후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4. 방과후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6)]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이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맹영임 외, 2005). 1980년대에는 지역사회 민간 공부방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아동보육시설이 활성화된 계기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방과후에 아동, 청소년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지도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다. 이에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에서 “여성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을 정책으로 채택하였고(김재인 외, 2002), 1996년 1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입소대상을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국

6) 이 자료는 방과후 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향란 교수(중앙대 보육교사교육원)가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해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육의 연장으로써 방과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였다. 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아동이 계속적으로 건전 육성되도록 하는 것에 정책적 의의를 두었다.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보조교사를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에 파견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 보육사업의 양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보육환경의 틀을 만들고자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면서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맹영임 외, 2005).

참여정부에서는 우선 정책과제로 보육 정책을 설정하면서 방과후 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방과후 보육활동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또는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생(1-3학년)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방과후 보육활동을 통해 자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여성 취업자의 양육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장영은, 1998).

2) 운영 현황

현재 방과후 보육[7]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공부방, 초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보육 시설의 운영주체로 보면,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나 학부모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공공서비스를 바라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7) 방과후 보육은 방과후 아동보육, 방과후 아동지도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방과후 보육은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방학중, 학교의 수업시작 전, 주말에 행해지는 보호와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김재인 외, 2002: 21).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운영주체별 현황

방과후 전담시설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표 Ⅲ-24>와 같다. 전체 1,415개소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118개소(8.3%), 법인보육시설은 122개소(8.6%), 민간보육시설 1,105개소(78%), 가정보육시설 68개소(4.8%), 직장보육시설 2개소(0.1%) 등이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전체 22,049명이다. 이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2,358명, 법인보육시설에는 2,476명, 민간보육시설에는 16,630명, 가정보육시설에는 547명, 직장보육시설에는 29명이 각각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III-24> 방과후 전담 시설의 운영주체별 현황

분 류	총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보 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수	1,415	118	122	210	895	-	68	2
아동정원	97,031	12,612	12,310	11,419	59,185	-	1,217	288
아동현원	22,049	2,358	2,476	5,353	11,286	-	547	29
종사자수	1,855	144	166	274	1,202	-	67	2

출처: 여성·가족부(2005). 2005 보육통계. 2005년 12월 기준.

(2) 방과후 보육시설의 지역별 현황

방과후 보육시설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25>와 같다.

<표 III-25> 방과후 전담 시설의 지역별 현황

구분	시설수	보육아동		종사자				
		정원	현원	계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원	기타
서울	294	19,208	7,252	350	-	350	-	-
부산	242	13,388	3,110	447	-	447	-	-
대구	2	155	54	10	-	10	-	-
인천	42	3,281	428	43	-	43	-	-
광주	48	5,286	1,160	96	-	96	-	-
대전	13	345	265	15	-	15	-	-
울산	28	1,979	380	28	-	28	-	-
경기	295	17,433	2,776	359	-	359	-	-
강원	5	773	134	5	-	5	-	-
충북	30	2,808	489	34	-	34	-	-
충남	85	5,580	869	101	-	101	-	-
전북	131	12,622	2,352	150	-	150	-	-
전남	15	1,825	369	21	-	21	-	-
경북	53	3,598	1,048	62	-	62	-	-
경남	120	7,713	1,153	121	-	121	-	-
제주	12	1,037	210	13	-	13	-	-
총계	1,415	97,031	22,049	1,855	-	1,855	-	-

출처: 여성·가족부(2005). 2005 보육통계. 2005년 12월 기준.

경기도 295개소, 서울 294개소, 부산 242개소의 순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다.

지역별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수는 서울이 7,25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 3,110명, 경기 2,776명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수는 부산이 44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 359명, 서울 350명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방과후 보육시설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종사자 대비 아동수가 타 지역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다. 그만큼 서울지역이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용아동의 특성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며, 조사 대상의 45.3%가 취업모의 자녀이다.

<표 III-26> 아동의 연령별 취업모 가정의 자녀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전체		취업모가 있는 시설			
	시설수 (A)	아동수 (B)	시설수 (C)	아동수 (D)	시설비율(%) (E=C/A*100)	아동비율(%) (F=D/B*100)
방과후	327	2,558	162	1,160	49.5	45.3

출처: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연구보고서.

(4) 운영 프로그램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본 결과 약 55%의 학부모가 '학습 지도'를 꼽았다. 그 다음은 '정서함양 및 사회성'(21%), '돌볼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서'(12.8%) 순으로 응답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부모일수록 '학습지도', '정서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부모일수록 '돌볼 기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돌볼기관/사람이 없어서	학습지도 필요해서	정서함양/사회성 교육때문	집의학습 환경이 열악	기타	계	(명)	$\chi 2$(df)
초등 저학년생	15.4	54.9	19.6	9.9	0.2	100.0	(1085)	18.2(4)**
초등 고학년생	9.9	55.4	22.6	12.1	0.0	100.0	(956)	
전체	12.8	55.2	21.0	10.9	0.1	100.0	(2041)	-

주: ** p<.01

출처: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연구보고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 대다수가 부모대신 자녀를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부모들은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 자녀를 믿고 맡아줄 기관이기를 원하면서도 교육 요구에 있어서 자녀의 학습, 정서 지도 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부모가 교육적인 요구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28〉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	공부방	전체
전인적 발달	13.0	16.9	16.0
초등학교 준비	–	–	–
예체능 특기교육	–	7.0	5.3
부모대신보호	73.9	16.9	30.9
사회성 발달	–	5.6	4.3
기타	13.0	53.5	43.6
계(명)	100.0(23)	100.0(71)	100.0(94)

출처: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연구보고서.

한편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요구는 학습보충활동(31.5%), 특기적성교육(29.5%), 숙제 및 자율활동(2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1순위

(단위: %, 명)

구분	숙제/자율활동	특기적성교육	학습보충활동	놀이/신체활동	문화현장체험	급식/간식	기타	없음	계	명	$\chi 2$ (df)
전체	24.2	29.4	29.9	8.0	6.0	2.3	0.1	0.1	100	(3431)	–
초등 저학년생	24.0	29.4	28.3	9.1	5.8	3.3	0.1	0.0	100	(1664)	22.0 (7)**
초등 고학년생	24.4	29.5	31.5	7.0	6.0	1.4	0.1	0.1	100	(1767)	

주: ** $p<.01$

출처: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연구보고서.

(5) 예산 및 비용

국가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50%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조건은 2004년도 3월 1일 이전에 지원된 기관에만 한정된다. 또한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하고,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가 지원된다. 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지급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의 수납액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국고보조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당해시설 3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79,000원)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는 민간보육시설 3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한다(102,000원). 따라서 이러한 운영 수입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참가자의 만족도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인력이나 비용, 안전관리 등의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반면에 부모 교육과 참여, 시설설비, 영양 ·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III-30> 만족도

구분	만족도	구분	만족도
원장	100.0	내부 분위기	63.6
주변환경	81.0	영양관리	55.6
교사	76.3	건강관리	53.2
안전관리	73.7	부모참여	44.4
교재교구 및 장비	57.2	시설설비	42.9
교육내용	71.4	부모교육 및 상담	38.9
비용	71.4		(단위: %)

출처: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연구보고서.

3) 방과후 보육시설의 사례 [8)]

방과후 보육시설의 운영 사례는 광진구에 소재하는 D 보육시설이다. 교실 크기는 약 20평 정도이며, 1997년에 개관하였다. 학생은 총 28명(초1 20명, 초2 7명, 초3 1명)이며, 학생 상황은 다음의 <표 Ⅲ-31>과 같다. 일반학생이 대부분이며, 저소득감면을 받는 학생이 일부 있다. 가정행태로는 맞벌이 가정이 절반 이상이며, 나머지는 편부모가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보육시설의 학생들은 가정 형편상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I-31> 학생의 가족 환경(D 방과후 보육시설)

구 분	수(명)	가정형태	수(명)
기초생활수급권자	0	편부모가정	12
저소득감면	5	맞벌이가정	16
일반아동	23		
계	28	계	28

이 방과후 보육 시설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주5일)에 운영하며, 방학 중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둘째, 비용은 아동1인당 88,000원(간식비 포함)이며, 특별활동비로 35,000원을 별도로 부과한다.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액수는 142만원(1개반 운영비 지원 1,030,000원, 보조교사 인건비 250,000원), 간식비 지원(1인당 월 5,000원)을 받는다.

셋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활동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Ⅲ-32>와 같다. 특별활동의 내용은 글쓰기, 독서지도(글쓰기, 독서, 동화구연), 역사교실, 미술활동(NIE, 종이접기, 그리기), 외국어교육, 과학탐구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시한다. 기타로는 보육시설

8) 2004년 한국 방과후 아동지도학회에서 발표한 사례를 재정리하였다.

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의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표 III-32> 주요 일과 활동(D 방과후 보육시설)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00-13:30	점심식사 및 자유놀이			점심식사 및 자유놀이	
13:00-14:10	숙제지도 및 준비물 확인			숙제지도 및 준비물 확인	
14:10-14:50	학습지도 (수학, 받아쓰기)		야외학습	학습지도 (수학, 받아쓰기)	
14:50-15:30	간식			간식	
15:30-15:50	줄넘기, 자유놀이			줄넘기, 자유놀이	
15:50-17:00	특별활동		종이접기	특별활동	
17:00-	귀가지도				

4) 방과후 보육시설의 문제점

참여정부 이후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면서 방과후 아동보육 지원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다. 물론 기존 방과후 교실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신규 지원이 모두 중단된 상태여서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보육에 참가하는 학생이 보육시설 정원에 포함되며, 보육비는 3세 아동의 50%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활성화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크다. 민간시설의 경우 방과후 보육료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보육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비를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담교사가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과 훈련을 마친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가 다른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전문성 측면이나 현실적인 지도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방과후 보육시설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어렵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에너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놀이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제한점이 많다.

넷째, 부모와 아동 모두가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이전에 다니는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을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다섯째, 학부모의 요구는 대부분 학습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육 시설은 아동의 보호기능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해 주기는 어렵다. 더욱이 아동의 요구는 특별활동, 숙제지도 등 다양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시설의 인적 구성, 시설 요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5) 개선 방향

보육시설의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해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료가 3세 아동의 50%인 근거는 방과후 보육이 하루 종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절반 정도만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보육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교사가 방과후 보육 외의 업무를 겸직하게 됨으로써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부모의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국가적인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은 어린이집보다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되는 편이 낫다.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조차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은주, 2006). 방과후 보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적합성,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의 발단단계를 고려한 적합한 시설을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방과후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보육시설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경우 적합한

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행 보육교사가 방과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영유아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과후 보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방과후 보육 활동은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성인들이 일방적으로 짜 놓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보다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정효정, 2005). 단,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은 학습지도보다는 인성교육과 놀이, 신체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활동 등 아동중심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설립 목적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 여건에서 단점이 있지만 아동에 대한 안전지도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교사,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등에 방과후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외국의 청소년 방과후 운영 실태

1. 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2. 일본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3.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Ⅳ. 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

1. 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9)]

1) 청소년 방과후 활동 정책

(1) 주요 정책 방향

미국 방과후 학교연맹(After-shcool Alliance)에 의하면 미국 전체적으로 대략 650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만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1,530만 명 정도의 청소년, 학부모들은 기회가 된다면 방과후 교육활동에 자녀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afterschoolalliance.org/about_us.cfm). 이러한 학부모들의 높은 요구와도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각 주정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나, 크게 책임과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단체나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들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된다. 또 다른 형태의 방과후 활동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 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경우로서 주 정부나 카운티별로 세워놓고 있는 교육평가기준 및 목표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학습기회의 연장, 그리고 보충적 심화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령기 청소년 보호형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발달형태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방과후 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과

9) 미국의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은 김한별 연구교수(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가 집필함.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습기회의 연장이나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충적 심화활동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노력은 각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질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학교교육에서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 교육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관련 법규

기존의 교육법을 개정한 2002년 발효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은 미국의 초, 중등교육의 수월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상관없이 학교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NCLB는 ① 각 주정부, 학구(school district), 그리고 개별 학교들의 책무성 강화할 것, ② 학생과 학부모들, 특히 열악한 조건의 학교(Title I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확대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③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 이러한 세 가지 핵심 목적을 담고 있다.

(3) 행정 및 지원 체제

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의 대표적인 정책사례로서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21st CCLC)[10]"를

10)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는 미국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있어서의 정책, 제도적 지원,

들 수 있다. 21st CCLC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주관하여 시작한 것으로, 미국사회에서 학교선택권의 강화, 교육의 수월성 및 교육평등 이념 추구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총칭한다(권두승, 2005). 21st CCLC는 청소년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만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100만 불의 예산으로 출발한 21st CCLC는 2002년에는 1,000만 불의 예산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평균 1,000만 불 이상의 예산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1st CCLC는 미국 연방 교육부의 주관으로 지원되는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인 21st CCLC 운영에 있어서 연방정부 차원의 업무는 연방교육부 내의 초,중등교육국(Office of Elemenatry and Secondary Education: OESE)의 소관으로써 OESE가 운영하고 있는 학업성취수준 개선 및 교사자질 프로그램(Academic Improvement and Teacher Quality Programs: AITQ)에 의해서 관리된다.

AITQ는 초, 중등교육 분야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공하는 재정지원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관장하는 프로그램이다. AITQ는 다시 (1) 21st CCLC, (2) 종합적 학교개혁 프로그램, (3) 교사의 질 프로그램의 세 가지 하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21st CCLC는 대부분 초, 중등학교의 학생들인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AITQ의 세 가지 하위 그룹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① 21st CCLC

21st CCLC에 따라서 약 백만 명 정도의 학령기 청소년들이 방과후 교육심화 프로그램이나 기타 청소년 발달 및 활동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NIOST, 2006).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2002년

그리고 각 주별로 실시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을 집대성한 결과, 즉 하나의 지원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행정, 지원체제 항목에서 다루지만,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의 내용은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도 연결될 수 있다.

법안으로 채택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법"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Act)의 핵심 요소로서, 청소년들에게 계속적인 자기개발과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방과후에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Title I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규 학업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주요 정규 교과목별로 주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업성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1st CCLC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교수업의 연장이나 시험성적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과외활동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방과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약물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기술교육, 음악과 미술 등의 여가활용 교육, 그리고 각종 생활상담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http://www.ed.gov/programs/21stcclc/index.html).구체적으로21st CCLC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학업 성취수준의 향상
- 다양한 방과후 여가활동의 제공
-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문해교육
- 각종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21st CCLC의 다양한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미국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농업부, 노동부, 청소년 비행예방국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표 Ⅳ-1>은 각 부서들이 주관하고 있는 21st CCLC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21st CCLC에 의한 각 주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규모는 각 주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NCLB법에 의해서 21st CCLC를 위하여 책정된 예산은 NCLB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분 기준에 따라서 각 주정부의 독자적인 청소년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표 Ⅳ-1> 21st CCLC와 관련된 프로그램

주관부서	프로그램
Department of Education	- Supplement Education Services - Gear Up - Safe and Drug-free School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Admin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Summer Food Service Program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	- Learn and Serve America - Americorps - Senior Corps
Department of Labor	- Youth Training Programs

자료: 권두승(2005), p. 121.

각 주에 속해있는 다양한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들이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원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21st CCLC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져야 한다. 대상기관 선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던 사립기관이던 상관없이 지역사회기반의 교육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둘 이상의 이러한 단체가 협약한 컨소시엄 등이다. 또한 종교단체가 설립한 기관들도 그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21st CCLC 프로그램 선정심사에 응모할 수 있다(http://www.ed.gov/programs/21stcclc/eligibility.html).

21st CCLC로부터 지원 받은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3년, 2004년에 걸친 조사에 의하면, 21st CCLC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약 45%가 읽기능력, 약 41%가 수리능력에 있어서 각각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1st CCLC가 지원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업성취능력의 향상, 교실수업태도, 그리고 과제수행의 질적 제고 등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학업능력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행동을 매우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시켰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Learning Point, 2005, www.afterschoolalliance.org에서 재인용).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비행, 약물, 성폭력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21st CCLC의 재정지원을 받는 로스엔젤레스의 BEST 프로그램(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의 결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발생률이 거의 4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원/운영 기관

① afterschool.gov

연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아동, 가족행정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fterschool.gov"라는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afterschool.gov"는 각 주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주관하는 담당자들에게,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각종 재정 지원 프로그램, 자원 등과 같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원스톱 웹사이트이다(http://www.afterschool.gov/docs/about.html).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사회 단체나 학교, 또는 개별 운영자들을 주된 대상 집단으로 고려하는 "afterschool.gov"는 이들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fterschool.gov"는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 프로그램의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시설의 관리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

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구안하는데 유용한 정보

다. 각종 자료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정보와 보고서들

라. 기타 관련 이슈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운영자로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아동학대, 응급대처, 건강, 안전, 교통문제 등)에 대한 정보

② 방과후 학교연맹(Afterschool Alliance)

방과후 교육활동은 지역사회기관 단독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 그리고 국가가 함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후원을 제공할 때 보다 더 원활하게 바람직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과후 학교연맹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방과후 활동의 홍보 및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급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연맹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교육적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방과후 학교연맹 자체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기관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비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부의 공공기관, 영리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방과후 학교연맹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2010년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균등한 방과후 교육활동에의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방과후 학교연맹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 지역사회,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후원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
라. 청소년,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한다.

사회적 인식수준을 제고하려는 방과후 학교연맹의 대표적인 노력으로 "Lights On Afterschool!"행사가 있다. "Lights On Afterschool!"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2000년 10월에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매년 10월에 열리는 전국적인 축제행사이다. "Lights On Afterschool!"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주최자로서 신청할 경우, 기관의 이름과 행사내용 등이 "Lights On Afterschool!" 웹페이지에 올려지게 된다.

2) 방과후 활동 운영 사례

(1) 로스엔젤레스의 BEST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배경 및 목표

BEST 프로그램은 “Best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의 약자로서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엔젤레스의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

년들, 특히 5-12세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의 보완 및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다. BEST 프로그램은 LA 시장, LA 통합 학구(LA Unified School District), 그리고 실행 및 감사위원회(Board of Directors and an Advisory Board)의 세 주체가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EST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의 제공
- 교육적 지원구조를 통합함으로써 내실을 갖춘 교육기회의 제공
- 정규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제공
-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제공
- 대인관계 기술 및 자아효능감 향상 촉진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BES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인근지역의 청소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BES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학교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 도서관 이용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들을 받게 된다.

② 운영실태

BEST 프로그램은 LA 시내의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규학교가 끝나는 시간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별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편할 때, 들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매주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BEST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태는 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각 운영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핵심 활동영역을 정해놓고 있다.

- 학교과제 수행의 지원 및 튜터링
- 팀 훈련 및 댄스연습
- 독서활동
- 미술교육
- 스포츠 활동
- 음악
- 과학 동아리
- 수학교실
- 예술 & 공작
- 레크리에이션 활동
- 갈등관리(Conflict Resolution)
- 건강, 보건 체육활동
- 영양
- 소풍, 견학

이러한 핵심적 활동영역과 아울러서 BEST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보다 심화된 수준의 종합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fter School Arts Program(ASAP)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예술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소년들에게 시각디자인, 음악, 댄스, 그리고 시 창작교실 등의 활동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BEST Fit

이 프로그램은 BEST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및 정보들을 제공한다. 특히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 KidzLit

이 프로그램은 오클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발달연구센터(Developmental Studies Center)에 의해서 개발된 문자해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120여 종류의 도서와 동료 가이드를 활용하여 BEST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들에게 독서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아울러서 KidzMath 프로그램도 2004-2005년도부터 실행되고 있다.

- Literacy Loop

이 프로그램은 BEST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개인교사 형태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읽기, 쓰기능력 및 수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 LA의 BEST Celebrate Scienc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BEST 프로그램 등록 청소년들에게 과학, 기술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은 주로 학생들을 팀 형태로 구성하여 실제로 첨단 과학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내용을 탐구하고 조사하도록 유도한다. 팀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들은 LA 시 차원의 과학 박람회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수상한 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앨러배마에 있는 스페이스 캠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③ LA BEST 프로그램의 성과

BEST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BEST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청소년들은 수학, 읽기, 쓰기 등의 영역에 있어서 학업성취수준의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중도탈락하는 비율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을 제공하는 BEST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BEST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는 이들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역사회 차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정받게 된다.

(2) 매사추세츠 로웰의 GEAR UP 프로그램

GEAR UP(Gaining Early Awareness and Readiness for Undergraduate Programs) 프로그램은 미국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대학교 학부수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업 준비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기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재정적 지원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연방 교육부는 6년 연한의 재정지원을 각 주에 제공하고, 각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주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www.ed.gov/programs/gearup/index.html).

① 프로그램의 배경 및 목표

매사추세츠 주(州)의 로웰(Lowell) 시(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GEAR UP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로웰의 GEAR UP은 매사추세츠 대학교 로웰 캠퍼스, 미들섹스 커뮤니티 칼리지, 로웰지역의 공립학교들, 지역의 산업체,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GEAR UP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본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로웰의 GEAR UP 역시 지역 청소년들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높임과 동시에 중도탈락을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로웰지역의 다섯 개 공립 중, 고등학교들은 새롭게 이주해 들어오는 가정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특히 로웰은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계 시민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며,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의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주해온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늘어가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구학적 배경도 다양해졌다. 시 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수계층 학생의 비율이 56%에 이르러서 소위 소수계층 중심의 학구

(minority-majority district)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민 청소년들의 가정형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학부모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수준의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율도 낮은 편이다.

로웰의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은 대체로 낮은 학업능력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도탈락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CLB 법에 의해서 미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들이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교과목에 있어서 해마다 제시하는 향상목표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 AYP)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할 책무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로웰도 AYP를 수립하여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교과목에 대한 학업능력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2002-2003 학년도 로웰의 다섯 공립학교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교과목에 있어서 학업성취수준은 모두 AYP 기준(읽기 75.6, 수학 60.8)에 미달되었다. <표 Ⅳ-2>는 로웰의 다섯 공립학교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과목에서 학업성취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Ⅳ-2> 로웰지역 학생들의 수학, 읽기 영역의 성취수준

학교	수학	읽기
Bartlett	43.7	68.2
Butler	51.4	72.3
Robinson	35.5	72.9
Rogers	41.7	69.7
Sullivan	47.7	69.6

이러한 교육적 상황들을 바탕으로, 로웰지역에서는 GEAR UP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지원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로웰의 GEAR UP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 학업성취수준의 향상
- 대학진학 방법 및 요건에 대한 이해수준 향상
- 졸업후 진로가능성 확대
- 학부모 참여의 촉진
- 교수와 운영진의 전문능력 개발

② 운영 실태

위에서 기술한 GEAR UP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행되는 구체적인 로웰지역의 GEAR UP 프로그램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개인교사(Tutoring)

학업능력에서 부진한 발달을 보이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개인교사 지원활동은 방과후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개인교사로는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 개인교사의 모집은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 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배와 같은 대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는 효과도 갖게 된다.

주당 평균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개인교사 지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낮은 학업성취수준을 보인 학생들 가운데 약 30%이상이 수학이나 읽기과목에서 향상된 학업성취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지속적인 학업몰입에 대한 긍정적 동기수준을 형성하게 되었다.

● 대학이해와 진로상담 활동(College and Career Awareness Activities)

GEAR UP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가운데 하나인 대학이해와 진로상담 활동은 청소년들의 대학방문기회를 마련하여 대학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인식하여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또한 이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기적인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상담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7-8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의 사전준비 단계로서 학력수준에 따른 소득규모의 차이, 심화학습의 필요성, 대학진학의 기준, 전학 등의 사항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또한 대학 입학관리부서의 직원이 초청강사로서 강연을 하기도 하며, 기타 다양한 직업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어서 청소년들이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설명해준다.

9-1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대학진학과정과 입학하고 나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워크숍은 대학 입학원서작성 및 지원 절차, 그리고 재정지원 요청 방법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 지역 대학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학교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로웰 GEAR UP은 저소득층 가정의 낮은 학업능력 수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8년 여름부터는 하계 SAT 준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학습동기지원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s)

GEAR UP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동기수준을 높이고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동기지원 서비스와 부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동기지원 프로그램 활동은 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관 단체들간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로웰 청소년들은 Boys and Girls Club, United Teen Equality Center, the Revolving Museum, Lowell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그리고 WUML Radio 등이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현장탐방 등의 방법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지속적인 학습참여 의욕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

● 학부모 참여활동 (Parent Outreach)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과 학업성취수준은 학부모들이 관여수준이 깊어질수록 향상된다. 따라서 자신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가정교사, 대학진학의 후원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 진로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로웰지역에 새롭게 이주해온

이주민 가정은 대부분 저소득층 계층이다. 이들 가정의 부모들은 생계유지가 우선적인 관건인 까닭에 2-3개의 직업을 가지고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GEAR UP프로그램은 학부모 참여촉진 활동을 통해서 이들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성공적인 학교교육에 있어서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 진로상담, 학교교육, 진학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로웰 GEAR UP 프로그램의 성과

로웰의 GEAR UP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우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GEAR UP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매주 2시간 정도의 개인교사 활동지원을 받음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학교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GEAR UP 참여 청소년들은 학습동기지원 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을 실제 현실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학부모 참여촉진 활동 및 대학이해, 진로상담 활동을 통하여 GEAR UP은 추가적인 교육기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교육기회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디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대학진학에 필요한 조건과 구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생활의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예상할 수 있음으로 해서, 학습동기의 촉진효과 및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가능성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3) 시사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미국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특히 부모 모두가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청소년들은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교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양질의 추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학업성취 수준이 많이 향상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한 79% 학생들의 학교성적이 B 이상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참가한 학생들에 비하여 학교에서 D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YMCA, 2001).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중도탈락 가능성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공부에 대한 취미 및 흥미수준이 보다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chinke, 1999). 이러한 성과는 미국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민족의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방과후 활동은, 학교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영향들, 약물, 비행청소년,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보다 나은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실제로 미국 건강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5)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평균 4시간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하여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된 경험은 49%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흡연가능성, 음주경험, 성경험 등에 있어서도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약 세 배정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YMCA, 2001).

이처럼 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및 운영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과 교육기회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천사례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방과후 교육활동 정책을 수립, 실천함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실제 운영은 각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각 지역사회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달규모나 지리적 문화적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인구통계학적 배경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각급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역사회에만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계획,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즉, 방과후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계획 및 수행은 각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그러한 지역사회 차원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인적, 물적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나 일정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원의 지원이 없이는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방과후 교육활동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afterschool.gov"는 우리나라 방과후 교육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및 모델을 확인하는 함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방과후 교육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후 그리고 이외의 사회적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는다. 일차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은 얼마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가족과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즉, 방과후 교육은 단순히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 문제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21st CCLC 프로그램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이 각기 전문적인 관심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관계부처와 지역사회의 유관 이해관계단체가 함께 교육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방과후 활동의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정부가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홍보노력과 아울러 일반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방과후 교육활동을 널리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과후 학교연맹은 “Lights on Afterschools!"이라는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부기관의 담당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방과후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증대와 방과후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실천사례나 정보를 공유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수자는 지역사회 주민들 가운데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들 가운데에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역 청소년

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차원의 교육문제는 지역사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과후 교육활동도 그 구체적 활동을 담당할 인력양성을 지역사회외부에서 수입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학부모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 학교나 교육청들은 학부모 연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문적인 수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을 방과후 교육활동의 교육담당자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학부모들 역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도모할 수 있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적 차원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일본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11]

1) 방과후 활동 정책

(1) 주요 정책 방향

일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현재 생활의 충실과 미래의 성장을 위한 양면 지원을 추구하는 것, 둘째, 기성사회의 수정과 청소년의 적응을 동시에 접근하는 것, 셋째, 모든 관련 조직과 개인의 협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술하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가정, 학교는 물론 기업,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과업이라는 것이다(青少年育成推進本部, 2003: 2).

일본의 방과 후 활동 역시 이와 같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이념에 기반을

11) 일본의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은 노경란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집필함.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방과 후 활동 역사는 '열쇠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아닌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자발적 주민운동이 펼쳐졌던 1948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생성이 아동복지법에 아동관 설치 운영을 법제화하면서 아동을 위한 보육이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김재인·이향란, 2004: 176-177). 즉, 핵가족화, 도시화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아동 양육과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 수준에서 대응으로부터 국가적 수준에서 대처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1992년부터 월 1회로 시범 실시되었던 학교 주5일제 체제가 2002년부터 완전 주5일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아동의 양육 및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있는 여가 보내기'를 위한 대안으로 방과후 활동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연령 범위 및 내용이 약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발달 과정에 기초하여 일본의 방과 후 활동 정책은 복지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후생노동성이 아동의 보호와 양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교육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문부과학성이 아동·청소년의 의미 있는 여가시간 활용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는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放課後兒童健全育成事業)」이며, 후자는 「신어린이플랜(新子どもプラン)」(대표적으로 「지역어린이교실추진사업(地域子ども教室推進事業)」)이다. 이러한 유사한 정책의 능률적 통합을 위하여 오는 2007년에는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연계하여 종합적인 방과 후 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가칭)방과후어린이플랜(假稱放課後子どもプラン)」을 창설할 예정이다(內閣部, 2006: 78).

일본 '방과후 활동' 정책의 주요 대상은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며,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활동은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단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 정규학교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방과후’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초등학생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학동기)이고, 중·고등학생이 포함되는 청소년(사춘기)의 경우, 방과후 활동으로 명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규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정규교과(수업시간 내의 특별활동 포함)를 제외하고, 방과후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소수의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로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활동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추진한 ①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일명 방과후아동클럽(放課後兒童クラブ)’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이어서 청소년까지 연장선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② ‘신어린이플랜’, 특히 ‘지역어린이교실추진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법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생성이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12항에 근거하여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내각 결정에 의하여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 지원책의 방침(仕事と子育ての両立支援策の方針)」, 그리고 「경제 재무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今後の経済財務運営及び経済社会の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 등을 수립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방과후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도모하였다(文部科學省, 2002: 3). 이 후 내각부의 주도 하에 「청소년육성대책대강(青少年育成大綱)」이 2003년 12월에 계획된 이래로 이 대강에 기초하여 청소년 육성 시책이 본격화되었다.

(3) 행정 및 지원 체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육성대책대강」에서 제시된 행정 지원 체제에 기초하여, 일본의 방과후 활동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 지원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青少年育成推進本部, 2003: 33~34).

첫째, 내각부의 주도 하에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관

계 행정기관의 연계 및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리더십 하에 관계 행정기관 상호간의 밀접한 연계·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책 상호간의 충분한 정비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하게 관계하고 있는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한 조치가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와 청소년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추진을 도모한다.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민간단체, 지방공공단체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형식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국제적 연계 및 협력을 모색한다. UN 등의 국제기관에서 마련한 청소년에 관한 조약이나 행동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교류를 추진하며, 각국의 청소년 육성 시책의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일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넷째, 정보공개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청소년 육성 시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청소년은 물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의 기획에서 입안, 실시에 참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째, 체계적인 정책 평가 및 영향력 조사를 통한 정책 수정 및 현실 적용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4) 지원 및 운영 기관

일본의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발전 과정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일명 방과후아동클럽(放課後兒童クラブ)' ② '신어린이플랜'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지원 및 운영 기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2, 제1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근로 등의 이유로 낮동안 집에 없는 아동(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활동 내용은 수업을 마친 후 아동관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마련해 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표 Ⅳ-3>과 같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15,184개소(공영 7,021개, 민영 8,163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아동수는 654,823명에 달하고 있다(2005년 5월 1일 기준: 厚生労働省雇用均等・児童家庭局育成環境課調べ 참조). 이 사업의 실시 주체를 상술하면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부모회, 운영위원회,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동관, 학교의 여유교실, 학교부지내 전용시설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전개되고 있다(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www.mhlw.go.jp/bunya/kodomo-jidou.html).

<표 Ⅳ-3> 후생노동성 방과후 아동건전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

① 방과 후 아동의 건강관리, 안전 확보, 정서의 안정
② 놀이 활동에의 의욕과 태도 형성
③ 놀이를 통한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 배양
④ 방과후 아동의 놀이 활동 상황 파악하여 가정에 전달
⑤ 가정과 지역에서 놀이 환경 만들기 지원
⑥ 기타 방과후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자료: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について.**
http://www.mhlw.go.jp/bunya/kodomo/houkago-jidou.html.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放課後兒童健全育成事業, 일명放課後兒童クラブ)」 관련 홈페이지(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11/index.html)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업의 실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업을 실시되고 있는 수, 등록 아동수 및 실시하고 있는 시정촌의 비율(수)에 대한 과거 5년간의 변화 추이 <표 Ⅳ-4>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 과거 5년간의 실시 개수, 아동수, 실시 시정촌의 추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실시하고 있는 곳의 수(개소)	10,994	11,803	12,782	13,698	14,457
증감	793	809	979	916	759
아동수(명)	392,893	452,135	502,041	540,595	593,764
증감	37,717	59,242	49,906	38,554	53,169
실시시정촌의 비율(실시시정촌의 수)	54.5% (1,773)	59.6% (1,935)	66.3% (2,149)	71.8% (2,303)	76.0% (2,373)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況**. 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11/index.html.

이어서 설치 및 운영 주체별 현황을 보면 공립 공영 형태가 46.3%(7,021개)로 가장 많았고, 공립민영 형태(41.2%, 6,260개), 민립민영 형태(12.5%, 1,903개)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실시 규모면에서 보면 참가 인원이 36-70명 정도의 규모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20-35명 규모(28.9%)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71명 이상의 대규모 형태도 11.8%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실시 장소의 현황 <표 Ⅳ-5>를 보면 학교의 여유 교실(27.8%)을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학교 부지내 전용시설(17.4%)의 활용 비중도 높았다. 이 결과로부터 학교가 아동의 방과후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5> 실시 장소 현황

실시 장소	개(%)	실시 장소	개(%)
학교의 여유 교실	4,216(27.8%)	사유지 전용시설	630(4.1%)
아동관, 아동센터	2,520(16.6%)	보육소	933(6.1%)
학교부지내 전용시설	2,637(17.4%)	유치원	371(2.4%)
민가, 아파트	1,017(6.7%)	단지 집회실	132(0.9%)
공공 시설	1,396(9.2%)	상점가의 빈 점포	17(0.1%)
공유지 전용시설	950(6.3%)	기타	365(2.4%)
합계	15,184(100%)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況**. 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11/index.html.

(厚生労働省, 2004). 규모에 따른 형태별로 구분하여 다수의 순으로 정리해 보면 소형 아동관(2,881개), 아동센터(1,663개), 대형 아동관(23개), 기타(126개)로 소형 아동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관의 실시 주체를 보면 도도부현, 지정된 시도,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등이고, 대상 아동은 모든 아동(18세 미만)이지만 주된 대상은 3세 이상의 유아에서 학동기(10세 미만)에 이르는 아동이다.

나. 문부과학성의 신어린이플랜(新子どもプラン)

일본에서 일하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있어 당면하는 방과후 시간의 부모 부재의 문제, 학교 주5일제 실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여가 시간 증대와 같은 문제가 새로운 교육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문부과학성에서는 '아동방과 후·주말활동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3개년의 걸친 전략으로 학교 주5일제에 대비한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기획한 '전국 어린이 플랜'을 기초로 전개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2). 이에 학교 주5일제[12]를 대비한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어린이플랜'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① 지역의 체험활동 체제 정비 및 정보제공, ②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다양한 활동 기회와 활동의 장 확대, ③ 가정교육에 관한 상담체제의 충실화 및 학습기회의 제공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12)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교의 주5일제는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어린이가 개성을 살리면서 풍요롭게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생활 전반을 개선하고자, 1992년 9월부터 월 1회, 1995년 4월부터 월 2회 등 단계적으로 실시해 온 이래로 2002년부터 완전 학교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完全学校週５日制.**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index_a.htm).

<표 Ⅳ-6> 문부과학성 신어린이 플랜의 사업 개요

구분	주요 추진 사업
지역의 체험활동 체제 정비 및 정보 제공	・지역과 학교가 연계 협력한 봉사 활동·체험활동 추진 사업 ・어린이 체력 향상 플랜의 추진 ・위성통신을 활용한 「어린이 방송국」 ・TV 사이언스 프로그램 제작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다양한 활동 기회와 활동의 장 확대	・지역 어린이 교실 추진 사업 ・외국어 장기 체험활동 추진 사업 ・대학 개방 추진 사업(대학 주니어 사이언스 사업) ・청소년 장기 자연 체험활동 추진 사업 ・전통문화 어린이 교실 사업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정부 연계 어린이 체험형 환경 학습 추진 사업
가정교육에 관한 상담체제의 충실화, 학습기회의 제공	・가정교육지원 종합 추진 사업 ・가정교육 수첩 ・전국 가정교육 포럼 개최 ・자녀교육 네트워크 연구 교류 협의회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사례

(1) 요코하마시의 '방과 후 키즈 클럽 사업' 사례

요코하마시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 전개하고 있는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일명 방과후아동클럽'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요코하마시 방과후 키즈클럽 사업 보조 실시 요강(横浜市放課後キッズクラブ事業補助実施要綱)」을 2006년도에 제정하였다. 이 요강에서는 서비스 대상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명하였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범위는 보호자가 근로 등의 이유로 방과후 아동이 귀가하는 시간에 가정에 없는 날이 1주중 3일 이상이거나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 있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의 건전 육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시키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의 전

개는 요코하마시 방과후 키즈클럽 운영법인요강에 근거하여 방과후 키즈클럽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구장(區長)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 사업을 위탁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운영일 및 운영시간, 실시 장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지도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재원 확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운영일을 살펴보면 일요일, 국경일, 1월 2일~3일 또는 12월 29일~31일을 제외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운영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수업종료 후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이나 방학인 경우에는 8시 30분부터 19시까지이다.

둘째, 실시 장소는 해당 초등학교 내 활동전용실을 설치하거나 학교 시설 이외에 공원, 시민이용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셋째,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는 중앙정부(후생노성)에서 지정한 사업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상술하면 ① 아동의 건강관리·안전 확보·정서 안정, ② 놀이 활동에 대한 의욕과 태도 형성, ③ 놀이를 통한 자주성·사회성·창조성 배양, ④ 아동의 놀이 활동 상황을 파악하여 가정에 연락, ⑤ 가정과 지역에서의 놀이 환경 만들기 지원, ⑥ 보호자와의 연계를 통한 부모참여형 활동 촉진, ⑦ 지역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활동, ⑧ 기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이다.

넷째, 인력의 배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 한명 이상의 지도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의 인원수에 연동하는 최저인원배치 기준을 정하고 위탁사업자가 이를 엄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 확보의 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위탁사업자가 참가 아동의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참가비[13]·간식비·특별 행사 진행비·교재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일부 충당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13) 주간동안(오후 5시까지)은 무료이며 야간동안(오후 5시~7시)은 시민세 과세세대의 경우 5천엔, 비과세세대인 경우 2천5백엔, 일시 참가하는 경우 일당 8백엔을 부가함.

요코하마시의 실천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방과후 활동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방과후 활동을 지역 맞춤으로 특화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정부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며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탁법인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특성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특히 지도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방과후 활동의 질 확보는 물론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장애아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추가 지원 및 교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신어린이플랜의 '지역어린이교실추진사업' 사례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화, 지역 교육력의 저하 등 긴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으로서 건전한 청소년을 사회 전체가 길러낸다는 취지에서 문부과학성에서 2004년도부터 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거점으로서 학교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실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5,364개에서 2005년에는 8,000개로 확대되었다.

<표 Ⅳ-7> 지역 어린이교실 추진사업 사례

구분	평일 매일 개최하는 사례 (岩手県浄法寺町)	시정촌 합병으로 시 전역에 확대한 사례 (島根県雲南市)
사업명	浄法寺지역 어린이 교실	雲南市「어린이활동거점만들기」
참가 대상	마을 내 아동, 청소년	시내의 초·중학생
실시일	월~금, 수업종료부터 오후5시까지	평일(월~금): 오후 3시~5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실시 장소	浄法寺초드학교(이나니와홀), 중앙공민관(카시오페아센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 사회교육시설 40개소
활동 내용	-뉴 스포츠 (에스키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레크레이션 -창작(수예, 공예, 회화, 목공) -계절 행사(크리스마스, 칠월칠석) -영어회화	-아동, 청소년의 자유 놀이 (수다떨기, 독서, 가벼운스포츠) -전통 놀이(연날리기 등) -책 읽어주기, 실내외 게임 -공민관을 활용한 통학합숙 연계 체험학습
특징	-지역 자원봉사에 의할 활동 지원 (노인클럽에 의한 지역 행사, 전통 놀이 등의 전승, 체육 지도위원에 의한 뉴 스포츠 지도) -다양한 체험활동의 지원(아동·청소년의 주체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스포츠, 창작, 독서 등의 시간을 프로그램에 넣고 있음) -어린이교실로부터의 정보제공매월 어린이교실 달력을 모든 참가자에게 배포하고 교실에서의 참여활동 모습과 월별 예정 등을 담은 「어린이 교실 통신」을 보호자, 학교, 지역주민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음	-합병과 함께 시내 전역에서 전개(雲南市는 2002년 11월에 합병을 추진해 온 새로운 도이임. 합병을 계기로 시내 전역 (모든 초등학교, 사회교육시설)에서 이학년·지역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어린이 활동 거점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음)

구분	아동·청소년의 자주성 존중 사례 (沖縄県大宣味町)	대학과 협력 사례 (大阪府熊取町)	PTA가 운영 주체인 사례 (愛媛県四国中央市)
사업명	멋진어린이 두근두근 클럽	구마토리마을 새터데이룸	四国中央市 혼와카클럽
참가 대상	시내 아동·청소년	시내 아동·청소년	시내 아동 외
실시 일	화~목, 오후 2:30~5:30	매월 2, 4주 토요일, 오후 5~6:30	매주목,토요일(월1회) 오후 1:00~4:30
실시 장소	大宣味村立津波초등학교	근로청소년홈	金生第一초등학교 (도서관등)
활동 내용	-스포츠 전반 -게임 -공작 -작은 동물 돌보기	-댄스 -요사코이춤 -스트레칭 체조 -게임	-책읽어주기,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책선택을 위한조언 -공작 -전통 놀이
특징	-아동·청소년들과 연령이 비슷한 젊은이가 지도원으로서 아동·청소년과 교류함 -아동·청소년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교실 프로그램 등을 결정해 나감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원도 있어 목장체험활동을 실시함	-지도원으로 활동하는 오사카교육대학 학생은 아동·청소년들과 연령도 비슷하기 때문에 댄스 휴식시간에 학교생활이나 친구 등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지역 자체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PTA와 OB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들의 활동 거점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함 -지역의 어른은 물론 학교교사의 협력도 있어 지역, 학교 차원에서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함

자료: 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 子どもの居場所づくり推進室의 팜플렛. 広がる子どもの居場所 「地域子ども教室のすすめ」.

전술한 지역어린이교실추진사업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방향성을 수립·검증·평가하는 지방정부(운영협의회), 자원봉사·지도원 등의 실행 인재 확보 및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실행위원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학교,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 등의 면밀한 협력체제가 사업 성공의 기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의 특성, 참가자의 요구, 다양한 주체의 참여 등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 교육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토대로 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점이다.

3) 시사점

일본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의 정책 방향, 그리고 실제 사업의 운영 현황 및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접근 방식에 있어서 기본틀은 국가적 수준에서 마련하고, 그 위에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적 사업으로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전개는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자체 운영위원회나 아동관과 같은 기관이 주체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수성, 학교나 실행 기관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실시 장소에서는 45.2%가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문부과학성의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지역 어린이 교실 추진 사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성인, 교원, 대학생, 청소년 및 사회교육단체관계자 등을 안전 관리원·활동 상담자로 배치·활용하고 있다. 또한 실시되고 있는 사

례의 절반 정도가 초·중학교를 공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및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 기존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정규교육 중심이었던 기존 학교의 역할을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셋째, 능동적·역동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방과후 활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 문화활동, 체험활동, 교류활동 등 역동적인 활동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타인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방과후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美林天竜の翔'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예능 이벤트, 미술전 기획·운영체험사업'을 들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이벤트나 미술전에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체가 되어 스스로 예능 이벤트 및 전시회를 기획, 운영, 나아가서 참가하는 총체적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넷째, 방과후 활동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지역사회-학교-가정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예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 수준에서 추진 체제를 정비하는 사업인 '지역과 학교가 연계 협력한 봉사 활동·체험활동 추진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예로 '지역 어린이 교실 추진 사업'이 있는데 행정관계자, 학교교육관계자, PTA 관계자, 청소년·스포츠·문화단체 관계자, NPO 자원봉사자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도도부현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직접 방과후 활동을 위한 인프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선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추진 주체의 구성을 행정관계자에서부터 지역사회 주민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이 협력 체제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령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별 지원 대상을 분화함

으로써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 중심의 소극적 접근을 하고 있는 후생노동성은 10세 미만의 저연령 아동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교육 중심의 적극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경우 10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춰 활동의 수준 및 주체성, 자발성의 수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사업의 핵심 기관인 아동관에서는 음악회를 열어 아동들이 참석함으로써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 문부과학성의 사업에서는 미술전시회를 직접 기획하고 전시회를 운영하는 정도까지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3.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14)]

1) 방과후 활동정책

(1) 주요정책 방향

독일의 학교는 전통적으로 반일제 학교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은 학교보다는 학교 밖의 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 정책방향은 방과후 활동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주요 부처는 독일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 Mini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이다. BMFSFJ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8권(Ⅷ: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83조 1항에 의거하여 주와 지역을 초월한 최상급 주무관청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고무하고 장려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 부처에서 발간한 아동 및 청소년 정책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하여 가능 하다. 특히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과 아동 및 청

14) 독일의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은 정기섭 교수(인하대학교)가 집필함.

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문서인 “독일 아동 및 청소년계획” (Kinder-und Jugendplan des Bundes: KJP)의 과제와 주요영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KJP는 독일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 정책과 관련단체 사업에 기본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12차 아동 및 청소년 보고서 (Zwölfter Kinder-und Jugendhilfebericht)의 내용을 토대로 독일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정책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독일 아동 및 청소년 계획 : KJP(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1.1.10)

KJP는 연방차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KJP 기본방향에 나타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KJP를 통하여 『사회법전 제8권』 83조의 토대위에서 아동과 청소년 지원 활동이 고무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KJP는 사회법전 제8권 1, 2조에 따른 목표와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그들의 인격을 자유롭게 계발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각하고, 사회와 국가에서 그들의 책임을 준수하고, 연방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아동과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위한 기본조건들을 제공하고, 소녀와 소년의 평등이 증진되는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촉진은 독일과 유럽 젊은 세대의 동반성장, 국경을 넘어서는 이해와 관용, 세대 간의 대화 개선, 외국 시민의 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KJP는 문화교육, 청소년과 스포츠, 사회교육, 아동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청소년단체활동, 계속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별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② 제 12차 아동 및 청소년보고(2005)

가장 최근에 보고된 제12차 아동 및 청소년보고(2005)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2차 보고서는 교육의 문제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 역시 11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기본 조건들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아동과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의 교육, 보살핌, 지도 시스템을 변형·통합하거나 새롭게 형성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살핌과 지도는 취학 이전의 가정과 아동보호기관에서 행하던 것이고, 교육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여겨왔던 관점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살핌과 지도의 과제도 수행해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세대에게 종일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일제 학교에서의 청소년 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학교로 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러한 협조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가깝게 기관들이 위치해야 하는데 정부와 주는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이러한 기관들 간에 지역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한다는 것이다.

③ 국가적 행동계획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리포트(Ein Kinder – und Jugendreport zum Nationalen Aktionsplan: NAP)

(BMFSFJ, 2006. 4. 24)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에 대한 권리, 건강한 성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참여의 권리, 심리적·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아동에게 적합한 독일을 만들자는 취지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7개 영역에 걸쳐 170개 대책들을 언급하고 있다. 7개 영역 가운데 '여가생활을 위한 자유공간' 은 최종보고서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첨가되었다. 즉 좋은 여가 프로그램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높다. 질 높은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은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폭력을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④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정책방향

첫째,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은 크게 청소년 교육과 여가시간 형성으로 구분된다. 이는 정규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의 다원적인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신인문주의 "교육"의 개념을 "포괄적 교육개념"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문화적, 물질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능력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 보살핌의 구분을 하지 않고 교육과 보살핌의 과제를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단체들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 및 청소년을 컴퓨터 게임, 인터넷, TV와 같은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정책에 있어 종일제학교와 학교에서의 종일제 프로그램 제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2) 관련 법규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 법규는 아동과 청소년 지원법인 사회법전 제8권(SGB Ⅷ)과 학교법(Schulgesetz)을 들 수 있다. SGB Ⅷ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학교법은 종일제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

① 사회법전 제8권 :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2 청소년지원의 과제

(2) 청소년지원의 실행들

-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적 제공
- 가정에서의 교육촉진을 위한 제공

- 주간보호시설과 주간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촉진을 위한 제공
- 보완적인 성취와 교육을 위한 도움
- 심리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도움과 보완적 실행
- 젊은 성인을 위한 도움과 보살핌

§3 사립 및 공립 청소년지원

(1) 청소년지원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들과 내용, 방법, 활동형태의 다양성이 특징이다.

§4 공립 청소년지원 단체와 사립 청소년지원 단체의 협동적 작업

(1) 공립 청소년지원은 사립 청소년지원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여야 한다.

§11 청소년사업(Jugendarbeit)

(2) 청소년사업은 단체, 집단, 청소년주도단체, 청소년사업의 다른 운영주체와 공립 청소년지원 주체들에 의하여 제공된다.

(3) 청소년사업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밖의 청소년 교육: 일반교육, 정치교육, 사회적 교육, 건강상의 교육, 문화적 교육, 자연학적 교육, 기술적 교육
- 스포츠, 놀이, 사교와 같은 청소년사업
- 노동세계, 학교세계,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사업
- 국제적 청소년사업
- 아동과 청소년 심신회복
- 청소년 상담

§74 사립 청소년지원의 촉진

(1) 공립 청소년지원 주체는 청소년지원 영역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고무하여야 한다. 공립 청소년지원 주체는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75 사립 청소년지원 주체의 승인

(1) 법조인과 법조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사립 청소년

지원 주체로서 승인될 수 있다.

- 청소년의 영역에서 사립 청소년지원 주체로서 §1의 의미에서 활동하고 있다.
-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조건들에 의해 청소년 지원과제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 기본법의 목적들에 유익한 사업을 보증한다.

(2) 사립 청소년 지원의 주체로서 승인요구는 앞의 1의 조건하에 청소년 지원의 영역에서 최소한 3년을 활동했어야 한다.

(3) 교회와 공법의 종교단체 그리고 사립 복지단체의 연방차원 연합단체는 승인된 사립 청소년지원 주체이다.

② 헤센 주의 학교법

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에 관하여는 각 주의 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헤센(Hessen) 주의 학교법(Hessisches Schulgesetz in der Fassung vom 2. August 2002) 제15조(보살핌과 종일제공, 종일제학교)에 의거한 종일제학교의 방침(Richtlinie f□r ganzt□gig arbeitende Schule in Hessen nach §15 Hessisches Schulgesetz: 2004. 8. 1부터 효력발생)에 의하면 종일제 학교는 1주일에 일반적으로 07:30부터 17:00까지 다양한 돌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학교이다. 종일제 학교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2.1.1).

- 점심식사 제공
- 숙제 돌보아주기
- 나이에 적합한 체류, 놀이, 귀가, 휴식가능성에 대한 증명
- 시간계획표에서 촉진수업과 선택프로그램 제공
- 교육과 돌봄을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직업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수업 이전과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

교육과 보살핌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연령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제

공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위가 고려되어야만 한다(2.2).

- 의무수업
- 촉진수업과 시간표의 의미에서 선택프로그램
- 수업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프로그램
- 노작공동체와 프로젝트
- 특히 숙제, 정적 작업의 보살핌을 위한 프로그램, 스포츠, 놀이, 도서관, 카페테리아
- 연극공연, 음악공연, 낭독, 전시회와 같은 문화적 활동

종일제 학교의 인적구성은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다(2.5)

- 교사
-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전문가
- 사회복지사
- 외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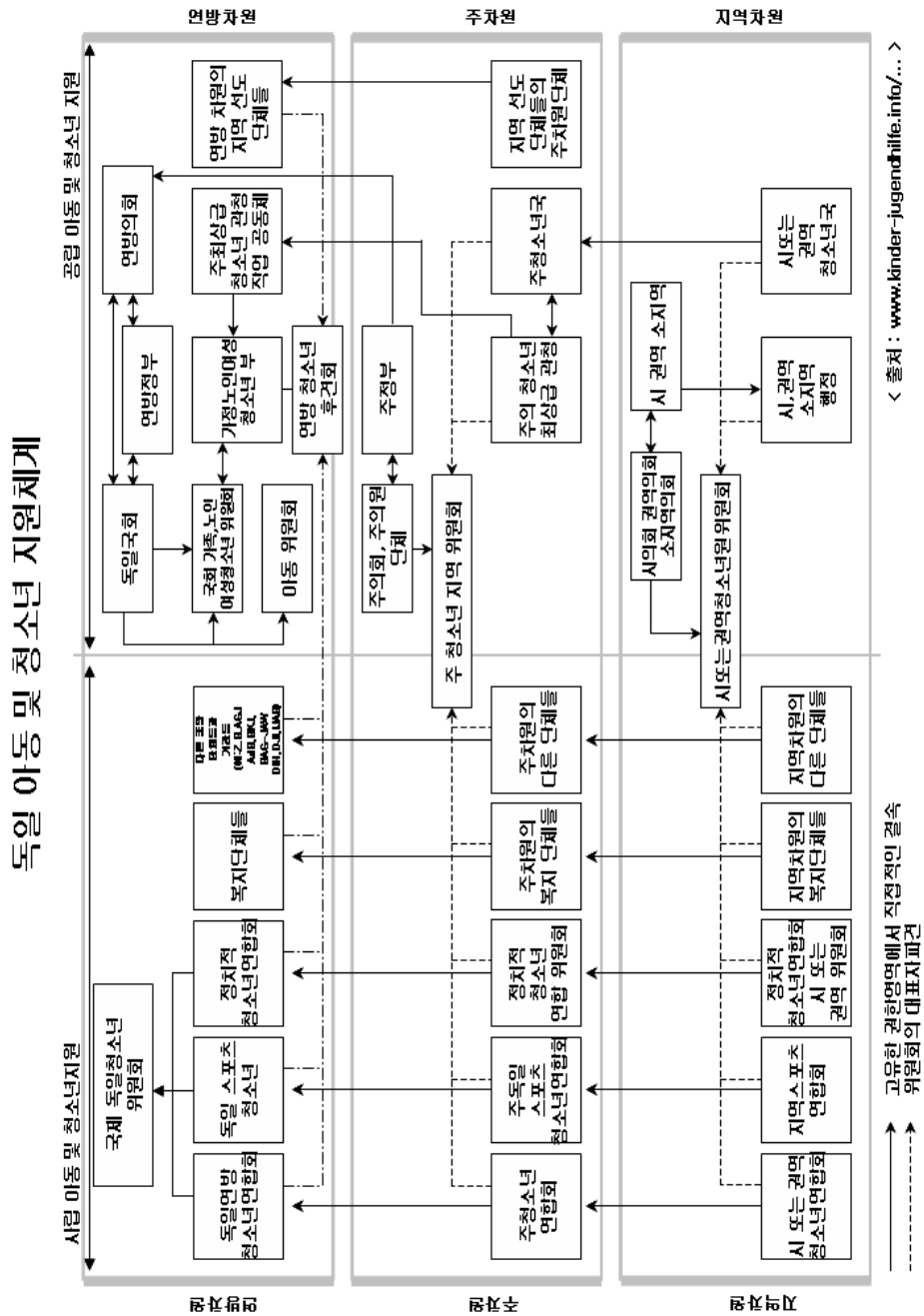
(3) 행정 및 지원체제

독일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은 학교내 활동과 학교 밖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체제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이 종일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 밖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은 연방차원, 주차원, 지역차원의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연방차원, 주차원, 지역차원의 공립 아동 및 청소년지원 단체와 사립 아동 및 청소년지원 단체 간의 파트너관계에서 행해진다.

연방차원의 주요 담당 부처는 BMFSFJ로서 연방 청소년 후견회(Bundesjugendkuratorium)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 연방회의, 국회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아동위원회, 주차원의 최상급 청소년 관청 작업공동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BMFSFJ는 주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지원 단체들의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업무는 주의

청소년국(Landesjugendamt)이 담당한다. 주의 청소년국은 SGBⅧ의 85조 2항에 의거하여 넓은 의미에서 지역 차원의 청소년지원 사업, 시·권역·구역의 청소년국, 청소년지원 시설의 전문 인력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청소년 지원은 공립단체에 의한 지원과 사립단체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립단체는 주로 청소년국을 의미한다.

지역차원(시, 권역, 구역)에도 SGBⅧ에 의거하여 청소년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태는 주청소년국과 같다. 또한 청소년국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청소년사업 촉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 체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체계

(4) 지원 및 운영기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시설은 종일제 학교, 종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공립 청소년지원 단체와 사립 청소년지원 단체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민대학(VHS), 음악학교(Musikschule) 등에서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지원시설은 2004년에 발간된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59개의 유형 79,313개가 존재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4). 영유아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청소년국 또는 청소년국으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청소년국이 없는 권역에 속해 있는 독자적인 구역(Gemeinde)에 해당되는 공립단체(27,616개: 35%)와 사립단체(51,697: 65%)로 나누어지는데, 그 시설현황은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운영주체별 시설현황

공립단체	시설
지역단체	10,574(38.3%)
광역단체	573(2.1%)
주	91(0.3%)
청소년국이 없는 구역	16,373(59.3%)
계	27616
사립단체	**시설**
노동자복지단체	3,250(6.3%)
신구 양교 동권의 복지단체	5,944(11.5%)
독일 적십자	1,650(3.2%)
신교의 디아코니/그 이외의 독일개신교에 속해있는 단체	13,123(25.4%)
카리타스 단체/그 이외의 가톨릭 단체	14,508(28.1%)
독일 유대인 중앙 복지회	30(0.1%)
그 이외의 종교단체	622(1.2%)
청소년 그룹,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 연합회	1,728(3.3%)
기업	1,069(2.1%)
기타	9,813(19%)
계	51,697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2004>

청소년국은 청소년여가활동을 위한 기관시설(예: Jugendhaus, Jugendtreff, Jugendcafe, Jugendclub, Jugendfreizeitst□tte 등) 이외에 이동시설(이동식 놀이시설, 아동 모험놀이터)과 그 외의 각종 행사(댄스페스티벌, 각종 전시회, 연극, 영화상영, 음악회, 농구/축구 등 스포츠 교실)을 운영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 지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573,802명으로 직업별로는 주로 교육자(ErzieherInen: 49%)들이 종사하며 그 외에도 중·상급 공무원(1.9%), 심리학자(0.7%), 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사(0.1%), 사회교육 단기양성과정 졸업자(0.5%), 교사(1%), 운동치료사/안마사/수중테라피스트(0.2%), 전문대학 또는 그와 비교될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한 Dipl. 학위 소지 특수교육자(0.4%), (전문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자(1.1%) 등 다양한 양성과정을 거친 인력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004년 연방 통계청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사업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영역은 아래 <표 Ⅳ-9>와 같다. 아동 및 청소년 심신회복 영역에서는 스포츠 활동과 놀이 이외에 산책, 여행, 자전거타기 등 다양한 여가시간 활용 가능성이 제공된다. 학교 밖의 청소년 교육 영역에는 정치교육, 사회적 청소년 교육, 건강한 청소년 교육, 문화적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기관들은 기관별로 연령을 제한하거나(예: 6세 이상, 6-12세, 9-13세, 12-15세, 12-14세, 12-17 등) 프로그램별로 연령을 제한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프로그램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표 Ⅳ-9> 청소년 사업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영역

영 역	%
아동 및 청소년 회복	47.2
학교 밖의 청소년 교육	38
국제적 청소년 사업	3.8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11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2004>

2) 청소년 방과후 활동 사례

(1) 학교 내에서의 방과후 활동

학교 내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종일제 학교, 전원기숙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이탈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마다 종일제 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종일제 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은 김나지움의 경우 하교시간이 일반학교(08:00-13:00)보다 늦고(08:00-16:45: 월-목, 08:00-13:00: 금), 점심식사와 스포츠 놀이와 같은 자유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Dipl. 사회교육자가 상주하여 학습과제를 돕거나 개인문제를 상담하고, 식사비와 사회교육적 도움에 대한 비용(월 약 120유로)을 부담하는 것이다(www.khg.bamberg.de/seiteneu/index.htm).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rtemberg)주의 키르히하임(Kirchheim) 성김나지움(Schlossgymnasium)의 방과후 활동 (www.sgki.es.bw.schule.de),

5학년에서 13학년까지의 김나지움으로 2001/02 현재 학생수가 1,055명, 학급수가 30개, 학급규모가 28.6명이다. 2005년 5월 9일자 학부모 통지서에 의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15:05분까지 학교에서 활동을 하며 점심식사비(1회 2.50유로)와 암벽등반, 음악학교 등의 활동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이 시간의 감독 및 지도는 교사, 학교 밖 전문가, 상급반 학생과 학생 멘토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에게 방과후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며 정규수업 이후의 활동으로 점심식사, 숙제도와주기, 운동과 긴장완화, 컴퓨터, 독서지도, 독자적 작업, 음악과 예술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숙제 도와주기와 놀이는 상급반 학생들이, 노작공동체 운영은 교사가 맡고 있다. 중등교육 Ⅰ단계에 해당되는 5학년과 6학년의 주간시간표는 **<표 Ⅳ-10>, <표 Ⅳ-11>**과 같다.

<표 Ⅳ-10> 5학년 종일제 프로그램

교시	1 – 5	6	7	8	9
시간	7:30-11:55	12:00-12:45	12:45-13:30	13:30-14:15	14:20-15:05
월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운동과 긴장완화, 독자적인 작업	교과수업	교과수업
화	교과수업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숙제도와주기	노작공동체
수	교과수업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숙제도와주기	노작공동체
목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합창 오케스트라 독자적인 작업	교과수업	교과수업
금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표 Ⅳ-11> 6학년 종일제 프로그램

교시	1 – 5	6	7	8	9
시간	7:30-11:55	12:00-12:45	12:45-13:30	13:30-14:15	14:20-15:05
월	교과수업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교과수업	교과수업
화	교과수업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운동과 긴장완화, 독자적인 작업	노작공동체
수	교과수업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숙제도와주기	노작공동체
목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합창 오케스트라 독자적인 작업	교과수업	교과수업
금	교과수업	교과수업	점심 및 휴식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위의 학교처럼 신청자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전교생이 종일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종일제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하는 전원기숙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 밖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

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카이져-하인리히-김나지움 밤베르크(Kaiser-Heinrich-Gymnasium Bamberg)는 5학년에서 13학년까지 21개 학급 중 5학년에 1개 종일반을 편성하여 입학부터 학생 전원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www.khg.bamberg.de/seiteneu.index.htm).

(2) 학교 밖에서의 방과후 활동

학교 밖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공립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시에 등록된 각종 사립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사회교육기관, 시민대학, 음악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에 따라 매일 또는 주 1-2회 이러한 기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자신의 관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계속교육센터에 해당되는 시민대학(Vhs)은 성인뿐만 아니라 취학전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과후 활동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대학의 운영주체는 공립단체와 사립단체이며, 재정은 주정부 보조, 운영단체의 기부, 참가자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독일 전역에 2,423개의 시민대학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지역차원의 연합회, 주차원의 연합회, 연방차원의 연합회가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만 552개의 시민대학이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하일브론(Heilbron) 지역권에 있는 34개 시민대학 연합인 운터란트(Unterland) 산하의 시민대학에서 2006. 10. 31-2007. 2. 25까지 주 1-2회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타악기, 베이비시터 코스, 자기홍보 트레이닝, 워드사용법, 영어코스, 신체의 비밀, 디지털사진 작업, 홈페이지 만들기, 외발자전거타기(상급반), 영어 아비투어 준비, 영어시험 준비, 프랑스어 회화, 영어문법, 창조적 공작활동, 가면만들기, 수학 아비투어 준비, 수학 파워코스, 면접의 요점, 학교과제물 작성, 프리젠테이션 기법, 호신술, 요가, 댄스 등이다(www.vhs-unterland.de-agb.1.html).

① 공립단체 시설에서의 방과후 활동

공립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주로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들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음악 감상, 음악 연주, 연극, 댄스, 축구, 배구, 야구, 탁구, 당구, 카드, 플레이스테이션, 음료와 다과 즐기기, 파티 등과 같다. 또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때 기관에 배치된 전문 인력의 도움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마인츠(Mainz) 시의 청소년국이 운영하는 청소년의 집(Haus der Jugend)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www.jugend-in-mainz.de/id/juz_altstadt.hdj.htm). 마인츠 청소년국의 청소년센터에는 현재(2006. 11) 10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고, 여기에서 살펴볼 청소년의 집은 마인츠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 이용대상: 6세 이상
- 운영인력: Dipl. 교육자 1인, 교육자 2인, 사회교육자 2인, 청소년사업 봉사자 1인, 행정직원 1, 시설관리 마이스터 1인, 재정담당 3인

위에 소개된 기관처럼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방과후 오후부터 저녁까지 점심식사 제공과 숙제도와주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역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센터의 형태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관은 호르트(Hort)에 보내기에는 나이가 조금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운영되고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슈타른베르크(Starnberg)시 청소년센터의 수용 우선순위 조건: 편부모 가정/맞벌이 부부/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학생의 연령)를 부여한다. 또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부모의 연소득에 따라 36유로에서 100유로까지 다르다.

② 사립단체 시설에서의 방과후 활동

사립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 집 프로그램은 공립단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슈트트가르트(Stuttgart)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동 및 청소년의 집(Kinder & Jugendhaus Birkach)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 시설은 비르카흐(Birkach) 구역에 있으며 1학년(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위한 요일과 12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요일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월, 화, 수(14:00-18:00)는 6-12세의 아동을 위한 시간이고, 월(18:00-21:00), 수(18:00-21:00),목(15:00-21:00), 금(15:00-21:00)은 11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간이다. 주요시설로는 음악작업실, 금속작업실, 창조적 활동(종이, 돌, 유리, 나무 등을 이용하여)을 위한 작업실을 갖추고 있다. 11세 이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표 Ⅳ-12>와 같다(www/jugendhaus.net/birkach/index2.html).

<표 Ⅳ-12> 11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요일	시간	내용
월~수	18:00부터	크리스마스 공예
목	15:00부터	크리스마스 공예
활동적 만남		
목	15:30부터	요리
	15:00부터	10대의 만남: 놀이와 창조적 프로그램
금	2006.10. 06 15:30부터	스포츠와 놀이: 탁상축구
	10. 13 15: 30부터	스포츠와 놀이: 올림픽 종목들
	10. 20 15: 30부터	스포츠와 놀이: 소프트축구
	10. 27 18: 00부터	SMV-party
	11. 06 15: 30부터	음악과의 만남: CD가져오기
컴퓨터 공간		
월	18:00부터	인터넷카페와 게임
수	18:00부터	지원서작성법
목	16:00부터	인터넷카페와 게임
금	17:00부터	인터넷카페와 게임

3) 시사점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우리나라 방과후 활동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차원의 해당관청과 시설운영단체들의 수평적·수직적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공립단체와 사립단체에서 대표자가 파견되어 구성된 주·지역차원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 위원회는 단체들 간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지원의 계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협력적인 지원체제의 확립을 통해 시설간의 전문 인력, 프로그램, 시설이용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은 학문적인 연구를 동반하여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왔다. 각 지역의 관련관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아래 정기적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상적인 모형을 개발한다. 최근 종일제학교의 경우 독일 전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 또는 지역마다 몇 개의 학교 내지는 한 학교의 몇 개 학급을 선정하여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셋째, 방과후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주로 직업학교에서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국가시험을 거친다. 또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자료처리, 문서작성, 통계처리와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양성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의 병행은 관련 직업에 대한 자신의 적성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최종 자격을 국가시험을 통하여 부여한다면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양성과정을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양성과정에서 이론과 실습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이론과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가정의 역할 변화에 따라 방과후 활동 기관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돌보아주는 가정적인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도 보살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 학교와 학교 밖 시설 및 전문 인력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헤센 주의 학교법에서 볼 수 있듯이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지역동호회나 관련단체 전문가의 도움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 방과후 활동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사와 평생교육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상주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방과후 활동이 계획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업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인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학교의 학생이라도 집 근처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독일은 청소년들이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관심사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간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요청할 때에만 그 기관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열린 청소년 만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기관에서 제공된 프로그램들이 개인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곱째, 독일의 청소년지원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수의 부족과 기관의 개방시간에 관한 것이다.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와 학교 밖의 기관들이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들의 개방시간을 보면, 2004년 현재 1주일에 11시간 미만 개방 22%, 11-20시간 개방 24.8%, 21-30시간 개방 26.4%, 31-40시간 개방 19.5%, 40시간 이상 개방

7.2%인 것으로 나타났다(MfGFFI, 2006: 88). NAP는 주말에 청소년지원 기관들과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할 것,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도 주말에 어떻게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Ⅴ. 조사결과분석

1. 심층면접조사 결과
2.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Ⅴ. 조사 결과 분석

1. 심층면접 조사 결과

심층면접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및 관련주체들의 요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설문조사에 포함될 요인 및 문항 구성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1) 연구 대상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세 기관에 속한 학생, 학부모, 운영 실무자를 심층면접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집단의 경우 방과 후 학교 6명, 방과 후 아카데미 5명, 지역아동센터 7명을 심층면접 하였고,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중 어느 것도 다니지 않는 비참여 학생들도 2명 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학생집단의 경우 총 20명을 인터뷰 하였다.

학부모 역시 방과후 학교 학부모 5명, 방과 후 아카데미 학부모 3명,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3명,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세 프로그램 중 어떤 것에도 다니지 않는 학생의 학부모 4명을 면접하였다. 학부모 대상자의 수는 총 15명이었다.

기관 실무자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를 합하여 7명, 방과후 아카데미 PM과 SM 합하여 6명,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3명으로 총 16명을 면담하였다. 따라서 면담에 참여한 총 인원은 51명이었다.

<표 Ⅴ-1> 심층면접 대상자수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교사	총
방과후 학교	6	5	7	18
방과후 아카데미	5	3	6	14
지역아동센터	7	3	3	13
비참여	2	4	–	6
총	20	15	16	51

<표 Ⅴ-2> 학생 집단 심층면접 대상자

기관	학교등급	일련 번호	이 름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	학생 1	김○○
		학생 2	김○○
		학생 3	안○○
	중학생	학생 4	김○○
		학생 5	박○○
		학생 6	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학생	학생 7	주○○
		학생 8	김○○
		학생 9	길○○
	중학생	학생 10	류○○
		학생 11	문○○
지역 공부방	초등학생	학생 12	이○○
		학생 13	윤○○
		학생 14	최○○
		학생 15	김○○
	중학생	학생 16	조○○
		학생 17	장○○
		학생 18	이○○
비참여	초등학생	학생 19	정○○
	중학생	학생 20	김○○

<표 Ⅴ-3> 학부모 집단 심층면접 대상자

기관	학교등급	일련번호	이 름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 학부모	학부모 1	최○○
		학부모 2	한○○
	중학생 학부모	학부모 3	김○○
		학부모 4	김○○
		학부모 5	신○○
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생 학부모	학부모 6	이○○
		학부모 7	서○○
	중학생 학부모	학부모 8	손○○
지역 공부방	초등학생 학부모	학부모 9	김○○
		학부모 10	박○○
		학부모 11	이○○
비참여	초등학생 학부모	학부모 12	김○○
		학부모 13	김○○
	중학생 학부모	학부모 14	최○○
		학부모 15	이○○

<표 Ⅴ-4> 교사집단 심층면접대상자

기관	학교등급	일련번호	이 름
방과후 학교	초등학교 교사	교사 1	박○○
		교사 2	박○○
		교사 3	정○○
	중학교 교사	교사 4	김 ○
		교사 5	손○○
		교사 6	한○○
		교사 7	박○○
방과후 아카데미	PM	교사 8	남○○
		교사 9	임○○
	SM	교사 10	정○○
		교사 11	서○○
		교사 12	이○○
		교사 13	유○○
지역 공부방	-	교사 14	송○○
		교사 15	김○○
		교사 16	김○○

2) 연구 내용

심층면접에서 다룬 내용으로는 학생의 경우, 가족관계, 프로그램 내용, 참가기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장단점, 기관에 바라는 점, 어려운 점 등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역시 인적사항과 부모의 직장생활 여부, 자녀의 방과후 생활에서 염려되는 점, 자녀들이 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장단점, 앞으로 바라는 점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교사 집단의 경우는 인적사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정도, 프로그램의 장단점, 운영

상의 어려운 점, 필요한 자원, 연계방안, 교사로서의 만족도,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3) 연구 절차

면접자는 청소년학과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세 명으로, 세 명 모두 과거 면접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 외 본 연구의 연구자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들이 미리 섭외된 면접대상자들과 사전에 약속을 한 후 면접대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실시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처음에 면접의 목적과 면접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면접자들이 말한 내용들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밝혔으며, 가능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다음에 가족구성원이나 부모의 귀가시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였고, 점차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 불만사항, 바라는 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맨 마지막으로는 질문 이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및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전화면접을 제외한 모든 경우 면접내용을 녹음을 한 후, 각 면접자가 각자 면담한 녹음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녹취과정에서 면접자가 응답자의 표현을 임의로 표준어로 수정을 하거나 문어체로 바꾸지 않도록 하였으며,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응답자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면접실시는 2006년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이루어 졌다. 응답내용을 각 문항별로 유사한 범주의 내용으로 묶어서 전체 응답대상자들의 의견을 몇 개의 단위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취한 원본자료는 <부록 1>에 첨부되어 있으며,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결과 분석

분석결과 제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별로 (1)방과후 학교, (2)방과후 아카데미, (3)지역아동센터의 순으로, 프로그램 내의 응답자 집단별로는 ①학생, ②학부모, ③교사의 순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④각 프로그램별 요약 및 소결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였다.

(1) 방과후 학교

(1)-1.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① 학생

❍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좋은 점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저가로 운영되고 있어서 부담 없이 배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터뷰에 응했던 아이들은 새롭게 배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컴퓨터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했다. 특히 방과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격증을 많이 따서 나중에 상급학교 진학시 가산점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 자유로운 분위기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학원의 경우 강의를 빡빡하게 하는 편이고, 숙제를 많이 내주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 때리기도 하고, 결석을 하면 금방 부모님께 보고가 되는 등 엄격하고 딱딱한 분위기인 데 반해서 방과후 학교는 훨씬 여유롭고 편안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학원의 엄격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아가 교사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했던 학생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내용이다.

"학교랑 배우는 건 똑같은데 학교가 더 재밌는 거 같아요. 학원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데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마다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니면 재량시간에 단체로 게임도 하고. 방과 후 활동이 더 좋은 거 같아요(학생 2, 김○○)."

• 장소의 편리함

방과후 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학교가 끝난 후 크게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몸이 덜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등교할 때 책만 넣어가지고 들고 오면 되니까(학생 2, 김○○)."

❍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힘든 점

• 과목 자체의 어려움

아이들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과목 자체에 대한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성조가 어렵다든가 논술 쓰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한다든가 등이었다.

② 학부모

❍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

• 안전한 보호와 학교에 대한 신뢰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하

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가 관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 안심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데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사를 쓰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므로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쓸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자녀의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단순히 교과목만을 가르치는 학원보다 방과후 학교를 선호하고 있었다.

• 성적 향상 및 자신감 획득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성적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한 학부모는 자녀가 과학 탐구반을 계속 함으로써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잃지 않고, 전반적인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했다. 과학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되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확대시키게 되는 효과도 얻게 되어 자녀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 다양한 경험

인터뷰에 응했던 학부모는 저가의 비용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경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어려운 과목이나 장기간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동요 부르기, 종이 접기, 미술활동, 로봇반 등은 학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일주일에 한두 번 부담 없이 취미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목들은 학교의 교과목과는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질이나 수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저학년 대상인 경우에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학교생활 적응도 증가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부모는 방과후 학교가 아이들의 생활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어서 친하게 되고 학교교사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이 바로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아진다는 점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 경제적 부담 저하

면접에 참가했던 일부 학부모는 방과후 학교가 확실히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원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같은 종류의 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의 경우는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과목에 따라서는 강의료 이외에 준비물이나 재료비용이 추가되어서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방과후 학교에 불만스러운 점

• 수준별 학습의 어려움

방과후 학교에 대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악기를 배우는 경우, 초급수준에서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반을 모집하기가 쉽다. 따라서 활동반이 유지가 되는데, 점점 실력이 향상될수록 초기의 아이들은 빠져나가고 숫자가 줄어들어서 남는 아이들이 몇 명 없게 된다.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로 반을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반과 합쳐서 배우게 되고, 아이가 진도를 제대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과목에 흥미를 잃고 싫증을 내어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아이의 실력은 점점 향상되는데 상급반이 없어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수준에서 머무는 문제는 단기간의 취미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개인지도가 필요한 과목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았다.

• 검증된 프로그램 부족

또 하나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문제로, 학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었다. 즉,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학부모가 믿고 맡길 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족하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학원에 비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학부모에게 확신을 시켜줄 만한 방안이 없는 것 같네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 적극성을 안 보이다 보니깐, 저도 거기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학부모 1, 최○○)."

• 시간표의 부적절성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방과후 활동이 운영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것이다. 학교가 오후 2시 반에서 3시에 끝나고 5시까지 한 두 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막상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요일을 바꾸어가면서 해도 3, 4가지 이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와 하교지도의 문제로 5시 이후까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느슨한 분위기

위에서 학생들이 좋아했던 자유로운 분위기를 학부모들은 '느슨한' 분위기라고 표현 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꽉 잡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다음은 학부모의 말이다.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면 학원보다는 아무래도 느슨하니까 부모님들이 분위기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학원보다 릴렉스하다 그런 이미지가 일반화 되어있는 거 같아요(학부모 2, 한○○)."

❍ 방과후 학교에 바라는 점

• 외부 전문 강사 및 위탁업체 선호

방과후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가지는 생각은 외부의 전문 강사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학교 교사들은 기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좀 더 집중해줄 수 있고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 교사보다는 외부의 전문 강사가 낫다고 판단하고, 운영 자체를 외부의 전문적인 위탁업체에게 맡기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한 편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예체능 부분에 초점을 둔 방과후 활동이었다. 주요 과목은 어차피 학원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 부분은 차라리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서는 예체능 분야를 저렴한 가격으로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주요 과목 위주

그러나 주요 과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아무래도 학원에 보내기에 부담스러운 가정의 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요 과목을 저렴한 가격에서 학교에서 맡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③ 교사

❍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장점

• 인성교육

교사들이 말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학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은 인성교육을 한다는 점이었다. 가르치는 방식이나 질에서는 학교나 학원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말하지 않는 인간성, 품성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 운영의 주체

• 위탁업체와 학교장 직영

교사들 사이에서 운영을 누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위탁업체의 장점을 말하는 쪽과 위탁의 문제를 말하는 쪽이 공존하고 있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학교입장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에서는 컴퓨터교육을 예로 들고 있었다.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이 최신기종을 써야 하는데, 학교에서 최신기종의 컴퓨터를 살만한 예산은 없다는 것이다. 이 때 업체에서 학교에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전문 강사가 교육을 맡아서 해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로 방과후 활동까지 제대로 신경 쓰기 힘든데 업체에 맡기고 중간관리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있었는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모두 맡아서 한다면 학교가 사설학원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학교가 맡아서 해야 하고, 양질의 강사 확보문제가 가장 어려우나 헌신적인 교사들만 있다면 직영이 좋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결국은 교사의 희생과 헌신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 개별지도의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개별적인 지도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는데, 학생의 수가 많든 적든 문제는 나타나고 있었다. 많은 경우는 따라오지 못하는 일부의 아이들에 대한 개별지도가 안되고, 소수인 경우에는 그 소수의 편차가 심할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반 아이들의 수가 많으면 오히려 중간수준을 놓고 수업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소수라고 개별적 운영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과다한 업무

교사들이 지적한 어려운 점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이 언급되었는데, 교사들의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수납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은 4시 반으로 짧은 업무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 교사 동기부여(보상) 부족

또 하나의 문제는 동기 부족인데, 국가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매우 이상적이고 훌륭하지만 현실은 이상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와 열정인데, 그 것을 국가에서 적절히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단순히 교사의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특별히 방과후 프로그램을 담당할만한 유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서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는 어려워 보였다.

• 교육부와 학부모의 지향하는 욕구 차이의 한계

학교 교사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바와 학부모의 욕구가 다르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느끼기에는 학부모가 관심 있는 것은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조금 싼 값으로 잘 배우고 싶다는 욕구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영수 등의 핵심과목이지 특기적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특기적성이므로 학부모의 실제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구나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④ 요약

<표 Ⅴ-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심층면접 결과 요약

	내용
학생	❍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좋은 점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 • 자유로운 분위기 • 장소의 편리함 ❍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힘든 점 • 과목 자체의 어려움
학부모	❍ 방과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 • 안전한 보호와 학교에 대한 신뢰 • 성적 향상 및 자신감 획득 • 다양한 경험 • 학교생활 적응도 증가 • 경제적 부담 저하 ❍ 방과후 학교에 불만스러운 점 • 수준별 학습의 어려움 • 검증된 프로그램 부족 • 시간 배치 부적당 • 느슨한 분위기 ❍ 방과후 학교에 바라는 점 • 외부 전문 강사 및 위탁업체 선호 •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 주요 과목 위주
교사	❍ 방과후 프로그램의 장점 • 인성교육 ❍ 운영의 주체 • 외부위탁과 학교장 직영 ❍ 프로그램을 운영의 어려운 점 • 개별지도의 어려움 • 과다한 업무 • 교사 동기부여(보상) 부족 • 교육부와 학부모의 지향하는 욕구 차이의 한계

(1)-2. 방과후 학교 비참여 집단

① 학생

❍ 방과후에 무엇을 하나: 학원 또는 과외

방과후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더니, 주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과외의 경우 금토일을 빼고는 매일 한다고 하였고, 영어나 수학을 위주로 하루에 두 시간씩 한다고 했다. 학원과 과외를 같이 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학원을 다니는 것은 현재는 본인이 원해서 다니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

• 개별지도의 어려움

학원이 학교에 비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학교에 대해서는 매우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교사들도 자신들에게 별로 신경도 써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단 학교는 학생이 많고 교사가 한사람씩 봐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준별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원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면접에 응했던 학생은 방과후 학교에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다. 즉,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있다면 듣겠는데, 학원이 더 낫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학원에 다님으로 해서 자신의 실력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데, 학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영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그런 반이 있으면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죠. 둘 중(방과후 학교와 학원을 의미함)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전 아무래도 학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학원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고, 지금 여기 학원에 와서 제 실력이 늘은 것을 확실히 느껴가지고 여기서 다니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요(학생 19, 정○○)."

❍ 학원에 대한 신뢰이유

• 성적향상

학원에 다녀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성적의 향상을 꼽았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집중도 잘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학원 강사들은 개별적 지도를 하고 있었다. 개별 지도로 인하여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 성적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얘들 다 같이 모여 놓고 수업을 하니까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이 진도만 나가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못 따라 갈 때도 있고, 따라 갈 때도 있고 하는데, 학원은 선생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학생 19, 정○○)."

② 학부모

면접에 응했던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거나 과외를 시키고 있었는데,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원에 대한 신뢰가 학생보다 훨씬 심했다.

❍ 방과후 공적 시스템에 대한 편견

•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는 것

일단 비참여 집단의 학부모들은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대부분의 방과후 공적 시스템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회적으로 최하층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학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원봉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TV에서 보았는데,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굉장히 열악하고 불쌍하게 표현을 했던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그런 곳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하게 대답하였다.

• 교육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

비참여 학부모들이 방과후 공적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편견은 수업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신들은 자녀를 집에서 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런 데'에는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과 함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저소득층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학교에 대한 불신

•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비참여 집단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해서 매우 불신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경우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에 참가했던 학부모의 자녀는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와 상의를 학원의 강사와 하고 있었다. 학교 교사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학교는 아이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아이들의 진로에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애들의 시험날짜가 언제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특목고에 갈 수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

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아이에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의 경우는 과학고를 준비하는데, 과학고를 가려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서 2-3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면 졸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왜 졸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관심 없이 그냥 혼내거나 벌세우거나 관심조차 없거나 셋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보도 없고 담임은 방해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학부모 15, 이○○)."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 저하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만 하거나 방학이면 아예 쉬는 경우도 많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문제를 그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준이 맞지 않아서 배울 수가 없더라구요.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과 후 가르치는 것은 순전히 초짜들이 깽깽거리는 수준이고 개인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놓고 대충 낮은 수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이 배운 아이들은 가서 배울게 없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개별적 지도는 되지 않으니까 다녀봤자 아무리 싸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요(학부모 15, 이○○)."

" 학교에서 하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선생님이 정규적이지 않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구요. 선생님의 질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가가지 않구요, 우리 애는 영어를 하는데, 영어는 매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 하고, 방학 때는 또 안하고, 그러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별로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학원은 매일 하거나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고, 애가 만약에 안 나오면 금방 전화가 와서 애들이 왜 안 왔는지를 체크하고, 숙제를 안 해왔으면 왜 안 해왔는지 전화오고, 점검표를 보내주고 등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주지요(학부모 12, 김○○)."

• 대규모 학급의 비효율성

또 하나 학교가 불리한 것은 대규모라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을 대규모로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수준별 집중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학원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었다.

• 열악한 시설

학교의 열악한 시설은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에서 떠나게 하는 큰 요인으로 보였다. 학원은 깨끗하고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반면, 학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라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악한 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학원은 여름엔 에어컨 나오죠, 겨울엔 난방 되지요, 시설도 깨끗하지요. 의자나 책상도 편안하구요. 그런데 학교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의자나 책상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니까.....기본 시설자체도 그래요(학부모 15, 이○○)."

❍ 학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번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불신감에 비해 학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한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 학원 강사에 대한 신뢰

면접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원 강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끊임없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너무나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관리

한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 학부모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고객감동'이라는 것이다.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학교에 비해서 학원에서는 결석한 날의 보충학습까지 철저히 해주므로 어떤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학부모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학원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정말 고객감동이에요. 실력향상이 안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은 애들에게 완전히 All in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학교에서는 애가 공부가 뒤처지든 말든 결석을 하든 말든 상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을 수준별로 편성해서 그 애가 알 때까지 가르치고 시험을 봐서 또 틀리면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애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는 학원만큼 정성스럽지가 않아요(학부모 15, 이○○)."

학교 선생님이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데 실력이 더 좋지 않겠냐는 질문에,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만 학교 교사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학원 교사들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가 더 낫다고 표현하였다.

"물론 학교교사도 수준 높고 훌륭한 교사가 많이 있지요. 오히려 학원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도 없고,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그들은 노력을 해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기법이나 아이들 파악이나 관리, 부모님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애들을 선생님이 책임지고 이끌지요. 그에 비해서 학교 교사는 경쟁체제가 아니고 한번 교사가 되면 짤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학부모 15, 이○○)."

따라서 면접을 했던 한 학부모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괜히 학교에 붙잡아 두지 말고 진짜 성적 향상을 원한다면 돈으로 쿠폰을 주어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다고 까지 말하였다.

• 고객서비스 차원에서의 학생관리

학원은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러한 관리에 대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가 해야 할 여러 관리들을 학원 강사가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비가 방과후 학교에 비해 아무리 비싸도 학교보다는 학원을 택할 것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학원이 어떻게 고객서비스를 하는지 한 학부모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학원은 애들이 일단 들어가면 애의 실력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10분만 늦어도 전화가 옵니다. 애가 안 왔다고. 또 애가 친척집에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들으면 개인적으로 보충학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디 그렇게 해주나요? 학원비가 비싸긴 하지만 학원비만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지요(학부모 15, 이○○)."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값싼 수강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강사의 매는 사랑의 매

학교에 비해서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어떤 아이는 방과후 학교에서는 때리지 않아서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때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런데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신뢰가 너무 절대적이어서 그것은 진짜로 학생을 위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학생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학교 교사의 매는 화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때리기도 하죠. 하지만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 그것은 진짜로 자신을 위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그건 괜히 성질나서 때리는구나 하지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학원은 필수라고 학부모들이나 애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불신감

이 매우 팽배해 있어요(학부모 15, 이○○)."

이러한 학교에 대한 불신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해보였으며 공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이렇게까지 외면당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없앤다는 것은 당분간은 불가능해 보였다.

● 학원이 우선

만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괜찮으면 보내겠냐는 질문에 한 학부모는 시간만 맞으면 보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은 일견 긍정적인 응답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였다. 왜냐하면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학원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방과후 학교와 학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원이 우선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단, 연속적이고 수준이 실제로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③요약

<표 Ⅴ-6> 방과후 학교 비참여 집단의 심층면접 결과 요약

	내용
학생	❍ 방과후에 무엇을 하나: • 학원 또는 과외 ❍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 • 개별지도의 어려움 • 원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 학원에 대한 신뢰이유 • 성적향상
학부모	❍ 방과후 공적 시스템에 대한 편견 •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는 것 • 교육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 ❍ 학교에 대한 불신 •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 저하 • 대규모 학급의 비효율성 • 열악한 시설 ❍ 학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 • 학원 강사에 대한 신뢰 • 고객서비스 차원에서의 학생관리 • 강사의 매는 사랑의 매 • 학원이 우선

(2) 방과후 아카데미

① 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과 면접한 내용 중 분석의 초점은 방과후 아카데미의 좋은 점, 방과후 아카데미의 힘든 점, 그리고 바라는 점이었다.

❍ 방과 후 아카데미의 좋은 점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와 태도를 면

접을 통해 추출하고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의 좋은 점이라고 꼽은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 둘째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은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수영, 국악, 중국어, 요가, 째즈댄스, 발레, 리본공예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의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대상자이기 때문에, 학원에 갈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 성적 향상에 도움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경우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공부를 함으로써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경제적 형편상 일반 학원을 다니면서 보충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정해진 수업과 숙제지도를 받음으로써 성적이 향상됨을 느끼고 거기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한 아이는 반에서 성적이 50%정도였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10등 이내에 든다고 응답을 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고 교사의 관심밖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교사가 아닌 아카데미 교사로부터 수업을 들음으로써 보다 더 친근하게 학업에 접근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교사의 관심 등으로 인하여 학습동기가 유발되어 긍정적 성취와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체험활동보다는 시험이나 성적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에 제시한 한 학생의 체험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토요일에는 문화탐방을 해요. (문화탐방 어때요?) 백번 김구도 한번 갔다 와 봤는데요. 역사에 대해선 아는데 김구만 알면 뭐해요. (왜?) 김구만 알면 뭐해요 딴사람들도 다 알아야지. 시험문제에 김구만 알고 1점 맞아요?" (성적이 중요한가보네?) "네"(학생 ㄱ, 주○○)

❍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의 힘든 점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힘들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언급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이었다. 하나는 교과목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빡빡하다는 문제였으며, 나머지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문제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교과목 따라가기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온 답은 영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과목이었다.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특성상 성적이 낮고 공부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다보니 교과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였다. 즉 프로그램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각종 특기적성 과목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대화는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목에 대한 어려움과 자신없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면접자: "어려운 거 있어요?"

"영어요. 너무 어렵고요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수학... 많이 빠지니까...(많이 빠져요?) 네 많이 빠져요. 그래 가지고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잘 못 하는 거니까 마음이 그래요. 거의 맨날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학생 ㄱ, 주○○).

•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시간이 빡빡하다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방과후 아카데미에 와서 꽉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므로 잠시도 쉴 틈이 없고 날마다 지쳐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더구나 주말에도 체험학습으로 외부에 나가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유시간과 공간이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 통학의 어려움

아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기관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인데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자주 운행되지 못하여 한번 놓치면 걸어야 하는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방과후에 하고 싶은 일

아이들이 전혀 시간이 없이 빡빡하게 일주일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에 자유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물어봄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것,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 자유 시간이었다.

• 친구와 어울리기

아이들이 한창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인데 꽉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과목 공부와 특기적성을 배우다보니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해보였다. 아이들은 그냥 컴퓨터를 하고 놀거나 축구를 하거나 그냥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싶어 하고 있었다. 더구나 방과후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나면 아카데미 친구들과는 더욱 친해지지만 학교친구들과는 어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

면서 더욱 학교생활로부터 동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주말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친한 학교친구와 어울리겠는데, 주말이면 체험학습으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말이었다.

• 취미활동

다른 하나는 교과목이 아닌 피아노, 비즈공예 등의 취미활동으로 교과목 외에 본인이 흥미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즉 공부가 아닌 다른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다.

• 자유 시간 즐기기

아이들은 시간표가 빡빡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힘들어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개별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특히 주말에는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체험해도 좋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② 학부모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들을 면접한 결과 중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하였다. 첫째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이고, 둘째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바라는 점이나 불만스러운 점이었다.

❍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

● 성적 향상과 자신감 향상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일단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와서 새롭게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학교 성적도 올라가고 경진대회에도 나가는 등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의 면접 내용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향상과 그로 인한 자신감 획득으로 기뻐하는 모습과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과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100점으로 올랐구요. 특별히 잘하는 과목으로 올랐는데...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빠져서. 조금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저는 그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잖아요. 다른 학부형들에 비해서 특혜 받은 자 중에 하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못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너무 어려워. 너무 싫어' 이랬던 아이가 여기 이제 직접 체험 있잖아요. 직접 해부를 하고 만져보고 직접 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과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흰 특혜를 받은 거죠. 애의 숨겨진 재능을 몰랐죠. 저도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엄마도 없었고, 싫어하니까 '아 나도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야'라고 생각했지 아이가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고, 과학대회 나간다고 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 했어요. '니가 어떻게 나가냐' 할 만큼. 아이도 저도 그런데 가서 상을 타고 아이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매일 물어봐요 제가. '정말 재밌니?' '어, 엄마 너무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학부모 b, 이○○)."

● 성격의 긍정적 변화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의 경우 저소득층이고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교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소외되다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와서 교사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

게 되면서 자신감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격이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되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교만하게 세워주신 건 아니구요, 칭찬해주신 거죠. '**이라면 할 수 있다. **이가 잠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만 큼 된 거다'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또 그거를 친구들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오픈시켜서 나누게 해 주시고...그런 과정들의 손길은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과 열의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애요(학부모 6, 이○○)"

" **이는 4학년 때 까지는 교우관계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가 피부가 굉장히 심한 아토피라서 학교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운된 원래 성격이 그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따처럼...적응을 못한 거죠.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신감이. 그런데 5학년 때 담임선생님 만나면서 회복이 됐어요. 학교에서도...선생님이 세워주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오면서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자꾸 뭔가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지금은 뭐...좋아요(학부모 6, 이○○)"

"여기 와서 더 명랑해졌어요. 그리고 긍정적이 됐어요(학부모 7, 서○○),

"적응도 잘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학교에서도. 전학 온 앤지 아닌지 잘 모른데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학부모 7, 서○○)"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학부모 8, 손○○)"

• 다양한 외부 활동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외부활동으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는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주말에 데리고 나가니까 학부모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경우 시간을 내기도 어렵지만 학부모 본인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체험학습은 아이들과는 별도로 부모에게 좋은 점이 되는 듯한 인상이었다.

"가장 좋은 점은 맞벌이다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에 정상적으로 쉬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토요일 날 같은 때 잘 데리고 나가세요. 아이들이 접해보지 않은 갯벌체험이라던가 남이섬이라든가 그런데는 좀처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 맞추기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아요(학부모 8, 손○○)"

❍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

• 경제적 부담 해결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에게 따로 개인과외도 시키고 문화체험을 위해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공부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주말마다 문화체험을 한다는 데서 부모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자녀의 교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는 듯 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애들한테 문화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걸 엄두를 못 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또 그것들이 경험할 수 있고...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잘 이렇게 이어서 가구요. 또 외부체험 나가는 학습들도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학부모 6, 이○○)."

• 교사로 인한 양육 부담 줄어듦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아이를 혼자 방치하지 않아도 되고, 아

이들의 보육을 교사들이 맡아준다는 점에서 매우 안심하고 있었다. 부모가 늦게 들어오게 되면 빈 집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늦게까지 있게 되고 버스로 집까지 데려다주므로 안전하고, 자녀를 빈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아도 되며, 교사들이 관리를 해주니까 본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많이 경감되는 것으로 보였다.

"집에 혼자 있으면 좀 불쌍하잖아요. 집에 갈 때까지 시골이다 보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디든지 전화하면 상황을 아시니까. 그런 거 안심되고 좋아요. 엄마가 먼저 들어가서 애를 맞으니까 그게 좋아요. 그리고 부담감이 덜해요. 그런데 욕심을 갖고 공부 좀 해줬으면 선생님들한테도 보람도 있고 즐거울 텐데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은 속 터질거 아네요. 혼내켜주세요 그러긴 하는데... (학부모 7, 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9시쯤에 아이들이 끝나거든요. 9시 10시쯤에. 일반 학원보다도 여기가 더 안심이 되요.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일단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 정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깔린 게 있는 것 같아요(학부모 8, 손○○)."

❍ 방과후 아카데미에 불만스러운 점 및 바라는 점

• 참관수업 실시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처럼 참관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녀가 와서 말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눈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느끼고,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개석상에 선생님들의 강의를 참여해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아카데미는)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면 그때 그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온전한 거는 아니죠. 오픈된 공개석상에 있으면

학부형들이 좀 더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엄마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아이들은 아이들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고 어른은 어른의 기준으로....그게 좀 아쉬웠어요. 전체 과목을 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학부모 6, 이○○)"

• 암기과목 지도

학부모들은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국, 영, 수 과목 이외에 암기과목을 지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마치 학원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기본적인 과목의 성적이 올라가니까 아예 암기과목 과외까지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하는 지점으로 보인다. 특히 이 말을 한 학부모는 학업보다는 인성 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학부모로 말은 인성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외공부선생 역할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국어, 수학, 영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기과목은 자기 주도적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암기과목 성적이 안 나와요. 국어, 수학, 영어는 해주시니까 그거는 쫓아가는데 공부를 잘하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만 보조만 해주셔도...(학부모 8, 손○○)"

• 개인적 상담 및 인성교육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해주고 가능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신경써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본인들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 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부모가 해야 할 부분을 교사에게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부모로써 자녀에게 해주어야하는 얘기들, 부모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교사가 하지 못한다고 서운해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성교육이나 개인적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의무는 아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을 확실하게 해

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학업보다는 인성 쪽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학원에서 타이트하게 막 강박관념을 주는 식의 공부는 별로 원치 않았거든요.....(중략)..... 애들한테 왜 공부가 필요한지 가르쳐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중략).....왜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왜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애요(학부모 ㅂ, 이○○)."

"선생님들이 각자 개인에 따라 상담을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여기는. 그래도 그 애에 대해서 알아야지 아픈 데가 어딘지 알지 않을까 싶었는데....(학부모 ㅈ, 서○○)."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들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 즉,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했다고 느끼고 교사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더해서 기본 교과목도 봐주고 암기과목도 봐주고 특기적성도 살려주며 주말에는 데리고 야외로 나가고 애들의 인성교육과 심리 상담까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바램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실망도 더 커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학부모 스스로의 기대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③ 교사

❍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 예산운용의 융통성 결여

교사들은 예산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지역 아동센터나 다른 기관에 비해 풍부한 금액을 지원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기관에 따라 교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예산을 따는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예산 지원은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시하고 협조가 잘 되서 예산 지원은 원할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없으세요?) 예. 저희가 예산 요청하면 시에서도 최대한...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예산도 바로 내려오는 편입니다(교사 8, 남○○)"

"저희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기관보다는 우리가 발로 뛰고 하니까... (교사 12, 이○○)"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교사 13, 유○○)"

그러나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도 있었는데, 강사비와 급식비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질 좋은 강사를 섭외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하기위해서는 현재의 강사료가지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원어민 강사와 같은 전문 강사들은 현재의 강사료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체제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강사료 책정이 3만원이 넘지 않게 했어요.....(중략)..... 그런데 이제, 원어민이라든지, 정말 전문선생님들 3만원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고, 인원이 한반 당 20명 정도 되니까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개별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5명, 10명 위주로 하는데, (여긴)20명이잖아요. 그게 강사 한분을 가지고 스무 명을 한다는 게 어머니들의 이해는 못하시겠죠. 저희도 그래서 그룹별로 해서 대학생이랑 지금 연계를 해서 대학교 보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을 봐주고 계시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여러 명 수학, 영어에 있어서 그룹화해서 수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교사 9, 임○○)"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예산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있는 예산을 적절히 전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즉, 예산이 항목마다 엄격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는 부족하고, 어느 항목에서는 남아도 그 남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으로 전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아카데미 활동 운영에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어요. 딱 어디 정해져 오는 운영비. 체험 학습비 나오면 이거를 딴 데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지만 실제로 그거를 유용하게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융통성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못사니까...저희가 복사를 해서 책을 해주지만 애들이 문제집을 사오는 애가 있고 안 사오는 애가 있는데...우리가 돈이 남아서 문제집을 사주고 싶어도 살수가 없는 거예요(교사 12, 이○○)"

• 전문성 부족과 교사연수의 필요성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은 스스로 전문성에 한계를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아이들의 심리 상담 분야나 교과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였는데, 일시적인 연수로는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PM, SM 선생님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아이들의 인성이나 상담까지도 책임지다 보니까 전문 영역에서의 지도에 한계를 느껴요(교사 82, 남○○)"

"일단 개별적으로 교육을 필요한 거는 대부분의 원하는 교육은 연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연수는 일년에 두 번이고 1박2일이라 빠른 시간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거 같은 게, 아이들과의 상담, 아이들 또래관계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필요해요. 영어랑 수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죠

(교사 9, 임○○)."

• 지도자의 처우 불만과 업무과중

교사들은 현재 교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많은 불만사항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서류업무가 너무 많고, 그 외에 시설관리, 도서관 관리, 아이들 관리, 프로그램 구성, 예산편성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주어지는 보수는 만족스럽지 않으니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저희는 SM들도 프로그램도 짜고 문화탐방, 생태체험 계획표도 짜구요. 결과보고도 쓰고요. 에어컨 시설관리 같은 거 직접 견적서 받고, 기획안 올리고 해야 되요. 업무가 가중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청소년 관리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하지만 월급은 굉장히 작고...그니까 급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보다.....북 까페도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책 다 구입하고 예산까지 하고 하니까..... 그렇게 안하면 재단 내에서는 능력이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그런데 아이들 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니까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인 거예요(교사 12, 이○○)"

• 학부모 욕구 불만

학부모 분석에서 연구자가 파악한 문제가 교사들의 입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다. 즉, 부모들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점점 요구가 다양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런 현상에 대해 교사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의 말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어머님들의 많은 욕구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줘라 이런 게 있고,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정하면 어느 정도 지속을 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욕구는 끝없이 들어오고.....(중략).....여기는.....욕구가 많아요. 욕구도 많고, 기대도 많고, 적은 시간에 더 많은걸 요구하시고,.....예를 들면, 영어 리딩에 회화를 하고 있으면 문법도 요구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충족은 힘든 거 같아요(교사 10, 정○○)."

❍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좋아하는 점

•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활동, 실험 등)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결과 교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었다. 다른 곳에서는 무료로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이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음악, 놀이, 체육, 과학, 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에 제시된 교사의 인터뷰 내용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대목이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90%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교사 8, 남○○)."

• 심리적 안정성

아이들에게 좋은 점 중 다른 하나는 심리적 안정성이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학원을 가거나 친구들과 여기저기를 떠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에게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급식이 제공되며 집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는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아이들이 기존에는 맞벌이 나가시면 혼자 집에 있거나, 혼자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정되고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교실은 얘네 전용교실이에요. 일찍 와서 아이들끼리 놀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늘 간식 나눠주고, 그리고 한곳에서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중략).....한 곳에서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애들하고 또래관계가 형성이 돼서 좋은 거 같아요(교사 9, 임○○)."

❍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힘들어 하는 점

• 빡빡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힘들어 하는 점은 역시 빡빡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와 피곤함이었다. 이는 학생들에게서도 나왔던 내용으로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이 코피를 쏟거나 아토피가 생기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을 때 '우리 좀 제발 쉬게 해 주세요'라고 쓴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방과후 아카데미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를 해도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음의 면접 내용에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저희도 늦은 시간에 아이들 보내는 게 걱정도 되고 그래요(교사 11, 서○○)"

"학기 초기에는 애들이 코피를 쏟았어요. 힘들어서. 3시 40분에 와서 8시에 가고. 집에 가서 자기시간에는 학교 숙제 하라 그러지, 학교 짐을 또 들고 와야 되면 가방이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아까 왔던 애 있죠. 걔는 얼굴이 다 뒤집어졌어요. 아토피가 있고...힘들어서 비실비실하고 우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기에 방과후 아카데미 좋긴 좋은데 애들을 잡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초반에는 건의사항, 제가 말도 안했는데 애들이 건의사항 썼더라구요. '우리 좀 제발 쉬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위원회에. 그게 반영이 안되고...(교사 12, 이○○)

"애들이 피곤해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씩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애들이랑 연계가 돼서 보충학습도 해요. 중국어, 수학, 영어. 학기 초에는 정말 (코피) 쏟았어요. 코피 쏟았는데 저희만 쏟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거기도 코피 쏟아요? 우리 애들도 코피 쏟았는데' 이래요. 근데 오는 건 좋아해요. 간혹 오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요(교사 12, 이○○).

• 자존심 상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장점이면서 동

시에 학생들에게 부끄러움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학원가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한번 와보라고 했는데, 와서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나서는 하루 종일 울다 그냥 간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예민한 청소년기에 자선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직접 물어보아도 본인들이 입 밖에 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관찰로는 아이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이들과 부모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여기를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밖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학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교사 11, 서○○)"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복지관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안온다고 우는 애가 있었어요. '안와요' 그러고 엄마한테 '안다녀!' 이러면서 그런 얘길 했었어요(교사 12, 이○○)."

"저희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모르고 참석했다가 여기서 지내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어느 어머니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자녀가 의기소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아이들 모집을 할 경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교사 132, 유○○)."

이러한 아이들의 태도에 교사들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음 쓰는 것으로 보였다. 국가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돈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의 내용은 교사의 말을 듣고 아이가 자존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국가에서 너희들 돈 대주는 건 너희들 주는 거 아니다. 국가에서 너희들 일인당 해서 얼마나 지원해주는 줄 아냐. 너희들 가난해서 그러는 것 같으냐. 대

통령이 나와서 방과후 아카데미 밀어준다는 얘기 못 들었냐. 이것은 인재를 육성하는 거다.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거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다 복지가 아니다. 여기가 사회복지관이냐. 그러면 '아' 이러고 좋아해요.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 이야기해줘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은근히 이해하고 자부심 갖고 어떤 애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저는 왜 여기 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교사 12, 이○○)."

이런 문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으로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유발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방식, 프로그램의 정체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와 연계방안

• 학교 교사와 아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의 필요성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학교 교사와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기 초에 담임교사를 초대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 의논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연계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폐쇄적인 편이고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와의 연계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홍보지를 받을 뿐 관심을 보이는 교사는 별로 없어보였다. 어떤 경우는 애에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엄마한테 전화할 텐데 왜 당신이 여기를 오냐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했을 때 일반형의 경우 돈을 받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돈을 내는 것에 대한 공식적 홍보는 할 수 없으며, 만일 일반형을 학교에서 홍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학원을 홍보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아직 학교에서도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학교 선생님에게) 아이들에 대해 여쭤보고, 늦게 오는지 물어보고, 학교방문도 해서 상담을 했었어요, 아이 학교생활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은 성적표 꺼내주시면서 엄마대신에 얘는 이게 부족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말씀해주시는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 월권이라고. 내가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할 텐데 왜 여기서 오냐고 뭐라고 해서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일이 있었어요. 학교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할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돈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문에도 안내주시고, 학교 앞에서 홍보지 돌리는 것도 못하게 하세요(교사 9, 임○○)."

"학교는 선생님이 많이 오픈되어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아이들은...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아니고 관심 밖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학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형식적 인 거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받고 형식적으로 주는 그런 게 되더라구요(교사 11, 서○○)."

그러나 현재 연계를 하고 있는 기관은 교사들과 직접 교류를 통해서 특별강연도 듣고 상담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며, 연수기회도 함께 제공하며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 배우는 방식으로 연계활동을 하고 있었다. 학교와 서로 연계가 잘 된 경우에는 아이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저희가 과학탐구실험대회 때도 일부 담임선생님들을 불렀어요. 시상식 하는 거 담임선생님 보시라고. 애들이 '어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 상 받는 거 보러 오셨다' 고....(좋아했어요).....(중략)..... 저희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한번은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요새 표정이 어둡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달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들이 서로 서로 싸운 거예요. 다니기 싫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화해를 시켜서 지금 너무 잘 다녀요.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얘길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가요?'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이

런 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교사 12, 이○○)."

"그 아이는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급자보다 못사는 아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고, 그걸 담임선생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수급자 혜택이 됐고 진행 사항도 알려 드리려고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정말 감사하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일일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교사 12, 이○○)."

④ 요약

<표 Ⅴ-7> 방과후 아카데미 집단 심층면접 결과 요약

	내 용
학생	❍ 방과후 아카데미의 좋은 점 • 다양한 프로그램 • 성적 향상에 도움 ❍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의 힘든 점 • 교과목 따라가기 •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 통학의 어려움 ❍ 방과후에 하고 싶은 일 • 친구와 어울리기 • 취미활동 • 자유 시간 즐기기
학부모	❍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 • 성적 향상과 자신감 향상 • 성격의 긍정적 변화 • 다양한 외부 활동 ❍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 • 경제적 부담 해결 • 교사로 인한 양육 부담 줄어듦 ❍ 방과후 아카데미에 불만스러운 점 및 바라는 점 • 참관수업 실시 • 암기과목 지도 • 개인적 상담 및 인성교육
교사	❍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 예산운용의 융통성 결여 • 전문성 부족과 교사연수의 필요성 • 지도자의 처우 불만과 업무과중 ❍ 아이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좋아하는 점 •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활동, 실험 등) • 심리적 안정성 ❍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힘들어 하는 점 • 빡빡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 • 자존심 상함 ❍ 학교와 연계방안 • 학교 교사와 아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의 필요성

(3) 지역아동센터

① 학생

❍ 공부방에서 하는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와는 또 다르게 조금 더 여유로운 프로그램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학교숙제지도나 문제집 풀기, 컴퓨터, 독서지도, 그리고 간단한 취미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었다. 강사를 초빙하여 수학이나 영어도 하기는 하지만 기본 목적이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다.

❍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

• 성적 향상

공부방에 와서 좋은 점으로 아이들은 성적 향상을 들었다. 학원처럼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옆에서 지도함으로써 성적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었다. 특히 교사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방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교사들도 아이들의 공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아이들이 직접 말한 내용이다.

"성적도 올릴 수도 있고. 수학 성적 올랐어요.....(실질적으로 성적이 오르거나 그랬니?) 네. (어떻게?) 못하는 것도 잘 되어가고. (모르는 건 선생님이 잘 봐주고?) 네."(학생 16, 조○○)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학습방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영어를 제일 잘해요. (여기서 하는 영어공부가 어때? 잘 가르쳐 주시나?)영어 쉬워서 그냥 하는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 쉬워요(학생 15, 김○○)."

•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교사와의 관계

학생들은 친구와 어울리면서 놀고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보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 나오지 않으면 혼자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또래의 아동들이 모여 어울리면서 공부도 하고 어른이 돌봐준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 다양한 활동

또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서예나 음악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방과후 학교의 저렴한 수강료도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았다.

• 급식

지역아동센터의 큰 기능이 방과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저녁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아이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서 혼자 먹으면 매일 똑같은 것을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식단이 매일 바뀌고 영양도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다.

❍ 공부방에 바라는 점

• 운영 연장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바라는 게 없다고 했다. 그냥 지금 평소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응답에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방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가끔씩 밤까지 운영을 하거나 방학 때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 시설 및 교육기구

다른 것은 시설과 교육기구에 대한 언급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풍부

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다보니 공간이 협소해서 공부를 하거나 쉬는 공간이 잘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였다.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다른 애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음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따로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었다. 또 다른 것은 컴퓨터와 사물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② 학부모

❍ 지역 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서 자녀에게 좋은 점

• 성적 향상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보내서 가장 좋은 점은 아동과 동일하게 성적향상이었다. 경제적 여건상 학원에는 보내지 못하고 부모가 직접 가르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예전의 애가 축 늘어지고 의욕이 없었는데, 다니고 나서는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학부모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 성적이 향상된 데서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 공부방 교사의 보살핌

학부모들은 공부방 교사들의 보살핌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이었다. 본인들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안함과 불안함을 교사들이 맡아서 공부도 시켜주고 식사지도까지 해주고 아프면 아픈 것까지 챙겨준다는 것이다. 다음은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일단 선생님들이 우리 애를 자기 자녀처럼 생각 해주는 게 **이가 참 복 받은 일인 것 같아요. 간혹 아프면 너무 속상해 하고 공부도 도와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학부모 10, 박○○)."

• 다양한 활동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활동이 부담되는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방학 때는 캠프도 가며, 뮤지컬 등의 문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 심리적 안정

또 하나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이었다. 예전에는 아이가 좀 침울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나서부터 아이가 밝아진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형제처럼 보살피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공부방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가 끝난 다음에 어디에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

•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어머니들은 자녀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나서 저녁때 일이 늦게 끝나도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부방의 분위기에서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며, 부모가 가르치기 학교공부를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저녁식사까지 해결해주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아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저소득층 학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라는 목적은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경제적인 부담 해소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의 해소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든 것을 부모가 시켜야 하는데 특기적성과 과외, 저녁식사 등에 드는 비용

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줄어들어서 많은 부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 공부방의 부족한 점 및 바라는 점

• 수업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

공부방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학부모들은 대부분'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수업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언급하였다. 물론 공부방 교사들이 아이들을 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적 선생님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다 만족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좀 불안하죠. 영어 수업을 전문적인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뒤떨어지는 학업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한 명 한 명 가르쳐 주기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학부모 15, 이○○)."

❍ 지역아동센터에 바라는 점

• 더 많은 센터의 확산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센터가 많이 생겨서 다른 많은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학부모가 직접 표현한 것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제가 공부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걸 보고, 우리 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공부방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넓고 더 많은 애들이 왔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어요(학부모 9, 김○○)."

• 학과 공부에 집중

학부모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욕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학과 공부를 잘 지도해서 성적을 향상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내었다.

"학과공부를 잘 해주시고 학습부분에 더욱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학부모 15, 이○○). "

③ 교사

❍ 운영되는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숙제지도, 수학이나 국어 문제집 풀기, 책 읽히기, 독후감쓰기 일기쓰기, 영어, 한문, 컴퓨터, 그 외에 학교에서 배우는 전체 과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하는 교과목 프로그램이 있었다. 주말에는 비디오를 보거나 그냥 놀거나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야외활동을 하는데 산행을 하거나 견학을 가거나 전시회나 영화관 등을 다양하게 찾고 있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학 중에는 음악교실이 있어서 악기연주나 노래, 서예,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 공부방의 좋은 점

• 가정과의 연계

공부방이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점은 가정과의 연계성이다. 동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깝고 가정형편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학부모와 접촉도 용이하다. 따라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과 의논해서 개입할 수 있고 분위기

자체도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집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다음에서 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가정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학교선생님은 담임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보호자를 면담하거나 아이를 상담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정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있고 부모님과 의논해서 아이에게 개입할 수 있고...(교사 14, 송○○)"

●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헌신

교사들은 스스로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자부하고 있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는 아침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고 나서 또 아이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에너지 면에서 힘들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자신들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사업에 진짜 살아있는 묻어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헌신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이미 이곳에 들어오면 이미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들어가니까..... 학교 방과 후 교실은 선생님들 의무에 의해서 하다못해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교사 16, 김○○)."

● 아동보호 및 부모의 사회적 진출의 효과

지역아동센터에서에서는 부모님이 일을 나가거나 편부모 가정이 많다. 따라서 항상 자녀에 대한 걱정이 머리에서 떠날 수가 없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맞기고 있는 동안은 그런 문제로부터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동의 보호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실제로 아이가 있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이를 맞기면서 직장을 구하게 된 부모가 있는데, 직장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다고 좋아했다고 한다.

❍ 공부방의 부족한 점

•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 예산 부족과 교사 부족

아이들에 대해 가능한 철저하게 돌봐주고 싶은 교사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생활 및 교우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급식도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고 싶지만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많다. 여름의 에어컨, 겨울의 온풍기, 전세자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이 부족해 보였다.

❍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 행정 기관과의 문제

지역아동센터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관련 공무원들조차 자기 업무에 대해 파악이 되어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을 다 해놓았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하고, 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하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정부기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구청으로 가면 또 다른 기관을 이야기 하고 해서 애를 먹이는 일이 많다는 불만이었다.

• 교사의 잦은 교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경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부족해서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에게도 혼동을 주고 안정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보수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이다. 즉, 지속적으로 있을 정도의 보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원봉사에 의존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교사가 자주 교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 교사로서의 만족도

박봉과 과중한 업무 늦은 퇴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다음은 여러 교사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저는 이일을 정말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비전이랑 그런 게 이 일하고 많이 맞아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즐겁고 계획하는 것도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후원을 받는 것도 즐거워서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아요(교사 14, 송○○)."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체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할 수 없어서 하는 거면 오래 할 수가 없죠(교사 14, 김○○)."

❍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행정절차 및 처리의 일관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정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행

정절차를 일관성 있게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부모의 적극적 참여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에 부모님의 적극적 참여가 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공부방에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교사가 담당해주기를 바라고 본인들은 별로 하는 것이 없기도 한다. 그러기 보다는 학부모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끌어나가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다른 방과후 활동과 연계

현재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 또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없는데 공부방끼리 체육대회나 문화체험 등을 같이 하면 아이들이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아 보인다고 하고 있다. 아이들끼리 응집력도 생기고 한 지역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다른 지역에서 알기도 하는 등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④ 요약

<표 Ⅴ- 8> 지역아동센터 집단 심층면접 결과 요약

	내 용
학생	❍ 공부방에서 하는 프로그램 ❍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 • 성적 향상 •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교사와의 관계 • 다양한 활동 • 급식 ❍ 공부방에 바라는 점 • 운영 연장 • 시설 및 교육기구
학부모	❍ 지역 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서 자녀에게 좋은 점 • 성적 향상 • 공부방 교사의 보살핌 • 다양한 활동 • 심리적 안정 ❍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 •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 경제적인 부담 해소 ❍ 공부방의 부족한 점 및 바라는 점 • 수업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 ❍ 지역아동센터에 바라는 점 • 더 많은 센터의 확산 • 학과 공부에 집중
교사	❍ 운영되는 프로그램 ❍ 공부방의 좋은 점 • 가정과의 연계 •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헌신 • 아동보호 및 부모의 사회적 진출의 효과 ❍ 공부방의 부족한 점 •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 예산부족과 교사 부족 ❍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 행정 기관과의 문제 • 교사의 잦은 교체 ❍ 교사로서의 만족도 ❍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행정절차 및 처리의 일관성 • 부모의 적극적 참여 • 다른 방과 후 활동과 연계

5) 심층 면접 결론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의 학생, 학부모, 교사와 비참가 집단의 학생 및 학부모를 면접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각기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어려운 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프로그램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각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일원화하기 보다는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모든 기관에서 예산의 부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모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지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적절한 수준의 수당, 강사료, 시설, 급식비 등 기본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셋째, 프로그램 수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관리를 위한 체계적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평가 결과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하여 향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방과후 공적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비참가자들의 편견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소 심각하다. 이러한 편견은 참가자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향후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방과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범 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학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개별적 상담이나 지도가 없다는 생각을 방과후 학교 이외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특히 비참여 집단의 경우 학교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심했고, 대신 학원에 대한 신뢰는 높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네 가지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째는 각 프로그램별 운영 실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셋째는,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넷째,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는가하는 점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1) 조사 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었다. 위의 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과 학부모도 역시 설문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준비 때문에 교과과목 보충학습을 하고 있을 뿐, 본래의 의미에서 방과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교사로 국한시켰다.

설문 대상자의 표집은 크게,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세 집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전국 25개소의 학생 10명, 학부모 8명, 교사 4명씩 총 550명을 표집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전국 50개소의 학생 5명, 학부모 4명, 교사 2명씩 총 550명을 표집하였다. 방과후 학교는 전국의 6개 지역, 즉,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지역마다 각각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씩을 표집하여,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를 표집하였다. 초등학교는 4, 5, 6학년 한 반씩, 중학교는 1, 2학년 한 반씩을 표집하여, 초등학생은 630명, 중학생은 42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 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도 있고, 하지 않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설문 내용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방과후 학교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100명과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 100명을 표집하였는데, 전국 각 6개 지역에서 표집된 학교에서 각각 한 학급씩 선정하여 설문을 배부하였다. 방과후 학교 교사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선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10명씩 선정하여 총 120명을 표집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을 위해 표집되고 설문을 배부한 조사 대상자의 총 인원수는 2,510명이었다. 그러나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코딩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내용의 설문지를 제거하였고, 배부는 하였으되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결과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수는 총 2,259명이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의 학교별, 성별 인원수는 아래의 <표 Ⅴ-9>와 같다.

<표 Ⅴ-9> 설문조사 대상자 수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수준	학생		합	교사		합	학부모	총합
		남	여		남	여			
방과후 학교	초등	146	174	320	16	43	59	67	2,259
	중등	59	77	136	16	45	61	56	
비참여	초등	165	122	287	–	–		43	
	중등	168	63	231	–	–		48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52	100	152	36	61	97	156	
	중등	49	43	92					
지역아동 센터	초등	59	91	150	21	63	84	161	
	중등	24	35	59					
총		722	705	1,427	89	212	301	531	

2) 조사 내용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첫째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대한 분석이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영역은 설문조사의 목적과 관련된 영역이었는데, 둘째는 방과후 활동의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인이었고, 셋째는 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만족도, 어려움과 관련된 영역이었으며, 넷째는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측면으로 학생들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영역이었다. 다섯 번째는 각 프로그램이 추진배경 및 추진목표에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요인이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측정지표는 다음 <표 Ⅴ-10>과 같다.

3) 절차

설문지 배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담당 운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설문의 내용과 답례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은 후 한 기관 당 필요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지와 답례품을 반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어 담당 운영자가 책임지고 설문을 배부하고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전화로 설문수거, 배부 및 주의사항을 일차 전달하고, 다시 우편물에 주의사항 및 수거방식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냄으로써 담당자가 설문작성 및 수거 방식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의 담당 교사들은 수거한 설문지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연구자에게 배달되도록 하였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는 전국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 중등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교감선생님에게 전화로 설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허가를 받은 후,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설문지, 답례품을 우편으로 보내고, 설문조사 후에 택배로 연구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설문 배부 및 수거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표 Ⅴ-10> 설문지의 측정영역과 측정 변인

측정영역	측정변인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도자
배경변인	• 성별 • 학교 및 학년 • 성적 • 부모동거 여부 • 부모 학력 • 부모의 맞벌이 여부 • 가정경제수준 • 거주지	• 아동의 참여여부 • 결혼상태, 학력 • 소득수준 • 월평균 교육비 • 학생과의 관계 • 거주지	• 성별 • 학력 • 교사경력 • 직위 및 역할
	연령		
방과후 활동 및 운영실태	• 프로그램 다닌 기간 •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위 • 자발성 여부	• 프로그램 다닌 기간 •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위 • 자발성 여부 • 프로그램을 보낸 이유 • 수강료 수준의 적절성	• 방과후 활동 담당여부 • 실시하는 프로그램 • 수강료 • 급식필요여부 • 활동시간의 적절성 • 담당 아동수 및 대상 • 근무시간의 적절성 • 보수수준 적절성
	운영시간의 적절성		
참여자 요구 및 만족도	• 활동의 도움정도 • 활동의 호의도 • 활동에 대한 태도 • 활동에 바라는 점 • 활동의 어려움/문제점 • 지속적 참여의사 • 타인에게 알림 여부	• 활성화 방안 • 원하는 강사 • 급식의 필요성 • 활동의 호의도 • 원하는활동,바라는부분 • 방과후 자녀를 맞기고 싶은 곳 • 활동의 도움여부 • 지속적 참여의사 • 학원 보낼 의향	• 활동 및 운영 만족도 • 활성화 방안 • 문제점 및 어려움 • 활동에 대한 태도
프로그램 효과성	• 아동의 행동변화 (출처 : 김은정(2006), 방과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		
추진목표 부합도	• 각 추진 목표 문항화		

4) 결과

분석결과 제시의 순서는 인터뷰 분석과 동일한 구조로 제시할 것이다. 우선 프로그램별로 (1)방과후 학교, (2)방과후 아카데미, (3)지역아동센터, (4)비참여 집단의 순으로, 프로그램 내의 응답자 집단별로는 ①학생, ②학부모, ③교사의 순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교사의 경우 자유응답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설문조사의 목적에 따라 구분된 다섯 가지 영역별로 변인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집단별로 따로 수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각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고,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각 운영 기관 종류별로 따로 분석하였다.

(1) 방과후 학교

(1)-1. 참여집단

① 방과후 학교 학생

배경변인

방과후 학교 학생 중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 320명, 중학생은 138명이었다.

<표 Ⅴ-11>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조사대상자의 수

학교수준	학생		합
	남	여	
초등학교	146	174	320
중학교	61	77	138
총	207	251	458

초등학생 연령은 9세부터 13세까지였고, 중학생은 만 12세부터 14세까지 있었다.

<표 Ⅴ-1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생의 연령별 분포

연령	초등학생	중학생
9	12 (3.8)	-
10	112 (35.1)	-
11	103 (32.3)	-
12	91 (28.5)	14 (10.1)
13	1 (.3)	77 (55.8)
14	-	47 (34.1)
총	319 (100)	138 (100)

이들 중 초등학생의 경우는 응답자 중 전체의 91.8%에 해당하는 291명이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8.2%인 26명만이 이혼이나 별거 또는 한분이 돌아가셨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경우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응답자 중 88%인 117명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2%인 16명만이 이혼이나 별거, 한분의 사망 등에 응답을 하였다.

<표 Ⅴ-1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생 부모의 결혼상태

	초등	중등
두분이 함께 산다	291 (91.8)	117 (88.0)
이혼하셨다	8 (2.5)	6 (4.5)
별거하셨다	13 (4.1)	2 (1.5)
한분이 돌아가셨다	5 (1.6)	8 (6.0)
합계	317 (100)	133 (100)

경제수준은 초등학생 집단의 경우 '상'이라고 응답한경우가 54명

(17%), '중'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9명(81.7%), '하' 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1.3%)이었다. 중등의 경우도 '중' 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고(259명,81.7%), '상' 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54명(17%)이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표집된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중' 이상의 양부모 가족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Ⅴ-14>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경제수준

경제수준	초등	중등
상	54 (17.0)	7 (5.1)
중	259 (81.7)	115 (84.6)
하	4 (1.3)	14 (10.3)
합계	317 (100)	136 (100)

성적수준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중' 이 170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상' 이라고 응답한 빈도도 117명(36.9%)이나 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도 '중' 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71명(52.2%), '상' 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33명(24.3%)으로 주로 '상' 과 '중' 에 응답하였다.

<표 Ⅴ-1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생의 지각된 성적수준

성적	초등	중등
상	117 (36.9)	33 (24.3)
중	170 (53.6)	71 (52.2)
하	30 (9.5)	32 (23.5)
합계	317 (100)	136 (100)

학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반 정도는 맞벌이를 하고 반 정도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과반수 정도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6>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여부	초등	중등
예	181 (57.6)	73 (54.5)
아니오	133 (42.4)	61 (45.5)
합계	314 (100)	134 (100)

학부모들의 학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교 졸업이었다. 고등학교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비율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높았다.

<표 Ⅴ-17> 방과후 학교 학생의 학부모 교육수준

학력	초등		중등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이하	6 (2.2)	3 (1.1)	2 (1.6)	3 (2.4)
중학교 졸업	9 (3.3)	12 (4.5)	2 (1.6)	7 (5.6)
고등학교 졸업	129 (46.7)	155 (58.5)	49 (39.5)	57 (45.6)
전문대 졸업	10 (3.6)	17 (6.4)	4 (3.2)	4 (3.2)
대학교 졸업	100 (36.2)	64 (24.2)	55 (44.4)	46 (36.8)
대학원 졸업	22 (8.0)	14 (5.3)	12 (9.7)	8 (6.4)
합계	276 (100)	265 (100)	124 (100)	125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간을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1년 미만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의 양상이 학년의 효과일 가능성을 보고자 학년과 참여기간을 교차분석 해 본 결과 4, 5, 6학년의 참여기간 분포가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

서 학년과 상관없이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은 6개월 미만 또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대부분이고 1년 이상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약 22%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18>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참여기간

방과후 학교 참여기간	초등학생	중학생
6개월 미만	143 (45.0)	90 (66.2)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 (31.4)	44 (32.4)
1년 이상-2년 미만	43 (13.5)	2 (1.5)
2년 이상-3년 미만	12 (3.8)	-
3년 이상	20 (6.3)	-
합계	318 (100.0)	136 (100)

<표 Ⅴ-19>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의 학년별 참여기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6개월 미만	49(41.9)	52(52.0)	42(41.6)	143(45.0)
6개월 이상-1년 미만	37(31.6)	26(26.0)	37(36.6)	100(31.4)
1년 이상-2년 미만	15(12.8)	18(18.0)	10 (9.9)	43(13.5)
2년 이상-3년 미만	8(6.8)	2(2.0)	2 (2.0)	12(3.8)
3년 이상	8(6.8)	2(2.0)	10 (9.9)	20(6.3)
합계	117(100)	100(100)	1 01(100)	318(100)

중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중학생 역시 학년의 효과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년과 참여기간을 교차분석 해 본 결과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2학년 모두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98.6%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Ⅴ-20> 방과후 학교 중학생 참여집단의 학년별 참여기간

	1학년	2학년	전체
6개월 미만	48(59.3)	42(76.4)	90(66.2)
6개월 이상-1년 미만	33(40.7)	11(20.0)	44(32.4)
1년 이상-2년 미만	0(0.0)	2 (3.6)	2(1.5)
합계	81(100)	55 (100)	136(100)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26%정도 되었고, 초등학생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20%정도 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참여이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이유	초등학생	중학생
내가 하고 싶어서	226 (71.3)	86 (62.3)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12 (3.8)	26 (18.8)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59 (18.6)	14 (10.1)
기타	20 (6.3)	12 (8.7)
합계	317 (100.0)	138 (100)

현재 방과후 학교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겠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는

94.1%가 계속해서 다니겠다고 응답하였고, 중학생의 경우는 71%만이 다니겠다고 응답을 하여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Ⅴ-2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향후 참여의지

	초등	중등
예	64 (94.1)	49 (71.0)
아니오	4 (5.9)	20 (29.0)
합계	68 (100)	69 (100.0)

참여자 요구 및 만족도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태도를 총 16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표 Ⅴ-23>에 나타나듯이 초등학생들의 경우 '활동이 재미있다' 는 의견이 5점 만점에 4.14로 가장 높았는데, 4.14점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매우 재미있다' 에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경우 방과후 학교의 각종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좋다' 는 의견도 평균 4.07로 높았고, 다음으로 '수강료가 싸다' 는 항목의 평균이 3.84로 높았다.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학교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는 문항이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는 '수강료가 싸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선생님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는 항목의 점수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좋다'의 점수는 높고, '학교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의 점수는 낮아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학생들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3점(그저 그렇다) 이상이 되는 문항으로

는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그리고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이었다. 이 역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학교 공부 도움 정도, 편안한 분위기 등에 대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태도 16 문항 중 향후 방과후 학교에 바라는 점과 관련하여, 방학 때도 운영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3.08, 중학생의 경우는 2.96의 평균을 나타내어 방학 중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급식에 대해서도 중학생이 3.15로 초등학생의 2.82보다는 높았지만 방과후 급식에 대한 기대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표 Ⅴ-2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태도

문항	초등학생	중학생	t
1. 학원에 가는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다	2.84 (1.34)	2.71(1.26)	n. s.
2. 한 곳에서 진행되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다	3.37 (1.24)	2.97 (1.23)	3.07***
3.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좋다	4.07 (1.06)	3.38 (1.20)	5.68***
4. 선생님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	3.73 (1.28)	3.50 (1.17)	n. s.
5. 수강료가 싸다	3.84 (1.15)	3.63 (1.17)	n. s.
6.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3.79 (1.27)	3.35 (1.16)	3.50***
7. 활동이 재미있다	4.14 (1.06)	3.37 (1.22)	6.23***
8.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3.72 (1.21)	3.25 (1.08)	3.97***
9.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3.50 (1.28)	3.13 (1.18)	2.73**
10.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다	3.59 (1.29)	2.93 (1.13)	4.89***
11. 방학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3.08 (1.55)	2.96(1.23)	n. s.
12.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2.38 (1.19)	2.70 (1.09)	−2.77**
13. 학교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2.30 (1.31)	2.75 (1.21)	−3.33***
14.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것이 싫다	2.55 (1.35)	2.74 (1.21)	n. s.
15. 방과 후 학교가 끝나도 학원에 또 가기 때문에 힘들다	2.92 (1.58)	2.96 (1.48)	n. s.
16. 방과 후에 저녁 급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2.82 (1.53)	3.15 (1.45)	−2.20*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경우가 34.1%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경우가 30.9%로 '좋아한다' 와 '매우 좋아한다' 에 응답한 경우를 모두 합하면 초등학생의 약 65%가 방과후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양상이 달랐다. '좋아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경우가 37.8%이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에 응답한 경우가 11.7%로, 합하면 약 50%였다. 반대로 '좋아한다' 또는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경우는 약 24%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4> 방과후 학교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의도

호의도	초등학생	중학생 (교과학습)	중학생 (특기적성)
매우 좋아한다	99 (30.9)	8 (8.2)	8 (7.2)
좋아한다	109 (34.1)	18 (18.4)	16 (14.4)
그저 그렇다	90 (28.1)	45 (45.9)	32 (28.8)
좋아하지 않는다	12 (3.8)	25 (25.5)	42 (37.8)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0 (3.1)	2 (2.0)	13 (11.7)
합계	320 (100)	98 (100)	111 (100)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방과후 활동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268명(44.2%)이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50명(8.2%)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과거 참여했

다가 현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인터뷰에서도 분석되었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경우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일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 외, '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비록 6명이지만 응답자의 12.2%였다.

이에 비해 중학생은 '프로그램은 있지만 내용에 흥미가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원에 다니려고' 그만둔다고 응답이 11명(17.5%)이었고 '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9명(14.3%)이었다. 따라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태도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2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향후 불참의도 이유

	초등학생	중학생
1. 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6 (12.2)	9 (14.3)
2. 프로그램은 있지만 내용에 흥미가 없어서	4 (8.2)	13 (20.6)
3.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 (6.1)	6 (9.5)
4. 학원에 다니려고	2 (4.1)	11 (17.5)
5.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 (2.0)	1 (1.6)
6.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1 (2.0)	4 (6.3)
7. 시간이 맞지 않아서	16 (32.7)	8 (12.7)
8. 수준이 맞지 않아서	2 (4.1)	2 (3.2)
9. 방학 때는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1 (2.0)	1 (1.6)
10. 기타	13 (26.5)	8 (12.7)
합계	49(100)	63 (100)

프로그램 효과성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문항들은 모두 11문항이었고 점수는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 고 동의하는 것이 된다. <표 Ⅴ-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원비가 줄었다' 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3점을 윗도는 점수로 본인들은 행동적 측면에서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생활이 즐거워졌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본인들의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 문화생활,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원비가 줄었다' 는 문항에 대해서 점수가 별로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설문지상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설문지에 몇 명의 학생들이 직접 써놓은 바로는 '원래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 고 써 넣은 경우가 몇 건 있었고, 또는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른다' 라고 쓴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방과후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또 다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나,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일부는 실제로 원래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라는 응답과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문항, 즉, 학교생활 중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항에서만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그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은 자신의 행동 변화를 크게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6>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행동변화 지각

문항	초등학생	중학생	t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3.80 (1.11)	3.18 (1.01)	5.62***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70 (1.12)	3.20 (1.09)	4.29***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50 (1.21)	2.84 (1.07)	5.60***
4.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	3.65 (1.19)	2.93 (1.16)	5.89***
5.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3.72 (1.21)	2.93 (1.19)	6.32***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3.41 (1.22)	2.91 (1.20)	3.77***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3.70 (1.26)	2.92 (1.16)	6.44***
8. 친구,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3.35 (1.38)	2.82 (1.12)	4.16***
9. 자신감이 생겼다	3.90 (1.14)	2.96 (1.16)	7.71***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3.18 (1.26)	2.79 (1.08)	3.15**
11. 학원비가 줄었다	2.56 (1.41)	2.72 (1.38)	n. s.

② 방과후 학교 학부모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의 학부모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태도, 만족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배경변인

우선 방과후 학교 학부모 응답자들의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전체 110명이었는데, 그 중 자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0.1%인 67명이었고, 43명인 39.1%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연령은 29세부터 51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총 104명이었는데, 그 중 56명(53.8%)은 자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48명(46.2%)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자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방과후 특기적성인 경우가 28명(27.7%)이었고, 방과후 보충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23.8%)이었으며 둘 다 한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4명(4%)이었다.

<표 Ⅴ-27> 방과후 학교 학부모 조사대상자 수

학교수준	참여	비참여	총
초등	67 (60.1)	43 (39.1)	110 (100)
중등	56 (53.8)	48 (46.2)	104 (100)

학부모의 연령은 35세부터 53세까지 다양하였는데, 초등학교 학부모와 중등학부모 모두 30대와 40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초등 학부모의 경우는 30대가 74명(6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등 학부모는 40대가 65명(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Ⅴ-28>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연령

연령 집단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20대	1 (.9)	-
30대	74 (67.3)	27 (27.8)
40대	34 (30.9)	65 (67.0)
50대 이상	1 (.9)	5 (5.2)
합계	110 (100)	97 (100)

부부의 결혼 상태는 '부부가 함께 산다' 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92.7%로 102명이 응답을 하였고, 이혼한 가정이 4건(3.6%), 별거나 사별 또는 기타가 총 4명 있었다.

<표 Ⅴ-29>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결혼상태

결혼상태	초등	중등
부부가 함께 산다	102 (92.7)	94 (91.3)
이혼	4 (3.6)	2 (1.9)
별거	1 (.9)	1 (1.0)
사별	1 (.9)	4 (3.9)
기타	2 (1.8)	2 (1.9)
합계	110 (100)	103 (100)

학부모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네 집단 모두에서 고등학교 졸업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학교졸업자였다.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빈도가 더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에서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빈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고졸 또는 전문대와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0>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학력

학력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	-	-	1 (1.0)	3 (2.9)
중학교 졸업	2 (1.9)	2 (1.8)	6 (6.2)	4 (3.9)
고등학교 졸업	48 (45.7)	77 (70.0)	36 (37.1)	51 (50.0)
전문대 졸업	17 (16.2)	10 (9.1)	6 (6.2)	7 (6.9)
대학교 졸업	29 (27.6)	20 (18.2)	39(40.2)	36 (35.3)
대학원 졸업	9 (8.6)	1 (0.9)	9 (9.3)	1 (1.0)
합계	110 (100)	110 (100)	97 (100)	102 (100)

월평균 소득 수준을 물어본 결과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부모와 중등학부모 모두 10%미만이었고, 초등학부모의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 사이에 51.4%가 분포해 있었다. 중등학부모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 사이에 50.5%가 분포해 있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정 월평균 소득 수준은 거의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소득수준

소득	초등	중등
100만원 미만	7 (6.4)	9 (9.1)
100-199만원	18 (16.5)	20 (20.2)
200-299만원	29 (26.6)	17 (17.2)
300-399만원	27 (24.8)	16 (16.2)
400-499만원	18 (16.5)	14 (14.1)
500만원 이상	10 (9.2)	23 (23.2)
합계	109 (100)	99 (100)

월평균 어느 정도 교육비를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31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28명, 25.7%), 21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많았다(27명, 24.8%). 따라서 한 달에 드는 교육비의 수준이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등학부모의 경우는 분포가 매우 다양해서 31만원에서 5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2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17.8%이고 5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였으며, 111만원 이상도 17.8%나 되었다. 이는 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초등학생들에 비해 당연히 많이 들며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임을 나타내었다.

<표 Ⅴ-3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

교육비	초등	중등
20만원 이하	12 (11.0)	18 (17.8)
21-40만원	27 (24.8)	15 (14.9)
31-50만원	28 (25.7)	20 (19.8)
51-70만원	18 (16.5)	10 (9.9)
71-90만원	10 (9.2)	10 (9.9)
91-110만원	10 (9.2)	10 (9.9)
111-150만원	1 (.9)	10 (9.9)
151-200만원	2 (1.8)	7 (6.9)
250만원 이상	1 (.9)	1 (1.0)
합계	109 (100)	101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자녀를 보내는 주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특기적성 개발을 위하여' 라고 응답한 경우가 39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실력향상을 위하여'가 21명(31.3%)이었다. 그 외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4명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방과후 학교에 가장 바라는 것이 특기적성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학교 학부모는 '실력향상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부모가 44.4%(2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특기적성 개발을 위하여'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19명(35.2%)이었다. 따라서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특기적성보다는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참여이유

방과후 학교를 보내는 이유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실력향상을 위하여	21 (31.3)	24(44.4)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하여	39 (58.2)	19 (35.2)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4 (6.0)	1 (1.9)
학원보다 싸서	-	3 (5.6)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	2 (3.7)
기타	3 (4.5)	5 (9.3)
합계	67 (100)	54 (100)

방과후 활동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초등학부모의 경우 조금 짧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였지만, 초등학생 학부모와 중학생 학부모 공히 전체적으로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시간은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Ⅴ-34>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운영시간에 대한 적절성 판단

운영시간	초등학부모	중학부모
너무 길다	1 (1.5)	-
조금 긴 편이다	2 (4.4)	4 (7.3)
적절하다	43 (64.7)	40 (72.7)
조금 짧은 편이다	17 (25.0)	7 (12.7)
너무 짧다	3 (4.4)	4 (7.3)
합계	68 (100)	55 (100)

방과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 중 56명(82.4%), 중학생 학부모 중 40명(75.5%)이 각각 '알맞다' 또는 '조금 싼 편이다' 에 응답을 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에서 수강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표 Ⅴ-35>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수강료에 대한 태도

수강료 수준	초등	중등
너무 비싸다	-	2(3.8)
약간 비싼 편이다	12 (17.6)	11 (20.8)
알맞다	48 (70.6)	33 (62.3)
약간 싼 편이다	8 (11.8)	7 (13.2)
합계	68 (100)	53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기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학교에 맡기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응답을 한 초등학부모가 35명(54.7%), 중등학부모가 29명(52.7%)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0명(31.3%)과 17명(30.9%)이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적절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만 있다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싶어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응답이라고 생각된다.

<표 Ⅴ-36>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자녀를 맡기고 싶은 기관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학교	35 (54.7)	29(52.7)
학원	20 (31.3)	17 (30.9)
주민자치센터	3 (4.7)	2 (3.6)
복지관	3 (4.7)	-
지역공부방	2 (3.1)	4 (7.3)
수련관	1 (1.6)	3 (5.5)
합계	64 100.0	55 (100)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누가 지도해주기 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부모와 중등학부모 모두 학교교사보다는 외부 전문 강사가 지도해주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41명, 62.1%), 이는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 분야 자체가 전문 강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Ⅴ-37>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가 지도를 원하는 강사

원하는 강사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학교교사	13(19.7)	23(41.8)
외부 전문 강사	41(62.1)	26 (47.3)
상관없다	2(3.0)	1 (1.8)
과목에 따라 적절히 섞였으면 좋겠다	10(15.2)	5 (9.1)
합계	66(100)	55 (100)

방과후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 하고 있는 특기적성을 가장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25명, 37.3%). 그러나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국영수 등의 핵심과목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교과학습에 대한 요구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38>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가 원하는 활동

원하는 활동부분	초등	중등
숙제지도	2 (3.0)	2 (3.8)
국영수 등 핵심과목	20 (29.9)	26 (49.1)
예체능 과목	12 (17.9)	3 (5.7)
인성교육	8 (11.9)	4 (7.5)
특기적성 개발	25 (37.3)	18 (34.0)
합계	67 (100)	53 (100)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킬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초등학교 학부모 응답자의 94%인 63명이 참여시키겠다고 응답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중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이가 원하

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원에 다니려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을 하였다. 이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는 '앞으로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초등학생 학부모에 비해서 많았는데(11명, 19.6%), 그 이유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아이가 흥미 없어 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아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원에 다니려고',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방학 때는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한명씩 있었다.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처럼 아동의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녁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혀 필요 없다' 또는 '별로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부모와 중등 학부모에게서 각각 69.1%(47명), 56.4%(31명)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초등학부모가 25%(17명), 중등 학부모가 36.4%(20명)였으며, '많이 필요하다'거나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부모의 경우 5.9%(4명), 중등학부모의 경우 7.2%(4명)에 불과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요구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Ⅴ-39>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태도

방과후 급식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전혀 필요없다	19 (27.9)	5 (9.1)
별로 필요없다	28 (41.2)	26 (47.3)
어느 정도 필요하다	17 (25.0)	20 (36.4)
많이 필요하다	3 (4.4)	2 (3.6)
매우 많이 필요하다	1 (1.5)	2 (3.6)
합계	68 (100)	55 (100)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25개의 문항으로 질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부모와 중등학부모 모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이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질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항목들의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와 중학교 학부모의 응답이 조금씩 달랐는데,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급식지도문제를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자녀들의 식사를 어디선가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바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었으며, '외부 전문강사 활용', '문화예술 분야 강사 지원', '방과후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문제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지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순서를 살펴보면 결국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보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다음으로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계 확립, 능력별 반 편성, 문제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지원 순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특별아동을 위한 전문교사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문제아동을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특기적성 이외에 특별아동을 위한 특수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 간 t 검증을 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표 Ⅴ-40>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태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1.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4.15 (.76)	4.14 (.74)
2. 학생의 교사 선택권 보장	3.88 (.80)	3.91 (.88)
3. 외부 전문강사 활용	4.06 (.81)	3.89 (1.02)
4. 능력별 반 편성	3.81 (.83)	4.03 (.99)
5. 교재구성의 어려움 해소	3.94 (.75)	4.00 (.71)
6. 학급당 학생수 대폭 축소	3.93 (.77)	3.71 (.97)
7. 시간당 강사료 인상	3.28 (.94)	3.21 (.86)
8. 담당 교사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2.42 (.76)	3.57 (.93)
9. 방과후 교실 담당을 위한 보조 교사 지원	2.43 (1.08)	3.70 (.91)
10. 문제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지원	4.03 (.90)	4.03 (.96)
11. 방과후 전담 교사 지정	3.99 (.81)	3.94 (.83)
12. 문화예술 분야 강사 지원	4.06 (.73)	3.96 (.88)
13. 방과후 학교 전담 행정인력 충원	3.54 (.80)	3.5 (.97)
14.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등 업무 전산화	3.72 (.74)	3.59 (.99)
15. 학교 시설 및 설비 보완	4.04 (.78)	3.84 (.93)
16.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4.21 (.84)	4.01 (.90)
17. 방과후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4.06 (.62)	3.93 (.79)
18.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4.38 (.60)	4.34 (.74)
19. 방학 중 운영	3.91 (.88)	3.72 (1.11)
20. 운영시간 연장(5시 까지)	2.99 (.91)	3.07 (1.24)
21.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3.55 (.91)	3.58 (1.01)
22.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제 확립	3.94 (.72)	4.09 (1.00)
2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4.06 (.74)	3.76 (1.10)
24. 소규모 학교 연합 및 벨트형 프로그램 운영	3.67 (.84)	3.55 (1.00)
25. 멘토링,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3.74 (.75)	3.49 (1.03)

앞으로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실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초등학생의 학부모 중 78%(53명)가 '어느 정도 있다', '많이 있다' 또는 '매우 많이 있다' 중 하나에 응답을 함으로써 현재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그다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학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교 학부모

들 역시 41명(73%)이 '어느 정도 있다', '많이 있다' 또는 '매우 많이 있다' 중 하나에 응답을 하여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이 학원에 대해 선호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Ⅴ-41>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태도

학원 보낼 의향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전혀 없다	1(1.5)	3 (5.4)
별로 없다	14 (20.6)	12 (21.4)
어느 정도 있다	40 (58.8)	27 (48.2)
많이 있다	8 (11.8)	9 (16.1)
매우 많이 있다	5 (7.4)	5 (8.9)
합계	68 (100)	56 (100)

프로그램 효과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부분에서는 학부모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3.0에서 최대 3.5까지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초등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 '친구관계가 더 좋아졌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성적이 향상되었다',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줄었다',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 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 '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는 네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3점 이하로 학부모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의견임을 나타내었다.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초등학부모의 의견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사교육비','육아 스트레스','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편안함','직장생활을 마음 놓

고 하게 됨'등에서는 평균이 3점을 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부모나 중등학부모 공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결과 나타난 효과가 '매우 그렇다'고 동의하는 정도는 아니며, 특히 사교육비 측면에서의 감소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나 사회진출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크게 느끼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문항은 없었다.

<표 Ⅴ-42>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행동변화 정도

항 목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1. 아이의 친구관계가 더 좋아졌다	3.23 (.82)	3.35 (.96)
2.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3.22 (1.01)	3.27 (.92)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13 (.93)	2.97 (.92)
4. 아이가 일생상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3.16 (.92)	3.13 (.91)
5.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3.26 (.87)	3.26 (.89)
6. 아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3.03 (1.10)	3.16 (.94)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3.24 (.94)	3.08 (1.06)
8. 아이가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3.14 (1.32)	3.34 (1.28)
9.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3.29 (.84)	3.35 (.86)
10.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3.15 (1.08)	3.06 (1.08)
11.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2.70 (1.10)	2.83 (1.09)
12.아이를 키우는 나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2.87 (1.23)	2.94 (1.28)
13.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	2.88 (1.19)	2.92 (1.25)
14.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	2.88 (1.16)	2.87 (1.26)

추진목표 부합도

우리 사회에서 방과후 활동의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방과후 활동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학부모집단의 태도를 비교해보았다. 점수는 5점 만점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평균 3점을 넘는 문항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구 있을 것이다'의 문항이었다.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최고점을 보인 것은 초등 학부모와 동일하지만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이었다. 다음으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의 순이어서 방과후 학교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가 비슷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표 Ⅴ-43>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 학부모의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효 과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3.32 (.81)	3.38 (.69)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2.73 (1.01)	2.91 (.97)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2.81 (1.02)	2.99 (.94)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2.89 (.83)	2.86 (.88)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3.10 (.90)	3.09 (.81)
6.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69 (1.01)	2.88 (.99)
7.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61 (.99)	2.83 (.94)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04 (1.01)	3.16 (.91)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2.97 (.88)	2.93 (.96)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07 (.90)	3.01 (.90)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21 (.85)	3.03 (.85)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0 (.88)	2.94 (.88)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2.53 (.98)	2.76 (.95)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2.77 (.97)	2.74 (.99)

③ 방과후 학교 교사

배경변인

방과후 학교 교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합해서 전체가 120명이었는데 그 중 32명은 남자였고 88명은 여자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자 교사가 더 많았다.

<표 Ⅴ-44> 방과후 학교 교사의 성별 분포

성별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남	16 (27.1)	16 (26.2)	32 (26.7)
녀	43 (72.9)	45 (73.8)	88 (73.3)
합계	59 (100)	61 (100)	120 (100)

교사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교사 집단 모두 30대와 40대에 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5> 방과후 학교 교사의 연령분포

연령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20대	14 (24.1)	8 (13.3)	22 (18.6)
30대	18 (31.0)	21(35.0)	39 (33.1)
40대	18 (31.0)	23 (38.3)	41 (34.7)
50대 이상	8 (13.8)	8 (13.3)	16 (13.6)
합계	58 (100)	60 (100)	118 (100)

교사들의 학력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62명(52.1%)로 가장 많았고, 석사 졸업이 38명(31.9%)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석사과정인 교사가 14명(11.8%)이었다. 그 외에 박사과정이 1명 있었고, 전문대 졸업자도 4명 있었다.

<표 Ⅴ-46> 방과후 학교 교사의 학력분포

학력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전문대 졸업	-	4 (6.7)	4 (3.4)
4년제 대학교 졸업	34 (57.6)	28 (46.7)	62 (52.1)
석사 과정	5 (8.5)	9 (15.0)	14 (11.8)
석사 졸업	19 (32.2)	19 (31.7)	38 (31.9)
박사과정	1 (1.7)	-	1 (.8)
합계	59 (100)	60 (100)	119 (100)

교사 경력 년수를 알아본 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많아서 31명으로 26.1%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3년 이하로 20명(16.8%)이었으며, 16년에서 20년 사이(25명, 21%), 7-9년 사이(18명, 15.1%) 등의 순서였다. 경력에 따른 집단별 인원수가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표 Ⅴ-47> 방과후 학교 교사의 경력

교사 경력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3년 이하	14 (24.1)	6 (9.8)	20 (16.8)
4-6년	5 (8.6)	5 (8.2)	10 (8.4)
7-9년	5 (8.6)	13 (21.3)	18 (15.1)
10-15년	5 (8.6)	10 (16.4)	15 (12.6)
16-20년	15 (25.9)	10 (16.4)	25 (21.0)
21년 이상	14 (24.1)	17 (27.9)	31 (26.1)
합계	58 (100)	61 (100)	119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이번 학기에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담당하는 교사는 58명(48.3%),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교사는 62명(51.7%)으로 거의 반반씩 분포하고 있었는데,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교사가 더 많았다.

<표 Ⅴ-48>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담당여부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담당하고 있다	23 (39.0)	35 (57.4)	58 (48.3)
담당 하고 있지 않다	36 (61.0)	26 (42.6)	62 (51.7)
합계	59 (100)	61 (100)	120(100)

이번 학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원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0명, 49.2%), '담당할 과목이나 활동이 없어서' 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9.5%, 21.3%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대부분 방과후 활동 담당을 기피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Ⅴ-49> 방과후 학교 교사의 담당하지 않는 이유

담당하지 않은 이유	초등교사	중등교사	빈도(%)
원하지 않아서	15 (42.9)	15 (57.7)	30(49.2)
담당할 과목 또는 활동이 없어서	6 (17.1)	7 (26.9)	13(21.3)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14 (40.0)	4 (15.4)	18(29.5)
합계	35 (100)	26 (100)	61(100)

그렇다면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자유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노력에 비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경제적 보상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Ⅴ-50>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담당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담당을 원치 않는 이유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노력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적기 때문에	1(5.0)	1(5.6)	2(5.3)
노력에 비해 인센티브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10.0)	2(11.1)	4(10.5)
자유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3(15.0)	9(50.0)	12(31.6)
기타	14(70.0)	6(33.3)	20(52.6)
합계	20(100)	18(100)	38(100)

교사들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방과후 특기적성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1명으로 50.8%를 차지했으며 방과후 특기적성과 방과후 보충학습을 둘 다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3명으로 44.2%를 차지했으며, 방과후 보충학습만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6%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방과후 특기적성과 방과후 보충학습을 둘 다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3명, 55.9%), 중등학교의 경우는 방과후 특기적성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9명, 63.9%).

<표 Ⅴ-51>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종류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초등교사	중등교사	합계
방과후 특기적성	22 (37.3)	39 (63.9)	61 (50.8)
방과후 보충학습	4 (6.8)	2 (3.3)	6 (5.0)
둘 다	33 (55.9)	20 (32.8)	53 (44.2)
합계	59 (100)	61 (100)	120 (100)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10명 이하가 가장 많았고(초등 37명, 63.8%, 중등 33명, 54.1%), 11명에서 20명 사이가 다음으로 많았다. 특이하게 5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5명(4.2%) 있었다.

<표 Ⅴ-52> 방과후 학교 교사의 담당 아동수

	초등교사	중등교사	합계
10명 이하	37 (63.8)	33 (54.1)	70 (58.8)
11명-20명	11 (19.0)	18 (29.5)	29 (24.4)
21명-30명	5 (8.6)	3 (4.9)	8 (6.7)
31명-40명	4 (6.9)	3 (4.9)	7 (5.9)
41명 이상	1 (1.7)	4 (6.6)	5 (4.2)
합계	58 (100)	61 (100)	119 (100)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초등학교교사의 경우는 1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48.6%)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러나 중등교사는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1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43.5%)보다 더 많아서 중등교사들의 방과후 활동 담당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3>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담당시간

방과후 활동 시간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1-3시간	18 (51.4)	10 (43.5)	28 (48.3)
4-6시간	17 (48.6)	13 (56.5)	30 (51.7)
합계	35 (100)	23 (100)	58 (100)

이에 비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 시간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맞다' 고 응답한 경우가 41명(69.5%)이었고, '약간 많다' 고 응답한 경우가 10명(16.9%)이었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 시간 수에 대해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알맞다' 또는 '약간 많다' 고 생각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Ⅴ-54>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담당시간에 대한 태도

본인 담당 시간수	초등교사	중등교사	빈도(%)
너무 많다	1 (4.2)	1 (2.9)	2 (3.4)
약간 많다	2 (8.3)	8 (22.9)	10 (16.9)
알맞다	19 (79.2)	22 (62.9)	41 (69.5)
약간 적다	2 (8.3)	3 (8.6)	5 (8.5)
너무 적다	-	1 (2.9)	1 (1.7)
합계	24 (100)	35 (100)	59 (100)

방과후 활동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85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짧은 편이라는 응답이 18명(15.7%)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운영시간은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5>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방과후 활동 운영시간이 어떤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조금 길다	1 (1.8)	1 (1.7)	2 (1.7)
조금 긴 편이다	3 (5.5)	4 (6.7)	7 (6.1)
적절하다	44 (80.0)	41 (68.3)	85 (73.9)
조금 짧은 편이다	6 (10.9)	12 (20.0)	18 (15.7)
너무 짧다	1 (1.8)	2 (3.3)	3 (2.6)
합계	55 (100)	60 (100)	115 (100)

강사료 수준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 나 '너무 많다' 는 응답범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주에 응답한 빈도는 전혀 없었고,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반응이 조금 달랐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알맞다고 한 비율이 73.9%(17명)로 가장 많았고 '약간 적다' 와 '너무 적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6.1%인데 반하여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너무 적다' 고 한 교사가 37.9%였고 '약간 적다' 라고 응답한 교사가 31%로 중학교 교사 전체의 68.9%는 강사료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Ⅴ-56> 방과후 학교 교사의 강사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

강사료 수준이 어떠한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빈도(%)
알맞다	17 (73.9)	9 (31.0)	26 (50.0)
약간 적다	4 (17.4)	9 (31.0)	13 (25.0)
너무 적다	2 (8.7)	11 (37.9)	13 (25.0)
합계	23 (100)	29(100)	52 (100)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1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싼 편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3명(37.7%), 너무 싸다고 응답한 교사가 11명(9.6%)으로,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105명이 '적절하다' 또는 '싸다' 고 응답을 하였다.

<표 Ⅴ-57>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 수강료에 대한 태도

수강료는 어떠한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빈도(%)
약간 비싼 편이다	8 (14.5)	1 (1.7)	9 (7.9)
적절하다	27 (49.1)	24 (40.7)	51 (44.7)
약간 싼 편이다	17 (30.9)	26 (42.6)	43 (37.7)
너무 싸다	3 (5.5)	8 (13.1)	11 (9.6)
합계	55 (100)	59 (100)	114 (100)

방과후 저녁 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학부모나 학생들과 거의 의견을 같이 하여 '필요하다' 고 응답한 교사가 39명(34.5%)이었고, 나머지 64명(65.5%)은 '필요 없다' 고 응답하였으나, 초등집단과 중학교 집단을 따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28명(51.9%)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는 일부 교사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려서 혼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Ⅴ-58>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급식에 대한 태도

방과후 저녁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초등교사	중학교사	빈도(%)
전혀 필요 없다	5 (9.3)	21 (35.6)	26 (23.0)
별로 필요 없다	21 (38.9)	27 (45.8)	48 (42.5)
어느 정도 필요하다	21 (38.9)	11 (18.6)	32 (28.3)
많이 필요하다	3 (5.6)	-	3 (2.7)
매우 많이 필요하다	4 (7.4)	-	4 (3.5)
합계	54 (100)	59 (100)	113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교사의 업무과중을 가장 큰 문제로 지각하였다. 이는 인터뷰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교사들의 업무과중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두 경우 모두 유능한 강사 채용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로 크게 지각하였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더 문제라고 지각하였다($t=2.12$, $p<.05$). 다음으로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담당교사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족', '교재구성의 어려움', '학생의 열의부족', '학부모의 참여의지 부족' 등에 대해 평균 3점 이상을 보여, '보통이다' 또는 '그런 편이다' 라고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담당교사와 비담당 교사간의 위화감', '지도교사의 열의부족' 이나 '프로그램의 수준저하' 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 는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담당교사와 비담당 교사간의 위화감은 중학교 교사들이 더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8$, $p<.05$)이는 교사들의 경우 자신들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 외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기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59>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방과후 활동의 어려움 정도

어려움	초등교사	중학교사	t
1. 유능한 강사 채용의 어려움	4.20 (.69)	3.89 (.93)	2.12*
2. 교사의 업무 과중	4.22 (.79)	4.26 (.75)	n.s.
3. 담당교사와 비담당 교사간의 위화감	2.56 (.92)	2.90 (.89)	−2.08*
4. 담당교사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족	3.66 (.84)	3.69 (.92)	n.s.
5. 교재구성의 어려움	3.58 (.91)	3.50 (.93)	n.s.
6.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3.75 (.90)	3.75 (.99)	n.s.
7.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2.86 (.78)	3.08 (.78)	n.s.
8. 학생의 열의부족	3.34 (.98)	3.16 (.84)	n.s.
9. 지도교사의 열의부족	2.56 (.84)	2.57 (.88)	n.s.
10.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	3.31 (.79)	3.26 (.77)	n.s.

보다 직접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만족스러운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6.1%였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라' 라고 응답한 비율이었다.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고 느끼거나 '매우 불만족스럽다' 고 느끼는 경우는 전체의 19%에 불과하여 초등교사나 중등교사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0> 방과후 학교 교사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만족도

만족 정도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체(%)
매우 만족스럽다	3 (13.0)	2 (5.7)	5 (8.6)
만족스러운 편이다	12 (52.2)	12 (34.3)	24 (41.4)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6 (26.1)	12 (34.3)	18 (31.0)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7 (20.0)	7 (12.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8.7)	2 (5.7)	4 (6.9)
합계	23 (100)	35 (100)	58 (100)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문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급식지도', '운영시간 연장' 과 같이 현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이 평균 3.5이상의 점수를 보여 제시된 문항들에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제 확립' 이었고, '문화예술분야 강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외부 전문강사 활용',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학교 시설 및 설비 보완'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그리고 현실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제 확립은 방과후 학교의 추진배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들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집단차이를 보인 문항은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과 '학생의 교사 선택권 보장' 두 문항뿐이었다.

<표 Ⅴ-61>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항 목	초등교사	중등교사	t
1.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4.40 (.65)	4.16 (.61)	2.06*
2. 학생의 교사 선택권 보장	4.19 (.73)	3.85 (.83)	2.33*
3. 외부 전문강사 활용	4.27 (.69)	4.31 (.62)	n. s.
4. 능력별 반 편성	4.22 (.74)	4.15 (.54)	n. s.
5. 교재구성의 어려움 해소	3.91 (.84)	3.98 (.72)	n. s.
6. 학급당 학생수 대폭 축소	3.95 (.84)	4.08 (.77)	n. s.
7. 시간당 강사료 인상	3.83 (.75)	3.85 (.75)	n. s.
8. 담당 교사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4.00 (.83)	4.21 (.84)	n. s.
9. 방과후 교실 담당을 위한 보조 교사 지원	3.95 (.88)	4.00 (.73)	n. s.
10. 문제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지원	4.07 (.86)	4.21 (.86)	n. s.
11. 방과후 전담 교사 지정	4.17 (.93)	4.23 (.86)	n. s.
12. 문화예술 분야 강사 지원	4.27 (.72)	4.48 (.62)	n. s.
13. 방과후 학교 전담 행정인력 충원	4.03 (.91)	4.15 (.93)	n. s.
14.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등 업무 전산화	3.88 (.87)	4.10 (.83)	n. s.
15. 학교 시설 및 설비 보완	4.15 (.72)	4.41 (.74)	n. s.
16.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3.53 (.97)	3.40 (.94)	n. s.
17. 방과후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3.85 (.91)	4.07 (.75)	n. s.
18.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4.34 (.71)	4.26 (.66)	n. s.
19. 방학 중 운영	3.63 (.93)	3.79 (.82)	n. s.
20. 운영시간 연장(5시 까지)	3.27(1.08)	2.93 (.96)	n. s.
21.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4.05 (.84)	4.00 (.71)	n. s.
22.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제 확립	4.47 (.57)	4.36 (.78)	n. s.
2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4.24 (.65)	4.30 (.69)	n. s.
24. 소규모 학교 연합 및 벨트형 프로그램 운영	4.05 (.75)	4.08 (.69)	n. s.
25. 멘토링,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4.28 (.64)	4.16 (.76)	n. s.

프로그램 효과성

교사들에게 방과후 학교에 다닌 후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보았다. 이 경우 학부모나 학생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5번에 '잘 모르겠다' 는 응답범주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분석시에는 5번 응답을 제외하고, 4점 만점으로 평균을 계산하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달랐는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에 그렇다고 동의한 정도가 중등교사의 경우 더 높았다. 또한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준 것 같다' ,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의 문항에서도 역시 중등교사가 더 높은 정도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두 2점 이상의 평균을 보였으므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집단 모두 학생들의 변화를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2>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방과후 활동의 효과

항 목	초등교사	중등교사	t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2.66 (.65)	3.00 (.73)	−2.59*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2.70 (.83)	2.92 (.70)	n.s.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2.38 (.68)	2.61 (.67)	n.s.
4.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2.52 (.80)	3.00 (.64)	−3.52***
5.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2.56 (.88)	3.12 (.65)	−3.82***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2.56 (.66)	2.93 (.63)	−2.98**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2.88 (.65)	3.17 (.64)	n.s.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준 것 같다	2.24 (.77)	2.62 (.64)	−2.68**
9.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2.80 (.77)	3.19 (.66)	−2.87**
10.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2.81 (.74)	2.93 (.72)	n.s.
11. 학원비가 준 것 같다	2.53 (.76)	2.78 (.69)	n.s.

추진목표 부합도

교사들이 방과후 활동을 함으로써 방과후 활동 정책의 추진배경이 되는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지역격차 해소'와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중등교사들이 더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 가장 기대치가 낮은 문항은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된 영역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저출산의 대책', '양육스트레스 감소'등의 문항등의 평균점수가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된 영역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Ⅴ-63> 방과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항 목	초등교사	중등교사	t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3.24(.84)	3.66 (.55)	−3.10**
2.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2.63(.93)	3.21 (.85)	−3.52***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2.65(.97)	3.21 (.87)	−3.26***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2.32(.90)	2.66 (.81)	−2.11*
5. 학교교육에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2.95(.95)	3.28 (.74)	−2.14*
6.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59(.90)	3.07 (1.00)	−2.74**
7.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62(.88)	2.89 (1.06)	n.s.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09(.92)	3.70 (.61)	−4.00***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2.71(.85)	3.16 (.80)	−2.87**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62(.83)	3.16 (.81)	−3.38***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7(.90)	3.48 (.60)	−4.21***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64(.96)	3.13 (.86)	−2.83**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2.07(.80)	2.67 (.97)	−3.64***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2.70(.96)	3.02 (.92)	n.s.

자유응답

방과후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지 뒷부분에 자유응답으로 세 가지를 적도록 하였다. 첫째는 방과후 활동 담당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문제점, 셋째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었다. 교사들의 응답을 비슷한 응답으로 묶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범주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방과후 학교 활동 담당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방과 후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단순 수량화 하여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을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를 따로 분석한 결과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다. 방과후 활동 담당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방과후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면 아래의 <표Ⅴ-64>와 같다.

<표 Ⅴ-64> 방과후 활동 담당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내 용	빈도
1. 교사의 수당 및 경제적 지원	49
2. 교사의 업무 경감	36
3. 교사의 활동에 따라 가산점 부여	23
4. 교사 개발 및 연수지원	9
5. 시설 확충	2
6. 학생 참여 촉진	2
7. 기타	7

교사들은 수당이나 경제적 지원을 가장 바란다고 응답하였는데, 현재 강사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학교 관리교사에겐 거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강사료를 인상시키고 교사에게도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다른 업무를 줄어주거나 수업시간을 축소해주거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들이 프로그램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세 번째로는 교사의 활동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주기를 바란다는 응답이었는데, 연구점수에 가산점을 부과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또는 부가점 이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여 물질적 지원과 승진의 기회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네 번째로는 교사 개발 및 연수지원을 원하였는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과 관계된 부분에 대한 연수비를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 의견으로 표창이나 해외여행, 교사의 능력별 반 편성, 원하는 학년에 배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각 범주의 빈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의 수당 및 경제적 지원

-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 일 거라 생각함.
- 시간 당 강사료가 예능 교과나 외부강사에 비해 부족함으로, 강사료를 인상시키고 강사료 현실화
- 강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학교 관리 교사(담당 부서)에겐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개인 한명, 한명 신경 써 주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은 편임.
- 업무 수당을 매월 지급하기 바람.
- 출장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리교사, 교과, 특기적성 담당 모두 인센티브(수당지급)
-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는 강사 비를 학원 강사비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강사료 인상)
-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퇴근 시간 후 실시하는 교사들에 시간 외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재 연구비 지급

❍ 교사의 업무 경감

- 다른 업무 부담이나 수업시간 수 축소.
- 타 업무 감령으로 방과 후 아이들 프로그램과 관리에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기타 잡무를 줄임으로써 방과 후 교육 내용이 충실한 교재 연구와 아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직원 배치.
-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시간적으로 많은 할애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 후 활동 담당 교사들은 아동 관리와 장소관리 정도로 하고, 외부강사나 자원봉사자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 비담임으로.
- 수업시수 감축해야 한다. 연구시간 활용하지만 실제적용 어려움.
- 본교 교사는 수업과 업무만으로 과중하다.
- 외부강사를 섭외하던지, 방과 후 교사의 업무가 줄어야 한다.
- 학원과 같이 가능하면 교사 업무를 줄여 주어, 교재 연구나 가르치는 데 정열을 쏟게끔 여건을 조성해 줄 것.
-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 후 수업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수업부담이 크고 학생 생활지도 시간이 부족함.
-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사의 활동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연구 점수 부여.
- 성과급 차등 지급 시, 방과 후 활동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도록 함.
- 부가점 부여와 성과급을 지원하여, 물질적 지원과 승진 기회도 주어야한다고 생각.
- 전근이나 승진 시 가산점을 준다.
- 교원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 부여.
- 표창 기회 우선 부여.

❍ 교사 개발 및 연수지원

- 교사의 전문성 향상(방과 후 활동과 관계된 학문적, 기술적 소양)을 위한 연수비 지원 및 활동비 지원.
- 아이들을 위한 수준별 학습을 통한, 특기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하며, 장기적인 교육 전개를 위해 해당 과목의 교육연수가 필요하다.
- 늦게까지 돌봐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질 관리 차원에 있어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지원.
- 체계적으로 교사들이나 강사한테 많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진다.
- 연수나 교사 자질에 대한 많은 교육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떤 형식에 벗어나 교사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교사들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주변에서 많은 연수나 시험 등 활동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거나 잘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무엇인가 있었으면 합니다.
- 전문기술 획득 및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 확충

- 학교 여건상 냉·난방 등 기본적인 것들이 불충분하여 교사 인센티브는 생각도 못할 여건입니다. 방과 후 활동의 활성화는 일단 학원과 비교하여 시설 및 기자재가 우선 구비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수업 환경.

❍ 학생 참여 촉진

-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교는 학생 참여율이 낮아 외부강사나 교사가 원하는 강좌가 전혀 개설되지 못함.
- 학생이 꼭 참여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함.

❍ 기타

- 표창.
- 해외여행의 특권.
- 새로운 반 편성 시 같은 교사를 지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2반을 한 교사가 운영 할 수 있게 개방.

- 교사의 능력별 반 편성 가능.
- 원하는 학년에 배치.
-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결과물들을 해치우기식의 모형이라 생각한다. 훗날 어떠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힘들어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할 것이고, 다른 교사에게 미루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 선진지 시찰 및 견학.
-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을 보장.

방과후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방과후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표 Ⅴ-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표 Ⅴ-65>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 문제점	합
1. 업무량 과다	22
2. 전문 강사 초빙이 어렵다.	19
3.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이 낮다.	16
4.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부모들의 신뢰 부족	12
5.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	10
6.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경제적 지원	9
7. 학생들의 참여 부족	8
8.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시설 및 재료지원	7
9. 사교육비 증가	6
10. 운영의 지속성 부족	5
11. 시설 낙후	5
12.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들의 통학 문제	4
13. 교사 간 정보 공유 부족	2
14. 기타	9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쓰도록 한 결과, 교사들이 경우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은 업무량 과다로 정상적인 교과지도를 한 후에도 방과후 학교지도를 따로 함으로써 오는 업무의 과중 때문에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고 질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 사무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뷰나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방과후 학교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함으로 인하여 업무 과다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문 강사 초빙의 문제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현재의 수준으로는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고, 농어촌의 경우는 강사의 질을 떠나서 특기적성을 위한 강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세 번째로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이 낮다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도 없고,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강사료, 시간표 등의 문제로 큰 개선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과 학부모들의 신뢰부족의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은 질이 낮은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제대로 배우려면 학원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원을 가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방과후 학교에 가겠다든가 또는 아주 단기간 흥미위주의 특별활동을 할 때 이용하겠다는 정도로 방과후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다섯 번째는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 이는 한반에 여러 학년이 같이 수업을 하기도 하는 등 수준별 반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재준비도 어렵고 지도도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운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분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국가보조가 있어야 하고, 수요자가 생각하는 강사료로는 우수한 강사를 결코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일곱 번째는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학생들의 의욕도 결여되어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으며, 특히 학원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학원시간과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여덟 번째는 운영에 대한 지원 중 시설 및 재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학습여건과 학습자료, 기자재, 교재 개발 및 보급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낙후된 시설이나 교구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교구, 악기, 의상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들었다.

아홉 번째는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지 못한다는 점으로 방과후 학교에 다녀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교과에 있어서는 아직도 학원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를 하면서 학원을 동시에 다님으로써 오히려 사교육비의 증가를 낳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국가보조가 없는 방과후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사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열 번째는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학교 일정에 맞추다보니 빠지는 날이 많고, 강사와의 계약을 단기간 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계별 수준별 학습이 어렵고 방학이면 또 끊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하여 한 강사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강좌를 운영하게 하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수준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한 번째는 낙후된 시설문제인데, 학교 교실이나 시설이 학원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특히 냉난방의 문제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질 높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외에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교사 간 정보 공유가 부족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각 범주의 구체적인 반응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업무량 과다

- 교사가 방과 후 학교지도를 하다보면 업무과중으로 학급아동지도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
- 정상적인 교과지도 후 처리해야 할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특히 행사가 많을 땐 방과 후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움.
- 교사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교재연구 시간 부족.
- 교사의 업무과다로 질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함.
- 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 이것은 아이들을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상담지도를 부족하게 만든다.
- 강사관리에 드는 시간이 많다.
- 학교에서는 일정한 틀의 문서를 요구하는데, 일일이 면대면 또는 개인별 전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드는 시간이 많다.
-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 사무원 도입.
-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다.
- 학생관리 하는 전담선생님과 수강료 걷는 문제 해결

❍ 전문 강사 초빙이 어렵다

-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한 지도가 되어야 함. 우수하고 책임감 있는 강사 확보가 어려움. 강사료와 연관.
- 전문적 자질을 갖춘 강사 섭외가 어렵다.
-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이 필요.
- 전문 강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중소도시와 같은 외부 인력이나, 강사지원이 충분한 곳을 제외하면, 일부 농, 어촌의 경우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 시골의 강사 초빙의 어려움.
-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보수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들어남.
- 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강사 확보.

❍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이 낮다

-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과 강사의 질이 낮았음.
- 외부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부족.
- 부모가 원하는 교과 보충시간 확보. 프로그램 활성화 부족.
- 아동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못하는 점.(체육 분야 등)
- 교사 1인당 아동수가 많은 것 같아,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어려운 것 같다.
- 방과 후 학교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성적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 적절한 교재 부재.
- 내용과 프로그램 질, 교사의 능력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강사료, 시간표, 강의실 등 항상 내려오는 방과 후 공문들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 특기적성 과목 부족

❍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부모들의 신뢰 부족

- 학부모의 인식이 아직은 학원에 신뢰감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부보다 보육의 차원(관리)에서, 학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 경쟁력 약화.(활동 시간이 적으므로 학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함)
- 공교육에 대한 불신, 공교육과 사교육, 방과 후 교육까지 병행하려는 지나친 교육열.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수요자(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부족
-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

- 수준별,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 마련이 미흡.
- 지도 대상 아동의 수준 차 문제.
- 지속적인 학습연계가 어려워 기초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
- 개별학습의 어려움.
- 수준별 반편성이 되지 못한다는 점.
- 한반에 여러 학년이 같이 수업.
- 교과수업의 경우 수준별로 반편성이 되어있지 않아 교재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경제적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대 비용이 다르다.
- 수요자가 생각하는 강사료로는 결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없다.
- 우수한 강사 확보 어려움. 강사료와 연관 있음.
-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목적으로 실시 시간 및 보수 등이 책정 되어야 함.
- 우수 강사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
- 적절한 강사료
- 강사가 아님 전문지식 없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참여 부족

-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 부족.
-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부족.
- 학생들의 의욕이 결여되어 있음.
- 강제성이 없으므로 참여도가 낮음.
- 학생과 교사의 동기가 부족한 것 같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일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학원 시간에 쫓겨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시설 및 재료지원

- 학습 여건과 학습 자료, 기자재, 교재 개발, 보급 부족
-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 시설 부족.
- 시설이나 교구도 대여해 주면 좋겠음
- 예능 방면에 악기, 의상, 레슨비 등도 대여 및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 사교육비 증가

- 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게 현재의 실정임.
-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별로 가져오지 않는다. 아직도 교과에 있어서는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돌봐 줄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 국가보조 아닌 방과 후 활동은 어차피 사교육
- 방과후 학교 수강료로 인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더욱 증가하게 할 수도 있음.(방과 후 학교 + 학원 + 과외)
-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사교육비 또한 줄어들기 힘듦
- 시설 등 교육 서비스 면에서 사교육에 뒤짐.

❍ 운영의 지속성 부족

- 학교일정에 맞추다보니, 빠지는 날이 많다.
- 최소 1년 계약 등을 통한 강사의 지속적인 수입으로 학생, 학부모의 믿음을 갖게 하여야 한다.

❍ 시설 낙후

- 시설 및 교실 환경이 열악한 편
-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부족.
- 학교시설이 학원의 시설에 절대 불리. 특히 냉·난방으로 인해 여름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들의 통학 문제

- 셔틀버스가 없어서 5시 이후 도보로 돌아가는 아이들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듦.
- 농, 어촌형 지역의 경우 스쿨버스 운행이 안 되어 방과 후 강좌수강과 학원수강 병행의 문제점 발생.
- 농촌형 학교의 경우, 통학 문제로 참여율이 저조함.

❍ 교사 간 정보 공유 부족

- 유사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공유 및 프로그램 내용 공유가 절실함. 또한 이를 통해 문제점을 토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사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말자.

❍ 기타

- 인기 프로그램의 아동 편중으로 원하는 아동들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
- 학교에서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지 말자.
- 조직적으로 미흡한 점 개인이 교습비(강사료) 내는 것, 강사의 전문화(인증서 겸비), 활동의 전문성, 비교과로 학생 교양 과정 습득.
- 석식 제공 문제.
- 교과학습반의 학원화.
- 공부만 중요시 하는 학교 방침.
- 상부기관의 간섭 및 관여가 많음.
- 내실보다는 홍보적 차원이 많음.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 방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에게 자유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66>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 방안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 방안	빈도
1. 전문 강사 채용	22
2. 프로그램 홍보 및 학부모 인식 전환	19
3. 시설 확충	15
4. 강사료와 수강료 지원	14
5. 프로그램 개발 및 질 향상	14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공동 운영	13
7. 교사의 업무 경감	12
8. 수준별 학습	9
9. 기존 교사들에게 전문 교육 실시	4
10.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의 통학 수단 마련	4
11 교사의 자율권 보장	2
12.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2
13. 기타	9

교사들은 전문 강사 채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강사를 통한 전체적인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질이 보장이 되었을 때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실력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능력이 뛰어난 명강사를 섭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교사의 질 하락으로 공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우려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홍보로 인한 학부모 인식 전환이었는데, 방과후 학교의 경우 학원과 달리 덜 중요하게 생각하여 결석을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학원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의식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 국가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학부모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학부모 교사 간 협의도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는 시설 확충의 문제로 각종 시설의 확충과 냉난방 장치의 필요성 및 한 학급당 인원수 15명 이하 등 기본적인 환경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네 번째는 강사료와 수강료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특히 소규모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강사료와 수강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라도 무료 제공을 함으로써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질 향상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지역과 연계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공동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교회나 마을회관 학부모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인근 학교와의 연계 등으로 공동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일곱 번째는 교사의 업무경감으로 교사는 담당교과과목만 하고 행정업무는 행정전담 요원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교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과중으로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여덟 번째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강사를 보충함으로써 다양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수준에 맞는 교과목반을 신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학년별로 수업을 따로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아홉 번째는 기존의 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문 강사 초빙도 중요하지만 교사들로 하여금 전문 자격증 취득제도를 통해 전문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 외에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주어야 한다,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동들의 통학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의 통학수단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 강사 채용

- 질 높은 강사 채용과 연계적인 지도.
- 현직교사는 주로 교과의 심화, 보충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예체능 외부강사는 좀 더 전문적 능력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에 배치되어야 한다.
- 강사관리 운영 팀(별도)을 만들어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인적자원 활용.(지역사회 연계)
- 좋은 강사 초빙에 지역인사 협력.
- 낮은 강사료로 인한 유능한 강사 초청이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지원 필요.
- 학교 자체적인 운영보다는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운영의 책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실력 있는 외부 강사의 영입으로 학원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함.
-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강사들을 관리해 주도록 하여 농촌 벽지 학교에도 우수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함.
- 전담교사 배치. (비담임이지만 수당지급)—상담, 출석, 교육비 등 관리
- 교과 이외의 전문 강사.
- 강사료를 인상하여 유능한 강사 초빙.
- 실력 있는 교사의 확보.(수업운영능력이 뛰어난, 명강사)
- 방과 후 활동을 철저하게 학교시설의 대여만하고 강사를 외부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의 질 하락으로 공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든다.

❍ 프로그램 홍보로 학부모 인식 전환

- 중요도 인식(학생, 학부모)을 높여 결석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학부모 교육을 통해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를 원함.(아직 주위에 방과 후 학교가 있는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음)
- 학부모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 홍보, 효율성 알리기.
- 학부모의 호응도 높이기
- 부모들의 원하는 부서 다수 개설.(개설 부서 설문 조사 시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전국가적인 홍보 필요.
-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좀 더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 학부모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저수요' 문제를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해결.
-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시설 확충

- 교육 시설 및 환경조성
- 방과 후 학교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이 정비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여건, 제도 마련이 필요.
-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제대로 된 시설 확충
- 방과 후 교실 확보.
- 시설, 기자재, 교재 개발 보급.
- 시스템 활용으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학교 밖의 시설 활용.(수영, 골프, 검도, 영어)
- 여름에는 학원처럼 에어컨과 같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인원수는 15명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시설의 지원, 보수.
- 냉/난방 지원.

❍ 강사료와 수강료 지원

- 국가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제도 채택지원. 혹은 외부강사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싼 수강료로 지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방과 후 학교 활동 강사 지원을 위한 지원체제가 있어야 함.(전문적 기관 설립 요)
- 평생학습 지원 센터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 예산지원.
-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 지원

- 경제적 보상 효과 및 제반여건 조성.
- 적당한 강사료 확보를 우선시해야 함.
- 학생 1기 운동으로 수강료 없이 전교생 참여.
- 저소득층 자녀 기회 부여.
- 교양과목(문화, 예술, 체육과목)을 무료로 제공.
-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학교장 직영 시는 보조인력 지원, 예산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질 향상

- 학생들이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수요자가 원하는)
-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적 향상
- 교과 보충시간 확보 및 질 관리가 필요함.
- 부진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내실 있는 교재, 교구의 개발 등 체계적인 노력
- 질 높은 프로그램 개설.
- 질 높은 교육
- 특기 적성에 관해서는 학생의 흥미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고, 교과 학습에서는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선정이 중요하다.
- 프로그램이 지속적이며 연계될 수 있게 연간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공동 운영

- 지역사회의 단체와 함께 실시(교회, 마을 회관, 학부모 자원 봉사자 등).
- 인근지역의 학교와 함께 운영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과 물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학교 내에서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교육청 차원 인력들 구성.

- 지자체나, 비영리 단체, 대학교에 위탁운영.
- 지역사회 시설,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사회 시설의 적극 활용.
- 인적자원(강사)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여러 학교가 통합 운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지역 교사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정기적인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교사의 업무 경감

- 행정업무 전담 요원 필요.
- 교과담당 교사의 업무경감
-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 사무원(재정지원)
- 행정실에서 강사관리 하고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봄.
- 교재설정 절차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
- 교사의 업무 해소 방안.

❍ 수준별 학습

- 강사의 보충으로 다양한 수준별 수업.
- 패키지, 수준별 방과 후 활동.
- 수준별 지도에 관한 연수 실시.
- 수준에 맞는 교과목반 신설.
- 각 학년별로 수업.
- 수준별 학습과 개개인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원을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 기존 교사들에게 전문 교육 실시

- 전문 강사 초빙도 중요하지만, 교사들로 하여금 전문 자격증 취득 제도를 통해, 누구라도 인정하는 자격을 통해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한다.
-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학교 교사를 방과 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개설과 교육이 시급하다.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의 통학수단 마련

• 학교에 셔틀버스 제공 및 운행

❍ 교사의 자율권 보장

• 교수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일체 간섭하지 말 것.
• 가능하면 간섭이나 지도를 최소화 할 것.

❍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줄 것.
• 방과 후 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는 인센티브 부여

❍ 기타

• 희망하는 교사에게 업무를 배정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며,
• 아동들의 생활지도.
• 보충수업 실시.
• 수강료를 보다 인상하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주변 학원보다 경쟁력을 높여야 함.
• 사설 학원 수용.
• 교과 중심이 아닌 특기적성으로 운영.
• 저녁을 먹고 오도록 하여 수업시간에 늘어지지 않도록
• 교사들의 인식 변화.
• 방과 후 학교 전담체제 운영위탁 관리 방안.

(1)-2. 비참여 집단

① 학생집단

배경변인

방과후 학교 비참여 집단은 방과후 학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기타 방과후 공적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다. 설문에 참여한 비참여 집단 학생 중 초등학생은 남자 165명(57.5%), 여자 122명(42.5%)이고 중학생은 남자 168명(72.7%), 여자 63명(27.3%)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이 조금 많은 편이었다.

<표 Ⅴ-67> 방과후 학교 비참여 집단의 성별 분포

	초등학생	중학생
남	165 (57.5)	168 (72.7)
녀	122 (42.5)	63 (27.3)
합계	287 (100)	231 (100)

연령은 초등학생의 경우 만 9세에서 13세까지 있었고, 중학생은 만 12세에서 15세까지 있었다.

<표 Ⅴ-68>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연령 분포

연령	초등학생	중학생
9	6 (2.1)	-
10	92 (32.1)	-
11	97 (33.8)	-
12	91 (31.7)	24 (10.4)
13	1 (.3)	136 (58.9)
14	-	70 (30.3)
15	-	1 (.4)
합계	287 (100)	231 (100)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성적을 물어보았다.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중' 이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초등학생 161명(57.5%), 중학생 129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상' 이라고 생각하는 빈도도 비교적 많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88명(31.7%), 중학생의 경우 51명(22.5%)이었다.

<표 Ⅴ-69>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성적 분포

성적	초등학생	중학생
상	88 (31.4)	51 (22.5)
중	161 (57.5)	129 (56.8)
하	31 (11.1)	47 (20.7)
합계	280 (100)	227 (100)

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 모두에서 '두 분이 함께 사신다' 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많았다(초등학생 259명, 91.9%, 중학생 201명, 87.4%).

<표 Ⅴ-70>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부모 결혼상태

	초등학생	중학생
두 분이 함께 사신다	259 (91.5)	201 (87.4)
이혼하셨다	10 (3.5)	11 (4.8)
별거 하신다	8 (2.8)	7 (3.0)
한 분이 돌아가셨다	6 (2.1)	11 (4.8)
합계	283 (100)	230 (100)

학부모들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교 집단 모두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아버지에 비해 더 많고,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도 많았다.

<표 Ⅴ-71>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의 학부모 학력

	초등학생		중학생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이하	7 (2.9)	6 (2.4)	4 (1.9)	3 (1.4)
중학교 졸업	13 (5.3)	12 (4.9)	10 (4.8)	17 (8.1)
고등학교 졸업	107 (43.7)	133 (54.3)	88 (41.9)	118 (56.5)
전문대 졸업	14 (5.7)	17 (6.9)	3 (1.4)	5 (2.4)
대학교 졸업	92 (37.6)	70 (28.6)	88 (41.9)	58 (27.8)
대학원 졸업	12 (4.9)	7 (2.9)	17 (8.1)	8 (3.8)
합계	245 (100)	245 (100)	210 (100)	209 (100)

맞벌이 여부를 물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맞벌이를 하는 집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비참여 집단은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가정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으면서 자녀를 방과 후 학교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표 Ⅴ-72>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 집단 학부모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부부	초등	중등
예	179 (66.3)	134 (58.3)
아니오	91 (33.7)	96 (41.7)
합계	270 (100)	230 (100)

경제수준은 '중'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생 211명(74.8%), 중학생 181명(80.4%)으로 가장 많았고, '상' 이라고 응답한 빈도도 초등학생의 경우 57명(20.2%), 중학생의 경우 26명(11.6%)으로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 모두 '상' 또는 '중'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90%를 넘었다.

<표 Ⅴ-73>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집단의 경제수준

경제수준	초등	중등
상	57 (20.2)	26 (11.6)
중	211 (74.8)	181 (80.4)
하	14 (5.0)	18 (8.0)
합계	282 (100)	225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비참여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이유는 방과후 학교 활동에 대한 비참여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고, 비참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아래의 태도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한 욕구들과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표에 제시된 점수들은 각 문항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5점 만점이고 3점은 중간의 입장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는 문항이었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방과후 학교를 하는 시간 자체가 짧고, 학원과 겹치기 때문에 학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역시 두 집단 모두 높았는데, 특히 교과목이 더욱 중요한 중학생 집단의 경우 평균점수가 더욱 높았다. 그 외에중학생의 경우 '실력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서 잘 배울 수가 없다',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한 신경써주지 않는다',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학원에 비해 시설이 나쁘다'라는 문항에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서 비참여 집단이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들을 추론하게 해주었다.

이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과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는 것 이외에는 3점이 넘는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없었다.

<표 Ⅴ-74 > 비참여 집단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관련 태도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초등학생	중학생	t
1.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3.33 (1.44)	3.47(1.21)	n. s.
2. 방과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2.94 (1.14)	2.77(.90)	n. s.
3.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	3.32 (1.17)	3.55(1.10)	−2.17*
4. 실력에 따라 수준별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87(1.13)	3.07(1.06)	n. s.
5.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써주지 않는다	2.48(1.17)	3.04(1.13)	−4.70***
6.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서 잘 배울 수가 없다	2.60(1.14)	3.09(1.10)	−4.36***
7. 방학 중에는 하지 않아서 계속 참여하기가 어렵다	2.45(1.17)	2.88(1.18)	−3.37***
8.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74(1.15)	3.10(1.07)	−2.99**
9. 학원에 비해 시설이 나쁘다	2.50(1.24)	3.10(1.19)	−4.55***
10.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알맞다	3.00 (1.21)	2.91(1.24)	n. s.

② 학부모집단

비참여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태도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추진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본 설문조사에서 비참여 학부모 집단은 비참여 설문을 했던 학생들의 직접 부모는 아니었다. 따라서 배경변인을 따로 분석 제시하였다.

배경변인

우선 배경변인으로 비참여 학부모들의 연령을 알아보았다. 초등학부모의

경우 30대와 40대에 모두 포함되었고, 중등학부모의 경우는 거의 40대였고, 30대가 1명, 50대가 1명이었다.

<표 Ⅴ-75>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연령 분포

	초등학부모	중등학부모
30대	29 (69.0)	1 (4.8)
40대	13 (31.0)	17 (81.0)
50대	-	3 (14.3)
합계	42 (100)	21 (100)

학력은 전체적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고 중등학교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 집단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Ⅴ-76>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학력 분포

초등	초등아버지	초등어머니	중등아버지	중등어머니
초등학교 졸업	-	-	-	1 (3.3)
중학교 졸업	1 (2.5)	-	2 (6.9)	3 (10.0)
고등학교 졸업	19 (47.5)	29 (69.0)	10 (34.5)	12 (40.0)
전문대 졸업	6 (15.0)	2 (4.8)	1 (3.4)	-
대학교 졸업	10 (25.0)	9 (21.4)	12 (41.4)	13 (43.3)
대학원 졸업	4 (10.0)	2 (4.8)	4 (13.8)	1 (3.3)
합계	40 (100)	42 (100)	29 (100)	30 (100)

결혼 상태는 현재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6명(85.7명), 28명(90.3%)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학부모의 이혼과 별거가 각각 3명, 1명 이었다.

<표 Ⅴ-77>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결혼상태

결혼상태	초등	중등
부부가 함께 산다	36 (85.7)	28 (90.3)
이혼	3 (7.1)	-
별거	1 (2.4)	-
사별	1 (2.4)	2 (6.5)
기타	1 (2.4)	1 (3.2)
합계	42 (100)	31 (100)

월 소득은 300만원에서 399만원에 해당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나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을 모두 합하면 초등학부모가 25명(61%), 중등학부모가 16명(54.7%)으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Ⅴ-78>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경제수준

소득	초등	중등
100만원 미만	3 (7.3)	4 (13.8)
100-199만원	8 (19.5)	4 (13.8)
200-299만원	5 (12.2)	5 (17.2)
300-399만원	12 (29.3)	7 (24.1)
400-499만원	5 (12.2)	3 (10.3)
500만원 이상	8 (19.5)	6 (20.7)
합계	41 (100)	29 (100)

한 달 교육비는 초등학부모와 중등학부모 모두 31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분포로 보았을 때 중학생 집단의 교육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9>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월평균 교육비

교육비	초등학생	중학생
20만원 이하	5 (12.2)	4 (13.3)
21-40만원	9 (22.0)	4 (13.3)
31-50만원	11 (26.8)	7 (23.3)
51-70만원	7 (17.1)	6 (20.0)
71-90만원	4 (9.8)	1 (3.3)
91-110만원	4 (9.8)	2 (6.7)
111-150만원	-	1 (3.3)
151-200만원	1 (2.4)	4 (13.3)
200만원 이상	-	1 (3.3)
합계	41(100)	30 (100)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들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부모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각 활동의 기초수준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는 문항이었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문항으로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문항은 '시간이 맞지 않는다' 는 것이었는데, 학생들과 마찬가지고 학원이 우선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설 학원에 비해 열악하다',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학 중 운영을 하지 않아서 지속적 수강이 어렵다' 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3점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문항들은 모두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문제로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싼 가격의 형식적강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서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항목이 '각 활동의 기초수준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는 문항이었다. 이는 방과후 활동의 핵

심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 '시간이 맞지 않는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의 문항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80>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방과후 학교관련 태도

태 도	초 등	중 등
1. 시간이 맞지 않는다	3.55 (1.18)	3.25 (1.30)
2. 지도교사의 열의가 부족하다	2.72 (1.21)	2.50 (.88)
3. 수업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2.97 (1.29)	2.61 (.74)
4.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24 (1.22)	3.07 (.96)
5.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3.35 (1.12)	3.00 (1.07)
6. 많은 아이들이 한번꺼에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3.40 (1.11)	3.21 (.83)
7. 방학 중 운영을 하지 않아 지속적 수강이 어렵다	3.08 (1.22)	2.96 (.84)
8. 각 활동의 기초수준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3.72 (1.01)	3.41 (1.05)
9. 시설이 학원에 비해 열악하다	3.28 (1.24)	2.93 (.90)
10.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3.03 (1.35)	2.89 (.92)
11.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하지 않겠다	2.80 (1.51)	2.46 (1.20)

그렇다면 방과후 학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추진당시 목표로 했던 사안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참여 학부모들은 방과후 학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목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즉, 초등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학력향상,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향상l, 안전한 학생보호,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등학부모의 경우는 그 보다 더 긍정적이어서 사교육비 감소,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 예방 등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히 태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추진목표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하게 학부모들의 상반된 태도를 분석해야 할 문제로 사료되었다.

<표 Ⅴ-81>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부모 집단의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방과후 학교의 효과(학교_학부모)	초등	중등	t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3.07 (.99)	3.37 (.85)	n. s.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2.61 (1.07)	3.03 (1.14)	n. s.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2.83 (1.12)	3.23 (1.09)	n. s.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2.90 (.96)	2.81 (.83)	n. s.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3.05 (1.09)	3.13 (1.02)	n. s.
6.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51 (1.10)	3.03 (1.08)	−2.00*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62 (1.08)	2.97 (1.13)	n. s.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83 (1.16)	3.32 (1.05)	n. s.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2.98 (1.09)	3.16 (1.00)	n. s.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00 (1.03)	3.33 (1.03)	n. s.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07 (1.08)	3.07 (1.05)	n. s.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2 (1.03)	3.10 (1.09)	n. s.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2.39 (1.09)	2.97 (1.16)	−2.14*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2.83 (1.16)	2.97 (1.30)	n. s.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방과후 학교 참여 및 비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집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Ⅴ- 82> 방과후 학교 참여 집단 설문조사 결과 요약

집단분석 / 영역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실태 및	• 자발적 참여 • 지속적 참여의지	• 초등학생의 경우 특기적성 개발을, 중학생의 경우	• 자유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싫음

프로그램		실력향상을 첫 번째 목적으로 여김 • 운영시간은 적절하다고 여김	• 방과후 담당시간에 대해서는 알맞다고 생각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적절하다고 생각 • 강사료도 알맞다고 생각
요구 및 만족도	• 활동에 흥미를 지니고 있음 • 교사에 대한 만족도 높음 • 수강료가 싸다 • 편안한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 방학중 운영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음 • 방과후 급식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음 •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	•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 국영수 등의 핵심과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 프로그램 질에 대한 요구 • 방과후 급식에 대한 기대 •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계 확립, 능력별 반편성에 대한 요구 • 문제아동 관리체계의 필요성 • 학원에 대한 요구 및 참여 가능성 높음	• 교사로써의 어려움으로 업무과중, 유능한 강사 채용의 어려움, 적정한 인센티브 부족,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교재구성의 어려움, 학생의 열의부족,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을 지각 • 참여교사는 전반적으로 만족 •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식지도와 운영시간 연장 등 현재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 •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계 확립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봄
효과성	• 초등학생의 경우 효과성을 높게 지각함: 교우관계, 학교생활, 교사관계, 가족관계, 특기개발, 자신감, 성적향상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지각. •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만족도 떨어짐: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만 좋아졌다고 지각	• 아이의 자신감 향상, 학교생활, 교사관계, 교우관계, 성적향상, 가족관계 향상 등의 문항에 대해 긍정적 변화 지각 • 사교육비 감소, 육아 스트레스, 생활의 편안함, 편안한 직장생활 등에 대해서는 변화 지각 못함	• 학생들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특기개발, 문화생활, 자신감 및 성적 향상 등 전반적인 향상 지각
추진목표 부합도	–	• 초등중등 학부모 모두 학생들의 학력향상,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증진,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안전한 학생보호 등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었고, 초등학부모는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기대도 있었음 • 사교육비 감소,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비행예방, 저 출산 문제 해결,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	• 초등교사의 경우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대한 기대 긍정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 중등교사는 반대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간 격차해소, 장기적 저 출산 문제의 대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 • 학교급간 교사의 인식차이

<표 Ⅴ- 83> 방과후 학교 비참여 집단 설문조사 결과 요약

집 단 / 분석영역	학생	학부모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태도	•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다 • 너무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배운다는 것 •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는 생각 •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생각	• 보다 높은 수준을 배우기에 부족 • 시간이 맞지 않음 • 시설의 열악 • 너무 많은 수강생으로 효율성 감소 • 지속적 수강의 어려움
추진목표 부합도	–	• 전반적으로 크게 긍정적인 태도는 아니나,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기대, 학생들의 학력향상,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회복,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부모에 비해 더 긍정적인 편. 학생들의 학력향상, 사교육비 감소,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향상,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봄

(2) 방과후 아카데미

①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배경변인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은 남자 101명, 여자 143명 합하여 24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초등학생은 152명(62.3%)이었고, 중학생은 92명(37.7%)였다.

<표 Ⅴ-84>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조사대상자의 수

학교수준	학생		합
	남	여	
초등학교	52	100	152
중학교	49	143	92
총	101	143	244

연령은 만 9세부터 15세 까지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았다.

<표 Ⅴ-85>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연령분포: 빈도 및 퍼센트

연령	빈도 (%)
9	7 (2.9)
10	32 (13.2)
11	68 (28.0)
12	55 (22.6)
13	45 (18.5)
14	30 (12.3)
15	6 (2.5)
합계	243 (100)

학교에서의 성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3명(66.8%)으로 가장 많았고, '하' 라고 응답한 학생이 50명(20.5%), '상' 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1명(12.7%)이었다.

<표 Ⅴ-86>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지각된 성적분포

성적	빈도 (%)
상	31 (12.7)
중	163 (66.8)
하	50 (20.5)
합계	244 (100)

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는 112명으로 47.3%였고, 이혼을 하셨다고 응답한 빈도가 71명(30%)이나 되었고, 별거도 37명(15.6%), 사별이 17명(7.2%)으로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모두 합하면, 52.7%에 달하여, 방과후 학교의 경우 91.2%가 양부모 가정인 것에 비하여 가정환경이 비교적 열악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Ⅴ-87>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부모 결혼상태

부모동거	빈도 (%)
함께 사신다	112 (47.3)
이혼하셨다	71 (30.0)
별거 하신다	37 (15.6)
한분이 돌아가셨다	17 (7.2)
합계	237 (100)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를 물어본 결과 113명(48.5%)으로 거의 반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Ⅴ-88>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부모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여부	빈도 (%)
예	113 (48.5)
아니오	120 (51.5)
합계	233 (100)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형 기관의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64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하'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68명(28.1%)이었다.

<표 Ⅴ-89>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경제수준

경제수준	빈도 (%)
상	10 (4.1)
중	164 (67.8)
하	68 (28.1)
합계	242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참여 및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 기간을 물어보았다. 그 중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닌 학생들이 전체의 60%(147명)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57명(23.3%), 1년-2년 사이가 39명(15.9%)이었다.

<표 Ⅴ-90>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참여기간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 기간	빈도 (%)
6개월 미만	57 (23.3)
6개월 - 1년 미만	147 (60.0)
1년 - 2년 미만	39 (15.9)
2년 이상	2 (.8)
합계	245 (100)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알맞다고 응답한 학생이 151명(61.5%)으로 가장 많았지만, '좀 긴 편이다' 또는 '너무 길다' 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29.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운영시간이'길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Ⅴ-91>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빈도 (%)
너무 길다	11 (4.5)
좀 긴 편이다	60 (24.6)
알맞다	151 (61.5)
좀 짧은 편이다	14 (5.7)
너무 짧다	8 (3.3)
합계	244 (100)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학교 선생님의 추천이 가장 많았고(76명, 31.7%),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

은 47명(19.6%),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38명(15.8%)이었고, 홍보물을 보고 안 경우는 12.5%(30명)로 주로 학교나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알게 되고 홍보물을 보고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 아카데미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하였다.

<표 Ⅴ-92>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알게 된 경위

방과후 아카데미를 알게 된 경위	빈도 (%)
학교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76 (31.7)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38 (15.8)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47 (19.6)
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30 (12.5)
기타	49 (20.4)
합계	240 (100)

방과후 아카데미를 스스로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권유로 다니는지 알아보고자 자발적 동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다니고 싶어서 다닌다는 학생이 159명으로(65.7%) 대부분이었고, 부모님의 권유로 다닌다는 학생이 52명(21.5%)이었으며, 그 외에 친구를 따라하거나 선생님의 추천도 약 6%정도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93>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참여이유

	빈도 (%)
내가 다니고 싶어서	159 (65.7)
부모님께서 하라고 해서	52 (21.5)
친구가 해서 같이 하려고	12 (5.0)
선생님께서 추천해서	3 (1.2)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16 (6.6)
합계	242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산출된 25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다음의 2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이 만점이고 3점은 중간정도의 태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표 Ⅴ-9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사와 관련된 문항을 보면,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어서 좋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 물어보기가 편하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라는 문항은 평균이 모두 4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는 문항은 평균이 4.4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과후 학교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다', '개인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수업이 재미있다', '특기적성개발에 도움이 된다' 는 문항들에 대해 4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형편만 되면 학원을 다니겠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 3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다', '학교가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급식을 해주어서 좋다' 는 문항에 대해서도 평균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27번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라는 문항은 인터뷰의 질적 분석에서 교사들이 많이 언급한 내용에서 추출한 문항으로, 학교에서 교사나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소

개했을 때 왜 자신들이 그러한 전화를 받아야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자주 있다는 내용으로부터 구성된 문항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아이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을 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가 된 아이들은 이미 중간에 탈락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계속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응답은 적게 나왔을 수 있다.

<표 Ⅴ-94>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다	4.16 (.78)
2.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어서 좋다	4.01 (.99)
3. 선생님들이 학교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다	3.96 (.99)
4.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 물어보기가 편하다	4.22 (.96)
5. 억지로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3.98 (1.06)
6. 선생님들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	3.94 (1.06)
7.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4.40 (.76)
8.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다	4.06 (1.00)
9. 개인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4.55 (.72)
10. 수업이 재미있다	4.11 (.90)
11. 교과수업을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3.91 (1.21)
12. 취미나 예술, 스포츠 등 활동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4.36(.94)
13.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4.24 (.85)
14.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3.89 (1.01)
15.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2.19 (1.06)
16. 형편만 되면 학원을 다니겠다	2.35 (1.33)
17. 수준별 반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다	2.54 (1.23)
18. 수강료가 싸다	4.05 (1.28)
19. 너무 늦게까지 해서 몸이 피곤하다	2.84 (1.44)
20. 시간표가 너무 빡빡해서 힘들다	2.37 (1.31)
21.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	3.44 (1.51)
22.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다	4.38 (.92)
23. 학교 친구들과 사귈 시간이 없다	2.20 (1.31)
24. 학교가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4.17 (.99)
25.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3.43 (1.29)
26.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다	2.03 (1.22)
27.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1.67 (1.02)
28. 급식을 해주어서 좋다	4.20 (.97)

보다 직접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 다는 사실을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학교 친구들에게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을 알렸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렸다고 응답하였다(202명, 82.8%).

<표 V-95>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이 자신의 아카데미 참여를 알렸는지 여부

	빈도 (%)
알렸다	202 (82.8)
알리지 않았다	42 (17.2)
합계	244 (100)

이 중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아이들의 경우 특별히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게 싫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은 13명(19.7%)뿐 이었고, '특별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라고 응답을 한 학생들이 38명(57.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특별히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설문조사로는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V-96>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친구들에게 참여를 알리지 않은 이유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빈도 (%)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어서	38 (57.6)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게 싫어서	13 (19.7)
기타	15 (22.7)
합계	66 (100)

보다 직접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얼마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전체의 85.5%에 해당하는 208명이 좋아한다 또는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을 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표 Ⅴ-97>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아카데미에 대한 전반적 태도

	빈도 (%)
매우 좋아한다	105 (43.0)
좋아 한다	103 (42.2)
그저 그렇다	36 (14.8)
합계	244 (100)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학교공부에 도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학생이 114명(46.5%), '매우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학생이 97명(39.6%)으로 211명(86.1%)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기적성에 대해서도 역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사례가 117명(48%)이었고, '약간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비율이 93명(38.1%)이었다. 따라서 전체의 86.1%가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98>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도움 정도	학교공부	특기적성
매우 도움이 된다	97 (39.6)	117 (48.0)
약간 도움이 된다	114 (46.5)	93 (38.1)
그저 그렇다	25 (10.2)	27 (11.1)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2.4)	4 (1.6)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1.2)	3 (1.2)
합계	245 (100)	244 (100)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더 집중적으로 지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국, 영, 수 등의 핵심과목에 대한 요구가 현격히 많았다(115명, 47.5%).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예체능 과목이나(47명, 19.4%) 특기적성(16.9%)개발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원하는 것이 학원과 같이 학교성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교과과목에 대한 집중적 지도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Ⅴ-99>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해주기 바라는 것	빈도 (%)
숙제지도	11 (4.5)
국, 영 수 핵심과목 지도	115 (47.5)
예체능 과목	47 (19.4)
인성교육	3 (1.2)
특기적성 개발	41 (16.9)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21 (8.7)
기타	4 (1.7)
합계	242 (100)

앞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에 계속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93.4%가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을 함으로써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표 Ⅴ-100> 방과후 아카데미의 지속적 참여의사

	빈도 (%)
참여할 것이다	228 (93.4)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6 (6.6)
합계	244 (100)

그러나 만일 앞으로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였다.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활동시간이 매우 빡빡하게 정해져 있고 유동성이 없으며, 주말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때때로 집에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활동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실무자들과의 상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101>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향후 불참 이유

	빈도 (%)
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2 (4.1)
프로그램은 있지만 흥미가 없어서	2 (4.1)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10.2)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게 싫어서	1 (2.0)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7 (14.3)
몸이 너무 피곤해서	22 (44.9)
기타	10 (20.4)
합계	49 (100)

프로그램 효과성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 후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최소 3.61에서 3.96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은 '학원비가 줄었다'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문항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닌 결과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02>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의 행동변화에 대한 지각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3.89 (1.06)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65 (1.13)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70 (1.10)
4. 일상생활이 즐거워 졌다	3.88 (1.03)
5. 학교생활이 즐거워 졌다	3.70 (1.10)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3.95 (1.00)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3.87 (1.10)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3.68 (1.19)
9. 자신감이 생겼다	3.77 (1.09)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3.61 (1.13)
11. 학원비가 줄었다	3.96 (1.24)

②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

배경변인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는 설문지를 했던 학생들의 부모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설문에 응답했던 학생들의 학부모였고, 일부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던 학생의 학부모였다. 학부모 집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7.6%(8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9명(35.3%)이었으며 50대 이상은 10명으로 7.2%였다.

<표 Ⅴ-103>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연령분포

연령집단	빈도 (유효퍼센트)
30대	49 (35.3)
40대	80 (57.6)
50대 이상	10 (7.2)
합계	139 (100)

학생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100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38명으로 24.5%였으며 할머니가 11명(7.1%), 할아버지가 2명(1.3%)이었고 기타 삼촌, 외숙모 등이 4명 있었다.

<표 Ⅴ-104>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 분포

학생과의 관계	빈도 (%)
아버지	38 (24.5)
어머니	100 (64.5)
할머니	11 (7.1)
할아버지	2 (1.3)
기타	4 (2.6)
합계	155 (100)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부부가 함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80명(52.6%)이었고, 이론이 36명(23.7%), 별거가 16명(10.5%), 사별이 15명(9.9%), 기타 5명(3.3%)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 정도만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였고 반 정도는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결혼생활이 깨진 경우였다.

<표 Ⅴ-105>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 결혼상태

부모님의 결혼상태	빈도 (%)
부부가 함께 산다	80 (52.6)
이혼	36 (23.7)
별거	16 (10.5)
사별	15 (9.9)
기타	5 (3.3)
합계	152 (100)

부모님과 현재 보호자의 학력은 세 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전문대 이상의 비율이 아버지는 30명(25%), 어머니는 17명(12.6%), 보호자는 11명(15.1%)으로 아버지의 전문대 이상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해석해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이 아버지의 경우 75%, 어머니는 87.4%, 보호자 84.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 이하라고 볼 수 있다.

<표 Ⅴ-106>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학력

학력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초등학교졸업이하	2 (1.7)	4 (3.0)	4 (5.5)
중학교졸업	15 (12.5)	15 (11.1)	9 (12.3)
고등학교졸업	73 (60.8)	99 (73.3)	49 (67.1)
전문대 졸업	8 (6.7)	7 (5.2)	4 (5.5)
대학교 졸업	18 (15.0)	9 (6.7)	6 (8.2)
대학원 졸업	4 (3.3)	1 (.7)	1 (1.4)
합계	120 (100)	135 (100)	73 (100)

월평균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80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가 51명 (33.1%)이었으며, 200만원에서 299만원 이 16명(10.4%)이었다. 이는 방과후 학교의 수준과 매우 차이 나는 결과로 방과후 학교 학부모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7명(6.4%)에 불과했던 것과 매우 비교가 되며,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Ⅴ-107>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수준	빈도 (%)
100만원 미만	80 (51.9)
100-199만원 미만	51 (33.1)
200-299만원 미만	16 (10.4)
300-399만원 미만	5 (3.2)
400-499만원 미만	2 (1.3)
합계	154 (100)

월평균 교육비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와 매우 비교되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경우는 2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91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12명(11%)밖에 되지 않았고, 40만 원 이상도 65.2%이었던 것에 비해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경우 10.8%밖에 되지 않아서 교육비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Ⅴ-108>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

월평균 교육비	빈도 (%)
20만원 이하	91 (61.5)
21-40만원	42 (28.4)
41-60만원	8 (5.4)
61-80만원	5 (3.4)
81-100만원	1 (.7)
100만원 초과	1 (.7)
합계	148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자녀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본 결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2명(59%)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32명(20.5%), 1년에서 2년 사이가 31명(19.9%)였다.

<표 Ⅴ-109>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자녀 참여기간

자녀의 참가기간	빈도 (%)
6개월 미만	32 (20.5)
6개월-1년 미만	92 (59.0)
1년-2년 미만	31 (19.9)
2년 이상	1 (.6)
합계	156 (100)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알맞다' 고 응답한 비율이 106명(67.9%)이었고, '조금 긴 편이다' 또는 '너무 길다' 고 응답한 비율도 48명(30.7%)으로,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의 빡빡한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신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응답결과로 보여진다.

<표 Ⅴ-110>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운영시간수의 적절성	빈도 (%)
너무 길다	3 (1.9)
조금 긴 편이다	45 (28.8)
알맞다	106 (67.9)
조금 짧은 편이다	2 (1.3)
합계	156 (100)

방과후 아카데미를 알게 된 계기는 학생들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학교 선생님 추천' 이 가장 많았고(56명, 36.1%), '동사무소 연락' 이 27명(17.4%)이었고, '자녀의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는 응답도 25명(16.1%)이었다. 그러나 학생들과는 달리 '홍보물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28명(18.1%)로 홍보물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111>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알게 된 계기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떻게 알게된 경위	빈도 (%)
학교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56 (36.1)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27 (17.4)
자녀의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25 (16.1)
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28 (18.1)
기타	19 (12.3)
합계	155 (100)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에 참여하는 자녀들의 자발적 동기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1.4%(110

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부모가 시켰다는 응답은 26명(16.9%)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반응과 일치하는 결과로 전반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2>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는 이유

	빈도 (%)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	110 (71.4)
내가 하라고 시켰다.	26 (16.9)
자녀의 친구가 해서 같이 한다.	3 (1.9)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3 (1.9)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12 (7.8)
합계	154 (100)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는 주요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가 64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서'가 53명(34.9%),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5명(16.4%)이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국영수 등의 핵심과목이라고 응답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원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문화생활 보다는 학업 성적 향상을 가장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표 V-113>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는 주요 이유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는 주요 이유	빈도 (%)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	64 (42.1)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서	53 (34.9)
방과 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25 (16.4)
비용이 싸서	6 (3.9)
기타	4 (2.6)
합계	152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자녀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결과 '좋아한다' 또는'매우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9.1%(139명)로 나타나 학생들 본인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4>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아카데미에 대한 태도

호의도	빈도 (%)
매우 좋아한다	53 (34.0)
좋아한다	86 (55.1)
그저 그렇다	13 (8.3)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4 (2.6)
합계	156 (100)

학교 공부나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이었는데, 학교 공부에'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명(42.3%), '약간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비율이 75명(48.1%)으로 둘을 합친 값은 전체의 90.4%에 달한다. 따라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대부분이었다. 특기적성의 경우도 '매우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비율이 83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비율이 65명(42.2%)이었다. 학교 공부와 마찬가지로 둘을 합친 비율을 보면 148명(96.1%)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V-115>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정도

	학교공부	특기적성
매우 도움이 된다	66 (42.3)	83 (53.9)
약간 도움이 된다	75 (48.1)	65 (42.2)
그저 그렇다	11 (7.1)	6 (3.9)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2.6)	-
합계	156 (100)	154 (100)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국, 영, 수 등의 핵심과목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94명(61.4%)으로 가장 많아서 학생들과 동일한 요구상태를 나타내었다. 학생과 다른 점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로, 학생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었음에 비해(3명, 1.2%) 학부모들은 20명(13.1%)이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함으로써 교과목 지도와 함께 부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인성교육을 방과후 아카데미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6> 방과후 아카데미가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해주기 바라는 부분

집중적으로 원하는 부분	빈도 (%)
숙제지도	5 (3.3)
국, 영, 수 등 핵심과목	94 (61.4)
예체능 과목	12 (7.8)
인성교육	20 (13.1)
특기적성 개발	22 (14.4)
합계	153 (100)

앞으로도 자녀를 계속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8%가 보낼 것이라고 응답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보내지 않겠다는 소수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아이가 너무 피곤해 해서' 또는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각각 5명, 4명 있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이가 너무 피곤해 한다는 것은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인터뷰와 다른 문항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문제로 향후 프로그램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표 Ⅴ-117>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자녀참여 의도

향후 참여여부	빈도 (%)
보낼 예정이다	145 (98.0)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3 (2.0)
합계	148 (100)

<표 V- 118>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

	빈도 (%)
학원으로 보내려고	1 (8.3)
아이가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1 (8.3)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4 (33.3)
아이가 너무 피곤해 해서	5 (41.7)
기타	1 (8.3)
합계	12 (100)

경제적으로 여유만 된다면 학원에 보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23명(14.7%), '별로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47명(30.1%)으로 70명(44.8%)이었고, '어느 정도 있다' 에 응답한 비율이 61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많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8명(11.5%), '매우 많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7명(4.5%)이었다. 따라서 반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반 되면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9>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보낼 의향정도

	빈도 (%)
전혀 없다	23 (14.7)
별로 없다	47 (30.1)
어느 정도 있다	61 (39.1)
많이 있다	18 (11.5)
매우 많이 있다	7 (4.5)
합계	156 (100)

방과후에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수련관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74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응답이었는데, 이러한 응답들은 방과후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가장 맡기기 원하는 곳을 학교라고 응답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

과이며,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으며, 수련관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고, 방과후 아카데미와 운영방식은 다르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보적 실제적 접촉경험이 방과후 학교 학부모들보다 좀 더 많고, 편견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Ⅴ-120>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가 자녀를 맡기고 싶은 기관

방과후 자녀들을 맡기고 싶은 곳	빈도(%)
학교	15 (9.8)
학원	11 (7.2)
주민자치센터	3 (2.0)
복지관	10 (6.5)
지역아동센터(공부방)	33 (21.6)
수련관	74 (48.4)
기타	7 (4.6)
합계	153 (100)

프로그램 효과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 위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이 '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는 문항이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고 저녁때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저녁 10시까지 자녀를 맡아서 지도해주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문항과 '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는 문항도 평균점수가 모두 4점을 넘어서 문항에 대해 '그렇다' 고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는 문항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아이의 생활이나 인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아이의 친구관계가 더 좋아졌다' , '아이가 일상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들은 전반

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활동효과를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라는 문항으로 비록 전체 평균점수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4점에 가깝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Ⅴ-121>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자녀의 행동변화 지각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아이의 친구관계가 더 좋아졌다	4.12 (.83)
2.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3.86 (.81)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97 (.78)
4. 아이가 일생상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4.25 (.68)
5.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3.92 (.83)
6. 아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4.38 (.73)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4.04 (.77)
8. 아이가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3.86 (.93)
9.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4.22 (.75)
10.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3.79 (.97)
11.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4.34 (.80)
12. 아이를 키우는 나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4.16 (.79)
13. 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	4.08 (.83)
14. 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	4.40 (.75)

추진목표 부합도

학부모들이 방과후 아카데미활동을 통하여 추진배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앞에서도 사용했던 1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3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은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라는 문항이었고,'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문항이었다. 이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들로 방과후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이러한 목표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V-122>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추진목표 부합도에 대한 태도

항 목	평균 (표준편차)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3.93 (.83)
2.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87 (1.01)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06 (.98)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3.63 (1.05)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3.74 (.91)
6.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63 (1.17)
7.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64 (1.10)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4.23 (.91)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4.31 (.79)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34 (.70)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6 (.70)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89 (.92)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3.45 (1.07)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3.97 (.90)

③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배경변인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을 분포를 보면 여자가 61명(62.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남자는 36명(37.1%)이었다.

<표 V-123>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
남	36 (37.1)
녀	61 (62.9)
합계	97 (100)

학력별 분포를 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가 65명(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석사졸업이 15명(15.5%)이었고, 전문대 졸업 이하가 12명(12.4%)이었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87.6%를 차지하였다.

<표 Ⅴ-124>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학력

학력	빈도 (%)
전문대 졸업이하	12 (12.4)
4년제 대학교 졸업	65 (67.0)
석사과정	4 (4.1)
석사졸업	15 (15.5)
박사과정	1 (1.0)
합계	97 (100)

응답자 중 PM(program Manager)교사는 27명(32.5%)이었고, SM(Schedule Manager)교사가 56명(67.5%)이었다.

<표 Ⅴ-125>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직위별 수

직위	빈도 (%)
PM	27 (32.5)
SM	56 (67.5)
합계	83 (100)

교사들의 연령별 분포를 알아보면 20대가 56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명(28.9%)으로 두 집단의 빈도를 합하면 총 84명(86.6%)이 2,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26>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연령

연령집단	빈도 (%)
20대	56 (57.7)
30대	28 (28.9)
40대	12 (12.4)
50대 이상	1 (1.0)
합계	97 (100)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경력은 1년 미만인 교사가 72명(74.2%)으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3명(23.7%)여서 대부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 Ⅴ-127>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아카데미 경력

경력집단	빈도 (%)
1년 미만	72 (74.2)
1년-2년	23 (23.7)
3년 이상	2 (2.1)
합계	97 (100)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기 이전에 청소년 지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결과 3년 미만인 경우가 66명(68%)으로 가장 많았고, 3년에서 6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명(17.5%)이었으며, 7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4명(14.5%)이 있었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교사들의 경우 연령자체가 낮기 때문에 7년 이상 오래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표 Ⅴ-128>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과거 청소년 지도 경력 분포

	빈도 (%)
3년 미만	66 (68.0)
3-6년	17 (17.5)
7-9년	9 (9.3)
10년 이상	5 (5.2)
합계	97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교사들의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참여 및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자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담당하는 대상은 초등학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명(44.3%), 초등 중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명(33%), 중학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명(22.7%)이었다.

<표 Ⅴ-129>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담당대상

담당하는 대상	빈도 (%)
초등학생	43 (44.3)
중학생	22 (22.7)
초, 중등 학생 모두	32 (33.0)
합계	97 (100)

<표 Ⅴ-130>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담당 아동수

담당 아동수	빈도(%)
20명 이하	36 (38.7)
20-30명	12 (12.9)
31-40명	29 (31.2)
41-50명	13 (14.0)
51명 이상	3 (3.2)
합계	93 (100)

몇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20명 이하라고 응답한 빈도가 36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31명에서 40명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29명(3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표 Ⅴ-131>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근무시간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시간	빈도 (%)
1-3시간	11 (11.6)
4-6시간	9 (9.5)
7-10시간	73 (76.8)
11시간 이상	2 (2.1)
합계	95 (100)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7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73명(76.8%)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1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2명(2.1%) 있었다. 이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의 업무시간이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한 불만족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직접 업무시간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사들 중 55명(56.7%)은 '알맞다' 고 응답하였고, 38명(39.2%)은 '많은 편이다' 또는 '너무 많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터뷰 분석에서도 나온 사항으로 업무시간이 많기도 하고, 저녁 10시 이후까지 일을 해야 하며, 주말에도 아카데미가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표 Ⅴ-132>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업무수행시간의 적정성

아카데미 교사 업무 수행 시간의 적적성	빈도 (%)
너무 많다	3 (3.1)
많은 편이다	35 (36.1)
알맞다	55 (56.7)
적은 편이다	4 (4.1)
합계	97 (100)

그렇다면 업무량에 비해 보수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족스럽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중 17명(17.5%)이었고, '그저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28명(28.9%)이었고,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52명(53.6%)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표 V-133>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보수 수준에 대한 만족도

보수의 수준이 적절한가	빈도 (%)
매우 만족스럽다	1 (1.0)
만족스러운 편이다	16 (16.5)
그저 그렇다	28 (28.9)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37 (38.1)
매우 불만족스럽다	15 (15.5)
합계	97 (100)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의 운영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전체 중 47명(48.5%)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45명(46.4%)은 '너무 길다' 또는 '조금 긴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134>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운영시간의 적절성

운영시간의 적절성	빈도 (%)
너무 길다	2 (2.1)
조금 긴 편이다	43 (44.3)
적절하다	47 (48.5)
조금 짧은 편이다	4 (4.1)
너무 짧다	1 (1.0)
합계	97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매우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러운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82명(85.4%)에 달하여 과도한 업무와 불만족스러운 보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35>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의 교사생활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빈도 (%)
매우 만족스럽다	8 (8.3)
만족스러운 편이다	74 (77.1)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11 (11.5)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3 (3.1)
합계	96 (100)

방과후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수준별 지도'였다. 평균 5점 만점에 4.27점으로 이는 수준별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교사의 업무 과중'이었고 다음이 '유능한 강사 채용'의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터뷰나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로 방과후 아카데미가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빨리 시정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지도교사의 열의 부족' 과 'PM과 SM간의 위화감' 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과 비교해 보아도 지도교사의 열의 부족 부분은 별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교사들은 매우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터뷰에서 발견되었던 PM과 SM간의 위화감 문제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Ⅴ-136>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생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어려움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유능한 강사 채용의 어려움	3.65 (.95)
2. 교사의 업무 과중	3.74 (.87)
3. PM교사와 SM교사간의 위화감	2.07 (.88)
4. 아카데미 교사와 수련관 직원간의 위화감	2.39 (1.16)
5. 교재구성의 어려움	3.30 (.93)
6.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4.27 (.79)
7.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2.51 (.98)
8. 학생의 열의부족	3.08 (1.04)
9. 지도교사의 열의 부족	2.04 (.78)
10.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	3.31 (.97)
11.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3.29 (1.03)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방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보았다.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것은 '예산운용의 융통성 확대'였다. 이 문항은 인터뷰에서도 나왔고, 후에 제시될 자유응답에서도 나오는 항목으로 교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운영지침 작성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음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것인 '멘토링이나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의 문제였고,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적극적 홍보', '유사 기관끼리의 상호 의사소통 및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꼽았다. 가장 낮은 점수는 '교사 선발시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이라는 문항에서 나타났는데, 이 문항은 현재 교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에서 언급된 부분이었다. 물론 점수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기는 하지만 점수가 거의 4점에 가깝기 때문에 엄격하고 일관된 객관적인 교사채용의 문제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표 Ⅴ-137>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생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시설 및 설비 보완	4.29 (.79)
2.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4.21 (.66)
3.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4.43 (.63)
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수준 관리	4.14 (.72)
5. 담당교사 선발 시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	3.92 (.70)
6. 예산운용의 융통성 확대	4.54 (.56)
7.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4.26 (.68)
8.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적극적 홍보	4.36 (.74)
9. 유사 기관끼리의 상호의사소통 및 연계	4.36 (.68)
10. 멘토링 ·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4.39 (.65)

프로그램 효과성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난 후에 학생들의 행동상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동일한 문항을 질문하였다. 가장 높은 문항은 역시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문항이었다. 다음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학원비가 준 것 같다' 등이었고, 전체적으로 모든 평균 점수는 모두 3.5 이상으로 학생들의 행동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어쩌면 학생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근무환경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Ⅴ-138>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변화정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4.24 (.57)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68 (.73)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83 (.64)
4.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4.32 (.57)
5.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3.73 (.67)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4.46 (.63)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4.06 (.73)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준 것 같다	3.89 (.69)
9.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4.38 (.57)
10.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3.75 (.66)
11. 학원비가 준 것 같다	4.08 (.86)

추진목표 부합도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이 정책추진 배경의 목표를 추진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역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의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의 문항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등의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각 문항 중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항목은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는 항목으로 이 문항은 방과후 학교 교사나 학부모 또는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의견과 유사한 반응으로 아무리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여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저출산의 대책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139>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생각하는 추진목표 부합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3.77 (.70)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43 (.98)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3.67 (.91)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3.18 (.80)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3.24 (.86)
6.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52 (1.01)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30 (.95)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4.35 (.71)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4.26 (.70)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22 (.70)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4 (.61)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78 (.88)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3.07 (1.04)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3.85 (.89)

자유응답

방과후 아카데미 문제점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자유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한 표가 아래에 있다.

<표 Ⅴ-140> 방과후 아카데미의 문제점

의견 내용	빈도
1. 업무량 과다	31
2. 예산 집행의 어려움.	19
3.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부모들의 신뢰 부족	17
4. 직원의 처우 개선	16
5.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	15
6.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10
7. 운영의 자율성 및 융통성	8
8.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7
9. 모집 및 반 편성 애로사항	7
10. 토요일 활동에 있어서 문제	6
11. 차량 운행에 문제	6
12.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의 문제	6
13. 전문 강사와 지도자의 부족	5
14.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5
15. 시설 낙후	5
16. 실적 위주의 평가	4
17. 급식 여건 개선	4
18. 기타	4
19. 아동들에게 있어 깊이 있는 개입의 한계성	3
20. 방과후 아카데미 정체성 및 운영에 대한 혼란	3
21. 행정 서류 양식 부족	3
22. 자원 봉사자 부족	3
23.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난다.	2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이 생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문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업무량 과다의 문제였다. 주 6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행정업무도 많은데다가 서류 양식이 자주 바뀌는 등 중복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사회연계의 문제를 교사들이 감당을 하는 등 많은 업무로 청소년 지도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든 문제는 예산 집행의 어려움으로 예산운용에 융통성이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고 급식비나 차량운행 등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와 집행을 총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세 번째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부모들의 신뢰부족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좋은 취지의 교육이니 만큼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네 번째는 직원의 처우 개선문제로 지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은 형편이고 월차나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특히 PM과 SM 간의 월급차이가 많으며 업무는 오히려 SM이 많아서 그로 인한 불만도 있었다.

다섯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는 문제로 4, 5, 6학년이 한 번에 있다 보니 각 다른 학년마다 수준별 수업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학급의 인원이 많아서 효율적인 개인관리가 힘들다는 문제였다.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위기 청소년 치유를 위한 체계화 된 프로그램과 지역의 안전망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 번째는 운영의 자율성 및 융통성 문제로 각 시설마다 운영의 주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을 내려주면 자율적으로 시설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시간표의 내용, 운영시간, 요일 등이 탄력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하다 보니 상황과 맞지 않아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여덟 번째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참여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홉 번째는 모집의 문제로 대상자를 기초수급 대상자로만 확정할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도 확대 실시해야 하며, 수급자가 아니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친 어려운 가정 청소년을 많이 모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열 번째는 토요일 활동에 대한 문제로, 토요일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을 할 여유가 너무나 없고, 피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에는 휴무를 하거나 격주 토요일 중 1일을 휴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열한 번째는 차량 운행의 문제로 차량운행이 되고는 있으나 운행시간이 길고, 늦은 시간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열두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의 문제로 지역 특성상 아카데미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면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 교과 성적이 매우 부진한 것에 비해 교과학습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열세 번째는 전문 강사와 지도자의 부족문제로, 강사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교육이 되기 힘들고, 조건에 맞는 강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전문 상담사도 필요하다는 등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열네 번째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으로 매일 아카데미에 나오다보니 청소년들이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해서 결석하는 일도 많으며,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들고 있다.

열다섯 번째는 시설의 문제로 시설이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교실의 냉난방문제, 독립된 교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문제였다.

열여섯 번째는 실적위주의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 자료와 수치로 측정될 수 없는 아이들의 성장 및 발전모습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 외에, 급식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방과후 아카데미의 정체성 및 운영에 대한 혼란의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 업무량 과다

- 주 6일 근무, 10시까지 근무라 힘든 점이 있음.
- 과중한 행정업무로 실적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음.

- 과중한 행정업무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부족함.
- 행정업무 과다, 지자체, 위원회, 수련관 보고처가 3곳으로 행정만 하다가 끝남.
- 서류 양식이 자주 바뀜.
- 서류 업무의 비효율성 → 중복되는 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능률적인 작업을 반복하게 됨.
- 지역사회 연계를 PM혼자 감당하고 있다.

❍ 예산 집행의 어려움

- 운영비(재정) 사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나 재료비의 사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재나 교구가 필요한데 교재비 충당의 어려움.
- 예산운용에 융통성이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움.
- 예산운영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에 차질이 있다.
- 최초 시설 설립 시 시설에 대한 자원 비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
- 예산 확보의 어려움-급식비, 차량운행

❍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부모들의 신뢰 부족

-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주변인식 부족.
- 대부분의 부모들이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생각해 일반형을 새롭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방과 후 이름 교체.(ex 청소년 아카데미)
- 방과 후 아카데미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확실한 설명.
- 좋은 취지의 교육이니 만큼, 홍보를 통해 교육의 기회(다양한 프로그램)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방과 후 아카데미를 교육적인 관점이 아닌, 보육 또는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사업 주체에 있다.

❍ 직원의 처우 개선

- 지도자의 낮은 급여.
- 월차 등 직원 복지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 계약직이라서 4대 보험 지급도 안 되고, 거의 다 4대 보험으로 떼여서 실 급여는 너무도 적다. 이로 인해 의욕이 상실 되고 있으며, PM/SM 자격요건을 객관적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정하기 전에 먼저 근무 여건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 SM의 처우 개선(장기 근무자의 호봉제 실시) : 담임선생님의 안정적 지원은 청소년 상담, 생활 관리 등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SM 선생님들의 급여 현실화(현 수준에서 수련시설 배치. 청소년지도자 수준으로 향상 : 2007년 예정 월 150만원)
- PM, SM에 대한 연수교육 불충분.

❍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

- 각 학년별 학습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음.
- 4, 5, 6학년이 한반에 있다 보니 각 다른 학년마다 수준별 수업지도의 어려움이 있음.
- 중학생의 경우 1학년, 2학년이 한반에 있다 보니, 수준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1학년 수업을 하면 보조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2학년의 수업에 수업소리가 방해되고 산만해지며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 학급의 인원이 많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 관리가 힘들다. 학습에

도 영향을 끼침.
- 중등 반은 늦게 끝나서 정상적인 아카데미 운영에 힘이 듦.
- 특히 상담지도와 수준별 교과 학습 지도는 단계별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0~15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어려움.
- 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의 경우, 위기 청소년 치유를 위한 체계화 된 프로그램과 지역의 안전망 설립이 중요하다.(상담, 의료,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통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 환자 발생 시 치료에서 후송까지 지역기관, 시설과 연계가 어렵다.
- 학교와의 연계성 부족.
-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시간이 겹쳐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지역 특성 상, 지원협의회, 봉사자 모집, 다양한 수업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 운영의 자율성 및 융통성

- 각 시설마다 운영의 주체가 틀리고,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운영의 효율성과 영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시고, 각 반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지역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을 힘들어 하는 청소년 발생에 따른 편성 조정 필요.(늦은 귀가에 힘들어 함)
- 시간표 시간.(기본 공통. 전문선택 영역. 주 시간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운영시간, 요일이 탄력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 지침에 의해 실질적 사업 운영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 운영권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필요 하다.
- 각 기관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자율적 구성.
-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아카데미 운영.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 저희는 중등 1,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학습지도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의지도 부족
-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 학생들의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모든 것을 공짜로 주는 것)
- 수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지도.

❍ 모집 및 반 편성 애로사항

- 반 편성 부분에서 학년별이 중요한지 수준별이 중요한지
- 학년별로 반 편성 할 때, 한 학년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세요.
- 기초 수급 대상자를 1순위로 신청 받음으로써, 기초 수급 대상자들은 여러 군데 중복 지원 받음.
- 대상자를 기초수급 대상자로만 확정할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라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친, 어려운 가정 청소년을 많이 모집할 필요성이 있음.

❍ 토요일 활동에 있어서 문제

- 업무로 인해 개인적인 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토요일 활동으로 인해)
- 토요일 같은 경우 휴무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 격주 토요일 중 1일 휴무실시
- 토요일 수업이 월 2회로 줄어야 한다.

❍ 차량 운행에 문제

- 너무 늦어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차 운행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차량운행 문제.(체험학습, 귀가지도)
- 지역 특성상 차량운행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많아 운영비가 좀 융통되어 차량이나 아이들 교재 및 준비물 같은 것들이 충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지역적 특성 상, 수련관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차량 운행시간도 길고, 늦은 시간까지 하기는 어렵다.
- 셔틀버스 운행비나 기관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하지 못한다.

❍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의 문제

- 몇 가지(예를 들며 교과 보충, 특기 적성용) 으로 특화시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좋을 듯싶음.
- 지역의 특성상 아카데미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등이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 중학생들의 경우 아카데미에 참여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 교과 성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과 학습 시간이 너무 부족함.
- 중등학부모의 경우 교과 성적을(학교)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라도 학교 성적 향상이 필요함. 기본 공통과목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

- 단순히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원정도에서 그런다면 “국립학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전인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 전문 강사와 지도자의 부족

- 학습지도 강사님들의 전문성 확보도 어려움을 느낀다.
- 강사들의 잦은 교체.
- 조건에 맞는 강사를 구하는 문제와 아이들에게 전문 상담사가 없다는 점.
- PM과 SM 특히 SM 이나 보조 지도자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 교과목 교사의 질 : 더욱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함.

❍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 매일 등교(아카데미)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 불만이 많다.
-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결석하는 일도 많았었음.
- 청소년들이 일주일 내내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피곤해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 아카데미 운영시간 김(청소년이 많이 지쳐함).

❍ 시설 낙후

- 시설 및 공간 확보의 어려움.
- 교실의 보습이나 냉·난방 시설 등의 통일성 요망
- 방과 후 아카데미의 독립된 교실이 없어서 아이들의 산만해질 소지도 많으며,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

❍ 실적 위주의 평가

- 방과 후 아카데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자료와 수치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변화, 성장 과정과 순간순간 아이들이 주는 감동을 자료와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다.
- 지역적인 형편 사정에 맞는 상대평가 중요.
- 각자의 의견대로 판단.(기준의 모호)
- 실적위주의 행정평가.

❍ 급식 여건 개선

- 급식비의 현실화(위탁급식의 어려움).
-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질 좋고 영양 있는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유 및 기타 간식은 크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 아동들에게 있어 깊이 있는 개입의 한계성

- 풀리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지만,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경제적이 아니라, 폭력에 노출 되었거나)더 돌봐 주지 못해서 아쉽고, 한계를 많이 느낀다.
- 그리고 솔직히 실제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이 놀고 부딪히면서, 요즘 애로 사항을 많이 느낀다. 정해진 시간에 끝내도, 혼을 내고 집까지 데려다 줘도, 따로 만나서 놀고 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아이들의 가정환경, 학교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돌봐주기 힘들다는 점.

❍ 방과후 아카데미 정체성 및 운영에 대한 혼란

- 방과 후 아카데미를 교육적으로 볼 것인지 체험학습의 프로그램 체험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야겠다.

- 가정사 등의 이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처리 문제가 애매모호하다.
-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육개념으로 가야할지 학원개념으로 가야할지 고민이 많음. 두 방식을 다 적용하기에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의 의미로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준에 맞추기가 힘들 때가 많다.

❍ 행정 서류 양식 부족

- 작성해야 할 서류 양식이 부족하다.
- 정작 필요한 양식은 결여 → 공통된 약식이 있긴 하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 각 방과 후 아카데미 마다 따로 양식을 수정하여 쓰고 있는 실정.
- 학생 출결 관리, 퇴소 처리에 필요한 통일 된 규정이 필요함.

❍ 자원 봉사자 부족

- 자원봉사자들의 연계 부족
- 자원봉사 부족.

❍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난다

- 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도착해서 학습을 해야 하며, 초등학생의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 초등학생으로써 오후 8시까지(5시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후 귀가 시, 아이들의 부담감과, 부모님들의 부담감이 크다. 동절기 같은 경우, 특히 밤이 길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증대한다.

❍ 기타

-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음으로써, 생기는 정체 현상 등이 있다.
- 회계 업무처리는 따로 하는 편이 학생들 관리하는 점에서 유리하다.
- 청소년위원회와 시청, 시설의 입장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

하다 생각한다.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의 보장이 약속되지 않아, 일회성 사업이라는 느낌을 주고, 학생들이나 교사의 애로사항이 제안 되어도 무시되거나 개선되기 힘들다.

방과 후 아카데미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방과후 아카데미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자유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가 아래의 <표 Ⅴ-1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Ⅴ-141> 방과후 아카데미의 활성화 방안

의견 내용	빈도
1. 프로그램 홍보 및 인식 전환	25
2. 직원의 처우 개선	18
3.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17
4.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14
5. 교사의 업무 경감	13
6. 인력 관리 및 양성	12
7. 예산 확충 및 집행 자율화	10
8. 시설 확충	8
9. 수준별 학습	7
10. 자원 봉사 장려	4
11. 프로그램 개발	4
13. 수업시간 및 사업 축소	3
14. 자율적 운영 보장	3
15. 평가 기준 확립	2
16.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부분적인 학생 부담 있어야 한다.	2
17. 기타	6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을 보인 항목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가난한 애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서 오지 않으려 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창피해 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설문지상에서 아이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했지만 교사들이 직접 보기에는 부끄러워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형을 확대하여 방과후 아카데미가 반드시 저소득층 아이들만이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는 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SM들의 급여를 증액하고 복리후생비, 또는 4대 보험 등에 대한 요구와 함께 한 달에 한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안들이 보장이 되어야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세 번째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학교와의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서 아카데미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편안하여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지역 간 방과후 운영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와 협조가 요구된다는 의견, 그리고 지역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 인력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넷째는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법제화해서 장기적 추진에 대한 확신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들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추진되고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다섯째는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업무의 중복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와 세부 운영 지침을 간소화 시키고 PM과 SM의 업무를 분담하고 서류업무보다는 활동위주의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업무를 좀 더 체계화 하고 분업화 하여 효과적이고 탄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

여섯째는 인력관리 및 양성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를 외부에서 강사를 일시적으로 구해서 쓰고 연속성 없이 계속 바꾸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외부에

서 들어온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직원의 경우 청소년 지도 경력이 있는 경우로 채용에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일곱째는 예산확충 및 집행 자율화의 문제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산 운영 방식을 융통성 있도록 보장하여 사업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확대운영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여덟째는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로, 시설을 새롭게 꾸미고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실이 없기 때문에 공간 부족으로 효율적 수업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아홉 번째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수준별 학생들을 모아서 그룹지도를 할 수 있게끔 강사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한 교사가 한 학년만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학년별로 연계선사에서 학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자원 봉사를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것,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과수업 이외에 인성교육이나 대인관계 훈련,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방과후 학교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등이었다. 또 하나는 효과적 교육을 위해 재적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 수업시간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루에 5시간의 꽉 차여진 수업은 아이들에게 너무 스트레스이고 부모님들도 너무 늦게 귀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무조건 무료로 지원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학생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체험활동 시에는 부모부담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아이들을 방과후 아카데미가 책임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홍보 및 인식 전환

-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증대.
- 인식의 전환-가난한 애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 듯. 그래서 안 오려 하고 다니는 애들도 창피해 한다.
- 일반형 특유의 대외적 홍보.
-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내에 적극적 홍보.
- 방과 후 아카데미의 명칭을 바꾸어야 할 듯, 학원 분위기가 많이 듦. 국가적 지원에서의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
- 지속적인 자원의 약속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어, 앞으로의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및 다양한 학생층.

❍ 직원의 처우 개선

- SM 선생님의 급여 증액 및 PM, SM 선생님의 복리후생비 지급.(능력 개발을 위한 급여 및 4대 보험 등)
-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담당하는 PM과 SM이 현장에서 편히 일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 방과 후 직원들에 대한 격려.
- 한 달에 한번 종사자들을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학교 수업 후의 시간인 만큼 학교와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상호 교류가 시급하다. 상호교류가 되지 않아 아이들이 아카데미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한다.
- 지역사회 연계와 적극적 지원 요망.

- 지역인재 개발 및 발굴.
-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각 기관별 공유.
- 지역 간 방과 후 운영 협의회 운영(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 및 협조)
- 시설별 운영 사례집(다양한) 및 평가자료 공유.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지역 협의회
- 네트워크 인식 부족(지역별)
- 지역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인력 충족.
- 지역 교사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정기적인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업으로 정착-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법제화해서 장기적으로 추진.
- 이놈의 사교육!! 전국의 모든 학원을 못 다니도록, 문 닫도록 법으로 정해버렸으면 좋겠다!! 학교 선생들 교육인적 자원부 소속이라는데, 애들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학교 빠지고, 나쁜 짓 하는데 관심도 없다.
- 청소년위원회와 여성부 통합을 반대-국가 청소년위원회를 지키는 투쟁을 열심히 해서 진정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확실히 잡혔으면 한다.
- 기관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성향과 독특함을 최대한 살려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가 공식사업으로 자리 잡아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한다.
- 방과 후 아카데미의 참가 대상자를 폭 넓은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바람.
- 사업주체인 청소년위원회와 수련시설협회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사업 정신이 필요하다.

❍ 교사의 업무 경감

- 업무의 중복성을 줄여 일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한다.
- 행정 절차 및 세부 운영 지침의 간소화.
- 업무를 체계화 하고, 분업화 하여 효과적이고, 탄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PM 과 SM 의 업무 분담.
- 서류업무 < 활동.

❍ 인력 관리 및 양성

- 외부에서 들어 온 강사 관리를 구체적이고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 가능하면 청소년 지도 경력이 있는 경우로 채용에 제한을 둔다.
- 지도자들의 전문적 연수 프로그램(지도자 교육연수 1년에 4번 정도)
- 전문교사 확보.(영어 원어민)

❍ 예산 확충 및 집행 자율화

- 예산 운영 방식을 융통성을 조금 보장해야 할 것 같음(ex교재비, 책, 걸상 등의 시설비와 토요체험 때 필요한 현장 학습비(간식))
- 확대운영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예산 지원.
- 사업비 항목간의 사업비 이용을 자율화 하여 사업비 지출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으면 함.
- 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지역별 상화에 맞는 예산의 운영을 인정해야 함.

❍ 시설 확충

- 청소년들이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 확충.
- 강의시설을 새롭게 꾸며 수업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 (교육환경 개선)저희 아이들 교실이 부족하여, 환경이 개선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 마련 및 교육 자료의 보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교실도 없이 아이들을 공부 시키고 활동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다. 현실에 맞게끔. 저희는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이 따로 없습니다. 시설이 완충이 되면 수업의 효과가 높아지고 그러면 학생, 학부모의 기대에 미쳐 좋을 것 같다.

❍ 수준별 학습

-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게(5~6명 정도 그룹편성지도) 강사비를 책정해야 한다.
- 학년별 수준에 따른 능동적 지도 및 각 학년별 연계선상에서의 학습지 필요
- 대상운영에 맞게 시간표
- 수준별 교육이 어려우므로 한 학년만 담당하도록 개선

❍ 자원 봉사 장려

- 위기청소년 하나를 구제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가 치를 큰 비용을 막는 일임을 상기하고, 지역의 사람들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예방에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자원봉사단 활성화.
- 청소년 위원회 차원에서 자원 봉사를 연계해주는 노력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 프로그램 개발

- 대부분의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면으로, 가정교육이 부재하여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인성교육 등, 사람관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 학교와의 연계, 인력보충, 시설 확충,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 프로그램 (영, 수, 국) 전문화.(기존 학원과의 경쟁)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방과 후 학교와의 차별화, 프로그램 질의 향상과, 아이들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

❍ 수업시간 및 사업 축소

- 수업시간을 3시간으로 줄여야 할 것 같음.(고성지역은 각 가정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집까지 귀가조치 시키는 시간만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됨)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심.
- 운영시간 축소 → 아이들 힘들어 함.5시간 꽉 짜인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이며, 노는 토요일 한주(1일) 정도는 아이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축소 → 특화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5시간 안에서 자유로운 운영을 하도록 한다.
- 사업사용의 자율화.
- 기관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 교육을 통해 사업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깨우쳐 주도록 한다. 즉 자발적인 수업 시간 관리를 유도함

❍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부분적인 학생 부담이 있어야 한다

- “복지병” 이라고 불리는 사례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소위 말해 방과 후는 아이의 인생을 담보해 주는 곳인 양, 착각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체험활동 시에는 부모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들의 무조건적 지원 보다는 혼합형 활동.

❍ 기타

- 생활권에 위치.
-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수를 줄여야(10~15명)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방과 후 아카데미의 확실한 목표 및 방향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목표 의식을 일깨울 수 있어 스스로 행동하게 한다면 저절로 활성화 될 듯하다.
- 접수 월 단위 → 분기별로 전화 필요
- 귀가를 위한 차량확보.
- 차량지원비가 타당하게 지원 되어야 함.
- 점수매기는 우수사례 평가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유형별, 특성별, 사업 내용별 우수사례(전파가 필요한)를 발굴하여서 확산시키는 일을 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 제발 양적 평가 하지마시고, 힘들지만 질적 평가로 전환하시길.

지금까지 살펴본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대상들의 설문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 142> 방과후 아카데미 집단 설문조사 결과 요약

집단 / 분석영역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	•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 • 자발적 참여 또는 부모님의 권유 • 지속적 참여의지 • 몸이 너무 피곤함	• 운영시간 알맞다고 지각 • 학교 선생님의 추천, 동사무소 연락, 자녀의 친구를 통해서 시작 • 자녀의 자발적 의사 • 학업성적 향상과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보냄	• 20-30대 연령대의 경력 1년 미만이 가장 많음 • 초등학생과 중학생 담당 • 근무시간이 7-10시간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 • 보수수준 불만족 • 운영시간 긴 편
요구 및 만족도	• 교사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 •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지각 • 국영수 등 핵심과목에 대한 요구 높음	• 자녀가 매우 좋아한다고 지각 • 학교공부와 특기적성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봄 • 국영수 등 핵심과목에 대한 요구 높음	• 일에 대해서는 만족 •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 교사의 업무 과중, 유능한 강사 채용의 어려움 • 예산운용의 융통성 확대 요구 •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적극적 홍보에 대한 요구

			• 교사전문 연수프로그램
효과성	• 전반적으로 본인의 행동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지각함	•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된 문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하게 되었다, 육아스트레스 감소, 전반적 생활 편해졌다는 등. • 아이의 생활 및 인성관련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지각함 • 전반적으로 효과성을 높게 지각함	•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 지각 • 학생들의 문화생활 증가 • 학생들의 비행행동 감소, 성적 향상 • 학생들의 특기 적성 개발 • 전반적인 학생 생활의 긍정적 변화 지각
추진목표 부합도	–	• 전반적으로 추진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 특히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예방효과, 전인적 발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사교육비 감소 등에서 큰 효과 지각	•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 등 학생의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 • 양육 스트레스 감소,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 등에 대해 긍정적 •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임

(3) 지역아동센터

① 지역아동센터 학생

배경변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수는 남학생이 84명(40%), 여학생이 126명(60%)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표 Ⅴ-143>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성별분포

성별	빈도 (%)
남	84 (40.0)
녀	126 (60.0)
합계	210 (100)

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7세에서 10세 이하가 68명(32.9%)이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11세에서 13세가 100명으로 48.3%였으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14세에서 17세가 39명으로 18.8%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4,5,6학년들이 반 수 정도 차지하였다.

<표 Ⅴ-144>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연령 분포

연령	빈도 (%)
7 - 10	68 (32.9)
11 - 13	100 (48.3)
14 - 17	39 (18.8)
합계	207 (100)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물어본 결과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36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7명(17.7%), '하'라고 응답한 빈도가 36명(17.2)으로 나타났다.

<표 Ⅴ-145>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지각된 성적분포

성적	빈도 (%)
상	37 (17.7)
중	136 (65.1)
하	36 (17.2)
합계	209 (100)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물어본 결과 방과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20명으로 전체의 58.3%였고, 이혼가정이 58명(28.2%), 별거가 15명(7.3%), 사별이 13명(6.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현격히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146>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부모 결혼상태

	빈도 (%)
함께 사신다	120 (58.3)
이혼하셨다	58 (28.2)
별거 하신다	15 (7.3)
한분이 돌아가셨다	13 (6.3)
합계	206 (100)

부모의 학력을 알아보았는데, 전문대 졸업 이상의 비율이 47명으로 28.9%였고, 어머니의 학력 역시 전문대 졸업 이상은 42명으로 27.5%였다. 보호자의 경우는 더욱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문대 졸업 이상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계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7>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학부모 학력

학력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초등학교졸업이하	9 (5.5)	8 (5.2)	13 (52.0)
중학교 졸업	25 (15.3)	30 (19.6)	4 (16.0)
고등학교 졸업	82 (50.3)	73 (47.7)	6 (24.0)
전문대 졸업	5 (3.1)	4 (2.6)	1 (4.0)
대학교 졸업	26 (16.0)	29 (19.0)	1 (4.0)
대학원 졸업	16 (9.8)	9 (5.9)	-
합계	163 (100)	153 (100)	25 (100)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102명(53.4%)이었고, 하지 않는 경우가 89명(46.6%)으로 나타나 반반정도 분포하고 있었다.

<표 Ⅴ-148> 지역아동센터 학생부모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여부	빈도 (%)
예	102 (53.4)
아니오	89 (46.6)
합계	191 (100)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역시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12명(53.3%)이었다. '하' 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81명으로 38.6%였다.

<표 V-149>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경제수준

	빈도 (%)
상	17 (8.1)
중	112 (53.3)
하	81 (38.6)
합계	210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지역 아동센터 활동 참여 및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기간을 물어본 결과, 2년 이상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81명(38.6%)으로 가장 높았고,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응답한 빈도가 61명(29%)이었으며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41명(19.5%),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27명(12.9%)으로 가장 적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에 비해서 학생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0>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참여기간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기간	빈도 (%)
6개월 미만	41 (19.5)
6개월 – 1년 미만	27 (12.9)
1년 – 2년 미만	61 (29.0)
2년 이상	81 (38.6)
합계	210 (100)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된 경위는 방과후 아카데미와는 달리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93명, 46.4%),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22명, 10.6%). 그 외에 홍보물이나 학교선생님의 추천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상 홍보를 하거나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기 보다 자생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Ⅴ-151>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된 경위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된 경위	빈도 (%)
학교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13 (6.3)
동사무소(또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22 (10.6)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96 (46.4)
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14 (6.8)
기타	62 (30.0)
합계	207 (100)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데 있어서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다니고 싶어서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103명(49.3%)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다닌다는 비율은 60명(28.7%)으로 나타났고, 친구가 해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응답은 13명(6.2%)이었다.

<표 Ⅴ-152>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참여이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이유	빈도(%)
내가 다니고 싶어서	103 (49.3)
부모님께서 다니라고 해서	60 (28.7)
친구가 해서 같이 하려고	13 (6.2)
선생님께서 추천해서	3 (1.4)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30 (14.4)
합계	209 (100)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맞다'고 응답한 빈도가 141명

(67.5%)으로 가장 많았고, 좀 긴 편이다’ 또는 ‘너무 길다’는 52명(24.8%)이었다.

<표 Ⅴ-153>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의 적절성	빈도 (%)
너무 길다	7 (3.3)
좀 긴 편이다	45 (21.5)
알맞다	141 (67.5)
좀 짧은 편이다	11 (5.3)
너무 짧다	5 (2.4)
합계	209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조사한 결과 ‘좋아한다’ 또는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171명(81.4%)에 달해서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154>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참여 만족도

	빈도 (%)
매우 좋아한다	75 (35.7)
좋아한다	96 (45.7)
그저 그렇다	32 (15.2)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6 (2.9)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 (.5)
합계	210 (100)

지역아동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방과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국, 영, 수 핵심과목에 대한 지도였다(63명, 30.3%). 다음이 특기적성 개발(50명, 24%), 숙제지도(32명, 15.4%), 편히 쉴 수 있는 공간(27명, 13%), 예체능 과목(24명,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역시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의 주요 교과과목을 배움으로써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표 Ⅴ-155>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요구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주기 바라는 것	빈도 (%)
숙제지도	32 (15.4)
국, 영 수 핵심과목 지도	63 (30.3)
예체능 과목	24 (11.5)
인성교육	5 (2.4)
특기적성 개발	50 (24.0)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27 (13.0)
기타	7 (3.4)
합계	208 (100)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나올 생각인지에 대해 단 4명만 제외하고 98%가 계속 나오겠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56>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향후 참여 의사

	빈도 (%)
예	201 (98.0)
아니오	4 (2.0)
합계	205 (100)

학교 친구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렸는지에 대해서 '알렸다'고 응답한 빈도가 161명(78.5%)이었고,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4명(21.5%)였다.

<표 Ⅴ-157>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학교친구들에게 참여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빈도 (%)
알렸다	161 (78.5)
알리지 않았다	44 (21.5)
합계	205 (100)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도가 44명(58.7%)이었고,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게 싫어서' 라는 응답이 21명(28%)이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Ⅴ-158>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을 알리지 않은 이유

학교 친구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을 알리지 않은 이유	빈도 (%)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어서	44 (58.7)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게 싫어서	21 (28.0)
기타	10 (13.3)
합계	75 (100)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은 '급식을 해주어서 좋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로 저녁때 집에 혼자 지내며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은 '수강료가 싸다'는 점이었다. 다음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선생님이 친절해서 좋다','선생님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 물어보기가 편하다' 등의 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가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취미나 예술, 스포츠 등 활동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닌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라는 문항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제와 다르게 마음을 표현했을 가능성과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자존심 문제를 극복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Ⅴ-159>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태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다	4.24 (.93)
2.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어서 좋다	3.93 (1.13)
3. 선생님들이 학교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다	3.96 (1.04)
4.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 물어보기가 편하다	4.24 (.98)
5. 억지로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3.92 (1.12)
6. 선생님들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	4.22 (.96)
7.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4.34 (.87)
8.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다	3.78 (1.06)
9. 개인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4.09 (.95)
10. 수업이 재미있다	3.97 (1.01)
11. 교과수업을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3.54 (1.21)
12. 취미나 예술, 스포츠 등 활동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4.21 (1.04)
13.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3.83 (1.06)
14.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4.12 (1.01)
15.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2.43 (1.24)
16. 가정 형편만 되면 학원을 다니겠다	2.47 (1.33)
17. 수준별 반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다	2.63 (1.22)
18. 수강료가 싸다	4.40 (1.07)
19.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다	3.98 (1.05)
20. 학교 친구들과 사귈 시간이 없다	2.26 (1.30)
21. 학교가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4.18 (.98)
22.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3.69 (1.28)
23.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다	2.21 (1.39)
24.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닌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1.88 (1.24)
25. 급식을 해주어서 좋다	4.45 (.87)

프로그램 효과성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변화했다고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학원비가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자신감이 생겼다','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등의 사회생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응답도 3.95로 거의 4점에 가까운 정도로 나타나서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 뿐 아니라 학업영역까지도 지역아동센터 참여의 효과가 있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60> 지역아동센터 학생이 스스로 지각한 행동변화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3.99 (1.01)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74 (1.10)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88 (1.06)
4. 일상생활이 즐거워 졌다	3.96 (1.08)
5. 학교생활이 즐거워 졌다	3.91 (1.17)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3.90 (1.12)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3.54 (1.20)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3.73 (1.20)
9. 자신감이 생겼다	3.98 (1.04)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3.95 (1.03)
11. 학원비가 줄었다	4.12 (1.18)

②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배경변인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설문대상자는 어머니가 110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45명(28%), 할머니와 기타가 6명(3.7%)으로 총 161명이었다.

<표 Ⅴ-161>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분포

관계	빈도 (%)
아버지	45 (28.0)
어머니	110 (68.3)
할머니	4 (2.5)
기타	2 (1.2)
합계	161 (100)

학부모의 연령은 30대가 88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9명(38.1%)으로 두 연령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Ⅴ-162>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연령분포

학부모 연령	빈도(%)
20대	2 (1.3)
30대	88 (56.8)
40대	59 (38.1)
50대 이상	6 (3.9)
합계	155 (100)

부모의 결혼 상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103건(64.4%)이었고 이혼이 38명(23.8%), 별거나 사별이 17명(10.6%)으로 역시 방과후 학교보다 양부모 가정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63>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결혼상태

부모님의 결혼상태	빈도 (%)
부부가 함께 산다	103 (64.4)
이혼	38 (23.8)
별거	8 (5.0)
사별	9 (5.6)
기타	2 (1.3)
합계	160 (100)

학부모학력은 전체적으로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이상자가 아버지의 경우는 37명(30.4%), 어머니는 27명(19%), 보호자는 6명(20%)이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64>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학력 분포

학력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초등학교졸업이하	3 (2.3)	4 (2.8)	3 (10.0)
중학교졸업	14 (10.6)	16 (11.3)	2 (6.7)
고등학교졸업	75 (56.8)	95 (66.9)	19 (63.3)
전문대 졸업	15 (11.4)	8 (5.6)	2 (6.7)
대학교 졸업	17 (12.9)	19 (13.4)	4 (13.3)
대학원 졸업	8 (6.1)	-	-
합계	132 (100)	142 (100.0)	30 (100)

월평균 교육비는 20만원 이하가 108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21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36명(23.1%)이었으며 40만원 이상도 12명(7.7%)이었다.

<표 Ⅴ-165>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

교육비	빈도(%)
20만원 이하	108 (69.2)
21-40만원	36 (23.1)
41-60만원	11 (7.1)
61-80만원	1 (.6)
합계	156 (100)

지역아동센터 가정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68명(43.6%)이나 되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짐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도 4명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Ⅴ-166>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소득수준

소득수준	빈도(%)
100만원 미만	68 (43.6)
100-199만원	66 (42.3)
200-299만원	18 (11.5)
300-399만원	1 (.6)
400-499만원	2 (1.3)
500만원 이상	1 (.6)
합계	156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지역아동센터 활동 참여 및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기간, 알게 된 경위, 운영시간 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기간은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고(71명, 44.1%), 1년에서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45명(28%)이었다. 이는 학생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교적 장기간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167>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자녀 참여기간

지역아동센터 다닌 기간	빈도 (%)
6개월 미만	17 (10.6)
6개월 - 1년 미만	28 (17.4)
1년 - 2년 미만	45 (28.0)
2년 이상	71 (44.1)
합계	161 (100)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된 경위로는 자녀의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63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물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도 20명(12.5%)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학생들의 응답과 동일한 패턴으로

응답의 신뢰성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자체적인 입소문이나 홍보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Ⅴ-168>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된 경위

	빈도 (%)
학교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19 (11.9)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12 (7.5)
자녀의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63 (39.4)
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20 (12.5)
기타	46 (28.8)
합계	160 (100)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자발적 동기인가에 대해 103명(64%)이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자녀가 자발적으로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가 다니라고 시킨 경우도 37명(23%)으로 나타났다.

<표 Ⅴ-169>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자녀의 참여 계기

참여 계기	빈도 (%)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	103 (64.0)
내가 다니라고 시켰다.	37 (23.0)
자녀의 친구가 해서 같이 한다.	4 (2.5)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8 (5.0)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9 (5.6)
합계	161 (100)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알맞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전체의 90%(144명)으로 가장 많아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0>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운영 시간수	빈도 (%)
너무 길다	2 (1.3)
긴 편이다	8 (5.0)
알맞다	144 (90.0)
짧은 편이다	5 (3.1)
너무 짧다	1 (.6)
합계	160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방과후 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도가 66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본래 기능인 맞벌이 또는 한 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 보호기능을 학부모의 욕구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실력향상을 위해서' 라는 응답(60명, 37.7%)으로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맡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주기 바라는 학부모의 바램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표 Ⅴ-171>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자녀 참여이유

자녀를 보내는 이유	빈도 (%)
실력 향상을 위해서	60 (37.7)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서	11 (6.9)
방과 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66 (41.5)
비용이 싸서	9 (5.7)
기타	13 (8.2)
합계	159 (100)

방과후에 자녀를 어디에 맡기기 원하는지에 대해 지역 공부방에 맡기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136명(84.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Ⅴ-172>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자녀를 맡기기 원하는 기관

방과 후에 맡아서 지도해 주기 바라는 곳	빈도 (%)
학교	5 (3.1)
학원	7 (4.3)
주민자치센터	6 (3.7)
복지관	4 (2.5)
지역공부방	136 (84.5)
수련관	1 (.6)
기타	2 (1.2)
합계	161 (100)

자녀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좋아한다' 또는 '매우 좋아한다'는 응답이 137명(83.1%)로 나타나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Ⅴ-173>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만족도

호의도	빈도 (%)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 (.6)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7 (4.3)
그저 그렇다.	16 (9.9)
좋아한다.	91 (56.5)
매우 좋아한다.	46 (28.6)
합계	161 (100)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학교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빈도가 92명(5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약간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빈도는 60명(37.3%)이었다. 따라서 이 두 응답을 합하면 거의 94.4%에 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에 대해서도 유사한데, ‘매우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빈도가 66명(41%), ‘약간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빈도가 68명(42.2%)으로 두 응답을 합치면 83.2%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공부나 특기적성 개발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Ⅴ-174>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생각하는 도움 정도

도움 정도	학교공부	특기적성개발
매우 도움이 된다	92 (57.1)	66 (41.0)
약간 도움이 된다	60 (37.3)	68 (42.2)
그저 그렇다	8 (5.0)	19 (11.8)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6)	6 (3.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 (1.2)
합계	161 (100)	161 (100)

지역아동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한 결과 국, 영, 수 등 핵심과목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78명(49.1%)으로 가장 많아서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점은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핵심과목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예체능에 대한 요구가 다음으로 높고, 그 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지 않았지만,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경우는 인성교육(24명, 15.1%), 숙제지도(23명, 14.5%), 특기적성 개발(21명, 13.2%)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5>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요구

항목	빈도 (%)
숙제지도	23 (14.5)
국, 영, 수 등 핵심 과목	78 (49.1)
예체능 과목	11 (6.9)
인성교육	24 (15.1)
특기적성 개발	21 (13.2)
기타	2 (1.3)
합계	159 (100)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겠는지에 대해 2명을 제외한 모든 학부모가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Ⅴ-176>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참여의지

지속적 참여 여부	빈도 (%)
보낼 것이다	155 (98.7)
보내지 않을 것이다	2 (1.3)
합계	157 (100)

보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학원으로 가려고' 또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학원에 보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어느 정도 있다' 고 응답한 빈도가 58명(36%), '많이 있다' 고 응답한 빈도가 12명(75%), '매우 많이 있다' 고 응답한 빈도가 6명(3.7%)으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를 모두 합치면 76명(47.2%)이었다. 따라서 반 정도는 학원으로 갈 의향이 있고, 반 정도는 갈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177>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동기

학원 보낼 의향	빈도 (%)
전혀 없다	26 (16.1)
별로 없다	59 (36.6)
어느 정도 있다	58 (36.0)
많이 있다	12 (7.5)
매우 많이 있다	6 (3.7)
합계	161 (100)

프로그램 효과성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낸 후 자녀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학부모에게 설문하였다. 이 경우 맨 오른쪽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범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항은 제외하고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표 Ⅴ-17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높은 문항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문항이었고, 다음이'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가족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아이의 친구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문항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이후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교우관계가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표 Ⅴ-178>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행동변화정도

항 목	평균(표준편차)
1. 아이의 친구 관계가 더 좋아졌다.	3.16 (.57)
2.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20 (.75)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19 (.65)
4. 아이가 일상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3.13 (.59)
5.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3.26 (.64)
6. 아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3.10 (.68)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3.40 (.89)
8. 아이가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3.16 (.83)
9.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3.06 (.69)
10.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3.20 (.69)
11.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3.03 (.66)
12. 아이를 키우는 나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3.02 (.66)
13.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	3.07 (.66)
14. 직장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직장 있는 사람만).	2.88 (.56)

추진목표 부합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학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하여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 목표 중 하나인 청소년 보호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등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간 격차 해소’등의 사회경제적 계층의 대물림 현상 방지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9>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추진목표 부합도

항 목	평균(표준편차)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4.23 (.65)
2. 학원 수강이나 개인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98 (.96)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07 (1.03)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3.71 (.88)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3.64 (.85)
6.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70 (1.01)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69 (.98)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4.09 (.86)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4.24 (.82)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30 (.71)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4.14 (.75)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89 (.88)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3.50 (1.10)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4.01 (.84)

③ 지역아동센터 교사

배경변인

설문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남자가 22명(25.3%), 여자가 65명(74.7%)으로 여자 교사가 대다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와 유사한 분포였다.

<표 Ⅴ-180>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 (%)
남	22 (25.3)
녀	65 (74.7)
합계	87 (100)

연령은 20대에서 40대가 골고루 섞여있었는데, 2대가 2명(25%), 30대가 31명(36.9%), 40대가 29명(34.5%), 50대 이상이 3명(3.6%)이었다.

<표 Ⅴ-181>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연령분포

연령집단	빈도 (%)
20대 이하	21 (25.0)
30대	31 (36.9)
40대	29 (34.5)
50대 이상	3 (3.6)
합계	84 (100)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9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졸업이 18명(20.7%), 전문대 졸업 이하가 17명(19.5%)이었고, 박사과정도 1명 있었다.

<표 Ⅴ-182>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학력

학력	빈도 (%)
전문대 졸업이하	17 (19.5)
4년제 대학교 졸업	49 (56.3)
석사과정	2 (2.3)
석사졸업	18 (20.7)
박사과정	1 (1.1)
합계	87 (100)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맡고 있는 역할은 교사 및 강사가 54명(62.1%)로 가장 많았고 '관리 및 운영자'가 12명(13.8%), 기회 및 프로그램 개발자'가 10명(11.5%), ' '총괄 및 회계'가 6명(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지 상에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어서 교사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였다.

<표 Ⅴ-183>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주요 역할

역할	빈도 (%)
교사/강사	54 (62.1)
총괄/회계	6 (6.9)
관리/운영자	12 (13.8)
기획/프로그램개발	10 (11.5)
기타	5 (5.7)
합계	87 (100)

교사의 경력은 3년 이하가 48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3년에서 6년 사이가 26명(29.5%), 6년에서 9년 사이가 11명(12.5%), 9년 이상도 3명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잦은 교체와 관련 있는 결과로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표 Ⅴ-184>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경력

	빈도(%)
3년 이하	48 (54.5)
3년 -6년 이하	26 (29.5)
6년 -9년 이하	11 (12.5)
9년 이상	3 (3.4)
합계	88 (100)

방과후 활동 참여 및 운영실태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이 67명(77.9)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9명(10.5%)이었으며, 고등학생도 4명(4.7%)이었다. 따라서 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Ⅴ-185>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담당 아동수

	빈도 (%)
초등학생	67 (77.9)
중학생	9 (10.5)
고등학생	4 (4.7)
기타	6 (7.0)
합계	86 (100)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7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58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응답한 빈도는 20명(22.7%)이었으며, 1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7명(8%)으로 나타났다.

<표 Ⅴ-186>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근무시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	빈도 (%)
1-3시간	3 (3.4)
4-6시간	20 (22.7)
7-10시간	58 (65.9)
11시간 이상	7 (8.0)
합계	88 (100)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알맞다' 고 응답한 비율이 53.4%(47명)였지만, '많은 편이다' 또는 '너무 많다' 고 응답한 비율도 44.3%(39명) 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Ⅴ-187>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태도

	빈도 (%)
너무 많다	12 (13.6)
많은 편이다	27 (30.7)
알맞다	47 (53.4)
적은 편이다	1 (1.1)
너무 적다	1 (1.1)
합계	88 (100)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60명, 70.6%), '너무 길다' 또는 '조금 긴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21명(24.7%)이었다. 이 결과를 교사의 근무시간과 관련시켜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오랜 시간 운영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수의 교사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길다'고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Ⅴ-188>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운영시간에 대한 태도

	빈도 (%)
너무 길다	5 (5.9)
조금 긴 편이다	16 (18.8)
적절하다	60 (70.6)
조금 짧은 편이다	4 (4.7)
합계	85 (100)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받는 보수의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또는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15.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4.3%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실제로 보수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으며 그에 비해 업무의 양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당연히 느

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교사들의 적절한 보수 지급의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Ⅴ-189> 지역아동센터 교사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도

보수의 수준이 적절한가	빈도 (%)
매우 만족스럽다	1 (1.2)
만족스러운 편이다	12 (14.5)
그저 그렇다	25 (30.1)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22 (26.5)
매우 불만족스럽다	23 (27.7)
합계	83 (100)

교사들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는 11명에서 40명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는 20명 이하에 90.2%가 몰려 있고 담당 고등학생의 수가 10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의 수는 응답자의 전체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대상이 다수의 초등학생과 소수의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90>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담당아동 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0-10명	5 (6.7)	42 (58.3)	50 (100)
11-20명	18 (24.0)	23 (31.9)	-
21-30명	21 (28.0)	7 (9.7)	-
31명-40명	22 (29.3)	1 (1.4)	-
41명 이상	9 (12.0)	-	-
합계	75 (100)	72 (100)	50 (100)

참여자의 요구 및 만족도

지역아동센터가 지닌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다 3점 이상

으로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가장 문제시되는 항목은 '유능한 교사 채용의 어려움'이었고, '다음이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이었다. 그 외에도 '교사의 업무 과중'과'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동일 업무 반복 및 지원의 어려움', '행정지원 체계의 비일관성',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등에 대한 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기관 자체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모르고 따라서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점수가 '지도교사의 열의'인데, 방과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교사들 스스로 열정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열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91>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운영상의 어려움

항 목	평균(표준편차)
1. 유능한 교사 채용의 어려움	4.26 (.88)
2. 교사의 업무 과중	3.84 (.88)
3. 교재구성의 어려움	3.53 (.93)
4.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4.07 (.97)
5.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2.98 (.95)
6. 학생의 열의부족	3.41 (1.09)
7. 지도교사의 열의 부족	2.18 (.91)
8.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	3.73 (1.04)
9. 공부방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3.22 (.99)
10. 행정지원체계의 비일관성	3.44 (1.22)
11.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3.46 (1.12)
12.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동일 업무 반복 및 지원의 어려움	3.78 (1.09)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경우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표시하였다. 즉,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빈도가 20명(22.7%), '만족스러운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빈도가 57명(64.8%)로 전체의 87.5%는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192>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교사생활 만족도

교사로서의 만족도	빈도 (%)
매우 만족스럽다	20 (22.7)
만족스러운 편이다	57 (64.8)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9 (10.2)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2 (2.3)
합계	88 (100)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활 위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을 설문한 결과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문항은 '예산지원 확대'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카데미와는 달리 지원 예산자체가 매우 적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활성화 요인이라고 꼽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멘토링이나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문제'를 꼽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시설 및 설비 보완','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의 문제 순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현 실태와 매우 관련되는 것으로 적은 예산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의 형태에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193>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

항 목	평균(표준편차)
1. 시설 및 설비 보완	4.52 (.57)
2.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4.39 (.63)
3.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4.45 (.61)
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4.33 (.67)
5. 교사 선발 시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	3.98 (.78)
6. 예산지원 확대	4.80 (.47)
7.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4.53 (.64)
8.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적극적 홍보	4.31 (.75)
9. 유사 기관끼리의 상호의사소통 및 연계	4.26 (.77)
10. 멘토링 ·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4.55 (.66)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부분은 '예산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문항이었다고, 다음으로 높은 문항은'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항이었다. 이는 위의 활성화 방안의 응답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문항은 '초등, 중등 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좀 더 높은 연령의 청소년까지 지도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문항은 '교사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은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는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문항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스스로 좀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싶은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부모들이 받는데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부모들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등의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도 비교적 높았는데,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기관에 맡겨놓고 부모로서 역할을 기관에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받는

것에 익숙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공짜로 해주기 바라는 경우가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Ⅴ-194>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06 (1.12)
2.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없다	3.27 (1.06)
3.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2.72 (1.14)
4. 아이들이 남이나 주변 환경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3.00 (1.19)
5. 아이들이 피해의식이 있다	3.23 (1.21)
6. 아이들이 공부방에 다니는 것을 창피해 한다	2.25(1.20)
7.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한다	2.47 (.98)
8. 공부방의 시설이 열악하다	2.90 (1.12)
9. 학년별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3.40 (1.19)
10. 부모들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3.44 (1.13)
11. 부모들이 받는데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	3.73 (1.05)
12.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3.72 (.95)
13. 행정업무가 많아서 아이들을 대할 시간이 부족하다	3.36 (.97)
14. 업무에 매여서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다	3.53 (1.04)
15. 지역사회나 자원봉사자의 연계 문제를 교사가 모두 직접 발로 뛰고 있어서 힘이 든다	3.57 (1.16)
16.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3.72 (1.08)
17. 초등, 중등 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4.02 (.98)
18. 교사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3.76 (.84)
19.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3.70 (.77)
20. 예산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4.64 (.61)
21.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4.42 (.71)

프로그램 효과성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나서 학생들이 얼마나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를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아래의 11가지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도의 동의를 보인 문항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방과후 아카데미 집단과도 같은 반응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화관련 체험프로그램을 다수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이 체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은 정도의 동의를 보인 문항이 '학원비가 준 것 같다'는 문항이었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확실히 있었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생각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높은 문항은 '아이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등의 문항이었다. 이런 분야는 아동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향상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교사들이 느끼기에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나서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Ⅴ-195>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학생들의 행동변화 정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4.18 (.58)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86 (.71)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95 (.63)
4.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4.22 (.65)
5.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3.89 (.72)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4.41 (.72)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3.68 (.84)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이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든 것 같다	3.97 (.81)
9.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4.31 (.63)
10.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4.21 (.74)
11. 학원비가 준 것 같다	4.34 (.88)

추진목표 부합도

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추진배경에서 목표했던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방과후에 어른이 없이 지내기 쉬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이었는데, 대부분 동네의 집 근처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사가 적은 수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낸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동의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96>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지각한 추진목표 부합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4.31 (.68)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4.09 (1.01)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06 (1.01)
4.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3.58 (.97)
5.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78 (1.03)
6.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71 (1.04)
7.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4.34 (.77)
8.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4.39 (.72)
9.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61 (.54)
10.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4.39 (.63)
11.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94 (.88)
12.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3.35 (1.09)
13.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4.13 (.91)

자유응답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자유 응답을 하여 얻어낸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은 아래의 <표 Ⅴ-197>과 같다.

<표 Ⅴ-197>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

의견 내용	빈도
1. 예산 부족	36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 부족	15
3. 교사 처우 및 확보의 어려움	14
4. 자원 봉사자 부족.	11
5. 시설 낙후	5
6. 프로그램 개발	5
7.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	4
8. 아동의 사기 저하	4
9. 지역사회와의 연계	4
10. 기타	3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교사들이 지적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부족 문제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는 반면 예산지원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급여도 형편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질이 저하되고, 교사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있다는 문제였다. 부모들의 경우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책임지고 지도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 지역아동센터를 교육 및 아동센

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보육 보충시설로 생각하는 경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교사의 처우 및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예산 부족과도 관련되는 문제로 인건비 부족으로 상근인력이 부족하고 교사가 자주 교체되며 무자격자 교사들이 지도를 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말한다.

네 번째는 교사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사의 수는 적은데 게다가 자원봉사의 수도 적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다섯 번째는 시설낙후의 문제로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부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세금을 지원해주거나 공공시설을 무상 임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여섯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으로 아이들의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어려운 점과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다는 점, 단순히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단조로운 공부방 생활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관련된 의견이었다.

일곱 번째는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는 어려움으로 이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이다.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아서 개별지도가 필요한 데 반하야 교사의 수는 적기 때문에 체계적 효율적 지도 및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아동의 사기저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학교 성적이 부진하고 공부에 대해 흥미가 없다보니 학습의 성공경험이 적고, 이러한 실패경험은 전반적인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자신감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후원을 위해서 아이들의 빈곤을 강조하다보니 아동들의 인권을 본의 아니게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험 학습 시 차량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각 응답의 범주와 범주별 문항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 예산 부족

- 무료로 하다 보니 인건비, 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고, 근무시간도 너무 길고, 할 일도 많다.
- 현재 50만원을 받는 세 사람이 일에 대해 봉사한다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참 서글프다.
- 인건비 지급 →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일괄 지급 필요.
-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원봉사나 교사의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기업(지원)과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함.
- 식비해결이 시급하고 예산지원, 사회적 지원 등이 많이 필요
- 재정이 빈약하여 공격적, 적극적 운영이 어렵다.(인건비 충당을 비롯해 많은 재정지출이 어려우므로 고급인력, 전문 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인건비 부족으로 교사 수급 및 질 저하를 초래 혼란.
- 부족한 자원의 활용과 열악한 환경, 부족한 예산지원.
- 재정상으로도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튼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 문화체험학습을 매달 할 수 있게 체험 학습비 지원

❍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 부족

- 부모님들이 공짜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고마운 줄 모른다.
- 부모님의 교육열의 부족으로 학습 향상에 시간이 많이 든다.
- 개별적 지역사화 자원연계와 받는 데 익숙한 부모들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의지와 무관심.

- 지역사회의 인식부족,
- 학부모와 친밀도를 높일 수 없어 좋지 못한 것 같다.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홍보 및 연계가 원활하지 않음
- 사회의 이해도 부족 : 교육/아동센터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보충시설로 생각, 중요시설로 인식 전환 필요.
- 아동복지, 지역사회의 책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교사 처우 및 확보의 어려움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교사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상근 인력인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합니다.
- 교사의 잦은 교체.
- 무자격자들이 많고 앞으로도 개선 될 여지가 적음.
- 교사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못 되는 가운데 있다.
- 자원 봉사자와 보조 선생님이 더 필요합니다. 선생님 2분이 하시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 소외지역, 오지에서는 인력 수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충분한 지원과 처우,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
- 업무과중

❍ 자원 봉사자 부족

-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활용 문제.
- 자원봉사자나 양질의 프로그램 강사를 구할 수 있는 도시, 중소도시와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속적이고 꾸준한 자원봉사가 부족하다.

❍ 시설 낙후

- 시설이 부족하여 아동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공부방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또는 공공시설 무상 임대 지원 절실. 공간 확보.
- 공부방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문제.
- 난방시설이 매우 필요함.

❍ 프로그램 개발

- 체험학습, 예·체능 교육이 어려움 .놀이시설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학습자료.
- 아이들 각자의 특기를 개발 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어려운 점과,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 부족.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이 도입
- 반복되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밋밋한 공부방 생활이 되어지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기차고, 생기 있는 즐거운 공부방이 되었으면 한다.

❍ 수준별 지도가 어렵다

- 개별지도가 가장 시급하다.
- 기초학력 학생들이 많아 개별지도가 가장 문제선생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아동수가 너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다.
- 수준별 학습지도.

❍ 아동의 사기 저하

-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부분 학교 성적이 부진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다. 그래서 개별 지도가 필요한데, 그에 비해 선생님의 지도시간은 적다. 또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동들이 성취욕구가 적어 다른 것에도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아동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특기를 개발하여 학업에도 열중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 후원을 위해 빈곤을 강조하고 아동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 아동들의 사기문제-아이들이 학습이나 모든 프로그램의 활동에 의욕적이지 않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 관공서와의 의견 충돌(예산 집행 → 운영비 선 지급을 요구하나 후 지급을 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이 힘들다.)
- 후원 개발이나 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 타 복지시설과의 연계성의 한계.
- 관계기관의 관심제고.

❍ 기타

- 근무자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욕구의 필요성.
- 체험학습 시, 차량지원이 되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의 <표Ⅴ-198>과 같다.

<표 Ⅴ-198>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

내용	빈도
1. 예산 확보	28
2. 프로그램 개발	16
3. 교사 처우 개선	14
4. 시설 확충	11
5. 전문적 인력 확보	10
6. 지역사회의 협조	10
7. 인식 전환	8
8. 자원 봉사 인력 강화	4
9. 교사 사명감 확립	3
10. 기타	3

교사들이 지적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중 가장 많이 제시된 항목은 역시 예산 확보의 문제였다. 급식비 지원, 외부 단체와의 지원 연계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영어프로그램 문화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어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자질향상 문제를 들었는데, 일단 교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를 보강하고 질 높고 자격을 갖춘 교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식담당자를 따로 두어서 교사가 하는 일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관계로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하고 동시에 급식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급된 문제로 보인다.

네 번째는 시설확충의 문제로 기본적인 시설, 자원봉사자, 차량, 냉난방비 등의 운영비지급 등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교사들의 바램이다.

다섯 번째는 전문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기적성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인사의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는 단순히 특기적성을 넘어서 상담 및 인성교육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의 협조이다. 사회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거나 타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일곱 번째는 공부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을 불식시키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외에 자원봉사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교사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나치게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허가해줌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등의 방안을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말한 내용의 각 범주와 구체적 응답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예산 확보

- 예산 지원이 효율적 이였으면 좋겠다.
- 정부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 외부 단체와의 지원연계.
- 후원개발.

❍ 프로그램 개발

- 체험학습프로그램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영어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 소외계층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게, 좋은 시설 환경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위한 지원이 필요
-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학습지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체계잡기)
-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수준별)
-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예·체능 과목을 잘 혼합하여 수업을 한다면 일반 사교육으로 빠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 교사 처우 개선

- 교사보강-교사 봉급 현실화
- 질 높은 자격 갖춘 교사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직원모두), 그 외 운영비, 사업비 등인 것 같다.정부지원, 교사의 정부지원 요청
- 좋은 교사 채용을 위해 인건비가 보장 되어야 하는데, 행정 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수준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이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
- 담당교사의 부족, 농촌의 경우 양질의 교사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현장에서 필요 적절한.)
- 급식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서, 교사가 하는 일을 분리 시켜야 하고, 직원들의 복리문제도 향상되었음 한다.

❍ 시설 확충

- 공부방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 시설에 운영비 자원 확대로 인하여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
-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완비, 자원봉사자, 차량 등. 냉·난방비 등의 운영비 지급으로 안정적인 운영.
- 아동들과 체험을 할 때나 나들이 갈 때 차도 꼭 필요함.

❍전문적 인력 확보

- 특기 적성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사 물적 지원과 전문가 인적 지원이 가장 시급.
-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고 교사 채용도 시급.
- 전문교사 양성.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 적정수의 인력을 배치해, 상담 및 인성훈련 가족 치료 등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무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자원이 필요
- 현 예산 자원으로는 유능한 유급인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란 어다. 예산지원이 문제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자들의 의식함양과 전문성 개발에 있다고 생각한다.
- 특기적성교육을 담당 할 우수한 강사진.

❍ 지역사회의 협조

- 기관에서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관심을 더욱 갖고, 물적 자원과 전문가 지원으로 인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문화 활동 참여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지원 등.
- 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성.

- 연극, 음악회, 체험 프로그램 등등 아이들이 인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접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도외, 국내, 국외 등 아이들이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지" →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개선, 개발이 필요

❍ 인식 전환

- 공부방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하게 우선 되어야 함.
- 사회적 인지도 향상-유치원, 어린이 집 같은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 아동들이 탈선할 우려가 크다. 그들은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공부방을 찾는 이유는,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인데, 프로그램만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 지역사회 안에서의 낙인감 해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

❍ 자원 봉사 인력 강화

-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 연결
- 지리적 여건으로 자원 봉사가 투입되기 힘들므로 이에 따른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연결.
-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료 적정수준 지급.
- 교사부족 문제가 없도록, 역량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요

❍ 교사 사명감 확립

- 교사에 있어서는 아이들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학습위주만이 아닌 전

인적인 부분을 다뤄줄 수 있는 교사가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함.

- 사랑으로 아이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함
- 교사의 보수부족으로 인한 사명감 결여.

❍ 기타

- 빈곤, 가난을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해결 방법 찾아보기.
- 소외계층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지나치게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허용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대상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199> 지역아동센터 집단 설문조사 결과 요약

집단 / 분석영역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	• 1년 미만 참가가 가장 많음 • 친구를 통해 참여 • 자발적 참여 또는 부모님의 권유 • 운영시간은 적절하다고 지각	• 자녀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됨 • 자녀의 자발적 참여 • 운영시간은 알맞다고 지각	• 3년 이하의 경력 • 주로 초등학생 담당 • 근무시간 7-10시간으로 과도한 업무량 • 낮은 보수수준
요구 및 만족도	• 매우 만족 • 국영수 등 핵심과목에 대한 지도 요구 높음 • 지속적 참여의사 •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특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급식에 대한 만족도, 수강료에 대한 만족도 • 교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음	• 방과후 보육에 대한 요구 높음 • 학력 향상의 기대 높음 • 지역공부방에 대한 만족도 높음 • 학교공부와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 • 국영수 등 핵심과목 지도에 대한 요구 높음	• 유능한 교사 채용의 어려움 호소 •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려움 •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행정지원체계의 비일관성 • 과도한 업무량 • 시설, 급식지도, 교사연수 프로그램, 예산지원, 유사기관끼리의 상호 의사소통,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 • 사회적 지원의 절대적 부족 • 고등학생까지 확대운영의 필요성 • 허가제로의 전환 필요 •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요구
효과성	• 전반적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지각 • 학교생활, 교우관계, 교사관계,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에서 변화 지각 • 자신감과 성적 향상 지각	•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변화 지각 • 특기적성 개발에 대해 가장 많이 지각 •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에 대해 긍정적 변화 지각	•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 지각 • 문화생활 많이 하게 됨 •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일상생활, 학교생활 등에 대한 긍정적 변화 • 자신감 및 성적 향상
추진목표 부합도	–	• 학생에 대한 안전한 보호에 대해 가장 긍정적 • 학생들의 학력향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예방, 사교육비 감소,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 안전한 학생 보호 • 실력 향상 • 청소년 탈선 및 비행 예방 •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 청소년 전인적 발달 • 양육 스트레스 감소 • 사교육비 감소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

5)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의 비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이 세 기관의 비교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 기관이 목표대상, 지원기관, 운영방식, 활용 자원, 정부 담당부처에서 거의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단순한 비교는 잘못하면 배경환경을 전혀 무시한 채 어떤 기관이 더 잘하고 어떤 기관이 더 잘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오해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세 집단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의 분석은 배경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평균비교이며 전체적인 조망을 위한 것이며, 평균이 더 높다고 그 기관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둔다.

첫 번째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행동 상에서 얼마나 변화했다고 지각하는지를 질문한 프로그램 효과측면을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 차이를 나타냈는데,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 집단이나 다른 기관학생들보다 행동변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증진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3점 이하로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변화를 지각하고 있는 집단은 지역아동센터였다. 특기적성 개발을 하게 되었다는 문항에서만 방과후 아카데미 집단이 약간 높았고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비가 줄었다는 문항에서는 가장 높은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세 기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가장 큰 변화를 지각하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장점을 개발하여 지원하여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며, 물론 적절한 예산은 필수적이지만 예산이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전부는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200> 집단별 학생들의 행동변화 지각 차이

문 항	초등 학생	중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지역 아동센터 학생	F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3.80 (1.11)a	3.18 (1.01)b	3.89 (1.06)a	3.99 (1.01)a	18.41***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70 (1.12)a	3.20 (1.09)b	3.65 (1.13)a	3.74 (1.10)a	7.91***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50 (1.21)b	2.84 (1.07)c	3.70 (1.10)ab	3.88 (1.06)a	25.65***
4.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	3.65 (1.19)b	2.93 (1.16)c	3.88 (1.03)a	3.96 (1.08)a	27.65***
5.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3.72 (1.21)a	2.93 (1.19)b	3.70 (1.10)a	3.91 (1.17)a	21.30***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3.41 (1.22)b	2.91 (1.20)c	3.95 (1.00)a	3.90 (1.12)a	32.11***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3.70 (1.26)ab	2.92 (1.16)c	3.87 (1.09)a	3.54 (1.20)a	19.82***
8. 친구,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3.35 (1.38)b	2.82 (1.12)c	3.68 (1.20)a	3.73 (1.20)a	18.38***
9. 자신감이 생겼다	3.90 (1.14)a	2.96 (1.16)b	3.77 (1.09)a	3.98 (1.04)a	27.58***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3.18 (1.26)c	2.79 (1.08)d	3.61 (1.13)b	3.95 (1.03)a	35.19***
11. 학원비가 줄었다	2.56 (1.41)b	2.72 (1.38)b	3.96 (1.24)a	4.12 (1.18)a	88.57***

둘째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애초에 방과후 활동이 시작될 때 목표로 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이 문항은 단순히 보면 방과후 활동운영을 함으로써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지만 좀 더 살펴보면 사실은 각 활동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도 될 수 있는 문항이다. 따라서 세 집단의 평

균을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차이가 방과후 학교가 한 집단으로 묶이고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가 한 집단으로 묶인다고 볼 수 있다. 즉, 방과후 학교 학부모들 보다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들이 방과후 활동의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아래의 문항에 제시한 여러 영역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부모 역시 목표추진 부합도에서 대부분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심층면접에서도 나왔던 결과로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들이 소외계층의 학부모이다 보니까 자녀를 누군가가 안전하게 돌봐준다는 점에 대해 무조건적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표 Ⅴ-201> 집단별 학부모의 목표 추진 부합도 인식 차이

문항	초등 학부모	중등 학부모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	지역 아동센터 학부모	F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3.32 (.81)$_c$	3.38 (.69)$_c$	3.93 (.83)$_b$	4.23 (.65)$_a$	42.26***
2.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2.73 (1.01)$_b$	2.91 (.97)$_b$	3.87 (1.01)$_a$	3.98 (.96)$_a$	51.52***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2.81 (1.02)$_b$	2.99 (.94)$_b$	4.06 (.98)$_a$	4.08 (1.03)$_a$	55.73***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2.89 (.83)$_b$	2.86 (.88)$_b$	3.63 (1.05)$_a$	3.71 (.88)$_a$	29.22***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3.10 (.90)$_b$	3.09 (.81)$_b$	3.74 (.91)$_a$	3.64 (.85)$_a$	18.09***
6. 소득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69 (1.01)$_b$	2.88 (.99)$_b$	3.63 (1.17)$_a$	3.70 (1.01)$_a$	28.22***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61 (.99)$_b$	2.83 (.94)$_b$	3.64 (1.10)$_a$	3.69 (.98)$_a$	36.70***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04 (1.01)$_b$	3.16 (.91)$_b$	4.23 (.91)$_a$	4.09 (.85)$_a$	53.89***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2.97 (.88)$_b$	2.93 (.96)$_b$	4.31 (.71)$_a$	4.24 (.82)$_a$	104.24***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07 (.90)$_b$	3.01 (.90)$_b$	4.34 (.70)$_a$	4.30 (.71)$_a$	106.28***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21 (.85)$_b$	3.03 (.85)$_b$	4.26 (.70)$_a$	4.14 (.75)$_a$	76.48***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0 (.88)$_b$	2.94 (.88)$_b$	3.89 (.92)$_a$	3.89 (.88)$_a$	38.11***
13. 장기적으로 저 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2.53 (.98)$_b$	2.76 (.95)$_b$	3.45 (1.07)$_a$	3.50 (1.10)$_a$	26.50***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2.77 (.97)$_b$	2.74 (.99)$_b$	3.97 (.90)$_a$	4.01 (.84)$_a$	71.30***

셋째로, 교사들의 목표추진 부합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시 일정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다음이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방과후 학교의 교사 순이었다.

<표 Ⅴ-202> 집단별 교사들의 목표추진 부합도 인식 차이

문항	초등교사	중등교사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지역 아동센터 교사	F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3.24 (.84)$_c$	3.66 (.55)$_b$	3.77 (.70)$_b$	4.31 (.68)$_a$	27.69***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2.63 (.93)$_c$	3.21 (.85)$_b$	3.43 (.98)$_b$	4.09 (1.01)$_a$	28.935***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2.65 (.97)$_d$	3.21 (.87)$_c$	3.67 (.91)$_b$	4.06 (1.01)$_a$	28.34***
4.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2.95 (.95)$_c$	3.28 (.74)$_b$	3.24 (.86)$_{bc}$	3.58 (.97)$_a$	6.06***
5.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59 (.90)$_c$	3.07 (1.00)$_b$	3.52 (1.01)$_a$	3.78 (1.03)$_a$	19.41***
6.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2.62 (.88)$_c$	2.89 (1.06)$_b$	3.30 (.95)$_a$	3.71 (1.04)$_a$	16.59***
7.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09 (.92)$_c$	3.70 (.61)$_c$	4.35 (.71)$_a$	4.34 (.77)$_a$	41.47***
8.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2.71 (.85)$_c$	3.16 (.80)$_b$	4.26 (.70)$_a$	4.39 (.72)$_a$	81.30***
9.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62 (.83)$_d$	3.16 (.81)$_c$	4.22 (.70)$_b$	4.61 (.54)$_a$	116.87***
10.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8 (.90)$_c$	3.48 (.60)$_b$	4.24 (.61)$_a$	4.39 (.63)$_a$	72.87***
11.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64 (.96)$_c$	3.13 (.86)$_b$	3.78 (.88)$_a$	3.94 (.88)$_a$	31.65***
12.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2.07 (.80)$_c$	2.67 (.97)$_b$	3.07 (1.04)$_a$	3.35 (1.09)$_a$	20.99***
13.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2.70 (.96)$_c$	3.02 (.92)$_b$	3.85 (.89)$_a$	4.13 (.91)$_a$	37.68***

넷째로 교사들이 지각하는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비교하였다. 이 역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이 높은 변화를 지각하고 학교 교사들의 지각이 낮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가장 많은 변화를 지각하였고, 다음이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이었고, 방과후 학교 교사들이 가장 적은 변화를 지각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분석과 일치하게 특기적성 분야를 많이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차후 각 운영기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Ⅴ-203> 집단별 교사들의 학생 행동변화 지각차이

문항	초등 교사	중등 교사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지역 아동센터 교사	F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2.90 (.94)$_b$	3.10 (.83)$_b$	4.24 (.57)$_a$	4.18 (.58)$_a$	70.66***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2.81 (.96)$_b$	2.95 (.74)$_b$	3.68 (.73)$_a$	3.86 (.71)$_a$	32.67***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00 (1.27)$_b$	3.08 (1.13)$_b$	3.83 (.64)$_a$	3.95 (.63)$_a$	21.72***
4.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2.73 (1.03)$_c$	3.07 (.73)$_b$	4.32 (.57)$_a$	4.22 (.65)$_a$	87.39***
5. 학교생활이 즐거워하는 것 같다	2.73 (1.05)$_c$	3.21 (.76)$_b$	3.73 (.67)$_a$	3.89 (.72)$_a$	31.50***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2.73 (.89)$_c$	3.10 (.83)$_b$	4.46 (.63)$_a$	4.41 (.72)$_a$	101.62***
7.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된 것 같다	2.88 (.65)$_d$	3.20 (.68)$_c$	4.06 (.73)$_a$	3.68 (.84)$_b$	37.16***
8. 친구,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준 것 같다	2.66 (1.23)$_c$	3.05 (1.09)$_b$	3.89 (.69)$_a$	3.97 (.81)$_a$	33.48***
9.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2.92 (.90)$_c$	3.25 (.72)$_b$	4.38 (.57)$_a$	4.31 (.63)$_a$	83.61***
10.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2.85 (.78)$_c$	3.00 (.80)$_c$	3.75 (.66)$_b$	4.21 (.74)$_a$	54.74***
11. 학원비가 준 것 같다	2.61 (.87)$_b$	2.82 (.74)$_b$	4.08 (.86)$_a$	4.34 (.88)$_a$	76.62***

다섯 번째는 방과후 활동 운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다. 유능한 강사채용의 어려움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중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었고 교사의 업무 과중은 방과후 학교 교사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보다 더 많이 지각하고 있

었다. 교재 구성이 어렵다는 것은 네 집단 모두 공통으로 공감하고 있었고,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은 방과후 학교보다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수준저하에 대해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이 가장 낮게 지각하였고, 나머지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더 큰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도교사의 열의부족에 대해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와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더 낮게 지각함으로써 본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참여의지 부족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면접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미처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아이들에게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Ⅴ-204> 집단별 교사들의 방과후 활동 운영상의 어려움

문항	초등 교사	중등 교사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지역 아동센터 교사	F
1. 유능한 강사채용의 어려움	4.20 (.69)$_a$	3.89 (.93)$_b$	3.65 (.95)$_b$	4.26 (.88)$_a$	9.08***
2. 교사의 업무 과중	4.22 (.79)$_a$	4.26 (.75)$_a$	3.74 (.87)$_b$	3.84 (.88)$_b$	7.35***
3. 교재구성의 어려움	3.58 (.91)$_a$	3.50 (.93)$_a$	3.30 (.93)$_a$	3.53 (.93)$_a$	n.s
4.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3.75 (.90)$_b$	3.75 (.99)$_b$	4.27 (.78)$_a$	4.07 (.97)$_a$	6.02***
5. 프로그램 수준 저하	2.86 (.78)$_a$	3.08 (.78)$_a$	2.51 (.98)$_b$	2.98 (.95)$_a$	6.65***
6. 학생의 열의 부족	3.34 (.98)$_a$	3.16 (.84)$_a$	3.08 (1.04)a	3.41 (1.09)$_a$	n.s
7. 지도교사의 열의부족	2.56 (.84)$_a$	2.57 (.88)$_a$	2.04 (.78)$_b$	2.18 (.91)$_b$	7.48***
8.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	3.31 (.79)$_b$	3.26 (.77)$_b$	3.31 (.97)$_b$	3.73 (1.04)$_a$	4.61***

여섯째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세 기관의 교사들

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점수가 4점을 크게 윗 돌아서 아래에 제시된 모든 부분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중학교사가 높았고, 급식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높았지만, 학교교사들의 경우는 비교적 낮았다. 교사들을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수준관리에 대한 요구는 네 집단 공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성화의 필요성은 지역아동센터가 월등히 높아,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연계에 대한 강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각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는 네 집단 모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은 방과후 아카데미교사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방과후 활동 운영기관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로, 각 운영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를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Ⅴ-205> 집단별 교사들의 방과후 활동 활성화 방안

문항	초등 교사	중등 교사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지역 아동센터 교사	F
1. 시설 및 설비보안	4.15 (.72)$_b$	4.41 (.74)$_a$	4.29 (.79)$_b$	4.52 (.57)$_a$	3.68*
2.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3.53 (.97)$_b$	3.40 (.94)$_b$	4.21 (.66)$_a$	4.39 (.63)$_a$	28.19***
3. 교사를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3.85 (.91)$_b$	4.07 (.75)$_b$	4.43 (.63)$_a$	4.45 (.61)$_a$	12.15***
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수준관리	4.34 (.71)$_a$	4.26 (.66)$_a$	4.14 (.72)$_a$	4.33 (.68)$_a$	n.s
5.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4.05 (.84)$_{bc}$	4.00 (.71)$_c$	4.26 (.68)$_b$	4.53 (.64)$_a$	8.54***
6.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4.24 (.65)$_a$	4.30 (.69)$_a$	4.36 (.74)$_a$	4.31 (.75)$_a$	n.s
7. 멘토링,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4.28 (.64)$_b$	4.16 (.76)$_b$	4.39 (.65)$_{ab}$	4.55 (.61)$_a$	4.60**

Ⅵ. 요약 및 결 론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참여자들의 요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의 주요 방과후 활동 관련 공적 시스템인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세 기관의 학생 20명, 학부모 15명, 교사 16명을 심층면접 하였고, 학생 1,427명, 학부모 531명, 교사 301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부분과 불만족 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학원에 비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준별 학습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비해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며, 교사들의 경우 특별히 과다한 업무와 동기부족으로 적극적 관여가 어렵다는 부분에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방과후 학교보다는 좀 더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사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고,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또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고, 성격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보육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점,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시간이 지나치게 빡빡하고 예산 운용상의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지도자의 처우문제, 그리고 저소득층이 다니는 곳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점을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는 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의 증진,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감소, 교사의 헌신적 보살핌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과의 연계가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두 기관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교사 수급의 어려움, 수업의 질, 급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시설의 열악성 등 다양한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아동센터 역시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참가 학생들이 심리적 상처를 입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편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학교의 경우 개별지도가 어렵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시설이 열악하며 아이에 대해 관심이 덜 한 반면 학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각 집단별로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요구, 만족도, 아동의 행동변화로 측정한 프로그램 효과성, 방과후 활동의 궁극적 목표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학교

① 학생

방과후 학교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320명과 중학생 138명 합하여 총 45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호의도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는 65%가 중학생의 경우는 교과학습은 36.6%, 특기적성은 31.6%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의 만족도는 높은데 반하여 중학생은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태도 역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긍정적이었는데 활동이 재미있다는 문항에서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호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나서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각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② 학부모

방과후 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과 중학생 학부모 모두 국영수 등의 핵심과목을 가장 원하는 활동으로 꼽았고, 그 다음이 특기적성 개발이었다. 또한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철저한 질 관리로 강의의 수준과 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이었고,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또는 문제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지원 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자녀를 학원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78%,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73.2%를 차지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이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나서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초등 학부모와 중학생 학부모 모두 자녀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점,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점,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 등을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방과후 활동의 궁극적 목표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초등학부모의 경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학원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만 비교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의 두 문항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사교육비 감소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전인적 발달 등에 대해서는 향후 효과성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③ 교사

방과후 학교 교사의 경우는 담당 교사와 비담당 교사가 절반 정도였는데, 그 중 비담당 교사의 경우는 방과후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9.5%). 그 이유로는 자유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노력에 비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방과후 담당 강사료 수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서 중학교 교사가 더 불만이 많았다. 방과후 교사들은 방과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의 업무 과중, 유능한 강사채용의 어려움을 들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초등교사의 경우는 52.2%, 중등교사의 경우가 40%가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 교사 모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활동의 효과성 면에서 '지역격차 해소'와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였다. 반면에 응답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주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2) 방과후 아카데미

① 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자의 경우 그 부모가 결혼 상태에 있고 함께 사는 가정이 47.3%로 방과후 학교와는 가정 형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다양한 경험 제공과 급식,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어본 문항에서 85.2%가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86.1%가 학교공부와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47.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국, 영, 수 등의 핵심과목을 꼽고 있어서 학업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 이후에 자신의 행동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동의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부모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 집단에게 자녀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자녀가 좋아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체의 89.1%였고, 학교공부나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90.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하여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기 바라는 부분은 국, 영, 수 등의 핵심과목이었고, 경제적으로 여건만 된다면 학원에 보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반 수 이상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 후 자녀의 행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학생 자신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방과후 활동의 궁극적 목표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은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라는 문항이었고,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라는 문항이었다. 이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이러한 목표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교사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집단은 본인들의 업무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85.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본인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53.6%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수준별 지도', '교사의 업무 과중', '유능한 강사 채용',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을 들었다.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융통성 확대와 멘토링이나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적극적 홍보, 유사 기관끼리의 상호 의사소통 및 연계 등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프로그램 효과에 있어서는 자녀의 행동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지각하고 있었다. 방

과후 아카데미가 방과후 활동의 궁극적 목표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밖에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문항 중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항목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될 것이다' 라는 항목이었다. 이 문항은 방과후 학교 교사나 학부모 또는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의 의견과 유사한 반응이었다.

(3) 지역아동센터

① 학생

지역아동센터 학생은 81.4%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국, 영, 수 등의 핵심과목과 숙제지도였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급식제공과 교사관련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가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고,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와 상회생활, 그리고 학업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의 변화를 스스로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② 학부모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이유로 방과후에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실력 향상을 들고 있었다. 자녀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지에 대해서는 83.1%가 좋아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이 학교공부와 특기적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4.4%에 달하였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집단도 가장 원하는 것이 숙제지도와 국·영·수 등의 핵심과목이었다.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

낸 후 자녀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이후,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가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비행 예방,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학생들의 학력 향상, 학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각한 정도가 높았다. 즉,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 목표 중 하나인 청소년 보호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다. 그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저출산 문제의 대책,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격차 해소 등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③ 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경우는 업무에 대해서는 87.5%가 만족하고 있었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84.3%가 불만족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유능한 교사 채용문제,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교사의 업무 과중,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동일 업무 반복 및 지원의 어려움, 행정지원 체계의 비일관성,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은 예산지원 확대, 멘토링이나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설 및 설비 보완,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등이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후 학생들이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아동의 학교와 사회생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방과후 활동의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2) 결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방과후 활동 운영 기관별로 목표 및 정체성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면접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과후 활동 운영 기관 모두가 유사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의 요구도 학교 교과, 특기적성, 인성교육, 주말체험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있었다. 그러나 운영 기관 특성상 모든 기관이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기는 어렵다. 더욱이 참가 학생들의 만족 분야도 상이했다. 그러므로 운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운영 기관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습지도나 특기적성보다는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에서는 특기적성에 집중하는 등 운영 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 활동 운영 기관 모두 공통 기능과 독특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 연계를 해야 한다. 운영 기관 모두 특기적성을 다루고 있고, 교과목도 다루고 있다. 또한 모든 집단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전문적 교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교사수급의 어려움으로 반편성의 문제가 있는 등이 있었다. 이것은 각 기관이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려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 운영 기관이 공동으로 한 곳에 개설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방과후 학교가 끝난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숙제지도를 받고 부모님이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방학에는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등의 연계 체제가 구축된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셋째, 방과후 활동의 공적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저가의 질 낮은 프로그램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산계층의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과후 활동 참가자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그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넓은 의미의 방과후 활동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방과후 활동 운영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그리고 자유응답의 결과 운영 기관 모두가 호소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다. 특히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보수 현실화와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사들의 희생과 자원봉사에 근거하여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게 된다면 수준 높은 방과후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정책 제언

: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그 효율성, 체계성을 고려하여 김현미 의원이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아직 법적 진행 절차와 공청회 등 많은 법적 단계와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방과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방과후 활동 운영 기관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따르면 중앙단위에 학령기 아동, 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구가 각 부처별 방과후 활동을 통합 관리한다기보다는 지원하는 기능 이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방과후 활동 정책을 활성화하고, 방과후 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교육지원위원회의 역할과 방과후 활동 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 방안에서는 상정된 법안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선행연구와 현장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방과후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방과후 활동의 국가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논리의 개발과 법제화를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위 방과후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법률제정이 완료된다면 현재까지 정책의제 차원에서 논의된 것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구체적 정책 사업의 검토가 시작되어야 한다.

법 제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다. 국민을 위한 기본권 및 복지권과 교육권 보장의 성격을 띠는 법으로서 명확한 근거와 함께 방과후 활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무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상급학교 입시에 치중하는 사교육형 교육서비스 보완과 같이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충하는 식의 임시방편적 접근으로는 방과후 활동의 본의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바람직한 방과후 활동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 법령 내용에 방과후 활동을 실질적으로 정책사업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정립하고 지원예산 책정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법령이 선언적인 근거로써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실천적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문들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방과후 활동의 향후 확장성과 사회적 파급성을 고려할 때, 방과후 활

동 관련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가칭)가 국무총리 이상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등 기구 위상 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정대표자가 개별 부처장관 이하로 결정된다면, 부처를 넘나드는 국가 차원의 커다란 방과후 활동 정책 사업이 심각한 혼선과 차질(부처간 사업 중복 또는 공백 발생, 부처간 갈등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과후 활동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해 있는 방과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방과후 지원사업의 정착을 도모하며, 장기 '방과후활동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단기(2007년) 및 사업정착 기반 확립을 위한 중기(2008년~2009년)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단기(2007년) 계획을 통해서는 국가 수준의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의 점증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연계 기반조성 및 국민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산재하고 있는 방과후 지원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통합적 국가 방과후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기 수행 사업간의 차별화, 특성화 방안과 서비스 공백을 세밀하게 검토·보완함으로써 중장기 방과후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반 필요 조치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① 국가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TF팀 구성·운영 (총 20명 구성)
- 각 부처 사업 주관 국장(책임) 및 팀장(실무) 구성: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의 해당부처 국장(단장)을 팀원으로 구성

· 각 사업별 현장 전문가 구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시설 등 현장 전문가 구성

② 국가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각 부처 사업을 국가통합적 시각에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정립 (이념 및 정책기조 수립 등)

· 방과후 활동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국조사 실시 (2015년까지 미래지향적 수요예측 진단)

· 조사를 통한 참여 대상자의 유형 및 연령 등 구분

·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유형별 구조분석 실시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효과 및 효율성 분석 실시

· 미래수요와 현재의 공급을 고려한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방과후 활동 총괄 지원 기구의 신설 또는 지정

효율적인 방과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는 각 부처별 방과후 활동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단위 차원의 '방과후활동지원센터' 나 유사기관의 신설 또는 기존 기관에 해당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를 통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종 시청각 교재나 교구를 지원하며, 교·강사 지원, 재원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방과후 활동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방과후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정립

· 방과후 활동지원 관련 정보의 개발 및 제공(방과후 정보센터 운영)

· 방과후 사업주체간 연계 및 협력 조율

· 방과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지원
· 방과후 관련 효과 및 효율성 연구사업 실시
· 방과후 관련 단계별·지역별 신규운영모델개발(지속적)
·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보급
· 방과후 활동사업 국가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방과후 활동사업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 방과후 활동사업 국가홍보팀 운영

② 지역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
·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방과후 활동 지도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지역 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방과후협의회 구성
· 지역사회 차원의 후원(의료, 물질, 재화 등) 및 봉사조직 결성·지원
· 방과후 사업 추진 공공 유휴공간 확보 및 제공

③ 방과후 활동 특화지원센터 설립·운영
· 시·도에 종류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
· 방과후 지원특화센터
(방과후 정신건강 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약물치료센터 등)

방과후 활동 총괄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 지원에 기관의 역할이나 역량을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운영과정에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담 기구의 신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따른 부담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방과후 활동을 맡을 수 있는 기존 기관 예컨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방과후 활동 지원 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는 재원 부담이 적은 반면에 어떻게 기 수행하던 업무기능 및 역할과 방과후 활동 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업무 재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 과정에서

방과후 활동 지원업무가 핵심적인 사업 영역으로 등장하지 못하거나 당초 기대에 미흡하게 특정기관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방과후 활동총괄 지원센터' 기능을 부여하더라도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부담이나 역할 수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된 부서로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정보센터의 설치

지역별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방과후지원센터의 설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단위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방과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기관 관련 정보, 각종 운영지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광역자치단체 수준(시·도)의 정보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시·도 단위 청소년활동진흥센터(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명칭 개정 추진 중)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시·군·구)의 정보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여 지역의 운영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앙정보센터는 전국의 지역단위 각급 정보센터들과 연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맞는 다양한 방과후 공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공동 정보망 구축·관리·운용 ② 상담 전문요원의 교육, ③ 운영지침 마련, ④ 운영결과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가급적 10명 이내 최소한의 독립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후 활동 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연계 체제 구축

방과후 활동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 특기적성 등 학교교육이나 학원 등에서 충족하지 못한 내용을 자기계발 차원이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각 기관의 인력과 시설 여건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전달하기 어렵다. 유관기관간의 연계 체제를 마련하고, 상호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거나 일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방과후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방과후 활동 교/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연수 실시

방과후 활동이 학교나 학원 교육을 보완하는 부차적인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수준이 아직은 사회적 기대수준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활동의 질은 기본적인 돌봄 이외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과 수월성에 따라 그 수준이 평가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양질의 지도인력 확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이 사회적으로 그 수준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강사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현직교사나 유능한 지역사회 인재는 방과후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므로 그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방과후 지도자들에게도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 과정을 제공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과후 활동 담당자들이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의미와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습득하게 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방과후 활동 지도 관련 전문 대학(원)의 설치·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관련 학과 교과 및 자격증 이수 과목으로 방과후 활동 내용 추가

- 향후 방과후 활동은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한 가지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청소년 활동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학과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이수 과목에 방과후 활동 과목을 추가 시킬 필요가 있다.
- 현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등에게 방과후 활동에 관한 역할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이 없다. 따라서 별도 이론 강의, 현장 실습 등의 교육/ 연수를 통해 방과후 활동 교/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② 방과후 활동 담당자의 직무 연수 활성화

- 방과후 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해 주기적(1년에 1회 이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 이수시간은 상위 자격 취득시 교육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자격 취득 시험시에 이수 과목을 면제해 주는 혜택도 부여하도록 한다.

③ 전·현직/퇴직 교사 또는 교생 실습생의 방과후 활동 참여 활성화

- 방과후 활동 지도자로서 전·현직 교사는 매우 우수한 인력이다. 전직/퇴직 교사의 경우 선행 교육 경력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지도나 특별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들도록 한다.
- 현직교사의 경우 다른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을 할 때 신분상 이중 활동이라는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상업적인 이윤 추구가 아닌 공적 시스템에 강사 또는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활동 지도 인력에 대한 처우 기준 향상

방과후 활동 지도 인력을 전문화시키는 것은 관련 정책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배치된 지도인력의 근무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활동 지도자에 대한 처우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지도자의 경우 장시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빈약한 급여를 제공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 SM의 경우에도 신분상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 지도자와 참가 학생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나 기타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들의 근무시간 대비 급여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높여야 한다.

부모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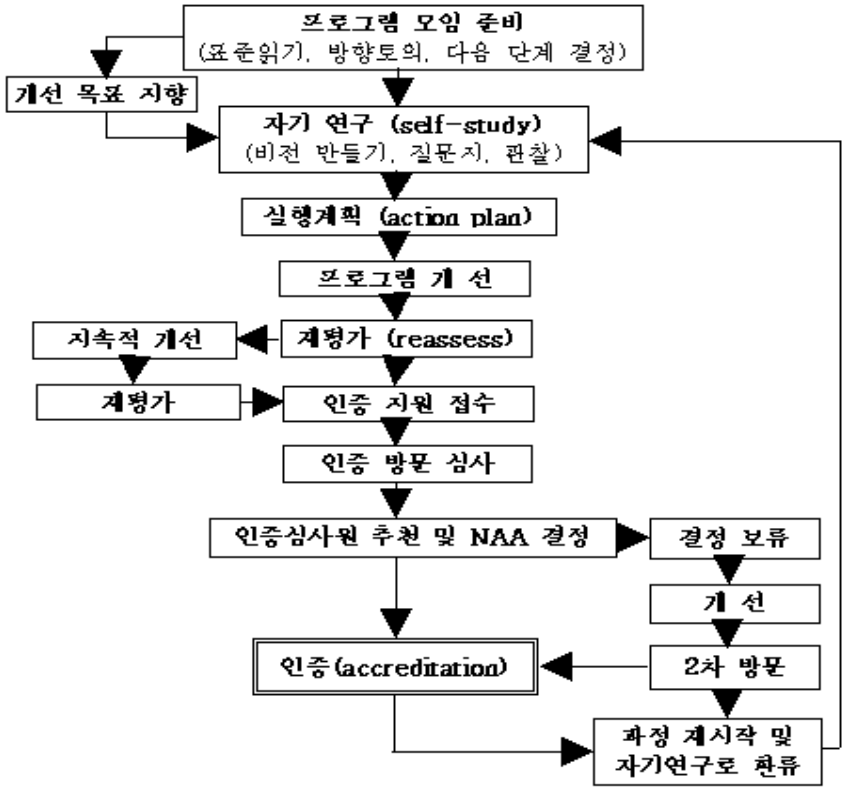
방과후 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방과후 활동 중 학업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다. 학력 중심의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발달과 실생활에서의 필요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모를 방과후 활동에 참여시키거나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방과후 활동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미국의 “Youth Build Boston” 사례에서 부모를 방과후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방과후 활동 기관의 지원자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방과후 활동의 현 실태를 보면, 부모 참여와 교육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직접 교육과 활동 못지않게 학부모의 인식

변화는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후 활동에 부모를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과후 활동 참가비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방과후 활동에 무료로 참여시키는 것은 방과후 활동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들이 수강 또는 참여했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외국의 사례들처럼 청소년들이 학창시절에 자신이 경험했던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대학이나 사회로부터 일종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림 1] NAA 프로그램 개선과 인증 절차 단계

현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도 인증을 받게 하는 것도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증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과후 활동 인증과정은 이러한 인증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음 [그림 Ⅵ-1] NAA의 방과후 활동 인증과정과 같이, 실제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의 역량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속적인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및 컨설팅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사회적 홍보 방안 마련

방과후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회적으로 방과후 활동에 대해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방과후 활동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등 현장의 요구 및 인지도가 뒤따라야한다. 그러므로 방과후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그 효과에 대해 일반 시민은 물론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 현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방과후활동연맹에서 주관하는 "Lights On Afterschool" 행사의 경우가 그러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 행사는 전국단위로 동시에 개최되는데 방과후 활동에 대해 일반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회, 언론, 사회 전반에 걸쳐 서명운동과 지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과후 활동을 발표하는 이벤트를 갖는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입법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지방자치 단체 장의 경우에도 관심과 지원을 표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방과후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 그래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 운영

방과후 활동을 널리 알리고 수요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컨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미국의 Afterschool.gov와 같이 어느 곳에서나 방과후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조 자료를 다운받거나 필요 자원을 탐색할 수 있다면 방과후 활동 종사자의 활동 운영에는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과후 활동 선택과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사

이트의 운영은 중앙정보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별로 하위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확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부여

현행 세제상 유치원이나 학교교육 비용 외에는 소득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보육 기관이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도 세금 공제 혜택을 공교육과 동일한 수준에서 부여해 준다면 방과후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지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자녀 우대제 도입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은 지역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교육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자원인 동시에,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의 실수요자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에 자원봉사자나 전문분야 강사 등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대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일반형 프로그램에 비용을 감면해 주거나 등록 우선권을 주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방과전(before-school) 지원사업의 도입 검토 및 시행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이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고 보편화되려면, 같은 맥락에서 방과전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방과후 지원사업은 이미 방과전 지원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방과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방과전 시간대는 방과후에 비해 비록 그 시간대는 짧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시간대라는 점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전에 아침식사 섭취와 건강관리, 학습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표 Ⅵ-1> 청소년 방과후 활동 분야별 정책 방안 추진 계획

분야	정책 방안	추진 단계			관련부처
		단기 (2007)	중기 (2008~2009)	장기 (2010~)	
체계적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	○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방과후 활동지원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방과후 활동 총괄 지원기구의 신설 또는 지정	○	○		국무조정실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역단위 정보센터의 설처		○	○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방과후 활동 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연계 체제 구축	○	○	○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방과후 활동 교/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연수 실시		○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방과후 활동 지도 인력에 대한 처우 기준 향상				기획예산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부모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도입	○	○	○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진흥센터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진흥센터
필요성 인식 및 홍보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사회적 홍보 방안 마련	○	○	○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 운영		○	○	방과후지원센터
사회적 지원 서비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부여		○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참여 인력 자녀 우대제 시행		○	○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방과전 지원사업의 도입 검토 및 시행	○	○		국가청소년위원회 방과후지원센터

참 고 문 헌

강명순(2006).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과제**. 한국빈곤아동과 지역복지력구축 심포지움.

강무섭 외(1997).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6a). **2006학년도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자 워크숍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b). **누구나 방과후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시·도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사례집.

교육인적자원부(2006c). **2006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초·중·고등학생 휴교일 및 방과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안).**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0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 매뉴얼.**

국가청소년위원회·경상북도(2006). **청소년정책 지역 토론회 자료집.**

권두승(2003). 미국의 21C 지역사회학습센터(21CCLC)의 성립배경 및 운영성과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1권 제4호**, pp.111-138.

김수동·김정주(2004). **국내외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 수집 및 분석·유형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안과제 정책연구 자료집.

김영호(200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ISSUE PAPER 06-IP01.

김은정(2006a).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06-S08.

김은정(2006b).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미간행 연구보고서.

김재인 외(2002). **방과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김재인·이향란(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진희·김현주·양미진·노성덕(2000). **방과후 청소년의 세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현미 외(2005).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열린우리당 육아지원 정책기획단 토론 자료집**.

김홍원(2006). 방과후 학교를 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한다. **교육개발, 봄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2006). 교육격차의 실태와 해소방안. **학교경영, 6월호,** 서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김홍원(2006). 방과후 학교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06-S08.

김희화(2003).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맹영임·길은배(2005). **청소년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유형모델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박영미(2005).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국가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현미·이인영(2005).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

박효정·김홍원·연은경(2005).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실태에 관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2005).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회의자료 2005. 8. 22.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연구보고서 2005-07.

서울 중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www.j-youth.org/~youth/

서울 중구 청소년수련관(2006). **"꿈을 여는 교실".** 1/4분기 만족도 조사 자체 결과 보고서.

서울 중구 청소년수련관(2006). **2005 운영백서.**

손경재(2006).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06-S08.

안미숙(2006). 고르게 가난한 세상을 꿈꾸며.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 의회 (2006).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자료집,** 26-28.

여성가족부(2005). **2005 보육통계.**

우룡(2002). 학교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청소년 여가생활의 변화와 전망. **청소년보호지도연구, 2,** pp.49-68.

이광호(2005). 청소년 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정책 현황 보고. 김현미 외(2005).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경희(2003). 전국공부방연합회의 방과후 보육의 방향과 관점.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방과후 보육의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 **2003년도 한국방과후아**

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89-100.

이경림(2006).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실무자 교육 세미나.**

이경림(2006).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06-S08.

이향란(2006).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06-S08.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연희(2006). 방과후 학교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2006학년도 제2차 중등교장 자격연수 교육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정효정(2005). 아동중심의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실행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0,** pp.165-185.

정익중(2005). 아동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200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정익중(2006).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자료집** 06-S08.

지역아동정보센터(2005).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0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지역아동정보센터(2006a).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설치와 운영 매뉴얼.** 서울: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2006b).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보건복지부. http://www.icareinfo.info/main/main.php

지역아동정보센터(2006c). **지역아동센터 내부 자료(2006년 1분기 현황).**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2003). 방과후 보육의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 **한국방과후 아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도희(200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방향과 현주소.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06-S08.

홍은주(2006).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06-S08
홍후조·이승미·민부자·김대영·김민균(2005). 방과후 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 연구. **교육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厚生労働省(2004). **社会福祉施設等調査報告.**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について.**

http://www. mhlw.go.jp/bunya/kodomo/houkago-jidou.html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児童館について.**

http://www.mhlw.go.jp /bunya /kodomo/jidoukan.html.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完全学校週 5 日制.**

http://www.mext.go.jp/a_ menu /shougai/week/index_a.htm

内閣部(2006). **青少年白書.**

文部科學省(2002). **子ども放課後週末活動等支援事業政策評価書.**

横浜中央YMCA(2006). **横浜中央YMCA学童クラブ会員ハンドブック.**

子どもたちの放課後懇話会(2004). **横浜市放課後キッズクラブ事業の実施に関する指針.**

青少年育成推進本部(2003). **青少年育成大綱.**

厚生労働省(2004). **社会福祉施設等調査報告.**

横浜市の「子どもたちの放課後懇話会設置要綱」

横浜市放課後キッズクラブ事業補助実施要綱[制定 平成18年3月2日 福子放第10304号(市長決裁)]

文部科學省生涯學習政策局 子どもの居場所づくり推進室의 팜플렛. 広がる子どもの居場所 「地域子ども教室のすすめ」.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について.**

http://www.mhlw.go.jp/bunya/kodomo/houkago-jidou.html

일본후생노동성**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

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11/index.html.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児童館について.**

http://www.mhlw.go.jp/bunya/kodomo/jidoukan.html.

東京都兒童會館홈페이지,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jidou/event/0607/floor.html#5f%20ehon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完全学校週５日制.**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index_a.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平成１６年度 新子どもプラン実施状況,**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地域と学校が連携協力した奉仕活動・体験活動推進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1_1.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子ども体力向上プランの推進.**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1_2.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衛星通信利用による「子ども放送局」.**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1_3.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ＴＶサイエンス番組の制作.**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1_4.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地域子ども教室推進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2_1.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外国語長期体験活動推進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2_2.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大学等開放推進事業（大学・サイエンス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2_3.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青少年長期自然体験活動推進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2_4.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伝統文化こども教室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2_5.htm.
일본문부과학성. **文化体験プログラム支援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2_6.htm.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省庁連携子ども体験型環境学習推進事**業.
http://www.mext.go.jp/a_menu/shougai/week/h16jisshi/002_7.htm.
대학개방사업 홈페이지.
http://www.u-air.ac.jp/hp/tyousa/kaihou/tokutyo/tokutyou01.html

Afterschool Alliance(2006). Afterschool programs: At the STEM of learning. *Afterschool Alert,* Issue brief No. 26.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5). *Adolescent time use, risky behavior and outcomes: An analysis of national data.*

Family and Youh Services Bureau by CSR, Incorporated(1997).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Promoting Positive Pathways of Growth.*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erber, T., & Pittman, K., with Marshall, T.(2002). *State Youth Policy: Helping All Youth to Grow Up Fully Prepared and Fully Engaged.*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Impact Strategies, Inc..

FPM(2004). *Managing Extended Schools* . Leicester: FPM.

Huang, D., Gribbons, B., Kim, K., Lee, C., & Baker E. L.(2000). *A decade of result: The impact of LA's BEST afterschool enrichment programs.* UCLA Center for the Study of Evaluation.

LA's BEST Program(2005). *Annual Report. 2004-2005.* Schinke, S.(1999). *Evaluation of boys and girl's clubs of America's educational enhancement program.*

Miller, B. M.(2003). *Critical Hours: Afterschool Programs and Educational Success.* Nellie mae Education Found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2000). *After-School Programs to Promot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Summary of a Workshop,* Jennifer A. Gootman(ed).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ittman, K.(1999). *Youth Development: On the Path Toward Professionalization*, U.S. National Assembly.

Pittman, K.(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YD Journal 1(1).*

Pittman, K.(2001). YAA: More Important Than You Think. *Youth Today.* July/August 2001, 10(7), 55.

Pittman, K., Irby, M. & Ferber, T.(2001). *Youth Policy in the U.S.: Some*

Observations and Options.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Impact Strategies, Inc..

Pittman, K.(2002). *What Youth Need: Services, Supports and Opportunities Ingredients for Youth*. Presentation at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Teenagers.

Scottish Executive(2003). *School's Out: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Out-of-school Care.*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2001). ***Adding It Up: Taking Stock of Efforts to Improve State-Level Youth Policies***. A Discussion Paper of THE FORUM. November 2001.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Impact Strategies, Inc..

Volkov, B. B. & King, J. A.(2003). *Report of STUDIO 3D project evalu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YMCA (2001). *After school for America's teens*.

Yohalem, N., Ahistrom, A. W., Pittman, K.(2005). *Out-of school time policy commentary #10: Rethinking the high school exeperience; what's after-school got to do with it?.*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Impact strategies, Inc..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rumfyi.org/files/ostpc10.pdf.

http://www.afterschool.gov/docs/about.html
http://www.ed.gov/nclb/landing.jhtml
http://www.ed.gov/programs/21stcclc/eligibility.html
http://www.ed.gov/programs/21stcclc/index.html
http://www.ed.gov/programs/gearup/index.html
http://www.afterschoolalliance.org/lights_on/glance.cfm
http://www.afterschoolalliance.org/states/states_main.cfm
http://www.gearup.mass.edu/default.aspx
http://www.lasbest.org/index.php
http://www.smm.org/studio3d/mission.html
http://www.tascorp.org/

http://wdcrobcolp01.ed.gov/CFAPPS/CCLC/allstate_cclc1.cfm
http://www.afterschool.gov/docs/about.html
http://www.ed.gov/programs/21stcclc/index.html
http://www.tascorp.org/
http://www.afterschoolalliance.org/about_us.cfm
http://www.egora.uni-muenster.de/FmG/freizeit.m0103.shtml
http://www.jugendamt/nuernberg.de
http://www.de.wikipedia.org/wiki/Jugendamt
http://www.dbjr.de
http://www.kinder-jugendhilfe.info/
http://www.bmfsfi.de
http://www.lietz-schule.de
http://www.bmfsfj.de/Kategorien/Pesse/pressemitteilungen...
http://www.bildungsserver.saarland.de/
http://www.bfs-coburg.de/kinderpflege1.htm
http://www.bfs-grafenau.de/kinder.htm
http://www.khg.bamberg.de/seiteneu/index.htm
http://www.sgki.es.bw.schule.de
http://www.khg.bamberg.de/seiteneu/index.htm
http://www.vhs-unterland.de/agb1.html
http://www.jugendhaus.net/birkach/index2.html
http://www.jugend-in-mainz.de/id/juz_altstadt.hdj.htm
http://www.starnberg.de/1_buergerservice/jugend/jugendzentrum.html

Bundesministerium des Innern(Hrsg.)(2001.1.10). Gemeinsames Ministerblatt. Amtlicher Teil Bundesministerium f□r Familien, Senioren, Frauen und Jugend. Richtlinien v. 19. 12. 00, Kinder-und Jugendplan des Bundes(KJP), 18-29.

Bundesmin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2005.11.1). Zw□lfter Kinder- und Jugendbericht. Bericht □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Bundesmin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Juli 2006). Kindertagesbetreuung f□r Kinder unter drei Jahren.
Bundesmin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6.4.24). Ein Kinder- und Jungendreport zum Nationalen Aktionsplan(NAP). "F□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2010".
Bundesmin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Hrsg.)(2001). Zukunfsf□higkeit sicehrn! F□r ein neues Verh□ltnis von Bildung und Jugendhilfe. Grossbeeren. Hessisches Schulgesetz: www. hessisches- kultusministerium.de/download/Hessisches-Schulgesetz. pdf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4/8181(2002.2.4). Unterrichtung. Bericht □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Elfter Kinder- und Jugendbericht-.
Lange, E.(1997). Jugendkonsum in Wandel. Kosummmuster, Freizeitverhalten, Soziale Milieus und Kaufsucht 1990 und 1996. Oplanden:
Ministerium f□r Generation, Familie, Frauen und Integratio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MfGFFI: 2006). Entwicklungslinie der offenen Kinder- und Jugendarbeit. Befund der dritten Strukturdatenerhebung zum Berichtsjahr 2004 f□r Nordrhein-Westfalen.
Popp, R./Schwab, M.(Hrsg.)(2003). P□dagogik der Freizeit. Baltmannweiler.
Richtlinie f□r ganzt□gig arbeitende Schulen in Hessen nahc §15 Hessisches Schulgesetz:www.hessisches-kultusministerium.de/
Robert, G./Stange, D.(2002). 2. S□chsisches Landesjugendbericht: Jugend, Freizeit und Sport. Dresden.
Sozialgesetzbuch(SGB)-Achtes Buch(VIII)-Kinder-und Jugendhilfe: http://www.juris.de
Sozialgesetzbuch(SGB)-Achtes Buch(Ⅷ)-Kinder-und Jugendhilfe-(Artikel 1 des Grundsatzes v. 26. Juni 1990, BGBI. IS. 163): http://www.

juris.de

Statistisches Bundesamt(2004).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Einrichtungen und t□tige Person in der Kinder- und Jugendhilfe am 31. 12. 2002.

부 록

1. 인터뷰 프로토콜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용, 학부모용, 기관용)

2. 설문지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용, 학부모용, 기관용)

부록 1. 인터뷰 프로토콜

방과 후 학교 인터뷰 프로토콜 _ 참가학생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학생 여러분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성별	남자 ( ) 여자 ( )
2-3. 이름	
2-4. 생년	_____년도
2-5. 학교명/학년	

3.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4.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같이 사는지 여부 등)

5.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학원,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 집에서 혼자 있는지, 집에서 어른과 함께 있는지, 방과후 프로그램 후 집에 혼자 또는 애들끼리 있는 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

6. 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특기적성인지, 교과 보충 수업인지, 자율학습이나 지역의 공부방과 관련하여 내용을 자세히 물어본다)

7.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지 중간에 term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8.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스스로 동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9. (방과후 프로그램이) **재미있습니까?** (동기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물어보기 위함)

10. 어떤 점이 재미있습니까? 또는 좋습니까?

11.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또는 싫습니까? - 싫은 점에 대해-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게 싫다든지, 학교 선생님이 아닌 다른 강사 선생님이 하는 게 좋다든지, 싫다든지, 너무 피곤하다든지)

12.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성적 향상, 정서함양, 기타)

13. 일반 학원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4. 만약 학원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수업의 질과 관련된 답)

15. 만약 방과 후 활동이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방과후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17. 왜 방과후 학교를 다닌 후 학원을 또 다닙니까?

18.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19. 만일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인지, 수준이 낮아서인지, 낙인 때문인지)

20. (방과후 활동을 하는)시설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21.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시간 등)

22.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의 공부방 등

23.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24.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누구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공부방 외에 주말의 캠프나 기타 단기 방과후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물어봄)

25. 마지막으로 방과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대 상: 김○○ (남), 1994년 생, 천호3동 거주. 초등학교 5학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생 1]

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김: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나 둘이요. 큰누나는 고등학교 일학년이고, 작은 누나는 중학교 일학년이구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구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는 8시에 출근해서 7시쯤에 퇴근 하구요. 아빠는 8시 반쯤 출근해서 10시쯤에 퇴근이요.

심: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김: 학원 갔다가요 숙제해요. 학원은 태권도랑 피아노 다녀요.
(하루일과는 어떻게 되요?)
학교에서 9시부터 시작해서 2시 반까지 하구요. 특기적성은 수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에는 다른 때 보다 일찍 끝나요. 수요일에는 12시에 끝나요. 12시에 피아노 갔다가 학교로 다시 와서 컴퓨터해요.

심: 방과 후 활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김: 컴퓨터 ITQ, 파워포인트

심: 방과 후 활동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김: 2년 됐어요.

심: 스스로 결정했어요?
김: 맨 처음에는 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재밌어서 해달라고 했어요. 자격증 많으면 대학이나 학교에나 가산점이 있어서 했어요.

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미있습니까?
김: 네. 자유시간도 해주구요. 수업을 쉽고 재밌게 해주세요. 컴퓨터도 좋고. 얘들도 많아서 분위기가 좋아요. 졸업할 때까지.제일 좋은 건요. 자격증을 따면요. 며칠이 남아요. 그때 과자파티하고 자유 시간을 계속 해줘요. 영화보고요. 그리고 암기과목은 워드 같은 거 필기는요 무섭게 해요. 많이 맞았어요. 필기는 하는데 지금은 실기만하니까 안 맞아요.

심: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또는 싫습니까?
김: 불편한 것도 없어요.

심: 방과 후 활동이랑 일반학원이랑 어떤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김: 방과 후 활동 이예요. 방과 후 활동은 가끔가다 자유시간도 해주고요 과자파티도해요. 학원은 거의 안 해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과자파티 같은 걸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 같아요.

심: 컴퓨터를 방과 후 학교에서 안하고 학원에서 배운다면 어떨 것 같아요?
김: 좀 무섭게 할 것 같아요. 원래 학원에서는요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때려요. 여기선 못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격증 못 따니까.

심: 만약 학원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학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가 더 구체적이고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개인으로요 지도해주고요. 보충도 많이 해 주고요. 다른 얘보다 못하면 보강을 더 해줘서요. 그 수준이 비슷하게 해줘요. 그리고 학원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원이 특기적성보다 더 오래하구요. 밤늦게까지 하니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 만약 방과 후 활동이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머리가 똑똑해지고, 다른 면에서도 다른 얘들보다 더 훨씬 똑똑하고 미래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 5개구요. 지금 따면 7개요. 한 개는 자격증 신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심: 방과 후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많죠. 특기적성이 우리 학교에 12개가 되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과목도 많잖아요. 그런 걸 다시 보충하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심: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김: 예. **(만일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방과 후 특기적성을 하려면 태권도나 피아노를 끊어야 해요.

심: (방과 후 활동을 하는)시설은 어떻습니까?
김: 컴퓨터가 안 좋아지면 검사를 받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청소를 매일 매일해서 깨끗한 거 같아요. 편하고. 애들 위해서 게시판 쪽에서 반마다 필요한 것을 좀 몇 개씩 넣어주고 얘들한테 조사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저 뒤에 한 개 거는 게 있어야 해요. 책상이 좁아요. 모니터가 좀 앞으로 나와서 공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심: 다른 방과 후 활동 을 해본 적 있습니까?
김: 지금 하고 있어요. 영어하고 한자요. 동사무소 회의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거예요. 자리 빌려서. 영어는 화목하고요. 한자는 금요일에 해요. 영어는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한자는 3시부터 4시까지 해요. 자녀가 셋이니까요. 고등학교는 돈 많이 들잖아요. 학원이나 비싸서. 그러니까 돈을 못해줘서요. **(재미있어요?)** 네.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시고. 프린터도 깔끔하고 많이 주세요. **(직접 신청 한 거예요?)** 네. 동사무소니까요. 울타리나 그런데 주민자치 센터에서 방학동안 한다고 해서요. 그거 엄마하고 보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받아와서 제가 거기에 작성하고 냈어요.

심: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김: 밥 먹고, 씻고 TV봐요. 주로 밖에서 운동해요. 친척이 가깝거든요. 친척이 시간이 있을 때에는 같이 축구하고요. 시간이 없을 때에는 인라인스케이트 타고요 돌아다녀요.

심: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김: 운동을 더 하고 싶어요. 축구나 테니스 같은 거 많이 뛰는 거. 수영도요.

대 상: 김○○ (여), 1992년 생, 가락동 거주. 초등학교 6학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생 2]

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김: 아빠, 엄마, 나, 동생. 동생은 10살이요.

심: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김: 아빠는 가락시장에서 관리일하시고, 엄마는 그냥 집에서, 동생은 그냥 학생 이예요. 아빠는 8시 반쯤 출근해가지고 6시 반에 돌아오니까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학원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같이 있어요. 어쩔 때 빼고.

심: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김: 주로 TV를 보거나 학원숙제요. 영어 학원하고, 수학학원하고, 컴퓨터. 컴퓨터는 숙제가 없는데.
학원이 화,목 다니는 거랑 월,수,금 다니는 거랑 달라서. 월요일에는 태권도

랑 수학학원이랑 방학 중에는 여기에 오구요. 화요일에는 영어학원이랑 태권도. 수요일이랑은 다 똑같아요. 월 수 금, 화 목 이렇게. 월요일은 8시쯤 끝나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집에 와서 노는 시간도. 화요일은 8시 반에 와요. 학원은 8시에 끝나는데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5시부터 7시50분까지 수업을 계속하니까.

심: 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김: 지금은 워드프로세서랑 필기. 지금은 컴퓨터밖에 안 해요. 예전에는 바둑이랑 미술 한번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안 해요. 바둑 같은 건 한번 배우면 계속 집에서 아빠랑 할 수 있고, 미술 같은 건 그냥 학교 미술시간이랑 똑같은 거 같으니까.

심: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김: 4학년 때부터 했어요. 4학년 때 엄마가 아는 얘가. 엄마 친구 분의 아들이 컴퓨터 먼저 시작했는데, 걔가 하게 되어서 저도 따라하게 됐어요. 2학기 때인 거 같아요.

심: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김: 제가 하고 싶어서요. 그냥 컴퓨터 만지는 게 좋아요.

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미있습니까?
김: 예, 집에서도 쉽게 복습할 수 있고, 일단 배우는 거랑 다 재밌어요.

심: 어떤 점이 재미있습니까? 또는 좋습니까?
김: 그냥 컴퓨터 하면 게임이 제일 재미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배운 거 복습하고 실기는 복습하는데 필기는 집에서 외는 건 밖에 없어가지고

심: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또는 싫습니까?
김: 싫은 거는 두 번인가 떨어졌었는데 그때 보충해서 꼬박꼬박 비오는 날 일일이 걸어서오고.

심: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김: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여기서 학교에서도 재량시간에 컴퓨터 할 때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제가 아는 게 친구들이 모를 때 제가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거 그리고 자격증 따면 신문 같은 데서 읽었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학점 같은 거, 구체적으로, 일단 자격증을 딸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만지는 것도 만지다보면 거기에 흥미 생겨서 게임도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요 플래시를 해서 플래시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게임은 잊어지잖아요. 플래시 작품에만 신경을 쓰니까.

심: 일반 학원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친구들도 많고, 그냥 학원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 계속 같이 하니까 좀 분위기가 어색할 것 같아요. 일단 학원이랑 학교랑 배우는 건 똑같은데 학교가 더 재밌는 거 같아요. 학원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데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마다 얘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니면 재량시간에 단체로 게임도 하고. 방과 후 활동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등교할 때 책만 넣어가지고 들고 오면 되니까. 다른 건 다 똑같죠. 배우는 거랑.

심: 만약 학원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학원에서 배우면 가끔가다 학교 어려운 문제나 응용문제에서 나올 때는 학원에서 배웠던 거 응용해가지고 풀면 맞을 것 같아서요.

심: 방과 후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김: 많죠. 일단 학교에서는 영어나 수학 같은 건 특기적성으로 제대로 엄청 높은 건 안하죠.

심: 6학년인데 앞으로도 컴퓨터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김: 네. 그냥 제가요 직업 같은 거 장래희망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걸해야 될 것 같아서. 배울게 많아요. 워드는 잘 되면 올해 안에 따올 수 있을 거 같고, ITQ랑 남은 자격증이랑 포토샵은 한 번도 안 배워봐가지고 포토샵 배우고 싶어요.

심: (방과 후 활동을 하는)시설은 어떻습니까?
김: 그냥 시원하고 컴퓨터도 좋고 괜찮은데. 일단 컴퓨터에요. 버디 같은걸 깔면 괜찮다고 그리고 문서 같은 거가요 선생님이 전원 한번 끄면 거기에

있던 임시문서 같은 게 다 지워지니까. 그런 거는 그냥 우리 보통 컴퓨터처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필기를 여기서 하니까 컴퓨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 같아요. 필기는 학기 중에는 뒤에 어학실에서 그냥 책상에서 공부해서 괜찮은데 방학 중에는 여기 컴퓨터실에서 하니까.

심: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김: 일단 밀린 숙제를 하고 TV도 보고 거의 나가지 않으면 거의 집에서 놀아요.

심: 방과 후에 하고픈 일은?
김: 게으름. 컴퓨터 게임을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밖에 못해가지고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틀어보질 못해가지고 하는 건(컴퓨터게임)없는데 메이플스토리나 인터넷에서 연예인들 사진보고, 우리 반 카페 들어가서 게시 글 올려요.

대 상: 안○○ (여), 1993년 생, 단월면 보령 2리 거주. 초등학교 6학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생 3]

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안: 아빠, 남동생.

심: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안: 거의 늦게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오세요.

심: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안: 특기적성 안하는 날이나 몇 분 사이에 시간이 나면 축구 같은 거해요.

심: 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안: 필수과제하고 선택과제가 있거든요. 가야금, 골프, 영어, 사물놀이 등등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4개정도는 되요.

심: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안: 저는요 전학을 왔거든요. 5학년 때부터 했어요.

심: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안: 선택과제는 저희가 고르고, 필수과제는 필수로 하는 게 있어요. 필수는 영어하고요 사물놀이하고요, 민요도 필수 과제가. 필수 과제는 학교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미있습니까?

안: 선택과제는 저희가 고르니까. 예, 재밌어요. 선택과제는. 그냥 선택과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찍으니까 배우고 싶은 거를 찍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재밌는 거 같은 게 필수과제는 학교에서 만약에 영어나 민요는 자기가 하기 싫은데 계속 필수여서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재미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필수를 이렇게 없애거나 줄였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그래도 자기가 선택이거나 그리고, 선택과제가 이렇게 재밌거든요. 선택과제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 이예요.

(서울에 있을 때와는?)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학교 안에서만 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만 그렇게 야외 활동이 없고 학교 안에서만 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만 했는데~여기는 골프나 미술 그런 건 다 나가서 하거든요. 미술은 특히 이렇게 자연을 그리는 거예요. 거의. 자연을 그리고, 나뭇잎 그리고 따와서. 그런 걸 그리니까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타라던가 미술 그런 거는 거의 다 나가서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심: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안: 프로그램에는 그냥 내용 같은 것은 좋아요. 재밌고, 선택과제 같은 것은 그래도 그렇게 재밌어요. 프로그램도 재미있긴 한데 그 필수과목도 재밌긴 재밌어요. 자기가 싫어할 뿐이지.

필수과제는 자기가 만약에 민요를 했다. 민요는 자기가 못하니까 못하거나 하기 싫거나 그러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뒤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필수과제는 꼭 해야 하니까 학생들이 다 하다보니까 몽쳐서 하잖아요. 학생들이. 뭉쳐서 하다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치고, 영어는 그냥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게 없고 그냥 대충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다 대충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심: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안: 필수과제는 영어 같은 거는 나중에 써야 하니까 필요는 한데 사물놀이라던가 그런 건 약간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선택과목은 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니까 배우고 싶은 거를 더 배우고 싶으니까 더 그게 한명 한명씩 가르치다 보니까 더 재밌고 한명 한명씩 실력도 더 느는 것 같아요.

심: 일반 학원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냥 저는 학원에 몇 번 안다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학원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특기적성이 그래도 학교 안에서 그냥 수업 끝나고 바로 가까우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냥 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좋은 거 같아요. 저희는 시골이다가 보니까 학원을 나가려면 버스타고 한 30분은 가야되거든요. 멀리 가야되니까 얘들도 막 피곤하고 집에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에서 통합버스가 있으니까 다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심: 만약 학원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네. 그래도 학원에 더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재밌고.

심: 왜 방과 후 학교를 다닌 후 학원을 또 다닙니까?
안: 그냥 거기서는 피아노 같은 건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를 학원에서 하는 것 같은 거 같은 데요. 예, 거의 그래요. 뭐 공부 같은 거 더 보충하려면 다른 보충학원을 가고, 특기적성에는 보충 그게 없으니까.

심: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안: 필수과제는 빼고 그래도 선택과제는 그래도 재밌어요.

심: 만일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안: 저는요. 제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고. 걔네들은 선택과제에서도 재미있는 게 없다. 아우~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선택과제에서도 아~나 이거 싫은데, 아~나 이것도 싫은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좀 그래서 안하는 것 같아요.

심: (방과 후 활동을 하는)시설은 어떻습니까?
안: 시설들도 시골에 비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야금 같은 건 가야금이 있고, 골프 같은 건 골프채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안: 저희는 있어요. 근데 참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걸 하는 것 보다 특기적성을 차라리 더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방학 때면 공부방을 열잖아요. 공부방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학교에서 영어 같은 것도 하고,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공부방 보다는.

심: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안: 주말에는 그냥 동생이랑 계곡에서 놀거나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심: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안: 학교 끝나고 만약에 특기적성을 안했더라면, 남자 애들은 더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더 산 이렇게 학교가 산 앞에 있으니까 뒤로 가서 산에 가서 뭘 따거나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나.

심: 서울에 있던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떤지?
안: 서울에 있던 학교들은 특기적성이 아마도 조금만 있었거든요. 조금만 하고 학원을 보냈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그럼 학원을 보내면 특기적성을 조금 하고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던 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 상: 김○○ (남), 1993년 생, 도봉구 방학3동 거주. 중학교1학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생 4]

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김: 부모님이랑 여동생이요. 여동생은 10살이에요.

심: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김: 부모님은 맞벌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사셔서 점심때는 엄마는 매일 오시는 시간이 달라져요, 보통은 9정도, 빨리 오시는 날은 오전 근무만 하시고 12시, 늦게 올 때는 밤 10,11시까지요. 아빠는 거의 7시쯤에 오세요. 할아버지께서 봐주시고, 저녁도 챙겨주세요.

심: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김: 친구들이랑 놀다고 학교가요. 학원도 가고 방과 후 활동도 해요.

심: 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김: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은 화요일에 중국어 한개 하고요, 학원은 그냥 다 배워요(전 과목). 학원은 월, 수, 금해요.

심: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김: 시작할 때부터요. 학년 초 시작할 때(3월). 빠진 적은 있는데 중간에 쉰 적은 없어요. 빠졌을 때는 시험기간이랑 임원수련회 때 빠졌어요.

심: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김: 아니오(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의 강요로요. 하기 싫어요.

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미있습니까?
김: 아니오. 중국어 성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어려워요. 미술이나 과학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실기, 실습하는 게 재미있어요.

심: 어떤 점이 재미있습니까? 또는 좋습니까?
김: 엄마 친구가요, 엄마 친구가 중국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엄마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중국 갈지 모르다고 해서요.(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좋은 듯)
그래서 방학 때 1달 동안 중국 다녀왔어요.

심: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또는 싫습니까?
김: 성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싫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미술이나 과학이요.

심: 일반 학원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주세요. 학교에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학원은 딱딱하고 숙제가 너무 많아서요.

심: 만약 학원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과목을 배워요(방과 후 교과목 관련 수업이 없어서)

심: 방과 후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김: 예 있어요. 저는 화요일에 학원 안 가는데요.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들을 많이 하던데요.

심: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김: 아니오. 다른 프로그램이면 몰라도 미술이나 과학이요(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가하겠어요). 공부 외에 실험하고 실기 하는 거요.

심: 시설은 어떻습니까?
김: 모르겠어요. 좋아요. 만족해요.

심: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김: 아니오, 못 들어 봤어요.

심: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김: 놀 토 때는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요(공차고 놀아요), 가끔 가족들이랑 일산에 호수공원에 놀러가기도 해요. 다른 활동으로 캠프해본 적 있어요. 하고 싶어요.

심: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김: 그냥 TV 보거나 소설책 읽어요. 숙제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대 상: 박○○ (여), 1993년 생, 도봉구 방학3동 거주. 중학교1학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생 5]

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박: 부모님하고 남동생이요, 남동생은 12살이요.

심: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세요. 엄마는 5시30분쯤 오시고, 학교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출장이 많으셔서 뚜렷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다르고요.

심: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박: 엄마는 저 학교에서 끝날 때 쯤 비슷하게 오셔서 혼자 있고 그런 시간은 별로 없어요. 동생은 조금 혼자 있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엄마랑 있어요. 집에서 학교 예습, 복습 하거나. 화, 목, 토 로 학원 있거든요. 방과 후 활동은 월, 화 라서, 수, 금 비는데 그때는 도서관에서 책 읽거나 그래요.

심: 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박: 월, 화, 방과 후 활동으로는 논술하고 중국어 해요. 수업 끝나고부터 5시 30분까지요. 2시간정도 해요. 논술은 선생님께서 내용 예 같은 거 많이 말씀해주시고, 중국어는 chapter에 따라서 매일 배워요. 학원은 영어 학원 하나 다니는 거고요.

심: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박: 1학년 들어 오자마자요. 학기 초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방과 후 활동은 가끔 빠졌지만, 쉰 적은 없어요. 학원은 일주일 전부터 다니고 있는 거고요. 학원 안 갈 때는 지역에 있는 도서실에 가고요, 아니면 책 빌려와서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읽고요.

심: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박: 혼자 결정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엄마나 선생님이 권장하신 건 아니에요.

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미있습니까?
박: 네, 둘 다 재미있어요. 논술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재미있고요, 새로운 내용을 듣는 거라서. 중국어는 억양 자체가 유쾌해서 재미있어요.

심: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또는 싫습니까?
박: 단점은 논술은 쓰는 방법 보다는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고요, 중국어는 단점이 없는 거 같아요.

심: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박: 네. 도움이 되요. 아직까지 성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어는 기분적으로 재미있어서 좋고요, 논술은 모르던 거 알게 돼서 좋아요.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모르던 친구들도 몇몇 생겼고요, 선생님과도 친해진 거 같고 해서 좋은 점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방과 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거 같아요.

심: 일반 학원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학교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요, 다른 수업은(학원수업)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심: 방과 후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박: 예,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봐서(학원가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10분씩 일찍 나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박: 네, 재미있어서요.

심: (방과 후 활동을 하는)시설은 어떻습니까?
박: 방과 후에는 사람들도 없어 그래서 조용하고, 저희 학교는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고 좋아요.

심: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박: 신학초등학교, 초당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초당 옆에 수영장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동역 쪽에(창동 청소년수련관)서 새벽반으로 수영 다녀요.

심: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박: 놀 토에는 부모님이랑 견학 다니고요, 고궁이나 뮤지컬 보거나. 캠프는 영어마을 캠프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다 여름방학 캠프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심: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박: 놀고 싶어요.

대 상: 임○○ (여), 1991년 생, 중계 3동 거주. 중학교 2학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생 6]

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임: 안 물어봤으면 하는데요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와 오빠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심: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임: 지금은 아침에 갔다가 낮에 오세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세요.

심: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임: 보충 있으면 보충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보충은 시간을 다시 잡아야 해요. 친구들 안 만날 때는 집에 와서 씻고 그냥 컴퓨터 하다가 씻고 자고, 그냥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심: 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임: 교육복지에 있는 특별활동 영어하고, 수학이요

심: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수학은요. 2학기부터.(쉰 적은 없음)
영어는 이제 2학년 되어서 했어요.(쉰 적 없음)

심: 스스로 결정했어요?
임: 하고도 싶고,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했어요.
(스스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영어를 너무 모르니까요. 제가 답답하고 그래요 영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는 전에 말한 적 있었어요. 영어에 대해선. 그냥 찾아가서 영어 어려워요 그런 적 있었어요.

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미있습니까?
임: 네. 영어를 알아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영어를 알아가면서 알

아들을 수 있잖아요. 수학도 그런 점이 좋아요. 친구들도 같이 있고, 비슷하니까 질문하면 답하기도 쉽고 그런 면이 좋아요.
배우는 것도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하는 것도 좋고. 재밌기도 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배워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보다는 알아가는 게 좋아요. 특별한 계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배우면 아니까요 수업할 때 편하고. 원래는 영어 같은 건 무서웠거든요 수업하는 거 자체가. 근데 배우면서 이렇게 알아가니까요. 괜찮아요. 이제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심: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또는 싫습니까?
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약속을 깨서요.

심: 일반 학원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임: 학원은 대부분 선생님들이요 그냥 얘들이 집중 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 가르쳐주고. 학원은 여러 명 있으니까 한명씩 못하는데 이런 거는 몇 명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심: 만약 방과 후 활동이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 그냥 한 명씩 한명씩 이아이가 모르는 거 선생님도 아니까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심: 그럼 과외와 방과 후와의 차이점?
임: 과외는 딱딱한 분위기일 거 같아요. 학교는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우선은 학교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면서 이렇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과외는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심: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심: 방과 활동을 어떻게 하고 싶어?
임: 전 지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 (방과 후 활동을 하는)시설은 어떻습니까?

임: 그런 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잘 없는 거 같은데요. 영어할 때 컴퓨터 쓸데 좀 불편한 거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쪽에 공부하고 있으면 컴퓨터가 이쪽에 있으면 옮기는 거요. 근데 괜찮아요. 웬만큼은. 그냥 동그란 책상에서 모여앉아가지고요 그냥 한명씩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한명씩 모르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모여앉아야 잘 보이고 잘 말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 조그맣게 해도.

심: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임: 일어나서 TV봐요. 부모님이 있으시면 함께 있고, 없으시면 뭐 혼자 있어요.

심: 방과 후 활동을 참여함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임: 이것도 좋고. 저희처럼 수업 못 따라가 가는 얘들이요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심: 혹시 고등학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임: 그것도 편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갔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보충하면서 알아가니까 좋을 거 같아요. 수업할 때.

방과 후 학교 인터뷰 프로토콜 _ 어머니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평소에 자녀들을 방과후 활동에 보내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이름	
2-3. 생년	_____년도

3.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4.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다면)* **몇 시 쯤 귀가하십니까?** *(아이들이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함)*

5. 자녀의 방과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학업, 숙제 지도, 비행행동, 식사, 인성교육 등)

6.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일반 학원, 공부방 등에 대해 각각,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 동안, 몇 개나 하고 있는지)

7. (방과후 학교와 학원을 둘 다 보내는 어머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한 후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성적, 학교적응, 성격, 비행행동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

10.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Yes, No에 따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11.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육아 스트레스, 사회활동, 심리적 여유 등)

12. 방과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습니까?(방과후 학교의 수강료는 적당한지도 함께 물어본다)

13. 자녀가 참가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만스러운 점이 아니어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교사의 질, 프로그램의 다양성, 운영, 등)

14.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겠습니까?

16. 만일 참가시키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대안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

17. 방과 후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할 점)

18. 방과후 학교의 경우 운영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학부모, 위탁단체 등)

19.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만일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 상: 최○○ (여), 1958년 생, 관악구 봉천동 거주.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1]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최: 삼남매인데요, 큰 아이가 고2 딸아이고요, 둘째가 중2 딸아이, 셋째가 초등학교3학년 아들입니다.

심: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최: 네 모두 일하고 있어요. 보통 3시경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보통 집에 오는 편이에요.

심: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최: 제일 염려 되는 것은 학업과 진로에요. 현 입장에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네요. 세 아이 모두 사교육을 전혀 안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심: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최: 고2 큰아이는 인터넷 과외를 통해서 혼자하고요, 둘째 아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공부방에 참여해서 학과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학원이나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큰 아이는 고1때 잠깐 수학단과학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2~3개월씩 다니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혼자서 헤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독서실에 보내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원할 때는 잠깐씩 학원에 보내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작은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축구교실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4번을 참석해 본 결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실에 참여시켜 본 경험이 있었네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한 아이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도 좋은 것 같아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한 후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최: 초등학교 3학년 막내아이는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향상되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심: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최: 예,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방학 때만 개설되는 프로그램이기에 학기 중에는 시켜줄 수 없는 점이 아쉽네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 아무래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안심이 많이 되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심: 방과 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습니까?
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당연히 있죠. 매우 크죠. 제가 밖에 학원은 잘 안 보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분의 1정도로 저렴한 것 같습니다.

심: 자녀가 참가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족하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학원에 비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학부모에게 확신을 시켜줄 만한 방안이 없는 것 같네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 적극성을 안 보이다 보니깐, 저도 거기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심: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겠습니까?
최: 예체능 계열의 방과 후 교실에 아이들을 보내보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원한다면 보낼 생각입니다.

심: 만일 참가시키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최: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힘들고 지루하다 합니다.

심: 방과 후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 전문성. 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온다면 보내고 싶네요. 전문성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적극 추천해서 보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운영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 현재는 학교 선생님이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 선생님들이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기관과 연계를 한다거나 위탁단체에 맡겨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참관수업을 가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내보라 했지만, 냈었음에도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었어요.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교에 전달되는 데에는 학부모들 간에 결합된 어떠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 상: 한○○ (여), 1969년 생, 송파구 신천동 거주.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2]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한: 셋입니다. 셋인데 큰애가 5학년, 둘째 3학년, 막내 5살입니다. 딸 둘 막내아들 입니다.

심: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한: 아빠는 외국인 회사에 일을 하고 있고, 반도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현재 금년에는 교육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연구 정부원이라고 있거든요. 학교를 지원하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승낙을 했고 원 소속은 **초등학교입니다.
(몇 시 쯤 귀가하십니까?)
학교에 있을 때에는 6시 전후에서 들어갔고, 지금은 빠른 날이 7시 반 늦은 날은 12시 넘어서, 평균 한 9시 10시 요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숙제 했는가 확인 그 정도. 얘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은 학원이나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심: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얘들이 식사한다거나 인성 이런 건 큰 염려를 하지 않는데 숙제나 학원문제 있어서 제가 많이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숙제. 알아서 해야 되고 준비물 챙기고 제가 관심을 덜 갖고 있어서 그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양육 보육보다는 학업에 대한 부담.
(방과 후 활동에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단 학원에 비해 비용이 싸죠. 그리고 아이들의 이동시간이 이동거리가 적잖아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에 되면서 차츰 그 영어, 수학의 비중이 커지니까 그건 학원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와 학원을 둘 다 보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즐겁게 하는 쪽에 치중을 두고 있는데 그거에 만족했기 때문에 학교에 보냈고, 고학년이 되니까 좀 조여야 될 것 같고 숙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하니까는 그게 오히려 불만이어서 지금은 학원으로 옮기려고 영어를 지금 학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활동 쪽으로 저 학년 때 많이 시켰는데 예를

들어 동요 부르기, 종이 접기, 미술활동 그런 걸 시켰는데, 부담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그런 걸 학원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니까 시간분담도 적고 그냥 즐겁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한 후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한: 학교적응을 잘 한 거 같아요. 그 공부 끝나고 거기에서 또 편안하게 교실만 옮겨서 하니까 즐겁게 다 참여를 했어요.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가방 들고 멀리 학원으로 왔다갔다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게 좀 싫은데, 모든 걸 학교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게 좋았습니다. 비용도 싸고.

심: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한: 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도 제가 보낸 학교에서는 영어를 위탁 단체에서 와서 아이들하고 날마다 40분씩 지도를 했거든요. 일주일 5일을 계속 했는데, 그 선생님들도 결코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고, 즐겁게 해 주셔서 그래서 좋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참 재미있다고 했고 동요배우기도 특히 저학년 한 삼년을 시켰는데 동요배울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거를 신나게 부르고 앞에 나가서 동요시간에 한명씩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건 또 자신감을 기르는 데에도 좋았고, 생활에서도 동요를 흥얼거릴 수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좋았습니다.

심: 아이들의 프로그램의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가 희망하게끔 하죠. 엄마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3월에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이거 재미있겠지 라고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했고 그걸 저희 얘들 같은 경우는 순응을 해줬어요. 미술 같은 거 예를 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시켰는데 작은 얘가 조금 불만 이예요.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시간 반 정도이니까 큰 부담이 없고 꾸준히 해놔야 나중에 미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반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심: 그럼 교사의 질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전폭적 신뢰하시는 것입니까?

한: 예. 저가 보낸 학교는 선생님들의 질은 다 좋았어요. 다전공자였고 나름 데로 경력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어서 잘 하셨고 정성껏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발표회도 하고 전시회 등도 하면서 집중적인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교사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면에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 직장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방과 후 활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제가 따로 생활면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이가 크면서 학원 쪽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학원을 고르고 이런 부담이 크더라고요. 방과 후 활동은 신경이 덜 쓰였던 거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학기치를 돈을 다 내니까 신경 안 쓰는 거 그것도 맘이 편했어요. 지금 얘들 수학 같은 경우 일반학원에 보내니까 매월 수강료가 신경 쓰이거든요. 날짜 체크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물론 3월에 한 번에 내서 비용이 더 크긴 하지만 그만큼 평소에 신경 안 쓰는 게 좋았죠. 통장에 많이 넣어두면 알아서 빠지니까.

심: 방과 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습니까?

한: 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어를 본다면 영어가 저학년은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맡겼었고, 월 13만원 돈이었거든요. 영어 날마다 다니니까. 날마다 40분씩 5일 13만원. 그런데 학원은 20만원 25만원 주3회. 아무튼 학교보다 학원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으로 고학년이 되면 학원으로 빠져요. 학교에 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말하기 활동 위주로 하고 편안하게 진행하는데, 학부모들의 요구수준이 그게 아닌 거예요. 고학년가면 선수학습도 시키려고 하고 평가에 대비하려고 하고 단어도 더 많아야 되고 이러니까는 학원으로 찾아다니는 거 같아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끌려서 4학년에 학원으로 옮기려하고 있거든요.

심: 자녀가 참가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특별히 불만이라기보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다른 기타 과목 컴퓨터라던

가 미술, 로봇 음악활동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건 당연히 현재 하는 곳으로 가야될 것 같고, 영어같은경우도 학교의 방과 후 활동이라면 입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거 같아요. 단지 그것을 부모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고학년 되면 다른 학원 쪽으로 옮기는 거구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만이라면, 제가 여러 욕심도 있고 얘들도 하고 싶어해서 몇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가 오후 2시 반 3시에 끝나고 5시까지 한 두세 시간동안 해야 하니까 겹치는 게 많아요. 제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 특기적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겹쳐버려서.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5시 이후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리 많이 머리를 짜내도 3,4 가지했으면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면 학원보다는 아무래도 느슨하니까 부모님들이 분위기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학원보다 편하다 그런 이미지가 일반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심: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어차피 영어 수학은 그 경쟁력에서 학원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만 집중 투자하는데 학원은. 그런 부분은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라든가 미술, 서예, 발레, 클라리넷 이런 악기종류나 큰 부담 없이 아이들이 어려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부분을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니까요. 자기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나 본인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학원에서는 수익이 떨어지니까 안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아파트단지에서 한 2,000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수학 영어학원에 논술 학원까지 그 학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태권도 피아노. 그런 건 그냥 학원에 맡겨버리고 학원시장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럼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 방과 후 활동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아요.

심: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겠습니까?

한: 계속 시킬 의향이 있고, 컴퓨터를 계속 시킬 것이고, 선택을 하라면 미술도 시킬 것인데 영어 수학은 학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학원에 보내보니

까 수학을 학원에 보낸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애를 혹사시키는 면은 있는데, 문제 푸는 양이 학교에서 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반이 있기는 한데 그건 제가 안 보내봐서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두 시간 하는 게 얼마나 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학원도 학원 나름인데 제가 보내는 000이라는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꼼꼼히 시켜주시고 숙제했는지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깐 비용은 비싸지만 제가 신경을 덜 쓰면서 얘 수학 실력이 느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를 풀 기회가 학교에선 없는데, 학교에서 푸는 수학 교과서의 익힘 책의 수준이었거든요. 저희 얘가 학교에서 푸는 건 잘 풀어요. 어려운 그 이상의 시험문제를 푼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경시대회를 보면 생각보다 항상 점수가 적게 나오죠. 근데 학원을 보내놓고 나니까 항상 수학경시대회의 수준의 문제를 여러 번을 푸는 거예요. 얘가 익숙해 져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자신감,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학년 때나 초등학교에는 자신감을 불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서 그걸 좀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운영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저희 얘 학교는 컴퓨터하고 영어를 위탁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진 학교에서 강사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라면 학부모 중심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을 뽑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몇 분은 학부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학부모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는 차원의 학부모였다면 그것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위탁업체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교사의 질에 대한 검증이 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 년에 한두 차례는 그 방과 후 활동 특기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학부모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할 수 없고 그런 면들을.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저희 얘 학교에 발표회 하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다양한 무대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텐데 일 년에 한 두 번씩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나 뮤지컬 연극 이런 거 발표하는 모습을 하는 게 좋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학부모 공개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참석해서 아이의 학습하는 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노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감이 생겼고, 대체로 방과 후 활동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 상: 김○○ (여), 1955년 생, 동대문구 제기1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3]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김: 아들만 둘이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4살이고, 작은 아이는 고1.

심: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김: 저 혼자 있습니다(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계신 한 부모 가정). 저는 8시 넘어야 들어와요.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그 때까지 혼자 있고요. 아이들 혼자 있는 시간이 3~4시간도 넘지요 뭐.

심: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김: 식사 걱정이 커요. 저녁은 제가 와서 차려 주고,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괜찮은데 ,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가 챙겨주지를 못하니까 혼자 학교 가는 아이들 아침식사가 가장 걱정이죠. 방과 후 에는 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착한 편이라 크게 걱정 하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믿고 맡겨둬요.

심: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하는 빵 만드는 기술 배운다고 그거 갔다 오고, 그리고 학교가 기독교학교라서 방과 후 영락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과학인가? 그거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걸 아이가 좋아하니까, 한번 시작하면 한1년 동안은 꾸준히 하더라고

요. 1년에 2가지 이상도 하고 지금까지 한 3~4가지, 4가지쯤 했을 거예요.

(방과 후 학교 외에 학원이라던가 뭐 다른 활동도 같이 했었나요?)

학원은 속셈학원 뿐이 안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속셈학원을 보냈는데, 더 많은 것을 중학교를 가면 보내고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만 꾸준히 보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벌어서는 먹고 사는 것 밖에 안 돼요.

(학교에서는 속셈 학원 같은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었나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음악반을 들어가더라고요.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하고. 합창단을 들어가서 그거는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 해서는 공부는 안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제가 관두라 그랬어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자기가 그것을 배우면 제가 못해줄 때, 집에서 라면이라도 만들어 먹고 좋아요. 아이가 열심히 해서 좋아요. 놀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좋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혼자밖에 없잖아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학교에서 데리고 있어주면 안심하고 좋아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한 후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김: 아무래도 낫겠지요. 성격도 낫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시간약속 잘 하니까 좋아요.

심: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김: 예, 학교에서 가는 거는 빠지지 않고 자기가 잘 다녀요.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잘 하니까. 뭐 하냐고 아이가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이가 택해서 해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 혼자 놔두고 갔는데 집에 있는 거 보다 낫잖아요. 늦게 끝나고 오면 또 걱정되지요.

심: 방과 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습니까?

김: 그럼요 있죠, 재료비 밖에 안 가져가니까.

심: 자녀가 참가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그러면 학교에서 진짜 국·영·수 같은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필요하지요. 학원에 못 보내는 어머니들 많잖아요. 사실은. 세대가 이렇게 되었다 해도 정말로 못 보내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적용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학원가는 거보다 학교에서 저렴하게 가르쳐 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심: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겠습니까?
김: 아이가 원한다면. 교과 보충 보호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심: 방과 후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거 보다는 학교 위주로 아이들 공부하는데 좋은 과목을 다시 해서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특기적성은 많이 배워봤으니까요.

심: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운영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위탁이라도 해서 진짜 기술이 좋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 학원에 보내주었어요.

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는 사안이 잘 전달되는 같아요. 한가 할 때 연락해요. 선생님이 어쩔 때는 전화도 주시고요

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방과 후 활동은 학교에서 진짜 없어서 못가는 아이들 보충, 학원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 진짜 돈이 없어서 못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보충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해요.

대 상: 김○○ (여), 1962년 생, 강서구 염창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4]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김: 남자아이 둘이에요. 첫째는 중3, 둘째는 중1입니다.

심: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김: 아니요. 아빠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전업주부라 늘 집에 있는 편이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편입니다.

심: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김: 학업성적에 대한 문제나, 인성교육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니까요.

심: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 방과 후 활동으로 바이올린, 컴퓨터, 방학 동안에 특기적성으로 그때그때 필요 한 것들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주로 바이올린을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요, 한 6년 정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습니다. 전공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흥미 있어 하고 예체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랜 시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교과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영어, 수학, 사회 필요한 교과를 거의 가르쳐주고 지금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와 학원을 둘 다 보내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예, 방과 후 학교와 학원을 둘 두 보내보았습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학원에 보내보았어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했던 것은 학교 시간표와 잘 연결되어서 좋았고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찾아 다녔어야 했는데, 학교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믿고 맡겨보았어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저 같은 경우는 학원보다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권장하는 편이예요. 일단은 아이들이 귀가시간이나 보충지도나 검증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활동이 좋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을 영입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

관 같은 곳에서 학교로 와서 해주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영입하는 거니깐 실력이 검증된 선생님들을 불러 주는 거라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한 후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김: 학교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둘째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을 하는데요,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며 바로 그쪽에 곧바로 연결되어 들어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6년 동안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행행동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없었어요.

심: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김: 좋아했었어요. 흥미 있어 하고, 좋아하는데, 가끔씩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이유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안가도 보호자가 모를 수가 있는데, 학교는 출결 확인이 정확해서 아이가 너무 규칙적인 것에 힘들어해서 싫어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가끔씩 빠지고 싶어 할 때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뭐, 지루해하기도 했지만, 워낙 좋아해서 괜찮았어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 일단, 가격이 많이 저렴했어요. 그리고 학원 출결보다 학교 출결이 정확해서 학원 측 보다 훨씬 안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에 대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면이 좋은 거 같아요.

심: 방과 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습니까?
김: 예,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이 저렴했어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가, 세 달에 12만원, 그러니깐 한 달에 4만원이었어요. 학원이었다면, 보통의 경우 8만원인데요, 절반으로 비용이 저렴했지요. 그리고 학원은 일주일에 한번이에요. 학교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했고요. 그러니깐 비용은 많이 저렴했지요.

심: 자녀가 참가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던 거였기 때문에, 계속 상급으로 치고 올라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계속 모집을 하고 그러니깐, 초급을 중급과 합치고, 중급을 고급과 합쳐질 때 안 좋았어

요. 우리아이는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갔을 때에는 상급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질 좋은 개인 교사를 붙여 주던지 해야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바이올린 반이 수준별로 나눠지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는 인원별로 단계를 정하는데, 인원이 하위에서 상급까지 나눠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나요?)

아니오. 이 학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이 학교는 바이올린 반이 6개 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최상급으로 가니깐 맞는 반이 없더라고요. 대개 바이올린은 중간쯤에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3학년 정도부터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시키니깐 점차 올라가서 최상급으로 갔는데, 우리 아이가 10단계로 생각되어 졌지만, 최상급 반이 없어 7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최상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영입되어져 오길 바라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요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최상급으로 가는 아이가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 3명을 가지고 한 반이 만들어 져야 하니깐, 그것은 요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 드릴 순 없었지만, 그냥 학교에서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건 좀 무리입니다.

(그럼 아이가 최상급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부모님에게나, 혹은 아이에게 직접 최상급이 되었으면, 학교에 영입까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기관이나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는 등의 아이의 재능에 대한 조언이나 권유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아니오.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아이 학교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단계에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돈을 주고 따로 시키더라고요. 개인레슨을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학교에 방과후 교실로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전공을 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심: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겠습니까?

김: 저는 예체능이 중학교에서도 활성화가 되었다면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체능이 중학교에는 없더라고요. 악기다루는 위주의 활동이요.

(지금 아이의 학교에는 예체능이 없나요?)

예, 예체능이 없어요. 아, 그런데 검도가 새벽반에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등교시간 전에 7시에 모여서 50분까지 하는 게 있던데요. 그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침시간에 못가더라고요.

심: 방과 후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예체능 계통이 여러 가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한번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교육비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깐 학교에서 운영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학교라 생각하니까 공부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이면 수학, 영어 뭐 이런 거요.

우리아이 학교에는, 우리가 보아도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만 있더라고요. 영어라면 '영문법1,2단계' 이렇게 깊이 있게 학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심: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운영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이나 학교 내의 선생님이나 어떤 분이 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도 있으시고, 학교 선생님도 있다고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선생님은 업무가 많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이것 까지 맡기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좀 더 아이에게 집중 해 줄 수 있을 만한 전문분야 선생님이 오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예,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내는 의견에 귀 기울여 주고 의견을 잘 반영시켜 주었어요.

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고등 학교 때에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깊이가 없이 가르치면 학원으로 빠지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수학이라 던지, 어차피 학교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야 학교로 아이들이 영입이

되지,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것만 해주면 아이들 영입이 불가능 할 거 같아요.

대 상: 신○○ (여), 1964년 생, 동대문 청량리 거주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5]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신: 두 명이에요. 고2 여학생과 중1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심: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신: 네. 남편과 저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4시쯤 귀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신: 학업지도나 숙제지도 등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 등에 관해 가장 염려가 되지만, 아이들에게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오는 시간에 맞춰 귀가하는 편이니까요.

심: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신: 작은 아이는 방과 후 학교에서 과학 탐구 반을 몇 년째 하였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에서요. 그리고 딸아이는 컴퓨터 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피아노 특기정성 영재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와 학원을 둘 다 보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 딸 아이 같은 경우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정도 가지고는 높은 수준의 레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예체능, 특히 피아노나 악기를 전공으로 하는 아이에게는 그에 맞는 레벨의 방과 후 학교 활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방과 후 활동을 하여 큰 효과를 보았습

니다. 초등학교 때에 과학탐구 반 활동을 3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때 배운 것들이 지금 중학교에 와서 과학에 흥미를 잃지 않고 좋아하게 되고, 그에 맞춰 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거 같아요. 과학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과학경시대회에 나가 대상도 몇 번 받아왔어요. 이러한 결과는 아이에게 꾸준한 흥미를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아 방과 후 학교 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한 후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신: 앞서 말했듯이 관련 교과 성적에 대한 흥미는 물론 과학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학교적응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심: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신: 네. 저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이 없다면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작은아이가 과학 탐구 반을 원해서 갔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심: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 학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이나 다른 곳 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준다고 하니 학부모 된 입장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안심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습니까?
신: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월 4만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는 과학 탐구 반이라 강의료 이외의 준비물이나 재료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 많아 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심: 자녀가 참가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 아이들에게 이뤄지는 학습이 수준별 단계 학습이 없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작은 아이가 있던 과학탐구 반에서 우리 아이는 3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 중간 다른 학생이 들어오면 새로운 아이들과 같이 수업이 진행되려니 계속 상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제자리에서 맴도는 학습이 되었습니다. 실험과 실습이 진행되는 과학탐구 반에서는 더욱 같은 실험이 계속 되어

반복학습이 되다 보니, 아이가 오히려 실증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활동도 체계적으로 단계별, 수준별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수업에 있어서는 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 체계적으로 단계별 학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혹은 더 이상 상위 단계가 없다면 수료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만족감, 성취감 등을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심: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겠습니까?
신: 네. 계속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면 참가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 방과 후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 방과 후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 아이들에게 많은 설문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문지를 보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방과 후 교실의 제목만 주어지면 그냥 딱딱하고 당연한 활동만 생각이 되어 흥미가 없어집니다. 방과 후 교실의 제목과 함께 수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 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첨부되어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서 아이들에게 권유 할 수 도 없었습니다. 과학탐구, 독서지도 이렇게 제목만 주어지지 그 안에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만 듣고는 알 수도 없고, 지루해 할 만한 제목이 많았기 때문에 답답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설문지에 어느 것을 배우는 가에 대한 수업계획이 전달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운영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 학교 선생님과, 외부 강사가 적절하게 섞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강사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만큼 신뢰할 수 가 없고, 학교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문성이 염려되고, 아이들을 가르치

는 일에 집중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만 가르쳐 준다는 것 역시 염려됩니다.

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 전혀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에게 설문지가 오기는 하지만, 제목만 주어진 설문지를 보고서는 어떠한 공부를 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과 후 학교 인터뷰 프로토콜 _ 교사 및 기관운영자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이름	
2-3. 생년	_____년도
2-4. 기관명	

3. 선생님이 계시는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보충학습, 숙제지도, 특별활동 등 모든 것을 물어본다*)

4.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5.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수익자 부담인지,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6.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7.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8.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9.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수업진행, 업무 과중, 예산 부족 등*)

10.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11.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기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1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긍정적이라면 또는 부정적이라면 어떤 면에서인지 자세히 물어본다*)

13.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싫어하면*) 어떤 면을 싫어합니까?

14.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강료는 적절합니까?

16.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귀 기관의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8.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만일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19. 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운영이 이상만 높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20. 방과후 학교가 결국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육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21.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 상: 박○○ (남), 1983년 생, 종암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교사 1]

심: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박: 복지사업혜택을 받고 있는 얘들 중에서 원하는 얘들 자원하는 얘들 해서 공부에 의욕이 있는 애들 해서 여학생 3명 있는데 2학년들, 걔네들 3명 한테 국영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영어를 맡고 있는데 1학기부터 실시해서 지난여름 방학 때도 얘들이 계속 학교에 나왔어요. 그때도 나와서 영어랑 수학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2학기 돼서 어제 그제부터 2학기 분량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 기초가 안 되어있으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저는 알파벳부터 시작을 했고요, 단어나 교과서 따라가기 힘드니까 교과서 본문 읽는 법부터 해되니까 그런거 하고 있어요.

심: 아이들은 좋아합니까?
박: 애들은 일단 수업이랑은 많이 다른 게 긴장감 이런 게 없잖아요. 3명에다가 저 혼자 이렇게 1:1이렇게 하는 거니까 소위 그룹과외처럼 얘들이 편하게 듣고 시험을 봐도 편하게 웃으면서 시험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심: 아이들이 편한 것만 좋아는지 다른 것도 좋아하는지?
박: 아무래도 얘들이 다른 자료도 괜찮지만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읽는 법부터 하고 그리고 교과서 해석도 같이 해주고 하니까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그동안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멀뚱멀뚱 앉아있었는데, 지금은 저랑 한 번씩은 해봤던 내용이니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조금씩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심: 학습에 적응이 되는가?
박: 그렇죠, 기초를 깔아준다고 해야 하나?

심: 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운영 등 전반적으로)
박: 제일 어려운건 시간 맞추는 건데, 시간을 방과 후에 따로 날 잡아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수업이 끝난다고 일과가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하루 날 잡아서 얘들도 다 불러 모아서 이날

하자 이렇게 하고서 한 시간 두 시간 얘들은 또 오래 못하니까 시간을 쪼개야 하는 부담이 조금 있고요. 그날 수업이 많았다 그러면 목이 좀 아픈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시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조금 있고. 수업자료 같은 건 제가 따로 찾아봐야 하니까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씩은 더 봐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심: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박: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위해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한다던지 참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교제를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교제를 살 때도 영어 같은 경우는 원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다든지.

심: 운영상의 등등 어려운 점은?
박: 모르겠는데요.

심: 인센티브는?
박: 따로 그런건 없고, 제가 시간당 얼마 받는 특별 보충 하는 것처럼 그거 정도 있고, 그거 외에는 글쎄요.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없죠.

심: 방과후 활동에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 일단은 학생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을텐데, 저희가 못 찾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교에 3명밖에 안되지는 않을 텐데 학생들한테 먼저 할 의사를 물어서 좀 더 학생들을 모아서 그거에서 좀 필요가 느껴지면 좀더 많이 참여하실 것 같기도 하고, 시수나 이런 거를 조금씩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따로 빼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심: 선생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박: 저는 일단 이 학교 복지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학교 발령 받자마자 들었구요, 그때 처음부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냐고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좋은 취지인거 같아서 그때 OK를 해놓고 그 후로 얘들을 모으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교사선생님들의 분위기나 반응은?
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학교에 아직 오래 있지 않아서 그런지 떠밀리는 느낌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거고, 딴 선생님들도 하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그 외에는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거 같아요.

심: 방과 후에 영어수업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지요?(복지대상을 포함)
박: 복지대상 이 수업을 거의 저의 개인적인 수업 같은 분위기구요. 딴 선생님들도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데, 특별보충이라는 것은 전교에서 학력이 떨어지는 얘들 몇 명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으로 시수를 채워야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아무래도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구요. 딴 선생님들과 그건 꼭 하셔야 하는 거고 방과 후에 얘들 남겨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또한 거기 얘들이 잘 참여하지 않아요. 얘들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심: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지요?
박: 이런 말씀 드려도 될려나.. 일단은 하시는데(특별보충), 저도 지난 학기에 다른 보충을 20시수를 채웠는데, 그걸 하는데 취지는 못하는 얘들을 떨어지는 얘들을 도와줘서 걔네들이 좀 더 수업에 적응하게 끔 해주자는 취지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까지는 효과를 느끼시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저도 또한 그렇고. 그 아이들은 차이가 자원하는 아이들이 아니예요. 그 차이죠.

심: 싫어하는 것은?
박: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학교 다 끝났는데 남아서 하기도 하고.

심: 그래도 특별보충을 좋아하는 아이는?
박: 그죠. 그런 아이들은 꾸준히 나오면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서 20시수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은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심: 그런 아이들은 어떤 면을 좋아하나요?
박: 일단 그런 거 같아요. 수업들을 때는 아무래도 교사의 초점이 그런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중간층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수업에는 소외되었었는데, 발표를 시켜도 참여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때 만큼은 자기도 하나의 수업에 중요한 하나의 학생이 되니까...

심: 방과 후 아케데미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은?

박: 일단 학교에서 하는 거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아이들을 훨씬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얘들도 참여율이 훨씬 더 높겠죠. 다가가기가 쉬우니까. 그 정도가 있겠고,, 밖에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그 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니까 주변 학교 4~5개의 학교에서 공문을 쫙 뿌려서 거기서 모집을 하고 선생님들도 체계적으로 몇 분씩 뽑아서 수업내용도 거의 짜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는 있겠죠. 밖에서 하는 거는 또하나의 수업인데 대규모의 수업인데 학교 본교에서 하는 거는 조그맣게 1:1 개인 맞춤식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거...

심: 현재 운영의 주체는?

박: 학교

심: 방과 후 활동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대상 이 아이들은 어자피 사교육을 안 받는 아이들이고, 또 제가 말한 특별보충 아이들은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또 학원 가야된다고 또 가요. 이것 따로 학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딱 그런 효과는 못 볼 것 같다는...

심: 이런 방과 후 활동들이 비행예방·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 글쎄요. 그 쪽으로 한 번도 관련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요. 딱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시간에 얘들이 그 시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 방과후 학교가 결국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육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 방과 후 활동의 지향이 보육의 기능을....? 방과 후 활동의 보육의 기능이라...글쎄요. 비행그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방과 후 활동의 취지는 보육이라기 보다는 그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육이라고는 저는 따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보육은 놀 토에 토요일 무슨 계획을 운영하고 차라리 그게...

심: 저소득층 간격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박: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도 효과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의욕을 신장시킨다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에..

심: 저소득층은 교육의 기회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과 후 활동 들이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박: 어느 정도는 있겠죠. 다른 기회라도 주어지니까 경험의 기회도 주어지까.

심: 예산에 대해서는?
박: 그 쪽 방면으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수강료는 안내요.

심: 귀 기관의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글쎄요. 부모님을 돕는 입장에서라면, 부담을 좀 덜어 들일 수는 있을 거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 년 내내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면 몰라도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하고 그런 거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박: 일단은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대게 명목상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인식의 차이 인거 같은데, 일단 그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가해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홍보를 늘리던지 아니면 그런 통계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던지 그런 자료에 약하잖아요,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가 주어지면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대 상: 박○○ (여), 1981년 생, 광진구 중곡동 거주.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교사 2]

심: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박: 한 3년 정도. 지금 이 학교에서는 9개월 정도 됐어요.

심: 선생님이 계시는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 방가 후 특기적성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박: 전 학년을 다 하는데 현재는 저학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구성 성비율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한반에 44명에 들어가요. 저학년들은 꽉 차고, 고학년들은 한반에 20명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심: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 어떻게 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급여를 받고, 한 달에 13만원 한 달 운영비를 줘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3개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 선물을 줘요. 타자 왕이나 출석 왕 등 그동안 잘 한 아이들 간단하게 선물 살 수 있게 그런 운영비와 필요한 물품 조금씩 사서 쓰라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심: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박: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현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급여라든지 내 일하는 것을 봤을 때 내 급여랑 한 달 운영비랑 다 합쳐도 크게 넉넉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이나 관리나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하는 건데 나머진 다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것 가지고서 하니까.
(운영주체는 어디가 하는 것이 더 좋으신지요?)
저희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박: 잘 모르겠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박: 들어보기만 하고 크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박: 회사에서의 지원이 넉넉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잉크라든지 잉크 같은 것도 잘 안보내주시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괜찮은 것이 있으면 프린트를 뽑아서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잉크 등이 지원에 되어야 하는데 아껴 써라 아껴 써라 이러니까 좀 그래요.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박: 학교에서 어렵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라서 학교에서는 따로따로 구분을 해요.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일하니까 우리 얘들 가르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선 하는데, 학교에서는 에어컨은 여름에 쓸 때 쓰지 말라. 전기세 많이 나간데 이렇게 말을 해요. 쓰려면 전기료를 더 내라 이런 식 으로 서무실에서 나오죠. 우리 얘들 가르치는 데 수업을 하는데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그럼 너희가 돈을 더 내라 이렇게 까지 아예 얘기를 하세요. 학교라 업체가 들어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학교랑 관계가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어디나 학교랑 컴퓨터실이랑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서무실하고는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다녀봤는데 항상 서무실 쪽에서 너네 따로 우리 따로, 뭐 학교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다 너희 책임 이렇게 넘기는 게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면 뒤로 챙겨주는 것을 더 바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박: 인원 모집이 많아지면 봉급이 조금 올라가는데 급여에서 한 십 만원에서 이십 만 원 정도 플러스 되요. 그니까 크게 많아지는 건 없고. 그리고 모집 기준 목표 인원이 있거든요. 그 목표에 달성 못하면 계속 그냥 기본 월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회사에서 너무 높게 잡아놓기 때문에 받아 갈 수 없게 딱 잡아 놨어요.

(인텐시브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목표를 잡았는데 그만큼 안 올라갈 것이 당연하니까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 선생님들 반응은 좋은 선생님들은 손에 꼽을 만큼 몇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런 선생님들 너무 컴퓨터실 열심히 잘 한다고 수고가 많다고 늦게까지 남아서 그래서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는 선생님들도 간간히 한두 명 계시는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보세요. 뭐, 일 시키려고 했을 때, 일을 그 선생님들이 자기네들 일 하는 거 프린트 같은 뭐 좀 뽑아 달라 아니면 문서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을 컴퓨터를 못하시니까 그런 거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일도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 드리는데 그 외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저희가 못 도와드린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인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 안 보낸다고 컴퓨터실 방과 후에. 그러면 얘들이 안 모여지면 모집이 안 되면 또 우리는 회사에서 또 쪼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는 몇 몇 선생님들이 계세요. 다른 학교에도 있어 봤는데 다른 학교도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집하는 인원으로만 생각하지 그 외에 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교육적인 마인드가 떨어진다는 마인드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얘기 하는 게 어떻게 해서 교사라는 사람들의 저 마인드 자세가 저럴지 모르겠다고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분들은 어떤 한 선생님은 아침부터 집에서 빵을 구워서 컴퓨터실에 꼭 보내주세요. 커피와 함께. 이렇게 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과 후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열심히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 학원보다 오히려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고 하니까 학교가 더 잘 하는 것 같다. 방과 후가 오히려. 방과 후 하면 대충대충 간단간단한 것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아이들한테 직접 컴퓨터 뭐 어떤 거 배우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도 잘하고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은 좋아하시죠.

(선생님의 생각(개인)은 어떠신지?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 만큼보다 더 많이 얻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더 많이 잘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과 후도 학원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컴퓨터 학원을 조금 다녀 본 적이 있는데.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게 뭐 문서작성의 요령 뭐 고정도지 저희 같은 경우는 타자를 일대일로 타자 손가락 까지도 다 맞춰서 44명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 보면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한명 오면 그냥 문서작성하고 가세요. 그냥 그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명 한명씩 검사 다 하고 손가락 한명 한명씩 다 맞춰주고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서.

심: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박: 컴퓨터 수업을 재미있어 해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에 같이 선생님들이랑 구호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는 구호 같은 것을 외치거든요. 그것을 재미있어 해요. 고학년들은 힘들어 합니다. 자격증 준비를 해야 해서, 컴퓨터를 편하게 아이들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편하게 그림 같은 것을 그린다던가 하는데 고학년들은 아예 자격증을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고학년들은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들은 타자 연습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죠. 컴퓨터를 배우면 타자가 기본인데 타자들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걸 힘들어 해요. 타자치는 시간을. 또 고학년을 봤을 때는 공부하는 거. 자기들은 자격증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혔는데, 부모님들의 욕심에서 채우려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자격증 반 들여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힘든 거죠. 필기준비하고 하니까.

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박: 중상층에 속하죠. 전체적으로 잘 사는 편이예요.

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형편이나 뭐 이런 건 잘 사는 편이예요. 여유는 있어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중간 중간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혼한 경우가 중간 중간에 섞여 있는 아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심: 그렇다면, 편부모 학생들이나 그냥 학생의 미묘한 차이가 수업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 해소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우연

치 않게 부모님들과 상담전화가 이루어지는데 할머님 들이 받으시거나 이러 면은 이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친구들 따로 불러서 더 관심을 준다든지 선물 같은 것을 챙겨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더 챙겨서 줄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원보다도 가르치는 것 보면 교재라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뒤쳐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관리 면이나 그런 것들도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특기적성을 보면 일반 학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컴퓨터 학원을 조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게 뭐 문서작성의 요령 뭐 고정도지 저희 같은 경우는 타자를 일대일로 타자 손가락 까지도 다 맞춰서 44명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 보면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한명 오면 그냥 문서작성하고 가세요. 그냥 그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명 한명씩 검사 다 하고 손가락 한명 한명씩 다 맞춰주고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서.

심: 수강료는 적절합니까?
박: 한 달에 27,000원 3개월 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강료에 대한 부감감은 별로 안 갖는지?)
그렇죠. 지역적인 특성도 있으니까는. 크게 뭐 방가 후 특기적성비가 비싸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 한 두 분 정도. 자격증 반 같은 경우는 교육비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교재비까지 또 내야 하나 그런 게 좀 비싸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교육비 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죠.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큰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자격증 같은 것을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자격증을 많이 따니까 나중에 대학교 갈 때나 학점 이수 하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 놓을 수 있는 부분

이잖아요. 중고등학교가면은 컴퓨터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걸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학점 같은 거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공무원이나 선생님 될 때에도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을 요즘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만일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어머님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이 어머님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냥 방과 후 특기적성 등록은 해 놓고 엄마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등록하고 얘만 보내고 그게 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하고도 뭔가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머니 반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들이 직접 컴퓨터실에 와서 어떻게 컴퓨터가 이뤄지고, 그다음 뭐 타자 연습이라든지 기본적인 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들이 좀 알아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숙제를 내줬을 때 같이 좀 이렇게 아이를 붙잡고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걸 한번 운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막았어요. 교감선생님이 막았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머님들 까지 모집을 해서 너희가 돈을 챙겨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며 이렇게 안 좋게 보셨어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서 부모님들 교육비는 딱 만원만 받으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얼굴도 좀 마주치고 저희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요런 걸 배운다. 그리고 어머님들 인터넷 같은 거 사용하다가 보면 뱅킹 하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거 간단한 것 좀 가르쳐 줄 생각으로 진행하려는 데 그걸 막으셨어요. 그것도 다 이익을 이윤을 너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좋지 않게 보셔요.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세요.

근데 업체가 들어오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업체에서 다 해줘요. 그리고 삼년이 지나면 이 컴퓨터는 학교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는 게 학교에서는 이득인데 막상 딱 들어와 보면 서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허락은 하되 서무실도 이렇게 묶였어요. 되게 복잡해요.

심: 일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이 이상만 높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한명 한명씩 더 보충을 해주고 친구들 데리고 오면 옆에 앉혀 놓고 하는데 보조의자도 다 44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래도. 저희는 소수의 인원이라도 아이가 정말 배우러 왔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것을 많이 얻어 갔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모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얻어가는 것보다도 아이들 많이 모집을 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오게 바라는 면이 있으니까 .

심: 방과 후 학교가 결국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육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 한 두 명이면 몰라도,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크거든요. 전교인원이 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아이들 컴퓨터 배우는 아이들도 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저희는 한명 한명씩 해 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시간적으로 벅차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면, 보육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선생님들이 더 있으면. 간혹 가다가 학부모님들이 몇 시까지 얘들 데리러 가야 하는데 거기 컴퓨터실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희가 마지막 타임까지 수업이 계속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 그때까지 학생 좀 데리고 있어달라고 그러면 강사 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타자연습이라도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한 두 명씩 가끔 봐줄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이 친구들 까지 안 배우는 친구들까지 데려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조의자가 있으면 보조의자 펼쳐놓고 옆에서 구경이라도 해라 이렇게라도 데리고 와서 있게 해요.

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 방과 후 특기적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윤을 너무 보고서는 아이들을 머리수 마다 보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 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학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아이들 가르치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이 되가지고서는 관리나 운영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른들이

이윤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아이들이 좀 놀아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선생님은 학교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학교 안에 있어서 그런 게 크다고.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어서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믿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 학교 안이니까 오히려 학원에서는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챙겨가는 것이 많으니까 영리만을 추구하니까. 학교는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영리를 챙기는 것보다도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대 상: 정○○ (여), 1963년 생, 송파구 방이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교사 3]

심: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이 방과 후 활동으로 다 통합에 되었어요. 통합이 되었는데 전에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예요. 오후에 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그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우리학교 자체로 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13개 프로그램이 되고. 동대문중학교가 중점학교이면서 저희가 협력학교로 방과 후 활동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이 2개 있어요. 그 정도하고 있어요.

(활동이 모두 합쳐진 거예요?) 예.

(중학교와 연계가 되네요?) 네. 5,6학년만. 고학년만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운영의 주체는 중학교예요. 중학교고 협력학교가 초등학교 몇 개 학교가 중학교 몇 개 학교가 그 인근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한 학교에서 그 학교 아이들만 모아서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근방의 아이들을 전부다. 초등학생은 다른 학교 초등학생을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중학생은 그 지역의 다른 학교에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심: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정: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참가를 하는데 5,6학년은 별로 인원이 없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제일 인원이 많아요. 성비는 비슷해요.

심: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 방과 후 활동은 원칙이 수요자 부담 이예요. 수요자기 수강료를 내고 강사가 그 수강료를 강사가 강사료로 가져가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금이 조금 나오는데 그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 이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수강료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그 정도 지원이 되요.

(이윤이 남는 건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업무를 맡은 선생님은 그야 말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 말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보면서 본인한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심: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 현재 학교죠.

(현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바람직하죠.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외부에서 모두 외부에서 맡아서 한다면 사설학원처럼 되어 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장소를 빌려주니까 조금 싸게는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정: 들어보긴 했는데,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정: 방과 후 학교가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좋아요. 그렇게 나간다고만 하면 정말로 좋은 방안인데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의지 열정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의지나 열정이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도 있어야 해요. 지원이 따라줘야 덤으로 열정도 생기고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되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 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일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 부장을 하고 있지만 오학년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5학년

수업이 6교시면 3시에 끝나요. 저희 퇴근이 4시 반이예요. 그럼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30분.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행사가 있잖아요.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도 참여를 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방과 후 학교 일만을 보려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수업을 다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이 업무를 봐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방과 후 학교의 업무가 학원하나 경영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학교의 부서가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고, 50%, 60%의 아이들이 다시 또 오후에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럼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인력은 사실상 계원하나하고 부장한분하고 거의.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상상이 되잖아요.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정: 인력이 충분해야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분들을 위한 지원도 배려가 되어야 하고.

사실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 분야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서 선생님이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은 많은데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본인들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관심을 가져 줄 수가 없죠.

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정: 그거는 외부강사랑 똑같아요.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를 고대로 선생님 보수로 가져간다는 거. 근데 외부강사는 학생수강료를 거의 전액을 가지고 가는데, 교사인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보수가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노력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질 않아요.

보수가 많다면 많이 참여하죠.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들 보다는 저희 선생님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들이예요.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으신 분 들이예요. 근데 수요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건 어떤 교사의 자존심도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 그 한 두 시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

은데, 시간도 그렇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주는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요. 왜냐면, 그것 말고도 저희는 업무도 많고, 또 보수도 월급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교사로서 보수를 받잖아요. 이일도 교사로서 업무다 업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업무를 함으로써 내가 교사로서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저희 학교는 모든 프로그램이 외부 강사예요. 외부강사고. 지금 동대문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원어민 영어회화의 경우에는 저희학교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까운 분이 자기 주변에 가까운 분의 남편이 외국인 이예요. 그리고 영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 회화 반을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시고, 직접 또 남편이 오셔서 협력수업을 해 주세요. 교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히 이러한 게 능력이 있다~그 과목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분 경우에만 신청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세요.

(프로그램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입장)

일단은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고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교실 자체가 본인의 방이면서 연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실을 다른 강사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계실 데가 없어요. 중고등학교는 교무실을 자주 들락거리고, 교무실이 본인의 연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 교실에서만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비워주게 되면 다른 교실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방을 비워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꺼려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그 장소의 협조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이고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에서는 많이 인정을 하세요. 지금은 내 교실 내 교실만은 아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내 교실이라도 기꺼이 내줘야된다. 필요로 한다면 내줘야 한다는 인식까진 와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시진 않죠.
교무실은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무실에 익숙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자기 교실에서 본인 교실에서 하루 종일을 거의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무실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데 선생님들한테 익숙지는 않아요.

심: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싫어하면) 어떤 면을 싫어합니까?

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재미가 있어야 되요. 그래야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내오게 되거든요.
싫어하는 학생은 있죠. 학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오는. 그런 아이들은 금세 끝나요. 오래 못 가요.

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소득층아이가 고가의 사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학교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를 줄였다고 볼 수는 있죠.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강료는 적절합니까?

정: 만약에 학원으로 가는 수요가 전부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사교육비 감소가 되죠. 비교가 안될 만큼 감소가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목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학부모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취미활동 이런 것들로 목표가 달라지는... 제가생각하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공부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취미나 교양 활동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거 그런 거를 사교육을 받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우자.

(결국은 현재 프로그램은 사교육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죠. 가정형편상 사교육으로 바이올린이나 플롯이나 이런 걸 배우기에는 도저히 따라 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무리해서 가르치려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면 그것에 5분의 1수준으로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똑같이 배운다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본다

면 사교육비가 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수강료는 적절한가요?)

그것도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수강료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학부모의 욕구수준에 따라서 수강료도 다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 개설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도 싼 가격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 요구에 맞게끔 강사도 불러야 되고, 그런 우수한 강사를 고르면 그 강사에 맞게끔 수강료를 많이 줘야 되요. 그래야, 이 강사가 하죠.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학교로 온다는 얘기에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이를 학교로 안 보내죠. 그러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도 볼 수가 없죠.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60%, 70%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를 저학년의 경우에 1,2학년의 경우에 거의 오전 수업 이예요. 오전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보육차원에서 보내는 면도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것을 감당해 준다면, 우리아이가 학교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학교에서 일정시간동안 학교에서 머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믿고 맞길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죠. 그니까 부모입장에서 그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심: 귀 기관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도움은 많이 되요. 고가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말하자면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런 부분을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싼 가격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큰 혜택이 되죠. 어딜 가서든지 나 바이올린 켤 줄 알아. 내세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심: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만일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 제가 작년에 있던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나면 그 지역에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사회공부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계속은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무료로 봉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대부분 강사들이 무료로 해주면서도 보람을 갖고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해주시고 강의도 잘 주시고 보람을 느껴요. 강사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을 하면 운영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 근방에 교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학교 근방에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을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면 그래도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되는 특별활동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되가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이미 학교를 벗어나면 그 감독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호해요. 책임소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입장에서는 되도록 이면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여건이 미치지 않아요.

심: 일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이 이상만 높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 그 말이 맞죠. 왜냐면은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바는 학부모의 욕구하고 달라요. 학부모는 우리아이가 대학을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점수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싼 값으로 잘 배우고 싶다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교과목을 못하게 해요 특기 적성 같은 경우에는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원에서처럼 내 아이 점수 잘 맞게 해주기를 원해요.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목표와는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그런 점수를 얻기 위한 과목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과목은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과목이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학원으로 가야하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저소득층이 많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만 아이들이 해야 하거든요. 다른 여타의 것들은 할 여유가 없어요. 가정형편상.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면 부

모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영수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정작 국영수를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글짓기라든지 영어회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학부모가 요구하는 그거하고는 달리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은 학원으로 가게 되고, 그 외에 교양이나 취미나 이런 위조로 하는 활동을 학교에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예체능 과목, 바이올린이나 플롯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선 싼 값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지원이 되요.

심: 방과 후 학교가 결국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육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 감당을 앞으로는 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녁식사까지 해결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부분을 담당을 누가 할 것인가가. 선생님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담당할 인력이 충당이 되어야 되요. 그거는 결국은 국가의 협력 없이는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교사가 담당을 해야 한다면 그것에 걸 맞는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일률적인 것을 지양하자.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요. 강사료는 어느 수준에서 뭐 어느 정도의 방침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방침에 불과한 거고, 지역에 따라서도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수준이나 강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수나 다 여건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라고는 해요. 그래도 학교간의 격차가 너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를 받게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 하는 수준에서 무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죠. 그게 활성화에 약간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원하고의 경쟁상대가 되어야 되요. 그 지역의 그런 학원하고의 경쟁상대가 되어야 학교가 사교육을 흡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요.

대 상: 김○○ (남), 1979년 생, 상계4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교사 4]

심: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 흔히 요즘 말하는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 교육복지 투자 사업에 저희 학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육복지 투자사업 그 일환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몇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혹은 방학 때는 방학 중에 수학을 지도하는 수업. 방과 후 학교랑 그거랑 좀 틀리게 교육복지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에 얘들 수학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건 교육복지 투자사업 중 극히 일부분의 한해서 딱 하나 그것도 중학교 2학년 그것도 몇 명밖에 안 되는 수업이지만(세 명)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만 모아서 하고 있는데 남녀 섞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뭘 모르는 걸 이성 앞에서 말하는 게 창피 할 수 있고 뭉쳐서 공부하는 것이 나은데.

심: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 예산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 교육복지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잡혀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익자 부담은 없습니다.

심: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육복지투자사업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매체에서 나오는 정도만 접해 봤을 뿐.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매체에서 나오는 정도만 접해 봤을 뿐.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김: 행정적으로 너희는 나와함께 공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한다 그니까 몇 시까지 나와라 사실은 그게 맞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과외 하듯이 선생님이지만 때로는 친한 큰 오빠처럼 대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편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성의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각을 한다거나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하지 못한다던가 뭐 이런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하고, 학생 수가 현재 지금 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적다보니까 적은 데에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예 차라리 많다 보면 어떤 스케줄과 커리큘럼을 수업에 대한 스케줄을 짤 때 고르게 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세 명이 다 수학을 잘 하지 못하고 수준이 그 안에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세 명을 동시에 끌고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세 명 밖에 안 되는데도 동시에 끌고 전체적인 수업처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개별지도 하듯이 수업시간에 끊임없는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힘든 말고는 사실은 방과 후 수업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김: 이미 학교가 수업을 하는 곳이고 제가 하는 일이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아야 될 것은 더 이상 없다고. 교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사실 방과 후이기 때문에 어느 교실이든 저희가 쓰고 싶은 교실을 합법적으로 빌려서 쓰면 되거든요. 얘들 공부하겠다는데 보통 뭐 이동하기 편한 곳에 쓰기 마련인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교실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과 매 다를 게 없고, 지원받을 것도 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원받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기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 지금 교육복지투자사업을 예를 들면 사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자기는 그 돈 좀 안 벌고 쉬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은

데. 저도 안 받고 쉬고 싶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선생님들이 그걸 참여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큰 영향을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액수가 좀 더 늘어나면 혹시 모르겠지만.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미 강사료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데, 그 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돈 때문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갑자기 사정이 딱 되지 않는 한 사실 그 돈을 더 벌겠다 라고 그 걸 하려는 생각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선생님들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하고 있는 일로도 그것도 하나의 수업이고 그 수업을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돈은 돈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저랑 영어선생님이랑 한 분뿐인데 둘 다 저희학교에 처음으로 발령받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물론 2년 전에 하셨던 분은 저희학교 학생부장님이셨던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돈 때문에 하신 것 보다는 그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기뻐서 끌고 가신 거거든요. 보면 교사 스스로 내적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외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고,
점수라는 건 결국 승진 같은 거와 관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승진에 관심이 없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학교는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교육복지투자사업이니까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참고로 뭐 이걸 잘했다고 해서 점수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내적동기와 작은 강사료가 동기유발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동기유발의 방법은?)

난감한데. 어차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 학생들의 큰 걸 보는 게 좋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 스스로 내적동기유발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선뜻 합시다. 라고 얘기하기가 그 동기유발 하기가 그 생각해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받는 강사료는?) 시간 강사료 인데, 시간당 1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합니다.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일단 교육복지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학교전체가 긍정적입니다. 이 사업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면에서 경주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주 불국사라든지 첨성대 이런 걸 구경시켜주면서 그런 것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느껴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때론 뮤지컬을 보러 간다던가. 교육복지사업은 사실 뭐 선생님들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일반 선생님들이 일을 만들 때 사실 일이라면 일이고 그까짓 거라면 그까짓 거인데 그게 사실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보면 아이들에게 그런걸 보여주고 자기의 거기에 동참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으시죠. 복지수업을 한다고 하면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는 참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솔직히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육복지 투자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많을 뿐이고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회에 어둡다고 느껴지는 계층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보충학습에 대한 의견들은?)

너무 좋다는 것이죠.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일환이 아닌 보충수업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복지의 긍정적인 것 말고 이 수업에 대해서의 반응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관심?)

좋다. 라는 베이스가 깔려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무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그 효과성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일단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게들 생각할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우 좋죠. 아이들이 일단 집에 가면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공부만 하게 되겠습니까 하다보면 인생얘기도 하게 되고 꿈을 얘기하기도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쉽게 친해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이런 어떤 집에 오빠나 이런 얘기를 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심: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김: 방과 후에 애들을 모으는 건 어떻게 모았냐면, 저희 학교에 교육복지 투자 사업을 실무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저희 학교에 학교장과 계약이 맺어진 복지사가 있는데, 복지사가 복지활동의 하나로 수업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랑 또 친분도 있고 해서 아이들 아무래도 교육복지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혹은 집안에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들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한 학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신청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죠.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귀찮아하기도 하고 어린마음에 철없이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말도 하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특별히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자기를 봐주고 있고, 또 수학이라는 과목이 모르면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학생은 없나?)

그중에 자원을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세 명인데, 처음에 했을 때에는 네 명이었거든요. 제하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만 네 명이었고, 또 다른 선생님이 그 학생들 보다 2년 선배들은 또 다른 선생님이 하셨었어요. 그땐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왜 네 명으로 시작했는가하면, 복지사가 저한테 추천한 게 네 명인데, 일단은 그 네 명이 자의든 타의든 처음에는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오다가 결국에는 그중에 한명은 스스로 마음이 그랬는지 나오지 않고 세 명만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싫어하면, 자의 인거 같아요. 그것은 공부를 하겠다. 그것은 공부를 시켜주고 공부를 도와주는 건데 네가 얼마든지 하겠다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걸 아이들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자기네가 내일 또 우리 할까 매일매일 할까 해도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어떻게 개인차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 하고 있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방학 같은 경우.

심: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신데 그 대상 저소득층이 대부분?
김: 저도 잘 모르지만 저소득층이 기본적으로 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결손 가정이 대상인건 알고 있습니다.

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건 교육복지투자사업 중 극히 일부분의 한해서 딱 하나 그것도 중학교 2학년 그것도 몇 명밖에 안 되는 수업이지만 교육복지투자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복지에 선정될 정도로 부족하진 않지만, 엄마 아버지 다 계시고 먹고 살 수 있지만 문화생활을 못 누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보다 그런 아이들 보다 문화생활의 기회는 더 많이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수업도 그 중에 하나 일환으로 걔네가 가정환경이 어렵고 집에 가면 공부를 봐줄만한 부모님도 없을뿐더러 과외나 학원을 하기는 힘드니까 사실 집에서 공부에 대한 어떤 지도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해야 될 말들을 제가 해주고 사회복지사님이 해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이 학업이라는 면에서 충분이 계층 간에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일단 저는 교육복지 사업을 하면 저한테는 교육복지 투자 사업비로 시간강사비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강사료를 받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그 지원을 받는 것뿐이고. 어떤 보상을 받고 있고 금전적인. 이게 사교육하고 연계되는 문젠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교육복지 투자 사업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교육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교육적 질이나 수업적인 내용면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 대상 자체가 사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서 하지 못하는 아이로 대상을 한다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건 사교육을 자기 돈 들여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돈을 내고 학원 다니는 것처럼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남아서 하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사교육과 비교할 수 있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지

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 것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했을 때 특히 중요한건 그런 거 같습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큰 부류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좀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학원 중에 골라 가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남들도 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 부모님들은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목고를 진학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아이들에게 학업을 스스로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이 굳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교육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오리라 저는 기대하지 않고, 다만 어차피 그런 학생들 말고 그냥 학원을 보내긴 보내야겠고 다른 아이들 다 다니니까 교육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 좀 그렇다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학교의 지원 아래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이 사설교육기관보다는 강사료 등이 있기 때문에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수업을 하면서 수학을 20점 받던 애가 50점 받던 얘가 80점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일부분 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그 학생과 저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없을 때에도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정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아이들의 친구 된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적어도 그 아이들이 해소할 수 있는 통로하나 열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학생부에 있는데, 학교 학생으로서 문제아이들 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나 이런 걸로 사제 간의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정을 쌓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자기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서 담배를 자주 피던 아이들이 그걸 왜 틀린지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그 선생님이 생각해 줬으니까~ 그 선생님을 봐서라도 한번 참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일 방과 후에 나가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는 되게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 안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외를 한다 치면 과외를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서 학교와 또 다른 세계의 사람이지만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의 해소를 해준다는 면에게 크게 괜찮다고 보고. 학생이 학교얘기를 할 때에도 훨씬 이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얘들 비행이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심: 귀 기관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저는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그니까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수학공부를 딴 선생님이랑 시작해서 3학년 끝날 때 까지 한 아이도 있는데 물론 그 강사를 하셨던 그 당시 학생부장 선생님이셨던 수학선생님이 잘 봐주셨겠지만 수학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던 학생이 나중에는 수학을 항상 잘하는 학생으로 몇 년 지나니까 변했더군요. 그런 것들 보면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그런 게 생기다보면 훨씬 낫지 않을까. 중학교 때 성적향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것이고 고등학교로 가는 발판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크지 않은 가 생각해서 저도 그런 측면을 봤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자신감 좀 심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안 해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덜 한 것 보다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꿈도 자기가 나아갈 길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만일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 상당히 난감한 질문인데, 지역 간의 연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본 것도 별로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심: 일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이 이상만 높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 방과 후 학교라는 것과 복지사업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복지사업이 세 명밖에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거와 무관하게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을 했다. 수익자 부담이든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방과 후에 학원을 차렸다. 그런 말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막말로, 정말 막말인데요. 학원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많이 가서 잘 되는 학원이 있지만, 명강사가 있기에 잘 되는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만약에 사실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지식적인 측면을 잘 가르치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모든 수준의 똑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보면 평균적인 지식만을 아이들에게 평균적이고 아주 쉽게 가르쳐야 하는데 만약에 좀 잘하는 아이들이나 학습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만 데리고 할 때에는 사실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 성적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한 분이 냈다. 근데 그분이 학원 강사처럼 유명한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면 그분이 여는 강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몰리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꼭 명강사가 있지 않더라도 좋은 학생이 많으면 학원이 잘 되듯이. 그 방과 후 학교를 함을 써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우수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좋은 학교에 많이 진학 한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가 유명해지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외고나 과학고 같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몇 명이 갔는가를 가지고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막말로 그것을 목적에 두었다면 그런 아이들 데리고 방과 후 학교를 한다면 눈에 보이게 성공한다고 말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한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굳이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들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라면 만약에 방과 후 활동을 한다면 그런 쪽 아이들은 어쨌든 어디가도 자기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를 할 얘들이니까 이왕이면 남들이 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중상층 혹은 그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과 후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에 더 실질적이지 않나. 어쨌든 잘하고 집안에서 지원을 해주기 원하는 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를 한다고 해서 다른 걸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심: 방과 후 학교가 결국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육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김: 그런 기능까지는 될 수 없죠. 그냥 조언자 정도. 보육까진 제가 어떻게...

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학을 8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혹은 60점 맞았다 이것이 사실 절대적인 평가라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아무나 말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방과 후 학교에 대해 어떻게 효과성을 검증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효과성 검증이라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평가를 얻을 것인지. 그게 힘들 텐데 평가가. 가장 힘든 게 현직교사로서 가장 힘든 게 사실 방과 후 학교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필요 없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 했지만, 다만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 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의 힘이 죽죽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지도를 했을 때 정말 성실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결국은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선생님에게 선생님들끼리는 아무도 지탄을 못하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지탄할 때는 다만 과정에 있어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선생님들끼리 지탄할 수 있겠지만, 성실히 하는 것이 보이고 상호간의 교육이고 그런데 수요자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분발하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물론 아이들의 잠재력을 다 키워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교육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텐데 정말 어떤 해석이나 평가가 있을 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방과 후 학교도 저희가 볼 때에는 사실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가가 결국엔 그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인데 사람에게 어떤 힘을 어떻게 주는지 또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거 같아서. 사실 대단히 힘드실 것 같고 연구하시기에, 다만 그것들을 하실 때에 일반 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득과 실을 따지실 때 어떻게 하면 일반적이고 또 특수한 경우만 너무 해당

하지 않게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연구결과 보면 TV에서도 나왔지만 강남 어느 한 학교의 대한 얘기를 마치 전 학교에 대한 얘기처럼 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면 선생님들이 힘이 빠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 상: 손○○ (남), 1960년 생, 구로구 구로3동
면담자: 양계민(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 [교사 5]

양: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방과 후 학교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수익자와 국가지원이 각각 얼마입니까?
손: 국가 지원 20,000,000원 : 2006년 3월~2007년 2월(1년 시범학교), 학생들의 수강료 지원은 할 수 없고,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합니다.
구로구청지원 20,000,000원 : 학생들의 수강료만 지원하기로 협약
-1기 수강료 지원 약 4,000,000원
-2기 수강료 지원 약 6,500,000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미납금, 강사비보전료(원어민 시간당35,000원, 일반 25,000원), 대학생 멘토, 멘티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양: 운영을 학교장이 직영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과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 이 문제는 이미 위탁을 한 2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 중 하나인 사교육비 절감에 위배되죠.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회화 20시간 기준 위탁 교 10만원, 본교 5만원입니다. 지금도 업무량과 양질의 강사 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나 헌신적인 교사들만 있다면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확신합니다.

양: 방과 후 학교가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손: 사실 비교 할 시간과 여건이 안 되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청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등에 거기서 잘한다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

탁해 보았으나 체계화가 안 되고 행정구청 등도 직접, 간접으로 위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프로그램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합니다.

양: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손: 일반 업무와 겸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본교의 학교 여건에서는 강사지원비가 많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의 학생들의 안전사고 시 대책이 없고, 수납업무까지 교사들이 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양: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손: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명감 있는 전담교사 1명, 사무보조원 1명 그리고 일반교사들의 관심만 있다면 좋겠어요.

양: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 일부 단체의 반대로 일부 단체 가입 교사가 많은 우리 학교는 정말로 애가타고 속이 쓰립니다.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허탈한 게, 맥 빠지는 게 없는데 말이죠.

양: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동기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손: 인센티브 때문에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연계학교 방과 후 학교이기 때문에 약 20여명의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승진에 별 뜻이 없거나 경력이 아직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필요한 점수에 따라 짧게는 3년 혹은 9년 동안 시범학교를 해야 소정의 점수가 차게 되고 방과 후 학교를 6개월여 동안 하다 보니 점수를 위해서는 이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시범 프로그램처럼 한 두 달만 고생하면 되리라 생각하지만..우리 학교는 이 일을 기피하기에 내부적으로 인원이 20여명 다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고-다른 학교의 점수 필요한 교사들이 들으면 군침 도는 일이겠지만-실제로 진행은 몇 사람만 뛰면 되는 일이라, 정말 동분서주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점수는 똑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점수를 주기에 수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날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심지어 이렇게 힘 드는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연구 논문 써서 점수 받는 게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도 합니다.

양: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만일 싫어한다면 어떤 면을 싫어합니까?

손: 초등학생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중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가 싫은 게 아니고 공부가 싫습니다. 우리네 여건은 방학 때는 다니던 학원도 끊고 쉬어야 한다고 악을 쓰는데요.

양: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학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손: 저소득층 아이들 끌어 들이는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많은 신경을 쓰셨지요. 190명의 대상자 중 처음엔 20명도 지원 안했으니까요. 저소득층일수록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바우처 제도의 일환으로 무료 쿠폰을 만들어 봉투에 넣어서 개별 상담을 하고, 학부모 설득하고, 그래서 60여명. 수강하는데도 신경 쓰고 혹시 늦으면 눈치보고. 교사의 노력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절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저소득층=성적 하위권 이 공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에만 신경 쓰면 방과 후 학교는 무너집니다.

양: 방과 후 학교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계층 간 격차 해소까지는 아직 분석요인이 성립 안 되기에 다만 예측만 합니다. 실력의 격차보다 정신적 격차의 해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짜인 대학생 멘토링 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양: 어떤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를 끝마친 후 다시 학원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방과 후 학교가 실제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까?
손: 다시 한 번 우리 학교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두 군데 다 가면 머리에 김이 날 것입니다. 실제로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고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학교는 학원처럼 빡세게 야단치고 강제로 시키지 않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을 끊고 방고 후 학교로 오고 사교육비 감소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일부 학부모들은 그 남은 돈으로 애들 혹사시킴- 예: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등을 병행 한다고 함)
양: 방과 후 학교가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측면에서는 어떠한지요?
손: 처음엔 한 학교에서 초등 3개 학교 중등 2개교가 우려했으나 아직까지 한건도 금품갈취, 폭행 등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만일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손: 정말로 많은 의사 타진 협의를 했지만 실무자들이 만나면 결국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 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학교 밖에 없습니다. 일부 프로그램도 시행해 보았지만 가르치는 전문가(선생님)들도 책임감 없이는 힘든데, 행정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한다. 결국은 위탁하게 되면 외부 영리기관이 들어 올 수밖에 없어요.

양: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실제 운영하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 학교마다 지역에 따라 정말 여건이 다릅니다. 마치 인간의 개성처럼 마치 강철판 위에 강철 펜으로 표를 그려 놓고 거기에 원하는 글자만 넣으라고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요

대 상: 한○○ (여), 1968년 생, 도봉구 쌍문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교사 6]

심: 선생님이 계시는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논술 반, 풍물 반, 중국어 반, 드럼 등 총5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특기적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보충학습에 관련된 활동은 없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의 종류는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학년 초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참가하는 학생은 중학교 1,2,3학년 다 골고루 있습니다. 각각 1,2,3학년 전부 해서 저희 학교는 총 90명(?), 100명 정도 있습니다. 조금은 저조한 편이지요. 우리학교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요.
심: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예산은 300만 원정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전부 강사료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강료가 걷어지는 것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한 학기에 2만5천 원 정도예요.
한 번 하는데 2만5천 원이에요. 다른 학교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에 따라서 비싸게 받아야 할 강좌도 있어요.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300만원인 것 같아요. 그게 곧 정부 지원 이예요.

심: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교사도 있고요, 외부 강사도 있습니다. 비율은 50:50입니다.
(현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솔직히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특기적성을 계속해서 한다면, 선생님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한다면, 그거는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맡고 있지는 않아요. 관리만 하고 있는데,(방학중학교 특활 부 방과 후 교실 담당교사) 저희 학교 내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다고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학교가 막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니깐 굉장히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한: 교에서 하는 특기적성이요? 일단 저희처럼 열악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금이 있으니깐, 좋을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기가 조금 열악한 지역이에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한: 단점은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려는 국·영·수나 이런 거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드럼이라 던지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드니깐 학교에서 해 주는 건데, 국·영·수나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럴 아이들이 교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아이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안 하고,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여력이 없다 하는 아이들이 저렴하고 하니깐 하는 거 같아요. 꼭 아주 효율적으로 원했던 이상적인 방향으로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국어과 논술, 논술하고 논술은 지금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고, 아이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영어나 수학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될 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한: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신청하는 학생들이 제 시간에 본인들이 신청한 거니깐, 빨리 빨리 오고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뭐 하다가 빠지기도 하고 또 가끔은 입금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직접 전화도 해야 하고, 막 (학원처럼)저희가 집에다 전화하고 집에다 돈, 수금 부탁한다고 말해야 하고.

또 시간이, 학교 업무가 학교 아이들 일과가 끝나고 해야 하니깐, 예를 들어 학교에 대의원회의가 있다던가 하면, 자꾸자꾸 빼줘야 하는 상황, 학교의 행사와 겹친다던가 하는 부분요.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한: 행정직이 따로 필요할 거 같아요. 특히 그 돈, 수금을 하고 그걸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그게 저는 정말 학교 교사로서는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고요. 학원 운영하듯이 또 학급마다 그 애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걸 또 애를

잡고 왜 늦었냐고 붙잡고 얘기하고, 또 없으면 찾아다니고, 핸드폰 하고요, 정말 저는 총 그런 것을 관리해주는 담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 인력도 오시는 강좌를 더 정말 훌륭한 인력이 밖에서 온다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 방과 후 반이 맡겨졌는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 실력이 부족하면, 보충으로 연수를 받고 하는 기회는 있나요?)

예, 여름방학 때 연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지요. 그냥 지금은 하나의 담당 업무니까 한다는 의무감.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거고, 가끔 우수강사추천이라고 정평이 나면, 교육청에서 아주 우수한 강사로 추천받아 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작은 경우고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 그것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좀 그렇다고 다 싫다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거 바람직하다, 그거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 같아요.

(부정적인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본질적인 본업에, 본질적인 것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 된다고 할 수 있고.

전문 인력이 온다 해도 다 해주고, 관리도 다 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해결되지 않을 거 같아요.)

심: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수강하면 정말 좋아해요, 워낙에 지원하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시키거나 하지 않아서 눈에 띄게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는 거 같아요.

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한: 예,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조금은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의지가 좀 있는 애들.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예,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근데 방과 후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정말 공부할 아이들도 남아서 하고, 안 되는 아이들도 드럼이나 예체능이나 하고, 그런 게 정말 괜찮은 건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다 빠지고, 힘들고 이런 아이들이 오는 정말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어딜 간다고 치면, 이것으로 인해 거기를 못 가게 되는 거니깐, 뭐 효과가 조금 있겠지요. 부모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보호해 주는 효과가 뭐 조금은 있는 거 같아요.

심: 귀 기관의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한다면 우선 안심 하시는 거 같으니까요.

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이 이상만 높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 저도 사실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지, 이유는 앞에서 말 했다 시피, 시간도 어쨌거나 모든 일과가 끝난 후 3시 반부터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이들이 사교육, 따로 받는 것처럼 정말 학교에서 하는 게 수준에 딱 맞게끔 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 방과 후 학교가 결국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육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보육은 부모가 올 때까지 보호해주는 정도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큰 거 같아요.

대 상: 박○○ (여), 1979년 생, 광진구 중곡동 거주.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교사 7]

심: 선생님이 계시는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 주로 컴퓨터 수업, 한글 2002, 포토샵,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ITQ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윈에듀케이션이라고 영어나 이런 학교 방과 후 활동이나 아니면 학원사업 같은 거 하는 곳이요.

심: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박: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여비율은 거의 균등하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학교에서는 2,3,4학년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훨씬 가르치기는 수월해요. 남자애들은 워낙 말썽을 많이 부리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자아이들이 좀 아직은 초등학생까지는 차분하고 그래서 수업태도나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자애들이 훨씬 더 수업태도가 좋기는 해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심: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 아이들이 수강료를 내면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10%로 운영비로 전기세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회사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로 돈을 드리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 컴퓨터실을 꾸민다던가 아니면, 고치고 나서 내역서 라던가 사용 비 등 컴퓨터 고쳤을 때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고치거나 하는 것이나 이런 게 가격이 많이 들잖아요. 컴퓨터가 많으니까 그게 제일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대부분 컴퓨터는 회사에서 고쳐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린터나 스캐너, 이런 게 완전히 고장 나면 사실 회사에서 고쳐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청구를 하고요.
(보수나 급여는 적절한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박: 운영은 이제 이 컴퓨터를 들어보 낸 업체에서 하는 거죠. 거의 업체에서 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걸 거기서 다 대니까.

(그럼 운영주체가 업체, 기업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게 나은지?)

학교에서 봤을 때에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컴퓨터는 것은 가장 최상의 것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학교에서 교육부나 학교자체에서 몇 억이 드는데 예산을 드릴만한 능력이 될까 싶은 거죠. 한 번에 컴퓨터를 40대, 41대, 42대 정도 들어가고 프린터 값도 그만큼 들어가고, 스캐너도 몇 대 들어가고 에어컨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학교에서 대기에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더 효율적 인거 같아요. 근데 우선 조금 더 학교에서 약간의 개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적인 면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학교에서 약간 개입을 한다던가. 그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수업 그 차시 같은 것을 걷는다던지 확인을 한번 해 본다던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한두 번은 둘러보기는 하지만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아요. 좀 잘 할 거라고 믿고 맡기겠지만 제가 보기에 교육이 조금 더 좋아지고 질이 높아지려면 학교에서 그런 좀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박: 그런 쪽은 잘 몰라요.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박: 회사에서 아무래도 하다가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니까 인원을 아무래도 많이 받으라고 조금 그런 압박 같은 것이 많거든요. 뭐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자유롭겠지만 사실 인간인지라 회사에서 인원이 너무 적다 선생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로 다가 오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학교 직원이 아니니까

학교에 컴퓨터실을 들어와 있고 나는 학교직원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편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박: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학교가 아니라서 컴퓨터 배우는 학생이 많은 학교가 아니라서 현재 그렇게 2명 이외에 더 뭐 인력이 필요하다 던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교육하는 부분이나 교실 내에서 교실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학교에 낸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럽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직접 받으니까. 받아서 그날 행정실에 받은 건 바로 넘겨줘야 해요. 부담스럽죠. 제가 돈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인 면에서 제가 교육함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모집기간 동안에는. 돈 받고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관리를 한다거나 회사에서 따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제가 보기엔 학교에서 직접 관리 하는 게. 대부분 스쿨뱅킹을 하거든요 저희학교 빼고는 거의. (스쿨 뱅킹이요?) 그니까 학교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현재는 다른 학교는 대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나 몇몇 학교 빼고는 대부분 스쿨 뱅킹 이예요. 그게 더 훨씬 선생님이 아이들 관리하는 것이 수월하겠죠.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는 즉각 잘 되는 편인건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청구해서 올리면 한 달 뒤에 처리해서 주세요. 이정도면 바로 즉각 처리되는 편이라고 봐요 저는.

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박: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물론 열심히는 하죠. 하라는 대로 우선은 내가 속한 회사고 거시서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면 우선 내가 교육적인 면에서 질이 높고 또 아이들이 안 오거나 이럴 때 출석관리 같은 것을 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인원이 오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내가 잘 가르치고 내 수업이 재미있으면 오게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특기적성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안하는 건가요?)

그니까 방과 후 수업 말씀하시는 거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바이올린이나 그런 거 저번 학기도 그렇고 이번학기도 그렇고 대부분은 뭐 선생님들이 안하세요.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되요. 강사를 초빙해요. 영어강사 초빙하고 바이올린 강사를 초빙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래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본 방과 후 교사는 학교선생님은 한명도 없었어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좋은 편이예요. 왜냐면, 저희가 공개수업도 가끔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선생님들 시험보시거나 하는 일을 많이 도와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기적성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태도에 따라서. 근데 그게 관계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희 특기적성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도와드리고, 선생님들 수업하시는데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빨리빨리 고쳐 드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못하시고 아프고 그럴 때 제가 대신 수업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무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 우리 특기적성을 보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좋은 분들은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계중 선생님들은 가르쳐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잣대로 보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한데 예전 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초등학교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실이잖아요 있는 데가. 따로 강사 실이 없고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관리 하고 아이들 오전에 수업할 때 뒤에서 좀 컴퓨터 고장 난 것 있으면 도와주고 이럴 때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면서 나가있으라고 내가 수업하는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뭘 가르쳐 달라든가 뭘 부탁을 자주 하죠. 자기 업무를 자꾸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도 상당히 할 일이 저도 많은데 일이 방해가 되죠. 그거 해주느라고. 다른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논문 같은 거 쳐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학교에서는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컴퓨터실을 자기가 내 줬다고 자기가 컴퓨터실을 할 수 있게

이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니까 조금 시키려는 경향이 예전 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조금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서먹하죠.

(방과 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업무도 바쁘죠. 선생님들도. 이후엔 거의 자기 업무하거든요. 거의 무관심인데 한 30%는 신뢰하고 나머지 70%는 무관심인 것 같아요.

심: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좋아합니까?

박: 대부분 재미있어합니다. 특별히 가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웬만한 아이들은 다 재미있다고, 또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90%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업 받는 중에는.

우선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이유이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만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급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판을 뽑아서 공작을 만들거나 3개월 코스 끝나면 그때 만든 작품들을 크게 봉투에 담아서 준다던가 하면 어머니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컴퓨터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싫어한다면 개인적인 아이들이 왜 방학 때는 왜 늦잠자고 싶은데 일찍 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자격증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격증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부담이 되죠. 어린나이에.

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박: 저희 동네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보다는 조금은 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하고, 많이 형편이 힘든 아이들은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아버님의 수입이 일정치 않고 이러니까 중간에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면 아이가 하고 싶은데도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원 같은 경우 일반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 한 달에 십 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만오천원에서 삼 만원이면 웬만한 활동은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가난한 아이들도 아주 힘든 아이들 아니면 배우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 3개월 단위로 9만원씩 받는

데 분납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감은 되지만 컴퓨터 수업을 하는 속도가 약간은 느려지기는 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만 수업을 하니까 일반 학원은 매일 수업을 하니까 그니까 교육이 좀 짧아지죠.
(수강료는 적절합니까?)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고요. 초등학생들이 또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면 아이들이 따라오기 힘드니까 근데 가격이 약간 비싸다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이만오천원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학교에서는 이만 오천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삼 만 원 이거든요.

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아무래도 아이들이 저희를 학교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는 길에 예를 들어 학교 선배들이 조금 못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학교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마인드대로 가르쳐야 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둘이 불러다가 타이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게 오전에 수업할 때에는 각반끼리만 수업을 하지만 저희는 일학년부터 육학년까지 모아놓아서 수업을 하잖아요. 어떤 반은 2,3,4학년 다 있는 반도 있고, 그런 면에서 2학년하고 4학년하고도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오빠언니하면서 잘 지내니까 전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심: 본 프로그램이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컴퓨터 교육이 변할지 컴퓨터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지에 따라 다른데 현재 지금 배우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가서도 중학교 교과과목 있잖아요. 컴퓨터 과목. 거기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들 학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중학교 가서 사실 국어 영어 수학공부해야지 컴퓨터 공부할 수 없으니까 5,6학년 때 자격증 따놓고 공부해 놓은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또 중학교 가신 어머니들이 그때 시킬걸 그랬다고,

지금 컴퓨터 시키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전화를 또 많이 하세요.

심: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만일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박: 장애 요소까지는 모르겠고. 아무래도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상 잘 참여가 당연히 잘 안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역사람들이 우리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면 예를 들어 방과 후 어머니 교실이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 볼 의양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홍보 효과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으면 아이를 통해서 통신문을 받아보거나 그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게 되고 하지만 그 지역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만한 홍보적인 효과가 클만한 무슨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플랜카드 붙여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온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맞벌이를 많이 하시니까 어머님 아버님 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뭘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 학생들 어머님들이나 오시지 나머지 분들은 당연히 안 오시거든요.

심: 일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이 이상만 높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수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원에서도 가르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시고 하니까 교육방식은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랑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방식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할 과목에 대한 공부만 가르치지 학교에서 얘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려는 인간성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비록 약간에 컴퓨터 수업 같은 경우는 진도가 느릴 수 있다고. 왜냐면, 학원 같은 경우는 한 10명이 수업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 수업처럼 삼사십 명 수업을 하거든요. 그니까 진도가 삼사십 명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의 인성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수업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과 효과성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가요?)

느려지는 게 있긴 있지만, 물론 요즘 어머님들은 빨리 빨리 가르쳐 달라고, 빨리 빨리 진도 나가자 하지만, 빨리 빨리 한다고 얘들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천천히 진도 나가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옆 친구랑 같이 배우면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진도 좀 느리게 나가는 것 그거 말고는 굳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나 영어 같은 것 빼고는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 플루트로 수업을 했어요. 얘들이 점점 수업을 안 듣게 되거나 접수하는 인원이 적으면 강사비나 여러 가지나 생각을 했을 때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좀 느려지는 것 빼고는 사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 방과 후 학교가 결국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육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 어느 정도는. 한 50%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컴퓨터실 가서 엄마가 5시에 집에 오니까 그때까지만 있다와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전화를 하세요. 5시까지만 아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아이를 5시정도 까지는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 아이가 자격증 반이면 자격증 공부를 하라고 과제를 계속 내주고, 타자연습이 부족한 아이면 타자 연습을 좀 시킨다던가.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매일 항상 그 아이가 그렇게 있는 다면 저희도 조금 방안을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항상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은 없고, 간혹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경우. 컴퓨터뿐만 아니고, 영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보육의 기능 이상의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시설적인 면에서도 보육이란 기능이란 게 매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장난감도 갖고 놀고, 뛰어놀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빼고는 사실 방과 후에 개방을 잘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까지는. 근데 몇 시까지만 봐달라고 이런 건 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을 맞추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가 대부분 4

시40분이면 문을 닫거든요. 학교에서도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고. 왜냐하면 도난 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힘들잖아요. 학교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게 도난당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문을 별로 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5시 이후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인터뷰 프로토콜 _ 참가학생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

"지금 하는 인터뷰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학생 여러분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성별	남자 ( ) 여자 ( )
2-3. 이름	
2-4. 생년	_____년도
2-5. 학교명/학년	

3.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4.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같이 사는지 여부 등)

5.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프로그램 내용)

7.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지 중간에 term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8.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스스로 동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9. 재미있습니까?

10.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어떤 점이 재미있습니까? 또는 좋습니까?

11.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어떤 점이 재미없습니까? 또는 싫습니까? - 싫은 점에 대해-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 본인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성적 향상, 정서함양, 기타*)

13.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14. 만일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5. 시설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16.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시간 등*)

17.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역의 공부방 등 (*어떤 곳이라고 들었는지 이용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본다*)

18.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19. 주말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20.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21. 방과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대 상: 주○○ (남), 1994년 생, 화정동 거주, 초등학교 6학년.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생 7]

고: 가족은 누구누구 있어요?
주: 엄마하고 나요.

고: 엄마는 몇 시에 퇴근하세요?
주: 새벽 4시요.

고: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서 하는 과목은 어떤 거예요?
주: 수영, 수학하고 미술, 만들기 그다음 영어, 과학, 문화탐방, 생체활동, 자기주도 학습하고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은 뭐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꺼내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율학습이죠.
(그럼 그때 무슨 공부해요?) 그때는 보통 저는 학습지 같은걸 잘 안 가져와가지고요. 애들한테 연필 같은 거 빌려서 그림이나 그려요.

고: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주: 1년은 아니고 반 정도 6학년 처음부터 다녔죠. 3월부터.**(그러면 6개월 다녔구나. 중간에 쉰 적 있어요)** 중간에 쉰 적 없어요.

고: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주: 아니요. 강제로 끌려서 온 거예요.

고: 지금은 어때요?
주: 지금은 재미있어요. **(뭐가?)** 친구들이랑 잘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잘 놀고.

고: 방과 후 아카데미 다닐 때 뭐가 좋아요? 어떤 점이?
주: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수영이죠. **(수영? 잘해요?)** 뭐 별로 잘하진 못하지만 재밌어요.

고: 재미없는 과목은 있어요?
주: 네. 영어요. 너무 어렵고요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 여기 다니면서 좋은 거. 자기한테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주: 음 그냥 활기차졌죠.

고: 그럼 여기 계속 다니고 싶어요?
주: 그건 그렇죠. 그런데 어쩔 땐 딴 데 갈수도 있으니까 **(딴 데? 어디?)** 딴 데 갈수도 있으니까 어쩔 때, 만약에 대비해서요.

고: 여기 시설은 어떤 것 같아요?
주: 시설은 좋고, 시설이 좋아서 아이스 모스크바도 보고

고: 그러면 새로 뭐 추가되는 장소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거 별로 없어요. 만화책이 그냥 보기 좋으니까 필요하겠죠.

고: 여기 말고 아카데미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주: 전혀 안 들어봤죠.

고: (공부방) 가본적은 없죠?
주: 있어요. **(어때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여기보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여기보다 공부방이 더 재미있다고?)** 어떨 때는 **(어떤 부분이?)** 뭐. 컴퓨터 하고 놀 때요. **(그러면 공부방 다시 갈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 이미 끊었고 흥미도 없어졌는데 뭐 하러 또 다시 가요. 컴퓨터 없어 졌어요.

고: 주말에는 무얼 하나요?
주: 토요일에는 문화탐방. **(문화탐방 어때요?)** 백범 김구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요. 역사에 대해선 아는데 김구만 알면 뭐해요. **(왜?)** 김구만 알면 뭐해요 딴사람들도 다 알아야지. 시험문제에 김구만 알고 1점 맞아요? **(성적이 중요한가보네?)** 네

고: 방과 후 아카데미 다니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주: 모르겠어요. 다예요. **(왜 힘든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공부시켜서?)** 네. **(방과 후에 뭐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학교 끝나면)** 놀면서 지내고 싶어요. 게임하면서 TV보기, 낮잠. 밖에선 놀기도 싫어요.

대 상: 김○○ (남), 1995년 생, 증포동 거주, 초등학교 5학년.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생 8]

고: 가족은 누구누구 있어요?
김: 누나, 엄마, 아빠요.

고: 엄마는 몇 시에 퇴근하세요?
김: 새벽 3시요.

고: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세요? 여기서 하는 과목.
김: 수학을 집중적으로 하구요. 다른 건 특별지도 같은거 **(특별지도활동은 뭐예요?)** 탁구, 오카리나, 맑은 흙 놀이.

고: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김: 5개월 됐어요. **(중간에 쉰 적 있어요?)** 예.

고: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김: 처음엔 엄마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지금은요?) 오고 싶어요.

고: 재밌어요?
김: 네.

고: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김: 저는 미술. **(미술 뭐하는데?)** 수채화 그리던가요, 그림보고 따라 그리는 거.

고: 재미없는 건 뭐예요?
김: 수화요. 재미없어요. **(그럼 그거 말고 딴 거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딴거 했으면 좋겠어요. 오카리나나 맑은 음 소리 같은 거.

고: 여기 다니면서 좋은 거. 자기한테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김: 다른데 선 못 배운 걸 배울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될 수 있고.

고: 그럼 여기 계속 다니고 싶어요?
김: 예.

고: 여기 시설은 어떤 것 같아요?
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었는데요, 다 없대요.

고: 그러면 새로 뭐 추가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 앞에 공원이요.

고: 여기 말고 다른 곳 들어본 적 있어요?
김: 아니요.

고: 주말에는 무엇을 해요?
김: 토요일 날. 어디 현장학습가거나 어느 때는 2박 3일 어디 갔다 와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 다니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김: 수화요. **(수화 말고 또 힘든 거)** 없어요.

고: 방과 후에 학교 끝나면 뭐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김: 컴퓨터 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축구해요.

대 상: 길○○ (남), 1996년 생, 강남구 일원동 거주, 초등학교 5학년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생 9]

고: 가족은 어떻게 되요?
길: 네 명이요, 엄마, 아빠, 저, 동생(여동생)이요.

고: 부모님들은 직장 나가세요?
길: 네 **(몇 시쯤 들어오세요?)** 바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바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엄마가 있고, 어쩔 때는 엄마가 나가실 때도 있고, 아빠가 나가실 때도 있고 복잡해요
(시간대가 다 달라요?) 네 **(그럼 저녁때쯤 들어오세요?)**세단위로 나눠가지고, 주간, 야간, 비번휴무 이렇게 나뉘어요. **(그럼, 그때그때 저녁때 일 나가실 때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저녁때는 보통 혼자 많이 있나요?)** 아니. 동생이랑

고: 끝나고 집에 가면 몇 시쯤이에요?
길: 방학 때는 오늘이 5시30쯤 도착하구요. 원래는 7시 반쯤. **(피아노 끝나고 여기 와서는 몇 시쯤?)**
보통 때 집에 갔다가 옷 갈아입고 바로 와도, 오면 3시 50분, 40분 정도. **(7시 반 끝나고 그때 가면 부모님 계세요?)** 네 근데, 계실 때가 있고 한번씩. **(안 계실 때는 언제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실 때는 다음날 9시 반쯤. **(부모님 두 분 다 나가실 때 있으세요? 밤에?)** 네 **(그럼 동생이랑 둘이 밤에 있겠네 안 무서워요?)** 어쩔 때 엄마가 와요. 아니 면은 베이비시터선생님 부르고요. 수서역가서 잘 때도 있어요. **(수서역이요? 엄마 그쪽에서 일하세요?)** 네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데 옆에서?)** 네 **(동생도 여기 다녀요?)** 네 다녀요. 여기. 발레. 제 동생은 발레만 하구요. 1학년이에요.

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길: 국악이랑, 중국어랑, 교과 수학이랑, 요가.

고: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뭐 하고 싶다 해서 한 거예요?
길: 네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고: 재밌어요?
길: 네 **(얼마나 재밌어요?)** 몰라요

고: 뭐가 재밌어요?
길: 국악이랑, 중국어랑, 요가요.

고: 재미없는 건 없어요? 싫은 거?
길: 네 있어요. **(뭐 있어요?)** 수학 **(어려워요? 왜 싫어요?)** 많이 빠지니까 **(많이 빠져요?)** 네 많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잘 못 하는 거니까 마음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거의 매일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본인이 잘 해야 한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 이거 하면서 어떤 점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길: 하면서 다재다능해졌어요. **(성적은요?)** 성적이 요것 때문에 좀 많이 올

랐어요. 반에서 한 10등 안에 원래 반에서 반 정도 했다가, 지금 10등 안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친해져서 도움이 된 거 있어요?)** 안 친한 애들도 있어요. 거의 친한 애들이 다 남자에요.

고: 그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계속 할 거 같아요?
길: 네 **(추가해서 더 하고 싶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피아노랑 야외 활동이요. **(야외활동 어떤 거요?)** 운동이요. **(체육 같은 거 좋아해요?)** 네 체육은 수영대신 요가하고 있어요.

고: 시 설면에서는 어때요 여기?
길: 좋죠. 깨끗해졌어요. **(전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합쳐져 있었죠. 프로그램9랑, 10이랑 합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됐어요. **(9는 뭐고, 10은 뭐에요?)** 9는 교과 수학이었고, 10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참된 나무 한그루(참 그루)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아니오. 지금도 있어요. 과학실에서 **(지금은 그럼 분리가 됐다?)** 네

고: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없어요?
길: 시간이 빡빡해요 **(시간이 빡빡해요? 그럼, 어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 시간. **(언제요?)**
개별지도 때요.

고: 그러면, **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 알고 있어요?
길: 몰라요 저것만 많이 네 달 정도 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네요?) 네

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공부방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들어봤어요?
길: 모르겠어요. **(학원은?)** 학원은 지금도 다녀요. 피아노.

고: 주말에도 여기 나와요?
길: 주말에는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원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어쩔 때만 나와요 **(와서 뭐해요?)**
모르겠어요. 거의 빠지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리더십이랑 그런 거예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힘든 점은?
길: 시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시간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보통 때는 학교 끝나고, 피아노 갔다가 바로 오면 그때가 차타고 와도, 시간이 한 7시 끝나고 나서부터 또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피아노학원 매일 가요?) 매일 가요. 방학 때는 품성개발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못가요.
(피아노 학원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고: 방과 후에 이거 말고 어떤 일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길: 아직은 없어요.

대 상: 류○○ (여), 1992년 생, 금천구 시흥4동 거주, 중학교 2학년.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생 10]

고: 가족은 누가 있어요?
류: 엄마, 아빠. 언니, 나, 남동생

고: 부모님은 몇 시에 집에 들어오시나요?
류: 엄마는 9시에 아빠는 10시 넘어서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류: 저는 재즈댄스랑 리본공예요. (그것만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공부하지 않나요?) 예. 그것도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재즈댄스와 리본공예는 선택해서 해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필수로 기본 수업을 듣고, 재즈댄스랑 리본공예는 그 이후에 해요.

고: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류: 작년 11월부터 했어요.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계속했어요?) 네. 계속 나왔어요.

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류: 제가 오고 싶어서 했어요.

고: 재미있어요?
류: 네.

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어떤 점이 재미있어요?
류: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요, 또 학교공부도 더 배울 수 있고요, 모르는 부분도 알 수 있어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여기는 같은 학교친구들 말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겠어요?)** 네. **(여기서 보충수업 해주는 것들은 학교랑 비교해서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어떤 점이 재미없거나 싫어요?
류: 재미없는 것은 없어요. (영어, 수학 과목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네. 그냥 다 할 만해요

고: 본인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류: 학교 수업 중에 잘 알 수 없거나 모르는 것을 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재즈 댄스나 리본공예 같은 전문선택을 할 수 있으니깐 좋아요

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습니까?
류: 네.

고: 시설은 어떤 거 같아요?
류: 좋은 것 같아요.

고: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류: 여기 있는 것들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충분히 만족하나요?) 네

고: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어요?
류: 아니요

고: 주말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류: 주말에는 요리를 만들거나, 캠코더 가지고 동물원도 놀러가고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공부를 더하거나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거의 다 놀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에요?
류: 여기 언덕 올라올 때 힘들어요. 여기 셔틀버스를 타지 못하면 언덕을 직접 올라와야 하거든요

고: 방과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어요?
류: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대 상: 문○○ (여), 1994년 생, 송파구 오금동 거주, 중학교 1학년.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생 11]

고: 가족은 누가 있어요?
문: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나 이렇게요.

고: 어머님은 보통 몇 시에 귀가하세요?
문: 6시 반 정도에 귀가하세요.

고: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문: 공부, 숙제 같은 것도 하구요. 예절교육, 컴퓨터, 공예 같은 것도 하구요. **(공예는 도자기 이런 거요?)** 도자기 같은 것도 하구요. 한지 공예 같은 그런 것도 하구요. **(다른 거는?)**체육활동하고 토요일 날은 야외활동.

고: 방과 후 아카데미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문: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쭉 한 번도 안 쉬고?) 예

고: 스스로 온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문: 네

고: 재밌어요?
문: 네 재밌어요.

고: 어떤 게 재밌어요?
문: 공예활동 같은 거. 체육이나. 야외활동. **(어디가요? 보통 야외활동 가면?)** 농촌토성, 박물관 같은 쪽으로 많이 가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 다니면서 재미없다거나 싫은 점이 있으면?
문: 딱히 싫은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거의 다 좋아하는 거라서

고: 그럼 방과 후 아카데미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문: 성적이 올라요.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아요?)** 여기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저희 동에서는 같이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마천동 지역이라서, 그래서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서 좋아요.

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속 참여할 계획인가요?
문: 예, 내년까지예요

고: 여기 시설은 어때요? 건물이나, 기구 같은 거라던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요.
문: 좋아요. 다른 학원들 보면 별로 이렇게 꾸며진 게 별로 없잖아요. 꾸며진 것도 좋고요. 저렇게 책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좋고요.

고: 뭐 또 있었으면 하는 것은?
문: 거의 다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그러니까. **(소설책은 요즘 것들도 있어요?)** 인터넷 소설 같은 것도 있고요. 만화책도.**(수시로 업데이트 되요?)** 네. 새로 뭐 또 해준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고: 그럼 특별히 장소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문: 예. 강당 거기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하고 다 있어요. 옆에 열람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고: 본인이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청소년 공부방이라던가.
문: 청소년 공부방? 그런 거는 따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 알지는 못해요.

고: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문: 2주하고 4주 토요일 날에는, 야외활동 하구요. 1주하고 3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시설 내에서 하는 요가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택견도 하구요. **(실제로 하세요?)** 네, 해요. **(요가, 택견 둘 다?)**
네. **(재밌어요?)** 네

고: 방과 후 아카데미 다니면서 힘든 점?
문: 집하고 좀 머니까 그게 좀 셔틀버스 같은 거 이용하거든요. 가끔가다 놓치면 일반버스 타고 다녀야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셔틀버스 얼마 만에 한번 씩 와요?)** 한 시간에 한번씩. 한시 두시 세시 간격으로 한번 씩 와요. **(간은 어때요? 한 시간마다 한번 씩 오는 거 만족스러워요?)** 네

고: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싶으신지, 아카데미 말고라도 학교 끝나면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예요?
문: 피아노요. 피아노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 직접 배워서 만드는 거요. **(비즈공예 그런 거?)** 예, 그런 거요. **(십자수 이런 것도요?)** 예 **(여기서는 그냥 공작이죠?)** 예, 뭔가 있으면 붙이고 풀칠하고 그런 거 하니까. **(좀 실용적인 거?)** 예

방과 후 아카데미 인터뷰 프로토콜 _ 어머니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학생들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평소에 자녀들을 방과후 활동에 보내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이름	
2-3. 생년	_____년도

3.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4.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다면)* **몇 시 쯤 귀가하십니까?**

5. 자녀의 방과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학업, 숙제 지도, 비행행동, 식사, 인성교육 등*)

6. 자녀들은 현재 방과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일반 학원, 공부방 등에 대해 각각,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 동안, 몇 개나 하고 있는지*)

7.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가한 후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성적, 학교적응, 성격, 비행행동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

9.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Yes, No에 따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예: 애들이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합니까)

10. 방과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육아 스트레스, 사회활동, 심리적 여유, 안심이 된다는 등)

11. 방과후 아카데미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만스러운 점이 아니어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겠습니까?

14. 만일 참가시키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대안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

15. 방과후에 자녀가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16. 방과 후에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17.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 상: 이○○, (여) 1963년 생, 고양시 거주.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부모 6]

고: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 네 명이요. 중학교 1학년, 6학년, 4학년, 2학년. 위에 셋은 여자구요, 밑에 하나는 남자. 6학년 아이가 다녀요. 여기가 5,6학년이 다니는 곳이니까(동생분도 여기를 오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보낼 생각이에요.

고: 맞벌이세요?
이: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혼자예요. 전 자영업이라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요. 제가 일 하면서 아이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몇 시라고 할 거 없이

고: 방과 후에 자녀에게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세요?
이: 제가 걱정되는 게 3학년 미만까지는 시험이나 공부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튼튼하고 건강하고 학교 적응 잘하는 것 까지만 이고요. 4학년 때부터는 좀 신경을 쓰거든요. 학업이 엄마가 받쳐줄 수 없더라고요. 4학년 수준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염려가 돼서. 아이들이 공부방을 다녔었어요. 다. 3명이 묶어서 4,5,6학년 한두 명씩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고: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다 경험이 되죠. 여러 가지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문화체험이나 여기 자체 내에서는 행사들을 애들한테 참여시키고 보게 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의 것들 이예요. 선생님이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하시는 열의들이 있으셔서 그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여기 동아리 활동을 또 애들이 꽤 나름대로 해요. 자기들 자체의 동아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짜임새가 있더라고요. 동아리는 처음에는 아이가 수화에 들어갔었고요, 수화 배우는 동아리. 나중에는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의 운영이냐면 어떤 선생님들의 개입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그룹에 의해서 리더가 세워져서 가르치는 형

식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나름대로 재밌게 해보는 것 같고.

(그럼 동아리의 리더는 누가 가르치나요?)

자기가 잘하는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수영 동아리는 수영 좀 잘하는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 같고요. 수화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수화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화 하시는 선생님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 늘건 자기네 개인적으로 배우는 걸로 하구요.

(여기서 교과목을 하는 건 없나요?)

교과목은 다하더라고요. 수학, 논술, 영어, 과학, 사회는 조금 하다가 빠져서 2학기 때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셨고, 미술 거의 되요. 모든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애들이 기본적으로 학원을 보내고 그 과목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말에는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탐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물리적인 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고: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자녀분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 저는 그렇잖아요. 다른 학부형들에 비해서 특혜 받은 자 중에 하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못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너무 어려워. 너무 싫어' 이랬던 아이가 여기 이제 직접 체험 있잖아요. 직접 해부를 하고 만져보고 직접 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과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흰 특혜를 받은 거죠. 애의 숨겨진 재능을 몰랐죠. 저도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엄마도 없었고, 싫어하니까 '아 나도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야'라고 생각했지 아이가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고, 과학대회 나간다고 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 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가냐' 할 만큼. 아이도 저도 그런데 가서 상을 타고 아이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매일 물어봐요 제가. '정말 재밌니?' '어, 엄마 너무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교만하게 세워주신 건 아니고요, 칭찬해주신 거죠. '**이라면 할 수 있다. **이가 잠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만 큼 된 거다'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또 그거를 친구들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오픈시켜서 나누게 해 주시고.그런 과정들의 손길은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과 열의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고: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라던가, 교우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A: **이는 4학년 때 까지는 교우관계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가 피부가 굉장히 심한 아토피라서 학교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운된 원래 성격이 그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따처럼 적응을 못한 거죠.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신감이. 그런데 5학년 때 담임선생님 만나면서 회복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세워주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오면서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자꾸 뭔가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좋아요.

고: 아카데미 참여하고 자녀가 변화한 점이라면?

이: 전반적으로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넷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게 많아요. 다른 아이들 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감 회복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재미있어하고. 즐겁게 한대는 거예요. 얽매어 학원 보내 면은 싫은데도 막 끌려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재밌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성적도 실제로 올랐나요?)

성적 가지고는 크게 별로 따져본 적이 없어요. 성적을 이렇게 가늠하는 엄마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적이 글쎄요. 중간고사 모르겠어요. 많이 올랐다고는 아니고요. 5학년 선에서 고정도 6학년 때 고정도 선은 되요. 과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100점으로 올랐고요. 특별히 잘하는 과목으로 올랐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빠져서. 조금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가는 걸 아이가 좋아하나요?

이: 예 좋아하죠. 학교생활도 좋아졌어요. 학교생활도 좋아졌지만 여기 생활이 재미있죠.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자녀분 보내시고 나서 어머니께 좋은 점?

이: 자영업자도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애들한테 문화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걸 엄두를 잘 못 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잘 이렇게 이어서 가구요. 또 외부 체험 나가는 학습들도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주말에 좀 짬이 나지 않으세요? 아이 하나가 외부 활동 나가면)

저희는 이제 하나라면 그럴 텐데 넷이니까 좀 많이 있잖아요. 걔 하나만 판단을 해서 제 생활이 나은 건 않으니까.

고: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불만스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은?

이: 추가로 바라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객관적인 평가라는 거죠 지금 의견이 이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시적인. 나의 아이를 통해서 내가 가진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직접적으로 공개석상에 선생님들의 강의를 참여해 본적이 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참관하는 수업이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면 그때 그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거는 아니죠. 그니까 가끔 제가 참관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처럼 중간이랄지 학기 초랄지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진행되겠다는 게 오픈된 공개석상에 있으면 학부형들이 좀 더 눈으로 볼 수 있고 엄마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아이들은 아이들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고 어른은 어른의 기준으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전체 과목을 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나요?

이: 담임선생님들이 있어서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한 달 동안 생활했던 부분, **이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부분,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의 편지가 왔었어요. 담임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요즘 같은 때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걸 해주셔서 보고 그걸 나름대로 느끼고 감사하고 그렇게 알아요.

고: 앞으로 아카데미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이 학원을 안보내고 여기서 작은 비용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한 다라면 좀 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되지 않은 숨은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어둡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좀 달라요. 저

희 애들은 아이를 그렇게 어두운 그렇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위축감과 자기 소외감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을 텐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걸. 해주고,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이 뿐만 아니라 조금만 터치하면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 많을 거예요. **인 전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한테 예쁘게 보이고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선택되어 졌고 혜택을 누리는 거지 **이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다른 아이들도 보인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그걸 받으면서도 받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게 가르쳐주시고 또 아이들이 받았으니까 환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되요. 줄때는 정말 많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담감을 갖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을 갖고 가야 되요. 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를 왜 도움을 받게 했는지 내가 그 이전의 삶이 아무리 잘나갔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 굉장히 다 성장한 아이들이거든요.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인정하되 그거를 밑바닥의 삶으로 꼬꾸라지는 삶이 아니라 애들이 자존감이 함양이 되게끔 해주시고 받는 거를 감사로 받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당당하게 받고 당당하게 나눠라. 정말 열심히 해라. 어떤 부담감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더 확실하게 되어주면 이 아이들이 좀 더 자존감 회복도 할뿐더러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없어서 어디 가서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말 못하는 편부, 편모가 너무 많고, 가난하고 이래서 그런 아이들의 그런 부분이 좀 더 터치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세워 지고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좀 더 나아지고 그걸 바래요. **이와 같은 아이들이 **이 하나만 아니라 **이는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이야기 하지만, 피상적으로 이야기 하면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여기까지 세워진 거지만, 정말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과학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만큼 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 있습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기회가 없어서 못 들어갔지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면 **이처럼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상을 받는 것처럼 상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에 받았는데 왜 주셨을까가 인지가 되면 정말 그들이 성장해서 진짜로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되는 과정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 크면 머리가 안 되고요. 지금은 되요. 그렇게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 계속해서 자녀를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생각이신 거죠?
이: 예.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 올라가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내년엔 된데요. 우리 둘째 **이는 빠져나가고 이제 셋째 아이가 5학년 올라가서 같이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환경 이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다가 환경만 주어지는 게 아녜요. 선생님들 열의도 대단하세요.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고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엄마 어떤 분이 6학년만 봐라 그랬는데 6학년만 보면 저희는 안봅니다. 5학년까지 다 연극 보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갖고 5,6학년이 다 봤다고 이러질 않나. 그런걸 보면 대단 하신 거죠. 아까 얘기해지만 쪽지 편지지는 편지 한 장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필로 써가지고 아이들 상태를 한 달에 한 번씩 알려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런 열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학교에서는 요즘에 그런 게 식어버리는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냥 방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래면 말고 못하는 애들은 저만큼 있고 하는 애들은 끌고 가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애들도 많으니까 어렵기도 하죠.

고: 방과 후에 자녀가 아카데미 말고라도 다른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진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학원 같은 그런 체계는 아니더라도 폭넓게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는 않나 타나요. 경험하게 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가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수준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러신다고는 하는데 수준의 폭이 다 못 끌고 가요. 그래서 못 따라 오는 애들도 있고 조금 쫓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처음이라서 한 학기 지나가면서 느끼시고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과목에 좀 더 조금 더 중요한

과목들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일 년에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여기 바로 오고 8시 반에 집에 오면 자기들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이제 다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 금 학기 말고 이제 일선 2학기 때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고: 기관 이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합니까?

이: 저는 학업보다는 인성 쪽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타이트하게 막 강박관념을 주는 식의 공부는 별로 원치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하라고 **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한테 왜 공부가 필요한지 가르쳐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인지가 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는데 계속해서 공부하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부하란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야 공부 너 안 해' 이러면 진짜 얘들이 팍 깨지잖아요. 하려고 했다가도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또 특히 사춘기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가 빨리 와서 그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땐 무조건 반항 이예요. 엄마가 뭔가 요구하면 딴 길로 가더라고요. 딴 길로 그니까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놔두되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왜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이: 그거예요. 만약에 방과 후가 됐건, 아카데미가 됐건, 학교가 됐건 아이들 중심의. 그리고 좀 더 만약에 그들이 어려운 환경과 편모, 편부 가정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떤 사랑으로 다가갈 부모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한다면, 아이들의 자질들을 선생님들의 눈을 통해서 개발되어질 수 있을게 큰 거지 않나 걔들이 환경에 밀렸고 자금 때문에 밀렸고 엄마의 보살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제가 가게를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엄마 일 나가고 혼자서 생활하고 들어가서 혼자 먹어야 되는 애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아이들한테 좀 더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대 상: 서○○, (여) 1966년 생, 길산동 거주.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부모 7]

고: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서: 중학교 3학년 딸 하나, 6학년 딸 하나. 둘이요.
(어머니는 귀가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 전 자활하기 때문에 5시 30분 정도 되요. 집에 가면.

고: 방과 후에 자녀에게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세요?
서: 여기 보내고 나서는 없어요. 이제 집에 올 때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깜깜하다보니까 항상 언니나 제가 데리러 나가요. 걸어서. 거리는 멀지 않은데 깜깜해요. 가로등도 없고 집에서 걸어서 나가서 그거 밖에 없고요.

고: 여기 보내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서: 학원 보내기가. 학습지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돼서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고: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하시는 거 있으세요?
서: 학교에 가면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혜택주는 게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배워라 해가지고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점핑 클레이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점핑 클레이라고 만드는 거 있어요. 찰흙 같은 거로. 그거 해요. 컴퓨터 하라 그랬더니. 그거 하는데 이제 그것도 공부 때문에 6학년이라 그만하라고 그러려고요.

고: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자녀분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서: 좋은 거요? 애들이 부끄럽게 생각 한다 그러나? 저희는 얘기를 다 하는 편이예요. 엄마가 사정이 이래서 학원을 보낼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 마지막 들어온 것도 알거든요. 혜택이 안 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받아주신 거예요. 정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초과인원으로 받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걸 알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려운 애들도 있고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긍정적

이예요. 그런데 공부에 욕심이 없어서 선생님 속을 좀 썩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더 명랑해졌어요. 그리고 긍정적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걸 많은 애들이 있지만 어렵고 많은 주변에도 있어요. 어려운 집이 그런데 그 집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생활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안 해주겠죠? 그런 애들 보면서 얼마나 행운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 여기 참가하면서 자녀가 변한 점이 있나요?

서: 예. 적응은 잘해요.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봄방학 때 전학했거든요. 6학년이라 걱정했어요. 전학 안 간다고. 안가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학교 가까운 데로 가야되잖아요. 겨울방학 때 저희가 집을 옮겼는데 한 학년만 다니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원을 보내면 학원차가 데려다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또 수입이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말 정도에 왔나 여기를 그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적응도 잘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학교에서도. 전학 온 앤지 아닌지 잘 모른데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

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가는 걸 아이가 좋아하나요?

서: 조금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름 방학 때. 얘는 댄스 하는 게 싫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막 좋고 근데 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막 좋대요. 스트레스도 풀고. 얘는 점핑 클레이 막 이런 거 걔는 앉아서 뭐 만들고. 그런 거 좋아하고 락밴드 그것도 했고요. 도자기 하는 거 좋아하고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자녀분 보내시고 나서 어머니께 좋은 점?

서: 집에 혼자 있으면 좀 불쌍하잖아요. 집에 갈 때까지 시골이다 보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디든지 전화하면 상황을 아시니까. 그런 거 안심되고 좋아요. 엄마가 먼저 들어가서 애를 맞으니까 그게 좋아요. 그리고 부담감이 덜해요. 그런데 욕심을 갖고 공부 좀 해줬으면 선생님들한테도 보람도 있고 즐거울 텐데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은 속 터질 거 아녜요. 혼내주세요 그러긴 하는데

고: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불만스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은?

서: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 토요일 같은 날 저희 아이는 잘 안 나오거든요. 어디 프로그램에 그런 날만 한번 씩 삼겹살 먹을 때도 있고 야채 심을 때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애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래요 저도 가끔 와서 돕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만 애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우리 애는 좀처럼 안 갈려 그러고 자원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애들이 꾀가 나서 가기 싫어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영화관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 부탁해서 오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별로 취미가 없는 거 같아요. 얘는. 그럴 때는 좀 안올려 그러고 토요일 날에는 선생님들도 좀 쉬고 싶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 앞으로 아카데미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서: 프로그램도 좋고 여기는. 엄마가 따로 일부러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막 배우고 싶더라고요. 아까 막 선생님이 부르는데 열심히 배울 것 같은데. 시설은 별로 불편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고: 계속해서 자녀를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생각이신 건가요?

서: 예. 내년에도 중학생 돼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랬으면 좋고.

고: 방과 후에 자녀가 아카데미 말고라도 다른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서: 학원. 공부하는 거? 성적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공부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놓고 선생님들도 다 여기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럼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봐 이러기만 했는데, 그럴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대요. 저희 애가. 그리고 저희 애가 미술 같은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쪽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근데 그거에 맡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미술도 있다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하다보면 자기에 맞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각자 개인에 따라 상담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그 애에 대해서 알아야지 아픈 데가 어딘지 알지 않을까 싶었

는데. 선생님 중 한분이 고객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영업하러 다닐 때 고객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좀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내가 애들을 보낼 때 그랬어요. 저는. 지금 당장 어려워서 이렇게 혜택을 보지만, 너희들이 언젠간 꼭 갚아야 된다고 이랬거든요. 창피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꼭 언젠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됐는데, 아이들이 가끔은 속상하게 할 때가 있대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뭐 애들은 말 잘 못 전하잖아요. 누구네 아빠는 빚쟁이야 막 이런대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엄하게 조금 여기 선생님들이 다 아픔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키우시기는 하시는데 다 잘돼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 자리로 다 돌아와서 봉사하는 그 정신이 돼야 되잖아요. 추억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 스무 명 이렇게 된다면 학원 같은데 보내보면 8명~10명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수학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힘드시긴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열심히 따라오는 애가 있으면 좋으시겠지만 안하면 속 터지잖아요.

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서: 이런 시설 같은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데로 그리고 6학년 뒤에도 연결이 되서. 이런데도 잘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공무원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직장이 되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선생님들이 좋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제자를 많이 키워야 하잖아요. 이런 일에 있어서 그죠? 아이들이 컸을 때도 좀 기억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어려운 분들께 찾아가고 엄마보다 더 친할 수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엄마한텐 말 안 해도 선생님한텐 얘기하고 요즘 애들 막 그러잖아요. 보면 선생님한텐 비밀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연결이 되서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대 상: 손○○, (여) 1965년 생, 마천 2동 거주.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학부모 8]

고: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손: 남자애 둘이요.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이요. (맞벌이세요?) 네. (맞벌이시면 어머님은 몇 시쯤 귀가를 하시나요?) 귀가 시간이 좀 늦어요. 한 8시 이후에요.

고: 방과 후에 자녀에게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세요?
손: 그것은 가장 남자애니까 어울려서 그럴까봐. 그런 것도 있고 아이가 덩치가 작으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성격은 좋은데 너무 좋다보니까 나설 때 안나 설 때 나서서 한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지, 공부라던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요.

고: 아카데미 말고 자녀분이 하시는 것이 있나요?
손: 다른 것은 없어요. 아카데미만 하고 있어요.

고: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자녀분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손: 가장 좋은 점은 맞벌이다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에 정상적으로 쉬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토요일 날 같은 때 잘 데리고 나가세요. 아이들이 접해보지 않은 갯벌체험이라던가 남이섬이라던가 그런데는 좀처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 맞추기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고: 아카데미 다니고 나서 자녀분이 변화한 점은?
손: 좋게 변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만 아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학교 아이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쁜 점은 또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말도 많고 아이가 성격이 좀 튀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 그런 건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가는 걸 아이가 좋아하나요?

손: 예. 일단은 친구들이겠죠. 다양한 친구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 한정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일반 학원처럼 아이를 스파르타식으로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토요일에는 어디로 데리고 나가서 허브농장을 데리고 나간다던가, 애들한테 숨 쉴 구멍을 주는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한번 씩 데리고 나가는 게 아이들한테 숨 쉴 수 있는 틈이 있잖아요. 일반학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만 하는데 여기서는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거든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저기가 상담실인데 한 네 명 그룹상담도 하시고, 아이가 친구 간에 아카데미 내에서 잘 안 맞는다고 하면, 상담도 해주셔서 어떠한 얘길 해주시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큰애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자살에 관한 얘기도 들어왔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이가 고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을 잘 안하잖아요. 그룹으로 너넨 뭐 어떠한 상황인데 이런 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상담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자녀분 보내시고 나서 어머니께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손: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9시쯤에 아이들이 끝나거든요. 9시 10시쯤에. 일반학원보다도 여기가 더 안심이 되요.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일단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 정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깔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월급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같이 하나라도 데리고 가서 보게 하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집으로도 전화하시고 그러거든요. 남자애들은 어디가면 싫다고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이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어머니 이번에 가는 데는 허브농장을 가는데 거기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세요. 이런 게 일반 학원에서 느낄 수 없는 거죠.

고: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불만스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은?

손: 지금 현재로는 큰 불만은 없어요.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국어, 수학, 영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기과목은 자기 주도적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암기과목 성적이 안 나와요. 국어, 수학, 영어는 해주시니까 그거는 쫓아가는데 공부를 잘하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만 보조만 해주셔도, 지금 상태로도 너무너무 아이들 잘 먹여주시고 아이들 식단도 굉장히 많이 신경써주시고 그래서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욕심을 부리자면.

고: 앞으로 아카데미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손: 글쎄 저는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학년이니까 내년까지만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3학년까지 해주시면 더 좋다는 거겠죠, 바람이라면. 이제 2학년이니까 2학년까지만 다니고 이제 일반 학원으로 다니던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학원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니까 여기서 3학년까지 책임져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 계속해서 자녀를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생각이신 거죠?

손: 예.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둘째부터 알게 된 거잖아요. 아마 첫째부터 알았다면 첫째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을 거예요.

고: 방과 후에 자녀가 아카데미 말고라도 다른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제 욕심인데 뭐, 예능 쪽으로, 악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들은 아이들이 악기정도는 다 하나정도는 다루는데, 형편이 안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고: 기관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나요?

손: 지금 계시는 선생님처럼 변하지 않고, 지금 마음처럼 아이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아니면 아이들이 아파하면 아파하는 사정을 지금 선생님들은 다 아시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은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을 다 아

셔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집 자녀들도 그렇고,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 부분이 안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이. 여기는 가족 같아요. 한 일 년 반 정도 밖에 안됐는데, 선생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손: 그냥 이런 게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3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아이도 적응 너무너무 잘하는 상태고 저희 아이가 너무 막 나대는 성격인데 적응 잘하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아카데미 오는 걸 일단은 즐거워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만들기도 그렇고. 요즘 애들 만들기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초빙해서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너무너무 세세한데까지 신경 써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택견도 했었거든요. 택견 선생님도 오셨었는데,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접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이를 잘 보내봤자 태권도장이나 합기도 장 보내겠죠. 그런 거 생소한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아카데미 프로토콜 _ 교사 및 기관운영자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학생들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이름	
2-3. 생년	_____년도
2-4. 기관명	

3. 선생님이 계시는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보충학습, 숙제지도, 특별활동 등 모든 것을 물어본다)

4.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5.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방과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7. 방과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8.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수업진행, 업무 과중, 예산 부족, 예산 운용의 융통성 등)

9.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10.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할까요?

11.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떤 면입니까?

12.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낙인의 문제는 없는지, 아이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3.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5.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여 어머니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학교와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17. 어떻게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가 되었습니까?

18. 현재 교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점이 만족스럽습니까?

19.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떤 점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20. 교사로써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수련관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물어본다*)

21.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 상: 남○○, 1962년 생, 이천시 창전동. PM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사 8]

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나요?
남: 일단 보충심화학습은 대략 논술, 한문, 수학, 숙제지도. 그다음에 전문선택과정은 제가 들어가고, 영어, 전문선택과정은 월요일은 영어, 그다음에 탁구, 포켓볼, 댄스 스포츠, 맑은 흙 놀이, 오카리나 연주. 그다음에 수화, 락 밴드, 합창, 미술. **(맑은 흙 놀이는 사물놀이 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도자기의 고장이라서. **(록 밴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주로 6학년 아이들을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드럼하고,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 세 종류만 음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 여기 참가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남: 6학년이 17명, 5학년이 18명, 4학년이 5명, 3학년 4명, 2학년 2명. 총 46명입니다.

고: 지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남: 예산 지원은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시하고 협조가 잘 되서 예산 지원은 원할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없으세요?) 예. 저희가 예산 요청하면 시에서도 최대한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예산도 바로 내려오는 편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유동적으로 못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기본 융통과정을, 강사료를 다른데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 강사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남: 저희 경우에는 기본 융통과정은 예상대로 시간당 2만 5천 원 씩 나가고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전문선택과정이 하루에 세 분씩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선생님 협조 하에서 2만원 씩.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하신 느낌이 드시는 건가요?)
남: 요것은 원래 전문선택과정이 한 시간에 3만원인데 강좌수를 늘리다보

니까 예산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 강사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간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책정을 하기로 했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지만, 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관한 회계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그 회계 규정상 그런 지침들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남: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멀티 형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학습 지도 + 특기 적성 교육 + 체육 활동 멀티 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과 후 학교나 학원에서처럼 하는 게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데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요?
남: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본공통과정 2시간, 급식, 전문선택과정 2시간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고 하루에 5시간과 토요 체험학습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멀티 형 프로그램이라고 보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효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고: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점은 없으신 건가요?
A: 그거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강좌를 지역에 맞는 그런 강좌를 개설하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고: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가요?
남: 운영하면서 복식학급에서 교과 지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학년이 복식학급의 경우에 교과지도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관심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PM, SM 선생님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이나 상담까지도 책임지다 보니까 전문 영역에서의 지도의 한계. 그렇다보니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더라

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그쪽 사람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남: 예를 들어 상담이나 이천시에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센터도 나름대로 연간 계획이 있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아이들은 3시 50분부터 7시 반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상담을 하더라도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그 시간은 또 거기(상담센터)에서 바쁜 시간이 되고 이건 좀 어려움이 있죠.

(연계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없으세요?)

남: 토요체험학습 시 아이들의 참석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요일까지 5시간씩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매주말도 체험학습을 하다보니까 간혹 학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간 아이들한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랑 시간이 겹쳐서 아이들은 이제 우리 지원형의 경우에는 거의 다 무료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모르게 참가하고 싶고 여기는 또 없는 강좌들이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각생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급 내에서 아이들의 개인차. 학습능력이나 인지능력의 차로 인해서 조금 SM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어려움 또한 학부모들의 인식에서 학부모들이 학원처럼 생각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어서 학습 지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달라고 요구를 좀 하는 이번에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여기는 학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차원보다도 아이들의 인성,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들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조금은 자존감이 부족한 방과 후 아카데미 가는 것에 대한 창피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 모든 걸 무료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어렵죠.

고: 운영하시면서 더 지원을 바라시는 것은 없으세요?

남: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젠데 급식비를 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인당 2500원씩 책정이 돼서 저희는 자체 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을 지정을 해서 지정식당에서 급식을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 식당에서 2500원이면 현실적으로 2500원짜리 밥이 인제 그렇고 내용이나 반찬 요런 부분에서 부실한 그런 점이 열심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지원형의 경우에 아이들한테 월별로 들어가는 재료비를 현실적으로 받게 하기 어려우니까 운영비 내에 연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학생들의 재료비를 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떨까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PM, SM 선생님들의 자기계발, 학생지도에 필요한 연수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열심히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추가 영역도 담당자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봉사자들이 조금 더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학교에 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카데미 방학 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급식이 안 되다보니까 결식아동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희는 방학 때 급식을 했어요. 내부 결제를 내서 희망자를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만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만 급식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에 방학 중에도 급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방과 후 아카데미 모델도 지금은 예산 형에 따라서 일반형, 지원형 나누는데, 이것도 지역 환경에 따른 모델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지역 환경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역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모델들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의 시간이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주간 수업시간만 통일이 되면 주당 24시간 하면 기본 공통과정을 10시간 등 계획된 시간을 좀 탈피해서 융통적으로 짜게 할 수 있으면 지역 환경에 맞는 충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체험학습이 4시간을 하게 되는데 꼭 4시간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계획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천에서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면 8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행에 따라서 4주면 4주 동안에 시간을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 아이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나요?

남: 예.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90%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초등의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습지도 이런 것이 가능한데, 중학교 경우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초등의 경우에는 강좌가 나눠짐으로써 학부모들이 더 좋아합니다.

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나요?

남: 3개 강좌씩인데 저희가 회의하기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클럽활동처럼 3개 부서로 나눠지고 토요강좌만 맑은 음 소리, 오카리나, 수화인데, 모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4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나의 모듈로 순환해 보고 있고 나머지는 1년 과정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과정으로 할 것인가 돌아가면서 할 것인가 요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4학년부터 다니게 되면 과정들을 반복해서 듣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하게 1년 단위로 하면 3개 과정이니까 4학년 때 들었으면 작년에 들었으니까 새로운 걸 듣는 그런 부분을 이거는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하면서 수정할 사항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고: 애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남: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여기 와서 5시간 정도 3시부터 4시간 반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는 아이가 뭐를 잘해서 경쟁심을 키우는 곳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고: 아까 그 저소득층 아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엔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남: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이고 일부분의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융성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자존감을 찾아 줘야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난번에는 선생님들이 상담센터에서 하는 부모성장교실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일일 한학생과 칭찬해주기 이런 걸 하고 그다음 지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질책보다는 칭찬을 하고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습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 1인 1국화 키우기. 한사람 앞에 국화 하나씩을 키우는 건데 텃밭을 만들어놨거든요. 1인 1작물 키우기.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키워보고 식물을 통해서 다른 정서적인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분들

을 작물을 키우면서 열매도 따보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한 걸 통해서 조금씩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고

고: 실제로 계층 간 격차가 해소된다는 느낌이 드세요?
A: 그 부분은 굉장히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이천 지역에 대상자 아이들이 298명 정도 되는데 오는 아이들은 46명에 달하는 거죠. IMF 이후에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알게 모르게 지역에 이런 환경에 처해있는 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를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대상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고)
남: 저희가 신청할 때도 예산을 40명 단위로 2개 반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 실질적으로 비행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 그거는 분명하게 아이들이 방과 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4시간 반 정도 생활을 하다보면 7시 반이 되기 때문에 오락실이나 게임방 그런데 가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다른 아이들과의 친분관계보다도 여기 있는 아이들과 또래끼리 친해져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고: 실제로 문제 있는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나요?
남: 네. 도벽이 있던 아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다른 친구와 오락실이나 게임방 많이 좋아하는 아이가 방과 후 아카데미 오다보니까 그 친구는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와 멀어지고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니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고: 아카데미에 애를 보내고 나면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기 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남: 어머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여기 지원형의 학부형의 경우에는 거의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는 믿고 맡길 수 있고 끝나더라도 저희가 메시지로 수시로 귀가했다라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메시지가 안 오면 그 아이한테 아무 탈이 없는 거고 우리가 귀가조치를 하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찾으러 나가는 경우는 딱 한번 있었어요. 평소에

는 그냥 다니고 일요일은 다른 친구 집에 놀러가서 집에 안 들어가고 오락실에 10시까지 그런걸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 PM, SM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가 이래이래서 안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고: 여기는 통학버스가 있나요?
남: 여기는 이천시의 중심에 있어서 도보 가능한 아이들이 다니고 그래서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 학교랑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남: 우선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저희가 서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연초에는 담임선생님 초대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의 생활과 학교 밖에서의 생활, 아이들의 성장 그러한 과정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변화를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일단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성장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 어떻게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되셨는지?
남: 저는 교직에 13년 정도 있었어요. 마침 올 1월 달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와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 교사생활 자체는 만족하시나요?
남: 예. 우선 아이들이 굉장히 정이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학교와는 다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대신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남: 아이들과의 만남이 별로 없다는 것 SM선생님들에 비해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함. 좀 더 전문성이 있었으면 이렇게 또 지도를 하는 것이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

고: 교사로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남: 저는 PM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SM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생활 지도를 같이 하지만 SM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보살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어려움이 있죠.

(SM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직접 부딪히는데 PM 선생님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요?) 예. 저는 교실 내에서 부딪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부딪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느끼는 아이들에 대한 방도가 조금씩 달라서 좀 어려워하고 그런 느낌 이예요.

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남: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멀티 형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리고 SM선생님들의 보수가 갈등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열정을 가지고 직장으로서 만족도 느끼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금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대부분의 SM선생님 월급이 다른 직종과 좀 비교하기 그렇지만 어차피 SM, PM 선생님들 지역마다 다를 텐데 보통 40대, 40대 중반이고 열정만 가지고는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대 상: 임○○, (여) 1978년 생, 중랑구 면목동. PM.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사 9]

고: 여기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임: 일단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교과목 과목이 있고, 크게, 체험 활동이 있고, 둘로 누어지는데, 교과목 같은 경우에, 기본과목, 영어, 수학, 국어공부도 하고 있고, 전문 선택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문화, 국악, 그리고 논술, 중국어, 회화, 몇 가지하고 있고요, 체험활동 같은 경우 토요일1,3주 준비하는 토요일이 있고, 노는 토요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특강을 했었어요.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아이들이 와서 잠깐 멈춤) 1,3주 토요일 상반기 때는 리더십특강을 했는데, 2학기 때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미술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아

이들이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미술특강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댄스 굉장히 하고 싶어 해서 댄스도 같이 준비중이구요. 매스컴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체험활동위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디렉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전문기관이다 보니깐 체험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그 학원이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할 때마다 전문안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체험하면서, 당사자는 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깐, 체험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공연, 체험활동, 아니면 박물관 방문 같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1,3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특강위주로, 댄스,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동양화 그리기라 던지 그러면서 놀면서 자기개발 할 수 있는걸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 SM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뭐 하루 종일 애들만 보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학교하고 또 다른 또 다른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성이 저희 아이들의 특성이 여기 와서 굉장히 밝아지거나 사회성이 발달되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 SM선생님들의 역할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힘들게 와서 여기서 그 많은 아이들과 있을 때 분명히 편견을 불러일으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래형성이 되면서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잘 역할을 해서 저희는 크게 교육, 체험활동, 그리고 인성 이렇게 세 가지를 해요.

고: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임: 100% 일반형청소년들입니다. 저희는 지원형은 아니고요. 혼합형이 있고, 지원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저희는 100% 일반형이구요. 80%이상이 맞벌이 부부세요. **(그럼, 몇 학년 이예요?)** 4학년, 5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명씩 이렇게 잡았는데, 8월 달 현재, 4학년 18명, 5학년 15명, 33명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접수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접수를 해서 아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돈 문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33명이 좋잖아요.

고: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임: 인건비 위주로 일단 거의 50%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M선생님들하고, PM선생님들 인건비가 100%나가고요. 그리고 월 강사선생님들이 객원강사지만, 월 22만원 나오고 있고, 활동비 위주로, 50만원 나오고,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비라고 해서 40만원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학병 관내에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안 받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원을 하는데 저는 교육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강사님이랑 체험활동이라든지 교육비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거는 지원을 받고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희가 위원회가 4월 달에 개강을 해서 그런지 한 달에 한번 꼴로 현장점검을 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번에 설문지가 나왔는데, 솔직히 편하게 보라고 하지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위원회에서도 본다고 그러면 그런 거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는데, SM 선생님들 같은 경우 월급이 많이 적어요. 위원회 올 때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SM선생님들 대학교 다 졸업하시고 오신 전문인이시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월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선생님 그분들은 인건비가 너무 작고, 내년에 어떻게 올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 쪽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인건비 책정을 할 때 통합적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4대 보험을 포함시킨 금액을 아예 위원회에서 잡아서 지금 뭐 수련관 저희는 물론이고, 수련관에서 4대 보험을 넣지 못하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거를 고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거는 들었기는 하지만, 일단은 SM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월급이 적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처음에 계획 원을 짤 때에는 지원형위주로 해갖고 했었는데, 인건비가 강사료가 책정이 3만원이 넘지 않게 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그걸 따르는데, 저희가 이쪽 특성이 있잖아요. 일반형 같은 경우 강남 대치동이 가까워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교육열 특히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해요. 그걸 잡지 못하면 저희가 일반형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학습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원어민이라든지, 정말 전문선생님들 3만원가지고 부족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고, 인원이 한반 당 20명 정도 되니까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개별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5명, 10명 위주로 하는데, (여긴)20명이잖아요. 그게 강사 한분을 가지고 스무 명

을 한다는 게 어머니들의 이해는 못하시겠죠. 저희도 그래서 그룹별로 해서 대학생이랑 지금 연계를 해서 대학교 보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을 봐주고 계시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여러 명 수학, 영어에 있어서 그룹화해서 수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면 그냥 듣는 거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맞춰서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런 점이 좋다는 것 있으세요?
임: 일단 저희가 PM이잖아요. 서울지역 PM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상담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없을 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계 쪽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의사를 저희가 어머니한테 (전달)해주지만, 흘러가는 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거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관리, 학부모 상담. 교육 총체적인 걸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는 편이고, 어머니들이 일단 저희가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요. 일단 맞벌이시니깐 아이들이 안 왔을 때 어머님이 연락이 없으면, 학교선생님이랑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여기 맡기면 그 시간만은 확실한 거 같아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 강사가 있는 것도 전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아이들과의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등 힘들어하는 부분들 수시 상담을 해주시고, 저희가 전문상담실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서 수시로 가서 상담을 하고, 특강으로 품성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전문지도자들도 품성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도 받고 있고, 정말 한마디로 통합적인 거죠. 이런 면에서는 좀 틀린 거 같아요.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저소득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면보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가는데, 이거는 공부를 잡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안 오고 그런다고 해서 애들을 방치 인성을 잡지 않으면 애들끼리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범반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
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나 수학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는데, 아이들은 너무 많고, 강사 분은 딱 한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과목으

로 해서 일주일에 다섯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수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 거의 매일 쓰고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럭저럭 되지 않고 그런 말 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고, SM선생님들의 그분들이 진짜 전문 인력을 원한다면, 앞으로의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업무서류가 너무 많아요. PM이라고 해도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자주 얘기하지 않으면 진짜 탁상 공론하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애들하고 마주치는 부분, 제가 전 호랑이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애들하고 왔다 갔다 해서 좋은 면은 있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 측에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그거에 인정을 하는데, 그게 너무 치이니까 그게 가끔은 제가 화가 나요. PM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고: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요?

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얘긴 거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련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큰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주5일제근무가 되고, 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나가서 맞벌이가 되다 보니깐, 지금은 시범 격이지만, 분명히 있으면 이게 활성화된다면, 외부/내부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회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수련관측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하나의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직원화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으로 키우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되거나 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쨌건 보조금을 주니깐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인원에 치우치다보니깐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수련관 같은데 맡겼으면 3개월이나 한번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믿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매일 죄송해하긴 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거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버겁고, 가끔은 한 달에 한번, 어쩔 땐 한 달에 두 번, 막 현장점검 나오고 하니까 어우 진짜 부담이 너무 커요.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 받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절실히

고: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좀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임: 말했지만, SM선생님들 강사료. 특히 전문 강사 선생님들에 있어서 되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엄마들이 굉장히 오실 때 프로그램이 좋다고, 다양한 걸 배워볼 수 있어서 좋다고 오시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혼자 오면, 학교가 딱 계획된 틀에 맞는 경운데 또 빡빡한 일정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놀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엄마들도 같이 놀자고 하는데, 저희가 대신에 얘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만 그래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온다 분명히 아이들하고 친밀해지면서 그런 좋은 관계가 있으니깐 그런 거 보면 전문 강사라는 비율이 고런 거를 좀 인상해주시던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교육을 필요한 거는 대부분의 원하는 교육은 연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연수는 일 년에 두 번이고 1박2일이라 빠른 시간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거 같은 게 아이들과의 상담, 상담 법, 아이들과의 또래관계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필요해요. 영어랑 수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똑같다면,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들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죠. 그런 교육을 중간 중간에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또 하나있다. 문제점. 국가에서 처음에 너무 지원형 위주의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방과 후'라는 말이 방과 후 교실 안에 저소득, 못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학부모 운영회에 "어머니,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다녀서 좋은데, 너무 다양해서" 친구 분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자기가 설득을 당해서 "얘, 거기 왜 다니니? 가정이 힘드니? 우리학원 선생님 소개시켜줄게 이쪽으로 와." 자기는 좋은 거 아는데, 설득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연계도 대학이랑 학생들로 연결해서 가능한 거지, 이번에 삼일정 그런데는 지원형 위주로만. 일반형 쏙 뺀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정산을 하는데 메리트가 없잖아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풍족하다고 하는데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이유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와 인성개발을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세군데 빼고 다 지원형이고, 혼합형 몇 군데 있나? 처음에 KBS 그런데서 지원형위주로 광고

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인식제도가 저희들 처음에 정말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모르시진 않아요. 그런데 안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오늘도 했던 상담도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전단지를 가지고 있어서 알긴 했는데" 지켜보신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가 지원형이 아니고 일반형이란 걸 아신 거예요.

고: 수업 시간은 어떤 편이예요?

A: 어머니들이 봤을 때, 3시부터 7시까지 딱 시간표로 정해져있으니까, 굉장히 빡빡해 보여서 어머니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들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셨는데, 어머니 일주일만 지나면 그런 얘기 안하실거에요. 스케줄은 있는데, 중간에 요가, 수영도 있고, 국악 같은 경우도 장구를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해요. 중간 중간에 공부를 하면서도 놀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문선택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적응을 하시는데, 처음에 거부를 보이시는 분이 많아요. 애들은 재미있어 해요.

(그럼 만약에 지원형이 있었다면, 등록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처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원형으로 해야 될지, 일반형으로 해야 될지, 했는데,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딱 한명. 저희 학교에 한명 있습니다. 불쌍한 아이. 수서 역 쪽에는 저소득가정이 많은데, 이쪽부터는 전혀 그리고 지금 태화사회복지관에서도 저소득 아이들 있는 방과 후 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이들도 그런 인지를 밖에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학교 가서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청소년아카데미 막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한번은 친구초청의 날을 만들었어요. 근데 경제특강을 해서 도미노게임도 하면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닌 거 이제 알아요. 어머님들도 이제 4월부터 했으니깐 그게 아닌걸 아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정이 많다보니까, 일반 그냥 맞벌이 아니면 동네 어머니들한테 막 말을 하실 텐데, 직장들을 다니시니까 길거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여기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요. 다니게 해달라고. 엄마가 계속 안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일반형이 되면

바꿀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좀 더 그거에 편중해서 지금 이번에 여성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방과 후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뭐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홍보를 해도, 그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고: 계층 간의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임: 계층 간의 격차해소는 저희는 아닌 거 같이요. 저소득층은 아예 없어요. 일반형 대상이에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잖아요. 저희는 일반청소년이에요. 대체로 돈을 다 받고, 학부모님은 맞벌이시고

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좋아할까요?
임: 일단 아이들이 기존에는 맞벌이 나가시면 혼자 집에 있거나, 혼자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정되고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교실은 얘네 전용교실이에요. 일찍 와서 아이들끼리 놀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늘 간식 나눠주고, 그리고 한곳에서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담임선생님한테 늘 아이들 얘기 끝나면 "오늘 아이들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 같아요. 모든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한 곳에서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좋고, 애들하고 또래관계가 형성이 돼서 좋은 거 같아요.

고: 애들이 힘들어 하는 점은 있나요?
임: 좀 빡빡함? 그러니깐 다른 어머니들이 그래도 그거하고 가정선생님을 불러서 집에서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빨간펜 그런 거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저희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거라면, 저희 아이들은 내적인 문제 부모님 바쁘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빠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 고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어머니들 아이들 입장에 아이들 컴퓨터를 너무 많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4개월 되다보니까 또래가 형성되면서 한명을 따를 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캐치를 해서 상담실과 연계해서 지금은 정말 다행히 아이들하고 융화가 됐어요.

고: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딴 데로 빠진다거나, 비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임: (웃음)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고: 보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임: 저희 같은 경우, 아이가 맞벌이 하는데, 어머님이 늘 아이가 집에 방문 선생님이 한 4시정도 왔나 봐요. 그때까지는 눈치를 못 채셨어요. 어머니가 몰랐거든요. 여기를 오게 되면서, 애가 오기로 한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은 애가 안 받거나 늦게 오거나 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은 엄마가 찾아다녀 보면 애가 딴 데서 오락을 하고 있거나 떡볶이를 사먹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오면, 집에서 컴퓨터게임 혼자 하다가 선생님 오면 잠깐 공부하다가 끝날 때 되면, 밖에서 뭐 사먹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체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깐 그걸 어머니가 알게 되신 거예요. 애가 혼자서 떡볶이 먹고, 밖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오락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거 모르시다가 알게 돼서 저희가 한 달 만에 그 습관을 고쳤어요. 한 달 동안 관리를 하고, 어머니 상담도 하고,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만약에 늦게 오면 늦게 온 만큼 엄마하고 약속을 했으니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기로 컴퓨터 게임을 못하는 대신에, 토요일은 조금 허락을 하겠다. 이런 식을 해서 지금은 어머니가 굉장히 감사해하시는 부분이 놀랍대요. 잘하고 공부하고 있는 다는 게요. 그래서 보면 가정 선생님들, 방문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그 시간만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몰랐대요. 10분 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더래요. 빨간펜 같은 경우에는.

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머님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 믿고 맡기니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은 확실하니까. 한 명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딱 한군데도 적응을 못했대요.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아이가 매일 밖으로 나도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어머니가 되게 놀랍대요. 한 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잘 버틸지 지금은 열심히 다녀요. 어머니가 그 시간만은 확실하게 그게 좀 귀찮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오고가는 거 확실하게 어머니한테 문자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머니랑 상담을 해요. 만약에 뭐 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문제는 어머니가 와서 해야 되요. 만약에 친구랑 싸웠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그거는 폭력성이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어머니께 전화하고 노트 같은 거나 준비물 안 갖고 왔을 때 여러 번 충고를 주는데, 알림장을 만들어서 어머니 확인을 하도록 해요. 준비물 같은 거. 어머니들의 참여를 자꾸 유도를 해요. 맞벌이라고 해서 아예 딱 맡겨놓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통화를 자주 하거나, 문자를 자주 보내다보니깐, 좀 귀찮아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더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감사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 학교랑 연계 되서 하시는 부분은 있나요?

임: 초등학교요? 저희는 솔직히 없어요. 지원형 같은 경우는 학교 특성도 있잖아요. 저희는 돈 받는다고, 저희가 정말 학교를 한 여덟 군데 찾아가갖고 활동을 했는데, 돈 받는 곳은 안내문조차 내줄 수가 없대요. 안 그러면 학원도 내줘야되는데, 여기라고해서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 홍보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원을 받고, 제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처음에 인원이 14, 5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원형 그런 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세요. 돈 받는다고. 공짜면 우리가 쓴다고 그러겠지만 아니면 못해주겠다고, 방과 후 학교라고 있는 거 아시죠? 특성화. 그거랑. **(그러면 만약에 학교랑 연계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방과 후 학교가 있어서 특성화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고 안 좋아 하시고. 되게 괜찮은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는 해서 아이들에 대해 여쭤보고, 늦게 오는지 물어보고, 학교방문도 해서 상담을 했었어요, 저는. 아이 학교생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서울대 선생님인데, 굉장히 막 성적표 꺼내주시면서 엄마대신에 얘는 이게 부족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말씀해주시는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 월권이라고. 내가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할 텐데 왜 여기서 오냐고. 오히려 막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일이 있었어요. 학교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각을 해보아야할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돈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뭐 하물며 통신문에도 안내주시고, 학교 앞에서 홍보지 돌리는 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연계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 운영위원회나 교육청에서 공문발송을 해서 홍보를 부탁한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아마 해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말고 따로 계속해서 이미지 개선을 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맞벌이다 보니깐, 학교는 없죠. 마땅히. 어머니 선생님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것

도 선생님 따라 틀리잖아요. 굉장히 그거는 학교 못가는 어머니라든지 공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고: 어떻게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되셨는지?

임: 청소년학과 나와서 다른데 2년 반, 3년 정도 근무를 했다가 잠깐 쉬게 됐어요. 한 3개월, 6개월 쉬고, 그 사이에 아카데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서 하고 있어요.

고: 교사생활에 만족하세요?

임: 저는 일단 청소년 쪽에 너무 좋아 제 적성이기도 하고, 되게 행복해요. 저는 정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동적인 걸 좋아해요. 만약에 학원처럼 교육만 한다거나 돈 벌기 위해서 했으면, 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 13만원이라는 돈으로 터무니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참 밝아졌어요. 그 말씀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체험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흐뭇해요. 아이들한테 공부뿐만 아니라, 야외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말이 매일 매일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가끔은 큰 상처를 주던 아이들이 큰 감동도 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요.

고: 힘드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임: 압박이요. 압박. 아직 밟아가는 단계라서 믿음을 주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처음에 열다섯 명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인원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열다섯, 열일곱, 스물 이러다가 선생님까지 현장점검, 중간점검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고,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서류업무가 쌓여가니까, 애들을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 선생님들 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임: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좋으세요. 열정도 두 분 다 대학 갓 졸업하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믿고 다행히 그리고 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되게 관심이 많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일이 좀 많다는 거. 왜냐하면 회계 쪽도 알

아야 되고, 강사, 청소년강습도 알아야 되고, 상담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 쪽도 알아야 되고,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지역연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역연계 너무 어렵거든요. 지역 연계 하는 거.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세요. 빵 같은 거 지원해주고, 간식지원해주고 저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사회봉사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는 실적을 위해서 지원 같은 거 얼마나 받았는지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솔직히 너무 지원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형하고는 내년부터는 일반형위주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고: 불만족스럽다는 점은요?

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는 불만족인건 없어요. 다만, SM선생님들 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처우개선도 좀 해주시고, 그냥 하라고 공부만 하라고 압박만 하지 말고, 교육도 좀 시키면서, 연수도 일 년에 한두 번 딱 형식적 인거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준다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경력직으로 왔기 때문에,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SM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딱 졸업해서 왔기 때문에, 이 월급 받고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신 거지, 앞으로도 이 월급 이라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끊임없는 교육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게 다 애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요.

임: 믿고 맡겨달라는 거요. 시간적인 여유가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의 특성에 맞는 업무 매뉴얼과 강사체계화 등등 그런 거를 일단 딱 해놓고 잡아가는 거 말고,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만들어라. 너희가 현장에 있으니까 너 네가 내년에 만들어서 해줘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개설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교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건데 원래는 나 홀로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방과 후라면, 일반형위주로 많이 발달해야하는데, 솔직히 수련관 입장에서는 지원형이 하기 좋잖아요. 인원확보도 좋고. 거기는 지원자가 밀렸대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 뭐. 만들어놓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일단 저질러놓고, 만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게 참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원금이 delay되어 나와요. 좀 제때 빨리 주었으면 좋겠어요.

대 상: 정○○, (여) 1983년 생, 서초구 방배동 거주. SM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사 10]

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는 13과목, 전문 과목, 선택과목 영역으로 나눠서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고요,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죠. 교과과목이라 그러면 수학이랑, 영어랑 이런 거는 필수과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논술이나 독서토론해서 저희들 아이들 리더십이나 언어력 키울 수 있게 선택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과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교과과목으로 안 넣은 게 수업을 이론으로 나가잖아요. 저희 학생들은 꿈나무를 키우고 이런 것처럼 직접 실험을 다 해요. 실험과목으로 교과과목 메드사이언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 국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지금 이반에는 소고만 있는데, 저 옆 반에는 장구, 징 이런 거 다 구입해서 아이들이 직접 실기로 수업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수영이랑 요가로 체육활동도 하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이렇게 해서,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체험활동 병행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들이랑 학부모님 요구로 저희가 특강으로 방학동안 동양화랑 영어특강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동양화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의 흥미도 높고 이래서 연결해서 리더십을 1학기로 종강을 하고, 이번 2학기에 동양화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할 아직 동양화는 아직 시작은 안했어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다음달부터

맨 처음에 숙제지도라고 지었지만 자기개발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동안 여기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들이 숙제를 못 봐서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숙제가 우선인데 그게 안 되니까, 5학년 같은 경우는 1교시가 다 숙제지도고, 4학년은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SM선생님들이랑 같이 숙제를 같이 하는 시간이고, 숙제가 없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부족한 과목,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이렇게 자기 부족한 과목을 자기 개발 한다고 그래서

자기개발학습시간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렇게 명칭을 프로그램 했는데 숙제지도보다는 포괄적으로 숙제를 하는 아이들은 숙제를 지도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가 SM으로 솔직히 20명이랑 벅차잖아요. 저희가 이번 방학 같은 경우는 숭실대, 성균관대 이렇게 해서 몇몇 학교랑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 선생님들 와서 2대1, 3대2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번에 항공댄가? 어디에서 몇 명이 신청을 해서 계속 연계적으로 그 시간에 애들을 개별지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고: 주로 몇 학년 학생들이 참가는 하나요??

정: 여기는 5학년, 저기는 4학년. 4학년, 5학년 밖에 참가를 못해요. 저희는 딱 대상이 정해있기 때문에. 원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명으로 정원을 줬잖아요. 5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은 15명이었고요, 4학년은 같은 경우는 18명이예요.

저희는 계속 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강남의 특징으로 어머니들 학구열이 너무 세시고, 여기 복지관에 줄서서 학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 수요에서 빼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홍보 쪽에 맨 처음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입소문으로 많이들 소개받고 오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고: 지원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정: 저는 지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업무적으로는 제가 안하고, PM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고: 대학교 연계도 하나의 지원에 속하나요?

정: 저희는 지역연계랑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다 직접 공문배송해서 학교에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학점이수로 해서 연계를 직접 해서 몇 명 학생들을 보내주는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지원으로 볼 수 있죠.

(지원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시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PM선생님이 그쪽은 관리를 아예 하셔서, 제가 이쪽까지는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좋다는 점은?

정: 학원을 보강하고, 아이들 나오는 시간을 방지하는 게 저희 방과 후의 목적이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는 걸 타이틀로 잡고 저희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느니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설문조사에서 욕구를 많이 들어서 변경을 시키고 충족을 시켜드리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양화 수업 같은 경우도 학기 초에 어머니들이 요구하시는데 지금 리더십 수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그때는 당시는 불가능하지만, 그 욕구를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들어줄 수 있을 때 최대한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다양한 강사 선생님들이랑 교실하나에서 저희는 맞벌이 부부 나 홀로 시간 방치예방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먼저 와서, 저 학생들이 11시에 품성개발을 시작을 하면 어머니들이 출근하시면 그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와서 여기 교실에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아이들이 자기학습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가. 어머니도 마음이 놓이시고.

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 저희가 5학년, 4학년 보면, 개별차가 좀 많이 크거든요. 여기 강남이다 보니깐 그게 더 심할 수도 있는데, 학력.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다 따온 아이들도 있고, 아예 기초부터 하겠다고 온 아이들도 있고, 개별차가 큰데, 강사선생님 한명이 그 아이들의 개별 차까지는 소화를 해주실 수가 없거든요. 한반에 20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봐주기에는 시간은 짧고 아이들은 많고 이래서 거기까지 수업을 못 하는 게 아직 아쉬운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자원봉사 강사 선생님들로 학교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와서 수학을 가르쳐주시고 이러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아직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채워줄려고 노력을 하지요. 개별차가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아요.

고: 그러면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업무가 너무 많다거나 수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정: 전체적으로 업무 일지 같은 거랑 업무보고 이런 게 저희는 일지를 담당하고 보고는 PM선생님이 하고 이러면 특히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문서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문서적으로 중복된 게 SM이 하는 일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몇 가지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 말고는 힘든 게 어머님들의 많은 욕구?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줘라 이런 게 있고,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정하면 어느 정도 지속을 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욕구는 끝없이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내년에 하긴 하는데, 욕구가 좀 여기는 욕구 많아요. 욕구도 많고, 기대도 많고, 아이들의 적은 시간에 더 많은걸 요구하시고, 계속 저희들의 강사님도 보시다시피 교수님도 전문 강사 쓰고 이렇게 초빙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영어 리딩에 회화를 하고 있으면 문법도 요구하시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충족은 힘든 거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데 너무 자주 나와요. 개발원도 나오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나오고 5일전에 한번 또 어디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깐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인터뷰 나오는 거요?)

인터뷰도 그렇고, PM선생님, 주임선생님 만나는 게 좀 많아요. 저희는.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네. 업무를 봐야 되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전화 받으면 아휴 또 나오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개월 있지 않았는데, 열 번도 넘어요. 그거 말고는 뭐 지원 쪽은 PM선생님 쪽에서 더 많이 저희는 우선 아이들 보는 게 더 하는 게 더 시급하니까 지원 쪽이랑 국가청소년위원회 요구는 PM선생님이 더 잘 아시죠.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다거나 원하는 면은?)

그거 보다는 강사진의 욕구가 높으니깐. 강사를 좋은 강사를 쓸 수 있게, 강사비가 25000원 갖고 좋은 강사님을 섭외하기는 너무 죄송하고, 자원봉사 식으로 오신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서울대 교수님도 오셨고 이런데 25000원 드리고 오시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 어머니들은 욕구는 계속 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지원이 그리고, 이번 마라톤 같은 경우도 지원형 에게만 지원이 가고, 일반형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있으면서 편견을 가지려고 하시거든요. 이번에 10일 날 나가거든요. 이 방과 후 아카데미 취지와 같이 나가야될 취지는 일반형이라

하지만, 일반형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에게 지원이 지원형 보다 소홀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원형 에게 치중되어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취지는 일반형이고, 이러니까 조금 더 일반형에게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반형 같은 경우랑, 지원형 이랑 혼합형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혼합은 지원이랑 일반이 합해있는 그런 그러니깐 이 아이들은 다 13만원씩이라는 자신들의 비를 내고 하지만, 내고 지원을 받는 그런 국가에서 돈 내는 걸 받고, 이 학생들은 그렇지만, 지원형은 무조건 식비까지도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일반형은 세 곳밖에 없거든요. 취지가 일반형으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방과 후 아카데미 취지가 일반형으로 취지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친구들도 내고, 질 높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일반형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 애들은 참여하는 걸 좋아하나요?

정: 저희 애들은 자기 학원도 안가고 여기 오는 애들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제일 호응이 높은 건 체험 활동 이었고요. 체험활동 나중에 어떻게 따로 더 해볼까 하는데 체험활동이 아이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고, 아이들이 못했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 빼고 여기로 참석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봐선 좋지 않나. 또 저희는 다른 데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게, 어머니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놀기를 좋아하고 먼저 이렇게 시작 전에 와서 여기서 뒹굴고 저희가 지금 매트를 접어놨지만, 놀 수 있게 비디오 빌려놓고 이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시청도 하도록 많이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자율적인 시간을 주고, 공간도 주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한 면이 없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가를 했으니 그 다음엔 뭘 하고, 바깥활동도 했다가 아님 실내 활동도 했다가, 실기했다가 이론 들어갔다가 하니깐. 다른 학원에 비해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고: 애들이 힘들어하는 면도 혹시 있나요?

정: 학교 끝나고 빡빡한 스케줄에 약간 부담이 그런 맨 처음에 그러거든요. 한 달 정도는. 근데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즐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다 좋아 하고. 자기 집보다 좋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모르겠어요.

고: 지금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인가요?

정: 저희 일반형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안와요. 강남구에서 저소득층 모인다고 그러면 지금 이 인원보다 더 적게 모이지 않을까. 저희는 일반가정들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들. 집에서 돌보지 못하지만, 학원이나 이런데 보다는 프로그램에서 알차고 아이들에게 인성까지 봐주잖아요, 저희는. 적성검사, 품성개발 이렇게 해서 이러니깐, 그 아이들은 소득층 아이들은 없어요.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이 13만원 내고 오기 때문에. 근데, 방과 후라는 개념이 저소득층이라는 것 땜에 아직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뉴스에서 수해 고립되어서 방과 후 전체 같이 가는데 고립되었다. 이런 뉴스도 나가긴 하는데, 그 방과 후 하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강해서 홍보 쪽에서 힘들긴 해요. 그러니깐 저희는 방과 후 하는 거 보다는 청소년 아카데미해서 아이들에게 여기 통합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저소득층이 아닌데, 자꾸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강남구 쪽에서 오히려 더 운영하기 힘든 거 같아요.

맨 처음에 접수를 좀 꺼려하시고, 저희가 4월에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게 몇 개월 동안은 이 프로그램이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말한 것처럼 통합적이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 성적이 얼마큼 오르고 이거를 아이들이 인성이 얼마나 바뀌나. 이런걸 보고 오시는 그런 게 많아서 맨 처음 운영할 때는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가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진행해서 어머니들이 정기적으로 오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하면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거기 어떠냐고 자꾸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은 여기를 학원보다 좋은 곳이라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우리는 학원 안 다니고 수련관 다니는데, 학원보다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많이 느끼죠.

고: 청소년들 비행행동이나 불량행동에 대해선 예방효과나 보호효과들은 있나요?

정: 저희는 비행까지는 아니고. 어머니들이 몰랐던 행동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있거든요. 만화책을 우리아이는 모범생이고 만화책이런 거 절대 안 빌려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매일 지도를 하다보니깐 가방에 매일 만화책이 들어있고, 학생이 오기 전에 항상

만화방에 들려서 오고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걸리는 시간이 40분, 50분 걸리는 줄 알지만, 여기 20분이면 올수 있는 거린데, 딴 데를 들려서 온다고 이런 거를 저희가 딱딱 캐치를 해서 그런걸 알려드리고 지도를 같이 어머니들과 같이 하거든요. 지원형은 그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들은 다 같이 이렇게 연락이 되고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반 아이 같은 경우는 오락을 매일매일 안하면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는 인터넷 중독 이런 거를 약간씩 줄여가면서 같이 억제해가는 그런 근데 어머니가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가 가능하죠. 근데 뭐 특별히 비행을 하거나,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4,5학년이라서 그런지 비행까지는 아니고, 약간 사춘기로 접어들었구나. 이런 것까지는 발견을 하지만, 비행 행동하는 학생은 아직 한명도 없는 거 같아요. 약간의 다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고: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우선 방치하고 학원 같은 경우는 연락이 없대요. 연락이 없고, 지각하거나 이러면 지각했습니다. 통보하고 심지어 그런 거안 하는 학원도 이런 대치동 같은 데는 아이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늦으면 바로 10분 아이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깐 더 편하게 일을 하지 않으실까 또 체험활동을 보내서도 토요일 같은 경우 근무하시는 어머니들은 토요일 날 놀 토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 토라고 하지만, 사실 집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체험활동 나가고, 놀 토에 체험으로 나가거든요.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 방학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체험활동 나갔다오기. 소감문하기. 이러는데, 어머니들은 직접적으로 휴가철 빼고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 그러면 학교랑 연계되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길 원하시나요?

정: 저희는 저소득층이 아니니깐, 학교에다가 저소득층 지원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명단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니깐 돈을 받고 일반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선 이번 년에 연계를 했다면,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다 보니깐, 학생들의 그 맞벌이 부부 아닌 자녀들의 어머니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싶으면 연락을 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알고 싶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지 모해요.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고 모르셨던 부분인데 그게 집으로 연락이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학교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저희가 1학기에 상담을 하러 PM선생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학교에. 학부모 대신으로 해서 학부모 상담으로 PM선생님이 나가셔서 중간다리 하신 거죠. 학부모이 학교선생님께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욕구를 들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직접 상담을 나갔었거든요. 1학기. 그런 부분을 우선 연계했다고 이번년도 1학기 동안 그렇게 했어요.

고: 어떻게 이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되셨는지?

정: 저는 실습할 때, 방과 후 저소득층 나갔다왔어요. 저는 저쪽에 서울시립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실습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 학생들이 정말정말 방치가 되어 있구나. 방과 후에는 그런 걸 느끼고, 방과 후에 비전을 원래 갖고 있었거든요. 실습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다보니깐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게 시작되는 거를 근처 애들한테, 근처 청소년시설에서 봉사를 하면서 들었고, 그러다보니깐 이거 내가 해볼 수 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고, 방치 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고. 방과 후 쪽에 원래 비전이 있었어요. 저는 아동복지 전공이에요. 근데 청소년 쪽에 아동이랑 청소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초등학생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고: 그럼 지금 교사생활 만족하세요?

정: 아이들이 그만두고 이러면 섭섭하긴 한데 아직 한 번도 없었거든요. 5학년인데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하고 이런 건 있지만, 일 쪽에서는 많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만족 느끼는 게 4월 입학했을 때와 지금의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눈에 딱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매달렸던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선 선생님으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와 위치가 좋은 거 같아요.

고: 그러면 혹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서적인 것 때문에 조금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좀 더 담임으로서 다가갈 수 있게 문서적인 거가 좀 중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아이들

이랑 저희 같은 경우 출근시간 전후로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한다 해도 아이들이 와 있잖아요. 미리. 학교 끝나면 애들이 3시에 시작이어도 1시 2시 이렇게 와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문서적으로 일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아이들을 더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고: 교사로서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애들하고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동료선생님들과의 관계라던가, 주임선생님과의 관계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 저희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는데. 편의다 봐주시고, 다 보내주시고 이러시는데, 우선 그런데 나갈 때 무겁죠. 아이들 놔두고 교육 갔다 오고 무거운 마음으로 갔다 와야죠. 강남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하루라도 없으면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난리가 나거든요. 학부모님들 전화를 매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 담임선생님이 연락이 없다. 이러면 저희가 귀가알림, 등교알림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지 않나. 나갔다 올 때. 그런 거 외에는 딴 수련관보다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

동료 분들하고 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서 그렇지 나중에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정: 관심도 좋지만, 부담을 이런 쪽에서가 아니라 아이들에 더 치중해서 아이들이 변화하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사명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현장조사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문제)

대 상: 서○○, (여) 1964년 생, 이천시 송정동. SM.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사 11]

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나요?

서: 기본공통과정하고 전공 선택 하는 건데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 예능 이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하고 거의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카리나나 흙 놀이나 수

화 같은 경우에는 4개월마다 아이들이 똑같은 걸 배울 수 있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4개월만 배워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걸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고: 여기 참가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서: 4,5,6학년 아이들이요. 50명이요. 55명인가 그렇게 되요.
고: 지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서: 아니요. 많이 없어요. 만족 정도가 100이면 한 7~80은 되요. 단지 저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급식이나 간식 그런 부분에 저희 또 자녀를 키우는 주부다보니까 아이들 성장과정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서: 다른 학원하고 다르게 정말 전인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일반 아이들보다 접하지 못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기들 생각이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장터인 것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데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요?
서: 저희는 부족한 것 보다는 자꾸 새로운 것을 강의가 다른 거 더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데 과학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고: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서: 저희는 SM 선생님들이 수업을 2시간 하고 있으니까 같은 학년을 해서 쪼개서 했는데도 애들 수준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한 반에서도 편중화 차이가 나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 있죠. 아주 기초가 없는 아이들 의외로 많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도 잡아줬다고 하긴 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아이들을 지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서: 예산이요? 예산은 거의 PM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런 쪽 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나 아니면 은 저희가 지도하는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수 같은 걸 좀 해서 애들한테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고: 업무가 과중 되서 부담되는 점은 없으세요?

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세분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PM 선생님이 많이 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고: 시설 문제는 어떠세요?

서: 시설은 저희가 여기서 좀 하다가 위로 저희가 수업을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요가 같은 거나 다른 걸 명상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런 장소는 좀 그렇죠.

(급식을 나가서 드신다고요?)

네. 식당을 정해놓고 가서 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아서요.

(내부 급식이 더 나으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여기 급식 업체에다가 맡겨서 음식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여기 식당이 있으면 되는데 식당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도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애들 급식을 하고 있어요.

고: 아이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나요?

서: 예. 개학이 다가오니까 더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 전에는 빠져도 되고 무료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빠지면 왜 빠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정확해 말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기본은 잡혀 있는데 앞으로가 아이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애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나요?)

아이들 포켓볼도 좋아하고, 맑은 흙 놀이하고 오카리나 있죠? 그쪽도 좋아하고 미술 애들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이예요. 보통 토요체험 같은 데는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런 쪽을 많이 좋아해요.

고: 애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서: 학교 끝나고 바로 여기로 오잖아요. 피곤하고 늦게 끝나는 시간 때문에 7시 반에 끝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저희도 늦은 시간에 아이들 보내는 게 걱정도 되고 그래요.

고: 아까 그 저소득층 아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엔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서: 아이들이 여기를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밖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학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친구들을 여기 저희는 문화의 집이라 친구들도 많이 오잖아요. 애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일반 아이들이 많이 데리고 와요. 다녀도 되냐고. '선생님 저랑 같이 다니고 싶데요' 하는데 저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안하고 '그래 일단 부모님하고 통화 해볼게' 왜냐하면 거기서 '얘는 자격이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저희가 '부모님한테 전화번호 적어줘라. 한번 물어보라 할께' 하면 '넌 딴 데 엄마가 학원을 보내겠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고: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창피해 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서: 예.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다른데서 혜택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실험자 아이들은 잘 받아주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도 창피해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나요?)
예.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희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만큼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 찍는 걸 거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기간이 작년 9월부터 해서 그런 진 몰라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 실제로 계층 간 격차가 해소된다는 느낌이 드세요?
서: 많이 되죠. 오히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 거고요.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일반 아이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면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폭넓은 생각과 더 많은 것을 접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쪽에 제가 또 있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고: 실질적으로 비행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 어 그렇죠. 저희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반에서 빠진 애들 몇 명 있긴 있는데, 그 외에 아이들은 저희가 막 PC방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여기 오면 PC방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다보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끌고 와요. 아이들이 그 때 공부보다는 모여 있으면 호기심에 갈 수 있거든요. 한두 번은 갈 수 있게 눈감아 주는데, 그게 이제 반복이 돼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데리고 오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문제 있는 아이가 바뀐 사례가 있나요?)

약간 도벽이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 다니면서 좀 그 부분이 사라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시에서 제공을 해줬나 봐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방향보다는 이쪽에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라고 근데 아마 그분이 동두천에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없거든요. 그쪽에 있으면 연결을 시켜줄려고 했는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어머님이 가시는 것보다는 애를 생각해서 어렵지만 여기서 있는 쪽으로 생각해보자고 해가지고. 그게 또 사람이 또 생각하고 하다보면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그 분은 또 일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안내를 받게 됐고 애도 굉장히 밝아지고 그런 게 됐거든요.

(아이는 이제 괜찮아졌나요?)

예. 성적도 굉장히 기초가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성적도 오르고 친구관계도 원만해지고 하다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애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거든요. 자그마한 변화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고: 아카데미에 애를 보내고 나면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기 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서: 그렇죠. 저도 자녀를 키우다보니까 지원형 하고 일반형의 차이인 것 같

아요. 만약에 일반형이라면 어머님들 선택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원형 보내는 분들은 여기 보내는 분들은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학습에 관심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믿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빠지면 저희가 전화 드리고 왜 빠지는지를 애들이 거짓말 시킬 때가 있거든요. 바로 전화 확인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부모님하고 대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짓말은 정말 못하고, 부모님도 믿고 보내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 학교랑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서: 학교는 선생님이 많이 오픈되어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아이들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아니고 관심 밖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학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형식적 인거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받고 형식적으로 주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 애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애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애들도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 하고 그렇게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죠.

고 :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가 덜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 저희가 맨 처음에 지역연계 사업 설명회 할 때 교육청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자원봉사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청에도 저희는 공문을 보냈는데, 참석을 안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화 되서 참석을 하시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 어떻게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되셨는지?

서: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애들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이력서를 내시면 어떨까 해서 그때는 4개월이라서 어떨 진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때 또 하는 일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맨 처음엔 좋은 사업인지 모르고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보겠단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고: 교사생활 자체는 만족하시나요?

서: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만족해요. 제가 준 것 만큼 아이들이 변화는 모습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표정들이 많이 음울했거든요. 조금만 농담을 해도 받아주고 서로 그런 관계가 되는 게 그리고 굉장히 기초가 없는 아이들이 조금 조금씩 변화는 모습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만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고: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서: 전반적인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운영 면에는 PM선생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SM 선생님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그마한 거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 교사로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서: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인성 교육이나 상담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상담 교육을 따로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담 교육을 받고 있죠.

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서: 저는요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4,5,6학년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때를 놓치면 학습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한테 이러한 좋은 교육 혜택이 있다는 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대 상: 이○○, (여) 1981년 생, 고양시 화정동. SM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사 12]

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나요?

이: 아 문화의 집이요? 아니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요?

(문화의 집은 방과 후 아카데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가 가장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럼 부가적으로 문화의 집에서 하는 건 뭐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서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화 강좌에서, 문화 강좌는 많이 하고 있지만 청소년 사업이 이렇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제교류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외국이랑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회도 있고요. 위원회 아이들이 설문지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도약하려고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하는 건 뭔가요?)

되게 많아요. 저희가. 1학기 때 진행되었던 것은, 체육활동으로 시설 관리공단과 연계를 해서 수영과 빙상을 매주 3시간씩 해요. 바로 저희가 지지적인 입장이 시설 관리공단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요. 암벽, 수영,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했더니 수영과 빙상이더라고요. 스케이트. 그래서 5학년은 빙상 6학년은 수영이구요, 2학기 때는 서로 바꿔서 하구요. 자유롭게 얼음에서 하는 거예요. 다 100% 지원을 해주세요. 교육에서 장비까지 연계해서 무료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돈을 내라는 식으로 했는데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시에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항상 저희는 시하고 되게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 하자면, 저희가 토요일 날은 생태체험 문화탐방 하고 있고요. 거의 외부에 나가서 하구요. 생태 같은 것은 루페라는 관찰도구가 있어요. 거의 사진관에서 많이 쓰는데, 현미경 같은 거 되게 자세히 그 안에 보면 나뭇잎에 있는 벌레까지 크게 보이는 그런 걸 개인당 한 개씩 샀어요. 40개를 사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나뭇잎 보는 거 하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했고요. 토요일 날 또 그것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연장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때문에 아이들 뮤지컬 관람, 그리고 클래식, 오페라 같은 것도 볼 수 있

게끔 하구요. 이번에는 모스크바 아이스 서커스가 왔어요. 러시아에서 공연단이 와서 그걸 보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이 방과 후 아카데미가 부모와의 단절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밤에 어머니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부모님들까지 티켓을 드려요. 부모님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가족 관람권 같은 것도 배부를 하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몇 번,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또 보면 여기에서 공연장,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것들이 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여기 재단 내에서 총감독님 이름으로 감독님이 선물하시는 것도 있고요, 공연 기획팀 있잖아요. 공연 기획팀에서 저희한테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사랑의 자리라고 본 기금 사업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서 협조도 해 주시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세요.

(여기는 그럼 기관들이 한 건물에 다 붙여 있고 서로 연계가 되고 그래요?)

연계가 되죠.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공연 티켓이라는 게 으뜸 자리 같은 게 5만원 이예요. 40명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봉사자까지 와야 되니깐 그렇기 때문에 다 연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 뮤지컬 난타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봐요. 공연 같은 것들.

저희는 재단 성격 자체가 고양 문화재단 이예요. 문화 꿈나무를 키우는 게 재단 내에서 교육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재단 내에서도 문화 예술을 키우자 왜 음악 과목은 없나 그래가지고 2학기 때부터는 풍물놀이를 할 거예요. 장구가 저희가 40 몇 갠가 60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구하고 탈춤을 배울 수 있게끔 해서 강사까지 섭외해주시겠다고 해서, 돈은 저희가 내지만 이용하는 건 다 저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장구 같은 건 저희가 따로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풍물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케스트라 연습실 같은 게 있어요. 어울림 누리 공연장에, 그거랑 체육활동 같은 건 더워서 밖에서 못해요. 그래서 체육활동은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줄넘기 동아리랑, 댄스동아리 하고 있고요, 또 위에는 발레 연습장 같은 무용 연습장 같은 거라서 하고, 영상실 따로 있고 저희 예절원도 따로 있어서 다 그곳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교과목과 관련된 것들은요?)

교과목은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연계가 돼서 수학을 지금 수학 2시간 영어 2

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3시간으로 올렸고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고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하시니까 발음이 우리 고양시 타 학원 선생님들 보다 발음이 좋으시고 네이티브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여기 갔다 와서 발음이 다르다. 학교에서 칭찬을 한다고 해서 올렸고, 수학도 아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요. 특화된 것은 과학교실이 있는데요. 과학교실은 철저히 실험위주. 매주 실험이고, 황소개구리도 조별로 하나씩 와서 이만한 황소개구리를 직접 해부해서 심장 빼는 걸 관찰하고 그런 걸 했어요. 특화된 것은 과학교실인데, 과학교실은 되게 큰 대회 나가서 아이 두 명을 추천을 했어요. 과학 올림피아대회 입상해서, 고양 황소실험대회 분야에 두 명을 2인 1조로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전교 1,2등 하는 애들이 나와요.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추천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2 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딴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데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아이들이 여기서 과학을 하고 있는데, 과학 선생님이 추천을 했다. 우리 아이들을 하면 안 되겠나. 우리는 실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좀 추천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겠다.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저희 지역운영협의회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그럼 걔네들한테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추천시키겠다고 그래서 바뀐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로. 바꿔서 나갔는데 천 8십 몇 갠가 팀 중에서 네 팀인가 세 팀을 뽑아요. 그런데 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장려상까지만 경기도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 상 받는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게 전교 1, 2등이거나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과학 실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거나 날고기는 집안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됐어요. 딴 집에서는 부모님이 픽업해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가고 되게 조촐하게 갔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기가 죽을까봐.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상 받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 친구들이 나가서 동기부여만 하자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큰 상을 받고 왔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외를 시켰어요. 저희 과학 선생님이 유명하신 학원 원장님 이예요. ****라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번 과외도 받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요.

(다 자원 봉사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원 봉사 식으로 저희가 연계가 많아요. 다른 타 방과 후 아

카데미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영재교육을 하게 됐고, 수학선생님은 또 자원봉사자를 불이 나게 알아봐서 수학과 과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을 수학은 두 번 과학은 한번인데, 그것도 몇 십 만 원짜리예요. 그것을 무료로. 그것을 저희가 알아봐서 학부모 봉사단 단장님이 수학학원을 추천해주셨어요. 학부모 봉사단 단장님이 백양고등학교, *** 고등학교 단장님이랑 연계가 돼서 정발산 단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지역사회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경기도 신문, 고양시 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장애인 신문에 노을학교가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얘기했더니, 신문에 나오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현수막을 세 개나 해주신 거예요. 하나만 부탁했는데 들어오시다 보면 있어요. 미술관 건물 있는데 보면, 축 해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해준 게 세 개나 있는데 달 데가 없어서 하나만 걸어놓은 거거든요. 시에서 이런 거 잘 안 해주잖아요. 수련관도 그런 거 잘 안 해주시는데, 저희한테는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사 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식사자리라도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감독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누구누구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홍보 좀 될 수 있게 해라. 저희는 총 감독님이라고 그래요. 문화예술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에 홍보팀이 따로 언론에 홍보하는 홍보팀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발로 뛰셔서 신문에 나가고 아이들 사진이랑 같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연계 하는 거 더 얘기할까요? 지금도 되게 많아서 많아요. 항공대학교, 고양학부모봉사단, 백양 학부모 봉사단, 백양 학부모 봉사단 지역운영협의회는 경기도 교육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원당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인데, 체육대회 때 운동장, 마이크, 강당 다 섭외해주시고 운영위원위 분께서 교감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학기 초에 노을학교는 책임감 있고 하는 곳이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모범생’이라는 것을 강연도 해주시거든요. 교감선생님께서 아이들은 으쓱하죠. 우리 교감선생님 오셨다.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있는 아이들은 노을학교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학교 안 나가고 노을학교만 다니면 안 되나요? 항상 우리가 우린 학원 아니다. 우린 학원 선생님 아니다 라고 항상 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이라는 말이 입에 뱄잖아요. 그래서 학원 하다가도 우리 눈치보고 학교예요 이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고: 여기 참가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총 41명이구요. 6학년이 21명, 5학년이 20명이예요. 6학년 21명인데, 한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찾아오셔갖고 진짜 하면 안 되겠냐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안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고: 지원 정도는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이: 저희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기관보다는 우리가 발로 뛰고 하기 위해서 따로 식사자리를 갖거나 계속 연락을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돈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부에선 얼마나 나와요?)

그런 것 까진 모르겠는데 고양시하고 해서 1억 얼마예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어요. 딱 어디 정해져 오는 운영비. 체험학습 비 나오면 이거를 딴 데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지만 실제로 그거를 유용하게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융통성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못사니까 저희가 복사를 해서 책을 해주지만 애들이 문제집을 사오는 애가 있고 안 사오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돈이 남아서 문제집을 사주고 싶어도 살수가 없고 어떤 어머니는 우리 A4용지 사줄 테니 복사해주시면 안되나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이: 우선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 벤치마킹한다고 들었어요. 방과 후 학교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외로 떠나니까 제 2의 학교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시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학교에 남아 있으면 학교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방과 후 아카데미가 PM, SM 나누고 하니까 때문에 더 체계적이죠. 그리고 기관 내에서 경쟁이 되니까 이 방과 후 아카데미가 경쟁이 되니까 서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수련관이 가까이 있지만, 수련관에서 뭐 좋은 거 했다 그러면 잠을 못자요. 그리고 문화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시설이 다른 데랑 좀 다른 복지관이나 수련관은 좀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시설이나 바로 미술관 포스터 보셨

죠? 애들 미술관도 저희 애들 다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엔 처음으로 어린이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다른데 미술관 가면 그림이 높게 걸려 있지만 요번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걸려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고, 여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연계 같은 것도 잘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애들이 부담감 없이 올수 있고 즐겁게 올 수 있다는 것.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데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요?

이: 우선 여기는 고양청소년 문화의 집이지만 문화재단, 공연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 없잖아요. 방과 후 아카데미 내에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축이 돼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SM으로 들어왔지만, 재단의 일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아요. 애들 청소년 관리만 해선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 결재를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사 눈에 띄어서 능력을 인정받는데, 초반에는 청소년 관리만 했는데, 하는 일이 뭐냐 애들 관리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위신도 없고 저희는 능력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위계질서 같은 게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과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는 공연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제반 업무도 좀 해주고 SM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매뉴얼은 아니지만 SM들도 프로그램도 짜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시나요?)

문화탐방, 생태체험 계획표도 짜고요. 결과보고도 쓰고요. 에어컨 시설관리 같은 거 직접 견적서 받고, 기획안 올리고 해야 되요. 업무가 가중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청소년 관리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하지만 월급은 굉장히 작고 그니까 급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보다 북 카페도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책 다 구입하고 예산까지 하고 하니까 그렇게 안하면 재단 내에서는 능력이 없는 걸로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 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니까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인 거예요.

고: 그러면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이: 국가에서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장소 같은 것도 딱 장소를 정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재단 내에서도 다른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애들이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하려면 장소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재단 내에서 공연이 들어오면 공연으로 밀어주

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방과 후 아카데미가 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도 융통성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안 좋고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대요. 돌린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피곤하다. 정직하게 FM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것도 사야 되는데 한 과목당 한 개지만 따지고 보면 많거든요. 한 5만원 되고, 과학 실험 비 같은 경우에는 실험 비를 내야해요. 실험 위주기 때문에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가 힘들고 알코올 이렇게 약품들이 굉장히 몇 만 원짜리 고가품이에요. 그런데 과학 선생님이 스폰서를 과학 문제집을 애들한테 사준 거예요. 그런데 과학 실험 비까지 그럴 순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남아 있는데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죠.

고: 수업 진행 같은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 수업 진행 같은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가 책임감이 좀 부족한 애들이 지각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점은 그다지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 프린트물이 그게 막 분실되고 지원이 잘 안 된다던가

고: 업무는. 많이 야근 하시고 그러세요?

이: 그럼요. 제시간에 퇴근 못할 때가 많고,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저 어제도 지역운영 협의회에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거의 9시에 나왔거든요. 퇴근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역운영 협의회를 자주 열어요. 강사 협의회나 그래서 운영 위원들 모시고 강사분이랑 같이 만나는 시간을 어제도 가졌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PM일까지 같이해요 저희 SM들은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건 굉장히 많죠. 어려운건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쓰고 그런 건 하지만 그게 많은 거니까.

그리고 기자재 같은 것들이 요즘 애들이 대학교처럼 옮겨 다니긴 하지만 지금 빔 같은 거 설치를 좀 제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관이 돈이 없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월급이 제때 안 나오는 형편인데 그런데 사달라고 할 순 없거든요. 이번 에어컨도 여기 문화의 집에서 스폰서를 받은 거예요. 저희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대고 '빔 설치해 주세요, 애들 옮겨 다니기 싫어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깐.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방과 후 아카데미가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어느 날

빠지고 안 나오고 좀 아프다고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제성이 없어서 애들 공고육관 다르고 사교육이란 하기엔 애들 돈을 안 받고 하니까 그런 책임감들이 좀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가 너무 해주니까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갖고 나중에 고마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지 병 같은 것들 당연히. 셔틀버스 어쩌다 한번 운행 안 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쉬는 날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차량운행을 따로 해요. 가깝거나 애들이 걸어간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라 그러면 전화가 와요. 왜 안태우느냐 우리 애들 위험한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국가에서 다 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창피해해요.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형 이니까. 소문나는 걸 싫어해요 지역사회에서. 숨기고 싶어 하고. 저희가 행사로 얼굴을 붙여놨는데 자기 얼굴을 오렸어요. 친구들이 볼까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친구들이 가니까.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방과 후 아카데미 간다고 그러면 애들이 학원 다닌다고 그래요 애들한테. 근데 여기 오는 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여기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 다니는 거를 친구 애들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잘나가는 애거든요. 인기도 많고 학교에서 옷도 잘 입고 다녀요. 엄마가 되게 잘 입혀주니까. 수급자거든요. 근데 여기 다니다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는 못사는 아이들이 다닌다. 국가에서 이런 거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때는 건강한 밝은 이미지로 많이 부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 사진 찍는다고 했을 때 이게 외부로 유출될까봐 가리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선생님이 상처받을까봐 대놓고 말을 못하고 '저는 초상권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장난 식으로 가려요. 그런데 속마음은 정말 노출되기 싫어서 그런 건데 선생님을 배려해서 겉으로는 티 많이 안내요. 핑계를 대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이: 예 좋아해요.

(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체육활동, 수영, 빙상을 최고로 좋아하고요.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위주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달라요. 영어를 정말 잘 배울 수 있으니까 발음 선생님이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셔갖고 그래서 다 다른데 가장 좋아하는 거는 뛰는 거. 체육활동.

그런데 체육활동도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영, 빙상 이런 거 하고 2학기 때는 또 암벽등반 되게 좋아요 밤에 보면 이 앞에 불이 쫙 들어와서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데 잘 모르겠어요.

고: 애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 학기 초기에는 애들이 코피를 쏟았어요. 힘들어서. 3시 40분에 와서 8시에 가고. 집에 가서 자기 수업시간에는 학교 숙제 하라 그러지, 학교 짐을 또 들고 와야 되면 가방이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 학기 초반에는. 아까 왔던 애 얘 있죠. 얘는 얼굴이 다 뒤집어졌어요. 아토피 얘가 있고 힘들어서 얘가 비실비실하고 우는 애들도 있고. 여기는 방과 후 아카데미 좋긴 좋은데 애들을 잡는구나. 그래서 학기 초반에는 건의사항, 제가 말도 안했는데 애들이 건의사항 썼더라고요. '우리 좀 제발 쉬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위원회에.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뭘 홍보를 하거나 건의를 해도 그게 일선 첫 번째에서 커트가 되고 더 이상 위로는 안 올라가지 않나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애들이 피곤해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애들이랑 연계가 돼서 보충학습도 해요. 중국어, 수학, 영어. 학기 초에는 정말 (코피) 쏟았어요. 코피 쏟았는데 저희만 쏟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거기도 코피 쏟아요? 우리 애들도 코피 쏟았는데' 이래요. 근데 오는 건 좋아해요. 간혹 오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좋아하고

고: 아까 그 저소득층 아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엔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저는 제 얘기를 다 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가난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지하실에 물 푸고 그랬는데 지금 봐라. 선생님 이 회사 그냥 들어왔냐. 커 보이지? 좋아 보이지? 막 이러고 그런 얘기도 하고. 국가청소년운영위원회 얘길 해요. 국가에서 너희들 돈 대주는 건 너희들 주는 거 아니다. 국가에서 너희들 일인당 해서 얼마나 지원해주는 줄 아냐. 너희들 가난해서 그러는 것 같으냐. 너희들 대통령 나와서 방과 후 아카데미 밀어준다는 얘기 못 들었냐. 너 네들 인재를 육성하는 거다.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거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다 복지가 아니다. 여기가 사회복지관이냐. 너희들을 위해서 육성하고 그러는 곳이다. 대통령이 후원

하는구나 그러면 '아' 이러고 좋아해요.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 이야기해줘요.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청소년 지도사고 청소년 지도자다.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그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해주고, 꿈나무를 육성하는 곳이다. 너희들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줘요. 미쳤다고 국가에서 너희들 그냥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은근히 이해하고 자부심 갖고 어떤 애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는 왜 여기 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러고. 우리가 단체 노을학교 티를 맞췄어요. 되게 예뻐요. 그거 입고 학교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같은 학교 다니는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싫어하고 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왜 입고 왔냐고 그러면 '왜? 예뻐서 입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되게 상반 되죠.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10%~20%. 반에서 두 명쯤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선생님 앞에서는 티 안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학교하고는 다르니까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니까 '선생님 제 얼굴이 못 나와서 얼굴 뗐어요.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안 찍을 거예요' 이렇게 얘길 하지만, 마음속에 오픈된다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복지관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안온다고 우는 애가 있었어요. '안와요' 그러고 엄마한테 '안다녀!' 이러면서 그런 얘길 했었어요. 걔가 지금 반장 이예요. 정말 잘해요. 근데 걔가 창피해 해요. 오는 걸 좋아하면서 그것 때매 저는 너희들을 육성하는 곳이다, 너희들은 꿈나무고 너희들을 키우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최선의 방책이고 너희들이 왜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얘길 해주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뭐,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가난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어떠니, 선생님은 대학가서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왔다. 너네도 갈 수 있다. 너희들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니, 그렇지 않니? 막 이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가 워낙 아는 사람이 적잖아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국가 기관 이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할 때 국가에서 하는 국가 청소년 위원회다 그러면 사단법인 이렇게 생각하구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열매처럼 보면 뭐 연예인들 와서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청소년위원

회도 연예인들 한 다음에 모델로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어떤 곳이다 그런 것 좀 광고해서 CF처럼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애들도 청소년 운영위원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여기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요. 내년부터 들어왔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뭐예요?'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뭐예요?' 이러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청소년 지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고: 실제로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아 여기요? 이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제가 어디서 상담 쪽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여기서 잡아주면 뭐하냐? 중학교 가서 다 날라리 된다. 다 나쁜 길로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땐 안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삐뚤어져 나가요. 방과 후에 일하는 특히 복지관의 애들 중에 보면 나중에 만나면 몇 년 뒤에 만나면 내 친구들 그쪽에 있으니까 일 년 뒤에 만났대요. 초등학교 때 보고 중학교 때 만났는데 애가 귀 뚫고 화장하고 나왔더래요. 잡아 줄 수 가 이제 이 이상 터치 안하고 이게 학원처럼 애들 막 수업위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 수급자 어머니들이라도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단 말이죠. 학원을 보내 국가에서 학원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있나 봐요. 시에서 공부방 보내고 이러니까 거기로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수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학교것 외에 것도 해야 하는데 중학교 수업은 아직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좀 삐뚤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되긴 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안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다 국가 지원 받아서 다 공부방 다니는 애들이예요. 그런 걸 이제 제가 빼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식으로 이런 사업이 펼쳐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못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엔 다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지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까지 해주지 않잖아요. 그때 탈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기도 한데

(공부방과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게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한번 빼가려고 그랬던 게 학교 담임선생님 추천서를 받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여기 오는 걸

까먹으셨는지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하는 거 공부시키는 게 있대요. 보충학습 같은 거. 거기서 추천을 한 거예요. 담임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 저희한테 이렇게 추천해 놓으시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추천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마가 됐어요. 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반디교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반디교실, 공부방 완전히 중구난방식이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겹치는 걸 담임선생님께서 모르시는구나?)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애들이 이젠 공부방에선 늦게 들어오고 솔직히 공부방에선 애들 공부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본 몇 시간 전공 몇 시간 있고 실험 활동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고: 아이들이 아카데미에 오면서 비행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귀가 문자를 보내요. 애들이 끝나고 늦게 만날 수 있잖아요. 8시에 가면 이 카드가 있어요. 애들끼리 다 입력을 시켜놨어요 카드에. 카드하나 딱 찍으면 '예슬이가 8시에 출발 하였습니다' 그러면 8시에 출발했다는데 애가 안 오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죠. '우리 애 아직 안 왔는데요.' '분명히 8시에 셔틀버스 태워서 보냈습니다.' 얘기하면 걔가 샌 거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버스까지는 걔가 안 되니까

(그럼 실제로 비행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있어요.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예요. 후배들하고 같이 사람 패러 다니기도 하고 여자애가 근데 걔네들이 그런 모임을 가자고 했을 때 얘는 여기 와야 되고 저희는 안 오면 부모님께 전화하니까 여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차원이 되고. 그래서 애들이랑 허튼짓 하러 돌아다니지는 않죠. 방과 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확실히 그런 효과는 있지만 중학교 가서는 또 걔가 학교에서도 거의 유명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붙잡혀있으니 또 여기 있는 거 좋아하고

고: 아카데미에 애를 보내고 나면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기 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가 상당한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볼 때는 엄마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침밥도 안 먹고 오고 점심도 안 먹고 학교에 밥 먹을게 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엔 엄마가 새벽에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하면 애자는 모습만 보니까 밥 챙겨줄 시간이 없고 집에서 TV만 보는 거예요.

종일 오락하고 TV만 보고 하니까 여기 온 이후로 TV 볼 시간 없죠, 오락할 시간 없죠, 저녁 챙겨주죠, 학교에서 밥 먹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님들이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애들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지금 학교에서 왕따인 친구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기와선 기를 펴고 살수 있다는 거 학교에선 발표 하나 못하는 애들이 여기선 너무 자신감이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못시켜요. 이젠 짚어요. 초반에는 애들이 발표 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발표한다고 손을 다 들고 질투하고 안 시킨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고: 학교와의 연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실제로 학교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고양 외국어(고등학교)하고도 하고 있고 **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소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교감 선생님이 공교육은 어떤지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직접 SM하고 PM 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이렇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애들이 책임감이 없다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만약에 저희 추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연수 하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참가해서 학교 교육은 어떤가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교감선생님은 '우리한테 배울 점도 많다. 이렇게 애들이 표정이 밝구나. 느꼈을 때 우리가 배울 점도 있다'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성남 초등학교하고는.

(근데 학교와 경쟁모드로 될 때도 있지 않는지?)

저희가 과학탐구실험대회 때도 일부 담임선생님들을 불렀어요. 시상식 하는 거 담임선생님 보시라고 애들이 '어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 상 받은 거 보러 오셨다' 고 학교에서도 상을 받고,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고양 시장님이. 고양 시장님이 우리 이사장님이니까. 이사장 표창을 하면 고양 시장님이 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경쟁이 되긴 하지만은 저희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요. 그리고 한번은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요새 표정이 어둡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달라'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직접 아이들끼리 싸운 거예요. 노을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는 것을 지금 화해를 시켜서 지금 너무 잘 다녀요.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얘길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에 전

화를 해서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가요?'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급자보다 못사는 아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그걸 담임선생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수급자 혜택이 됐고 진행 사항도 알려 드리고. 선생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일일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게 경쟁 일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경쟁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솔직히 우리 아이들을 신경써주지 안잖아요. 몇몇 아이들, 눈에 띄는 아이들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일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셨고 한데 우리 아이들은 소외된 애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케어 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점점 느끼신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어머, 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갑자기 얘가 상을 타왔네?' 놀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 어떻게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되셨는지?

이: 사회복지학, 청소년 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해서 왔는데 처음엔 방과 후 아카데미, SM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재단이 좋으니까 원서를 넣었어요. 하게 됐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였어요. 저는 사업 계획서 쓰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 싶었는데 오게 됐는데, 솔직히 관련 학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접하게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가깝게 일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SM이외에는 이렇게 청소년들 가까이 하는 건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상담 같은 것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좋아요. 하지만 교사도 아니고 학원 선생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과목을 가르치진 안잖아요. 제가 영어 파트를 지도를 좀 했어요. SM했긴 했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타깝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110만원 받는데 110만원 다 못 받잖아요. 회사에서 보너스 같은걸 주는 것도 아닌데 100만원 받고 다녀요. 차비하고 그러면 한 80만원 하면 남나 밥 먹고 그런 거 80도 안 남는 돈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학력이 높은 SM들은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학력에 비해서 친구들한테 저도 아이들 하고 이 생활이 보람 있어, 너무 좋아 행복한데 주위 대학 동창들한

테 SM이야 라고 말을 못해요. 방과 후 활동 봉사자라고 말을 못하는 게 PM은 오히려 3년이 경력인데 이 재단에서 4년 일한 사람보다 월급이 똑같아요. 지금 수련관도 그래요. PM이 자기 상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SM은 기본이 130만원 이예요. 재단이. 130만원이 최고 낮은 건데 그런데 저희가 그걸 돌파 했어요 110만원. 재단 내에서도 어이없어하고 우리도 어이없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는 더 못준다. 너희 사업비로 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130만원 달라고도 못 하는 거라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애들한테 열심히 하고 싶어도 딴사람은 똑같이 하고 더 많이 할 수 도 있고 애들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PM이 180만원 이고 SM은 110만원 70만원 차이인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들 선생님끼리 모이면 너무 심각하고 자기 계발하러 어학연수라도 가야겠다. 나는 딴 데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직률이 생길 수밖에 없고. SM과의 차등 어떤 분은 고등학교 나와서 SM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졸이. 전문대, 고졸 많고. 4년제 천차만별이예요. 사람들 다 졸업하고 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건데 어떤 데는 PM 면접 보러 왔는데 '너 PM하고 너는 SM해' 이랬대요. 그 PM은 4년제를 나왔고 SM은 전문대였대요. 다 사기 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기관 가면 PM인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뭐야. 기준을 정해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뭐 학원에서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청소년 육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학원 강사? 학원 강사가 청소년 육성 업무로 들어가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자부심을 가졌던 게 뚝뚝 깎여요. 특수한 청소년 육성 업무라면 진짜 청소년 문화의 집 기관이나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청소년 파트를 담당한 사람이 3년 이상을 딱 정해져야지 복지관에서 1년 일했고 학원에서 2년 일했다 그러면 3년 된 거예요. 학원을 청소년 육성기관으로 봐야 되나 사설기관 학원이 지금 우린 학원이랑 경쟁하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그냥 애들 수업 가르치거나 합기도 가르치거나 그게 다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긍심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 교사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우세요?

이: 아이들과 같이 하는 부분은 우선 청소년학과에 들어간 공식적인 목표는 일단 아이들과 하는 시간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지도했을 때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게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하니까 만족스럽죠. 그

런데 이런 재단 업무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솔직히. 재단에서 나의 능력을 알려야 되고 아이들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항상 전화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요. 자필로 해요 그거는. 컴퓨터로 치면 정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과보고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솔직히 그렇죠. PM이 SM에게 일을 나누다보면 자기가 편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SM일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PM의 일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고: 교사로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이: 이게 늦게 끝나니까 회식자리도 못가고 하니까 떨어지거나 차별되죠. 같이 입사했는데 월급이 다르니까 상사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우리를 다 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처우가 다르니까 110만원 고졸 같고 110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막 똑같이 어렵게 몇 백대 일 우리는 정말 도 단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SM이 뭔지 모르고 온 사람이 많았고 이력서가 몇 천 장씩 쌓였어요. 그때. 같이 뽑았어요. 사랑의 자리, 신입사원, SM을 같이 뽑은 거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것. SM을 3년 하면 어디 가서 경력으로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SM만 하면 자기 계발이 없고 저희 같은 게 12시 출근이지만 일찍 나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12시 출근이지만 집이 멀고 하니까 학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좀 가르쳐주고 싶어도. 댄스학원이나 영어학원을 가고 싶어도 자기계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저녁밥도 우리가 내는 거지만 애들이랑 껴서 먹어서 여기 너무 좋으신 분, 영양사 분 만나서 '선생님들은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거든요. 굉장히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70만원 갖고 한 달을

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A: 방과 후 아카데미가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학년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해서 정통성이 있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SM들의 급여 같은 거 그리고 좀 자격을 평준화했으면 좋겠어요. SM과 PM의 자격을 평준화해서 좀 차별되지 않게 정말 능력 없는 PM, SM있는 곳이 많아요. 학력 차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감사 나가서 이런 걸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간 같은 것도 좀 하늘에서 뚝 어

진 사업이 아니라 기관 자체에 좀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수정을 안 하느냐.' 경고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대 상: 유○○, (여) 1984년 생, 송파구 거주. SM
면담자: 고혜리(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사 13]

고: 선생님이 계시는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 기본공통, 전문선택, 급식지원, 토요체험활동을 해요. 기본공통은 영어, 수학, 국어, 한자 생명과학으로 해서 각각 전문 강사 분들로 초빙을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문선택은 재즈댄스, 농구, 전통놀이, 리본공예, 수영, 헬스같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3개월 동안 하고 그 후에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토요체험활동은 공부에서 벗어나서 주중에는 할 수 없는 체험활동을 해요. 외부로 체험활동을 나가는데 에버랜드, 식물원등을 방문하거나 학생들의 서면 욕구조사를 통해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설문하고, 조사해서 본인들이 직접 계획해서 요리체험, 도예체험 등의 활동을 합니다. 또 방학에는 건강검진도 합니다.

고: 참가하는 학생들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유: 저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중등을 선택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기관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60명으로 시작을 해서 겨울 방학 때 73명까지 학생이 늘었었는데, 프로그램을 빡빡하게 진행 하다보니깐 중간에 힘들어 하며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지금현재는 다시 60명으로 줄었습니다.

고: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예산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어요. 1억 몇 천 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1년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분기별로 4번 나누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유: 아무래도 방과 후 아카데미는 SM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면서 학생들의

개별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SM선생님에게 기댈 수 있고 자기얘기를 털어 놓을 수 있음으로 해서 소속감이나 안정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곳에서 와서 5시간정도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전화로 "선생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다가 갈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외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부분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유: 아이들을 가장 많이 만나야 하는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어요. 아이들이랑 더 많은 애기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업무와 같이 하다 보니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많이 미안한 부분이에요. 제가보기에는 겹치는 행정문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줄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유: 필요한 것은 행정업무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 아이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합니까?
A: 정말 좋아해요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가 이번에 여름방학이 1주일 동안 있었어요.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5일 동안 방학을 했었는데 그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수련관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기도 하고요, 싸이에 글을 남기고 하면서 "아무래도 저 수련관 중독인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고: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떤 면입니까?
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방학 같은 경우는 조금여유가 있는데 학기 중에는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낙인의 문제는 없는지, 아이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유: 저희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모르고 참석했다가 여기서 지내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어머니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애가 의기소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들 모집을 할 경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오기를 꺼려하는데 일단 이곳에 오고나면 여기 있는 학생들끼리 무척 활발하게 지내게 되요 그리고 전문선택 프로그램 중 전통놀이나 밴드공연을 하면서 발표회를 갖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감이나 자긍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의 망설임이나 위축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그런 것을 많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고: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빈부격차 같은 건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곳에서 아이들 공부를 보충해준다고 하지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전문적으로 아이들 학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학원을 많이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친구들 돈을 빼앗고 불량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몇 번 불러서 애기를 하고 타일렀어요. 결국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더 안 좋은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었어요. 또 다른 한 경우는 어느 어머니가 자녀가 가출을 했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친구의 연락처를 통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 했었죠, 결국 가

출한 학생과 통화가 되었고 잘 타일러서 집에 들여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깐 학교나 부모님에게 있는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 선생님들에게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기 보다는 언니, 누나, 라는 느낌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어머니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아무래도 여기 학생들을 보면 편모, 편부 학생들도 있고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곳에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려요. 어머님들께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시는 것 같고요.

고: 학교와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 애기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신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 저희가 기본공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CA를 이곳에 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적인 영역 같은 경우 재즈 댄스나 밴드 같은 것은 학교와 연계가 가능하고요 토요체험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내용보충 같은 것 보다는 이렇게 활동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학교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어떻게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되었습니까?

유: 작년도 9월에 이 사업이(방과 후 아카데미)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였고요 작년도에는 이렇게 직원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올해 정규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고: 현재 교사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유: 저희 같은 경우는 중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깐 시간대가 초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보다는 많이 늦쳐 져요. 2시에 시작해서 밤10시에 끝나게 되거든요 1시에 출근을 해서 행정업무 및 수업 준비를 하고 2시에 시작해서 밤10에 끝나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갖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관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애기를 많이 나누는데 다들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해요.

고: 교사로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유: 다른 직원 분들도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다른 협조도 잘해주시는데,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제 입장에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해요. 화장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냥 간다거나하면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SM 선생님들만 느끼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과 같이 생활 하다보니깐 학생들이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게 되면 죄송스럽게 되고요, 과다한 행정업무 같은 경우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 했구나” 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저소득층, 편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참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인터뷰 프로토콜 _ 참가학생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학생 여러분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성별	남자 ( ) 여자 ( )
2-3. 이름	
2-4. 생년	_____년도
2-5. 학교명/학년	

3.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4.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같이 사는지 여부 등)

5. 공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프로그램 내용)

6.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7. 공부방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어른과 같이 있는지 아이들과 어울리는지 등)

8.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지 중간에 term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9.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오게 된 경위)

10. 스스로 결정한건가요? 아니면 누가 권유했습니까? (스스로 동기가 있는지 알아봄)

11.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동기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물어보기 위함

12.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3.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합니까?(교사들이 아이들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자 함)

14.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성적 향상, 정서함양, 급식, 기타 다양하게 물어본다)

15. 급식은 어떠합니까?

16.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17. 만일 나오지 않겠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8. 공부방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19.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시간 등)

20.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어떤 곳이라고 들었는지 이용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본다)

21.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22.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누구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공부방 외에 주말의 캠프나 기타 단기 방과후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물어봄)

21. 공부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바라는 프로그램, 급식, 상담, 주말 프로그램, 야간 개방 등)

대 상: 이○○ (12), 1994년 생, 초등5학년, 양천구 신월동거주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12]

한: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이: 엄마랑, 저랑, 그리고 복잡한데, 작은 삼촌은 결혼하셨는데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큰삼촌 외숙모, 친척동생 친척 오빠랑 같이 살아요.

한: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이: 큰삼촌은 포크래인 하시는데 새벽에 들어오시고, 엄마는 7시쯤 오시거나 9시쯤, 외숙모는 7시쯤 오세요. 제가 집에 가면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는 일 안하세요.

한: 공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이: 공부요. 사회랑 과학은 시간이 안 되서 못하고 국어랑 수학 하고 있어요. 문제집 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한문이랑 피아노 시간이 겹쳐서 중간에 빼먹어서 싫어요. 피아노 학원 시간이 정해져서요. 일기쓰기는 있는데 피아노 학원 때매 못해요. 그래서 밥을 나중에 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도 제가 장학생으로 해서 다녀요. 다른 친구 세 명이서 장학생 이예요.

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학교 끝나고 여기 왔다가 4시에 피아노 갔다가 5시에 와서 여기서 계속 있어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여기에 있어요.

한: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 2005년 겨울부터 왔어요.

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이: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친구를 옹달샘에 소개시켜준걸 알려줘서 제가 엄마한테 말했죠.

한: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토요일, 휴일에, 여기 안다녔을 때는 심심했었는데요, 야외활동도 하니까 좋아요. 저 혼자 심심하게 혼자 모르는 것도 답지 보면서 하던지 놔두던

가 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또 간식, 예전에 집에 있을 때는 간식이 따로 없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좋아요.

한: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이: 2005년엔 없었는데 2006년에는 애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공간은 좁은데 애들이 많아져서 좀 답답해요. 선생님들이 애들 하나하나를 다 챙겨줄 순 없잖아요. 저 혼자 그냥 애들 챙겨야 할 때도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6학년이라 저학년 애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많아서요. 그럴 땐 한 대 쥐어박아요. 선생님 없을 때요. 그리고 여기 다니는 걸 친구들한테 창피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요, 보통 학원이 아니잖아요. 돈 내고 다니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좀 그래요.

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합니까?
이: 선생님한텐 얘기 안하고 애들한테 말해요. 선생님들 좋으세요. 이런 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한: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이: 자원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들 공부 가르쳐 주실 때 재밌어요. 재가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죠.

한: 급식은 어떠합니까?
이: 맛없는 거 나올 때, 미역 이런 건 싫고, 고기 그런 거 나올 땐 좋아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이: 아직 중학생이 다니는 프로그램이 안 만들어 져서, 공간이 만들어 지면 다니려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려고요. **(왜?)** 중학교 3학년 되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려고요. 친구들하고 학생증 나오면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고 방송국 아르바이트 해서 만원씩 오천 원 씩 벌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요.

한: 공부방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이: 화장실에 변기가 없고 손 씻는데 만 있어서 변기를 만들고 싶고요, 주방도 좀 커서 식탁에서 먹었으면 좋겠고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방하고 놀이방 따로 해서 공부방에는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향기도 나고 책상이 있어서 넓게 쓰고 싶어요.

한: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학교 특기적성 들어봤고요. 복지관 같은데서 하는 건 가정통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 6학년 1학기 때 무료로 한자를 해봤는데 할아버지 분이라 수업이 재미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근데 2학기 때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해서 좀 안 한 게 후회됐었어요. 근데 거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서 여기 활동도 해야 하는데 여기가 더 좋아서 여기서 있어요.

한: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이: 생각해보긴 했는데 돈이 드니까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이: 토요일엔 여기 왔다가 집에서 공부하거나 텔레비전 보고 일요일에는 교회 갔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학교 도서관에도 갔다가 공부하고 그래요. **(가족과는?)** 휴일에는 엄마도 친구네 갈 때도 있고, 평일에는 할머니 계시니까 딴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큰삼촌은 일을 계속 하시니까 잘 못 만나요.

한: 공부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변기통이요. 애들이 화장실에 올라가기 무서워해요. 변기통 남자여자 따로 따로 돼있지 않아서요.

대 상: 윤○○ (13), 1993년 생, 초등학교 6학년, 양천구 신월동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13]

한: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윤: 저희 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미니, 삼촌, 남동생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따로 떨어져 살아요.

한: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윤: 아버지는 그냥 집에 계시는데요.

한: 공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옹달샘에서, 문제집 풀고, 일기도 쓰고, 간식도 먹고, 저녁도 먹고, 토요일, 방학 같은 때는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고, 캠프도 가요. 보통 다른 학원에 하는 것을 거의 다 해요. 아 맞다! 저희 삼겹살도 구워 먹어요.

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윤: 학교 끝나면, 어쩔 땐 놀다가, 어쩔 땐 청소가 끝나고 여기 와요. 공부방에 와서 7시까지 공부방에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요.

한: 공부방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윤: 공부방 끝나면, 동생이랑 동네 애들이랑 이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아요. 아니면 집에서 아빠랑 TV 봐요.

한: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윤: 공부방에 온지는 1년 하고 3개월 됐나 아 아니다! 4개월, 1년 4개월 됐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여기 왔어요. 제 동생이랑.

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윤: 여기는요. 어떻게 왔냐면. 제가 원래 엄마랑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빠한테 왔는데, 아빠한테 온지 5일 정도 됐는데, 집에 옹달샘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와있었어요. 편지에 저랑 제 동생한테 옹달샘으로 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여기 오게 된 거에요.

한: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윤: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은, 체험학습을 많이 해서 좋아요. 제가 원래 캠프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캠프도 가고, 농촌활동 가서 메뚜기도 잡고, 인절미도 만들고,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갯벌 가서 놀고, 바닷가고 가서 놀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다니기 전에는 시험점수가 70점 밑 이였는데, 이제는 70점 이상 나와서 좋아요.

한: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 힘든 점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워요. 저랑 같은 학년이 7명이 있는데 각자 의견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같이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달라서, 많이 싸워요, 또 집에 가는 방향도 달라서, 얘는 얘랑 가고 싶고, 쟤는 쟤

랑 가고 싶고 막 이래서 많이 싸워요. 또 친구들이랑 모여 있으면, 저희가 많이 떠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들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혼날 때 기분 나빠요.

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합니까?

윤: 심각할 때나, 어쩔 때 선생님들한테 상담해요.

한: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윤: 제가요 여기 다니면서 시험점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요 원래 정리 같은 거 못하는데요. 공부방 다니면서 내 방이랑, 옹달샘에서 내가 쓴 물건 같은 거, 정리 정돈을 잘 하게 됐어요.

한: 급식은 어떠합니까?

윤: 급식은요, 다 맛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편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다 잘 먹거든요. 그래서 급식 맛있어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윤: 공부방에는 계속 나오고 싶어요.

한: 공부방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윤: 공부방이 좀 좁아요. 여기요, 실습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데 공부방이 작아서 좀 불편해요. 지난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캠프를 가기로 했는데 못가고, 강화도를 가기로 했는데 못가고 공부방에서 캠프를 했는데, 공부방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좁았어요.

그리고 책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원래 책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심심할 때, 책이 있어서 그거 보니까 좋아요.

한: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윤: 공부방에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캠프도 많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은 학년끼리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저희 너무 떠든다고 따로 떨어뜨려 놔요.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윤: 주말에는, 토요일은 공부방에 있고, 일요일은 교회에 갔다가 교회 끝나고 밥 먹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동생이랑 같이 놀아요.

한: 공부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윤: 공부방 끝나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동생 한명을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 아버지께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데리고 간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끝났는데요, 늦은 저녁에 밖에서 못 놀게 해요. 끝나고 늦게 까지 놀이터에서 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캠프도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 아 맞다! 의료약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료약품 많았으면 좋겠고, 공부방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대 상: 최○○ (여), 1992년 생, 양천구 신월동 , 초등학교 6학년.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14]

한: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아빠는 미국에 출장 가 있고.

한: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최: 엄마는 음…….6시 반, 6시에 집에 와요.

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최: 학교 끝나고 바로 와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있어요. 공부방은 7시에 끝나요.

한: 공부방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최: 공부방 끝나면 집에 가서 숙제하고, 학습지 하고, 노래도 듣고, 그러다 자요.

한: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최: 여기(공부방) 온지는 1년 4개월, 4개월 조금 안됐나? 아무튼 그 정도 됐어요.

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최: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에 옹달샘 지역아동센터 표 같은 게 왔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보내줬어요.

한: 스스로 결정한건가요? 아니면 누가 권유했습니까?
최: 엄마가 보내줘서 왔어요.

한: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 좋은 점은, 학교 숙제 다해가고,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한자도 배워서 좋아요.

한: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 힘든 점은 어... 화장실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서, 불편해요. 화장실이 공부방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합니까?
최: 친구들이랑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과 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최: 공부방에 다니면 숙제를 다 해가고, 성적이 쫌 올라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급식은 어떠합니까?
최: 싫어하는 반찬 빼고는 다 좋아요. 전 양파를 싫어하는데 양파 빼고는 괜찮아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최: 그거요 여기 옹달샘에 중학생이 별로 없어서요, 내년에 중학생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학생이 되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면 계속 나오고 싶어요.

한: 공부방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최: 애들이 공부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불편하고, 부엌도 쫌 지저분해요.

한: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최: 오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븐에다 직접 과자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각자의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둥그런 책상에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냥 각자 책상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다! 그리고 책상마다 컴퓨터도 한대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최: 여기는 토요일 까지 하거든요. 일요일은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갔다 오면 1시 40분정도 되는데, 그 때부터 그냥 놀아요.
.

대 상: 김○○ (여), 1995년생, 광진구 자양1동 거주, 초등학교 5학년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15]

한: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김: 엄마, 아빠, 남동생, 아현 4명

한: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김: 부모님이 다른 공부방을 하셔서 같이 집에 들어가요. 빠를 때는 밥 빨리 먹고 5시에 들어 가시구요, 늦을 때는 6시. 아빠는 회사일 때문에 새벽 2시정도에 들어오세요.

한: 공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김: 문제집이랑 2학기 예습이랑 그런 거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품성학습이구요, 독서도 해요.

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 하루에 9시간인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진가? **(방학 때?)** 네. 방학 때요. **(개학 때는?)** 개학 때는 학교 끝나고 들러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요. **(매일 오니?)** 네. 매일와요.

한: 공부방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김: 집에 가서 그냥 놀아요.

한: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김: 여기 온지 두 달 됐어요. **(한 번도 안 쉬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 나왔어요.

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김: 저희 엄마가 공부방 하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랑 회의해서 저하고 동

생하고 집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해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한: 스스로 결정한건가요? 아니면 누가 권유했습니까?
김: 엄마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한: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예하고 품성 같은 것, 음악활동도 하구요. **(어떤 음악?)** 기악합주 같은 거해요.

한: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김: 공부요, 밀린 거 다 끝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밀리지 않고 해요. 밀리면 힘들다는 걸아니까 입 꽉 다물고 열심히 해요.

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합니까?
김: 선생님들보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대화해요. 근데 크게 얘기는 안 해요. 별로 힘들게 없으니까.

한: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학습방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영어를 제일 잘해요. **(여기서 하는 영어공부가 어때? 잘 가르쳐 주시나?)** 영어 쉬워서 그냥 하는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 쉬워요.

한: 급식은 어떠합니까?
김: 번갈아가면서 식단이 바뀌니까요. 집에서 똑 같은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김: 다녀야죠. 엄마가 다른 공부방 가라고 할 때까지.

한: 공부방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김: 다른데도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고요, 안 좋은 점이라면 애들이 너무 맨발로 걸어 다녀서 마루 바닥 중간 중간에 냄새가 나서

한: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김: 다른 거는 없는데요. 공부하는데 애들이 떠들면 짜증나잖아요. 아무래도요, 방음시설을 해서 애들 노는 데랑 공부하는 데랑 다르게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한: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김: 아뇨, 없어요.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을 알고 있는지?)**학교에서 하는 거라곤 그저 당번청소뿐. **(다른 건안하고? 다른 친구들도?)** 아뇨. 다른 애들은요. 특수적성 하는 애들도 있고 천차만별 이예요. 요일별로 나눠서.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김: 빈둥거리면서 놀아요. **(어떻게?)** 텔레비전 보기 컴퓨터 하기 뒹굴기.**(가족들과?)** 가족들과 같이 있어요.

한: 공부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 애들이 맨발로 다니지 말고 양말 신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냄새나요.

대 상: 조○○ (여), 1994년 생, 양천중학교 1학년, 신정동 거주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16]

한: 지금 현재 누구랑 살아요?
조: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저에요.

한: 그러면 부모님은 몇 시쯤 귀가를 하세요?
조: 아빠는 새벽 한시정도에 오시고, 엄마는 아침에 오세요. 아침에 학교가고 나서 오시니까 엄마가 피곤하신지 잘 몰라요. 자주 못 봐요.

한: 공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조: 학교 끝나고 놀다가 와요. 여기 오면 문제집 풀고, 그리고 그다지 전하는 일은.....컴퓨터 하는 것 밖에 없어요.

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조: 4시정도에 와서 나머지 공부할 때는 8시 반에 갈 때도 있고 안하는 날은 7시에 가요.

한: 공부방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조: 주로 텔레비전 봐요. 혼자 있어요. 학원은 안다녀요.

한: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조: 서대문에 있다가 왔어요. 언니랑 같이, 서대문에서 4학년 때부터 다니다가 중1때 여기 왔어요. 이사 와서 서대문에서 여기로 왔어요.

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어요?
조: 서대문에서 여기 소개해줘서 왔어요.(**이사 와서 바로 왔어요?**) 아니요. 거기서 좀 빼기다가 쫓겨났어요. (웃음)

한: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거에요, 아니면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거에요?
조: 제가 스스로 오고 싶었어요.

한: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 성적도 올릴 수도 있고. 수학 성적 올랐어요. 그리고 그다지 좋은 점은 없어요. (친구들과는?) 또래가 없어요. 언니는 밥 먹으면 와서 밥 먹고 또 다시 가요. 혼자서 놀아야 되요. 또래가 없어요.

한: 그러면 반대로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없어요?
조: 여기에 늦게 들어오게 돼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저는 여기 두 시간 정도만 있다가 그냥 가요. 저는 프로그램 한자 빼고 하나도 안 해요. 컴퓨터만 힘든 것 보다는 애들이 체육 나가면 혼자 있어서 심심하죠. 난 늦게 와서 여기 와 있으니까 심심하죠.

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하는 편이에요?
조: 좋아요. 힘든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얘기하고 싶지가 안와요. 그다지 밝히고 싶지 않아요. (**○○이가 생각할 때**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인 거 같은데요. (**선생님은 진경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잘…….

한: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조: 성적 오르는 거나.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랑 쉽게 친해지는 것도 같고 그 다음은 없어요.

한: 급식은 어때요?
조: 보통이예요. 맛없진 않은데요 보통이예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조: 아니요.

한: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 여기는 10월 말부터 11월부터 다른 데로 옮겨야 되요. (**왜?**) 이사 때문에요. 그쪽 지역에 있으면 공부방을 갈 거 같은데요. 지금 찾아보고는 있어요. (**○○이가 이사 가지 않는다면 여기 계속 나올 예정이었어?**) 네. (**언제까지?**) 중 2때까지요. 그 이후론 생각 없어요.(**왜?**) 그 이후엔 애들이랑 놀러가고 그러고 싶어요.

한: 공부방 시설은 어떻습니까?
조: 시설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서대문에 처음 개설됐을 때는 화장실도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요 여기는 그런 불편은 없잖아요. 여기 화장실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겨울에 서대문은 화장실은 동사무소나 주택가로 그냥 갔는데요. 여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 시설은 괜찮아요.

한: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조: 컴퓨터를 많이 넣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할 수 있는 게 한 대예요. 애들은 거의 안하고 우리가 다해요. 그리고 사물함 같은 거 놓고 싶어요. 사물함이 없는 애들은 바구니나 그런데 넣고 다니니까 지저분하잖아요.

한: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방과 후 아카데미 나 그런 거.

조: 학교에서 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그다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특기적성은?**) 제가 관심 있는 쪽이 없어요. 저는 단소나 리코더 관심 있는 데 그게 없어요. 그게 생기면 참여하고 싶은데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 교회 가서 엄마 나갈 때쯤에 들어와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뭐하는지?**) 할 일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단도 하고 그거 하면 시간 다 보내요. (**가족은?**) 가족들이랑은 같이 안보내고 아빠랑은 잘 때 만나고 엄마랑은 하루에 한시간정도? 일요일은 네 시간 정도 세시간정도 같이 있어요. 엄만 주무시고 난 텔레비전 봐요.

한: 공부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조: 봉사활동 일지 같은 거요, 평가를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가를 넣으면 너무 평가 잘못 나오면 혼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게 뭔데?**) 봉사활동 끝나면 어땠는지 쓰는 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 봉사활동 하고 선생님이 낮게 점수 주면 좀 혼나요. 3점미만, 5점 만점에서 3점미만이면 혼나요. 그리고 자유 시간을 많이 주는 거 그냥 공부만 하면 그렇잖아요. (**자유 시간에는 뭐하고 싶니?**) 공부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유 시간에는 자고, 컴퓨터 하고. (**선생님께 바라는 점은?**) 컴퓨터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서 너무 좋아요. 초등학생에 비해 시간제도 안하고 좋잖아요.

대 상: 장○○ (남), 1992년 생, 중학교 2학년, 자양1동 거주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17]

한: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이: 아빠, 형, 할머니, 할아버지, 수원이

(가족들이랑 여기서 살고 있지?)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을 하시는지?)** 네.

한: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이: 할머니는 8시 반에 나가셔서 9시 반에 오시구요.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프셔서 그냥 오전에만 잠깐 돌아다니시고, 아버지는 한 6시(새벽)에 나가셔서 7시반정도에.

한: 공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이: 과목 같은 거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찬찬이 이야기도 하고 떠들고 놀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니?)** 동영상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세 시간 정도.**(이거 끝나고 집에 몇 시정도에 가?)** 8시 반에서 9시.
한: 공부방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이: 곧장 집으로. **(집에서는 뭐하는데?)** 집에서요? 집에서는 가자마자 인사하구 그냥 텔레비전도 보고 거기서 배운 것도 복습도 하고. **(끝나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니?)** 예.

한: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 공부방에 온지요? 한 4달 정도. 중간에 조금씩 빠지고.
(왜 빠졌어?) 그냥 뭐 학교에서 봉사 활동하는 시간도 있고 아이들이랑 토의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거 숙제하고 그래서

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이: 할머니가요. 얘들이랑 저가 얘들이랑 많이 놀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요 너무 공부는 안하고 숙제도 안하고 축구만 하니까요. 할머니가 어디서요 알아봐가지고 여기서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하면 좋다고요.
한: 스스로 결정한건가요? 아니면 누가 권유했습니까?
이: 오기 싫었는데 온건 아니고 **(할머니가 권유해서 흔쾌히 승낙해서 여기로 온 건가?)** 예.

한: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공부를 잘 못해서요. 아는 점도 많고요. 발표도 할 때도 제가 아는 문제를 발표도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밥도 먹고 맛있는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잘 이야기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놀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좋아요.

한: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약간 시험기간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때는 좀 안 좋아요. **(여기서 있으면서 힘든 점은 없니?)** 예 거의 없어요.
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합니까?
이: 그런 점은요 아직은 없어요.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관계요? 선생님들 좋아요.

한: 급식은 어떠합니까?
이: 맛있어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이: 네. 계속 나올 거예요.

한: 공부방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이: 다른 공부방 보다는 좋고, 더 크고, 공부할 시설도 컴퓨터도 있고 좋아요.

한: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잘 모르겠는데. 이시설이 아직은 좋아요.

한: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아뇨 아직.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이: 일요일 에는 할머니가 6시에 오시고, 형이랑 아침에 아차산도 가고 물도 뜨고 그런 다음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얘들하고 놀기도 하고, 좀 많이 놀면 방학이니까 공부도 하고 방학 숙제도 하고 그래요.

한: 공부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평소대로 늘 했으면 좋겠고, 바라는 게 없는데. 밤에는 가끔씩 방학 때 열었으면 좋겠어요.

대 상: 이○○ (남), 1993년 생, 중학교 1학년, 자양1동 거주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18]

한: 가족은 누가 있어요?
이: 엄마랑 아빠랑 일 때매 따로 계시고요. 할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할머니는 따로 일을 하시는지?) 아뇨.

한: 공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이: 공부방에서 하는 거요? 그냥 풍선 학습도하고요 일어도 하고요 학교 숙제도 여기서 하고요 학교 과목도 하고 시험공부도 하고요.

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방학 때는 10시와 와가지고 밥 먹고는 한 5시. **(개학하면?)** 학교 끝나고 와서 한 9시나 10시쯤.
한: 공부방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이: 그냥 집으로. **(학원은 안다니고 그냥 집으로 가는 구나?)** 예.

한: 공부방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 6학년 말.(9~10개월),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이: 교회에서 알게 되서 왔어요.

한: 스스로 결정한건가요? 아니면 누가 권유했습니까?
이: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한: 공부방에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고 다 괜찮은데. 공부하기 좋고.
(실질적으로 성적이 오르거나 그랬니?) 네. **(어떻게?)** 못하는 것도 잘 되고.
(모르는 건 선생님이 잘 봐주고?) 네.

한: 공부방을 다니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힘든 건 없는데요.

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고민스러운 점을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말합니까?
이: 그런 적은 없는데. 힘든 적이 없었어요.

한: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이: 다 잘되는데요. 시험공부랑 이런 학교과목 공부요.
한: 급식은 어떠합니까?
이: 맛있어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올 것입니까?
이: 네. **(언제까지?)** 될 수 있을 때까지.

한: 공부방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이: 좋은 거 같아요.
한: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그냥 만족하는 데요.

한: 본인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이: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데요. 그냥 뭐 축구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그러는데요.

한: 공부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이: 그런 거 없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인터뷰 프로토콜 _ 어머니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녀들을 공부방에 보내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이름	
2-3. 생년	_____년도

3.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4.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다면)* **몇 시 쯤 귀가하십니까?** *(아이들이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함, 또한 가족관계도 물어본다)*

5.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공부방이 끝난 후의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다)*

6. 자녀의 방과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학업, 숙제 지도, 비행행동, 식사, 인성교육 등)*

7. 지역 공부방에 자녀를 보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공부방에 다니면서 과거 다니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성적, 학교적응, 성격, 비행행동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

9. 아이들이 공부방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Yes, No에 따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예: 애들이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합니까)

10. 자녀가 공부방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1. 공부방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육아 스트레스, 사회활동을 맘 놓고 한다든지, 심리적 여유 등)

12. 자녀가 참가하는 공부방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만스러운 점이 아니어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교사의 질, 프로그램의 다양성, 운영, 등)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14. 만일 참가시키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대안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

15.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 상: 김○○ (여), 1965년 생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부모 9]

한: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김: 둘이요. 아들 둘이요. 중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한: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요? 회사에 다니시고(아버지), 아르바이트(어머니)

한: 몇 시 쯤 귀가하십니까?
김: 여기서 끝나면 7시쯤. 일 갔다가 여기 오면 **(급식은 매일 오셔요?)** 맨날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한: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김: 구체적으로는 모르구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적응 잘 하고 하니까. 나도 여기서 공부방에 있으니까 집에서는 운동하러 나가고 밤에. 주로 인제 낮에 안하고 밤에 운동 나가고 그래요.

한: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김: 여기에 나와서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선생님들을 다 믿고 다 좋으신 분들인데.
(여기서 끝나고 나서는?) 거의 9시 10시에 끝나니까요. 따로 없어요.**(집으로)** **(공부방에 자녀들이 언제부터 오게 된 거죠?)** 지금 그냥 몇 개월 되었죠.

한: 공부방에 다니면서 과거 다니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김: 공부를 여기서 하고 하니까 스스로 하니까 믿고 그냥. 여기서 충분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리고 인제. 시키고 하는데 잔소리 같은 것도 안하게 되요.

한: 두 자녀가 공부방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김: 없어요. 스스로 원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오죠. 스스로 원해서 오니까.

한: 공부방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 예전이랑 다른 건 이제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죠. 일을 늦게도 하고. 여기서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식사까지 다 해결 되니까.

한: 자녀가 참가하는 공부방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만스러운 점이 아니어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제가 공부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걸 보고, 우리 얘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공부방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넓고 더 많은 얘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교사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예.**(교사선생님들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구요?)** 예.

한: 앞으로 계속해서 두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김: 그렇죠. **(어떤 부분이 긍정적입니까?)** 우리가 이제 낮에 신경 안 쓰고 여기 있으니까. 공부뿐아니라 여러 가지.

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저흰 감사해요 그냥.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인제 제가 보기에는 다 선생님이 얘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다 좋고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고맙고요.

대 상: 박○○ (여), 양천구 신월 7동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부모 10]

한: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박: 2명이 있어요. 한명은 지금 옹달샘 다니고 있는데 6학년 이예요. 그리고 6살짜리 애기가 있어요.

한: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박: 저희는 모자가 정이예요. 근데 제가 1년 전까지 일하다가 둘째애가 혼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장애가 있음) 지금 쉬고 있어요.

한: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박: 학교 끝나고 바로 옹달샘으로 가요. 옹달샘에서 7시 반 정도에 끝나고 집에 와서 쉬죠. **(다른 공부나 학원은 안다니는지요?)** 학원은 안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몬 선생님이 와서 구몬 하고 있어요.

한: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박: 지금은 없어요. 옹달샘 다니기 전에 5학년 때는 제가 직장이 친정집에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늦게 오는데 지원인 학원도 안가고 갈 곳이 없어서 학원안다니는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한: 지역 공부방에 자녀를 보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일단 선생님들이 우리 애를 자기 자녀처럼 생각 해주는 게 지원이가 참 복 받은 일인 것 같아요. 간혹 아프면 너무 속상해 하고 공부도 도와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저희는 형편이 좀 어려워서 과외활동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인 옹달샘에서 방학 땐 캠프도 가고 뮤지컬도 보고 문화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죠.

한: 공부방에 다니면서 과거 다니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자녀가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박: 안정감이죠. 일단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소속감이 들고,

한: 아이들이 공부방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박: 좋아해요. 그리고 옹달샘 가는 게 자유로워요. 학교에서 일이 있으면 옹달샘에 전화해서 늦게 간다고 말하고 늦게 가기도 하니까 부담이 없죠.

한: 공부방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 가장 큰 건 금전적인 것이 해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옹달샘에 안 들어갔다면 문화 활동도 제가 다 시켜야 되고 공부도 따로 시켜야 하고 또 애들 저녁 먹을 것도 걱정하고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애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것도 적어졌죠. 옹달샘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한: 자녀가 참가하는 공부방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만스러운 점이 아니어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선생님이 잘 해주시고 이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두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박: 네. 계속 보낼 생각이에요.

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 지역아동센터가 신월동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센터가 있으면 돈을 번다거나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거든요. 이런 센터들이 각 지역마다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생기더라도 여기처럼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신앙으로 이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생님들처럼 좋은 센터가 각 지역에 다 생기면면 좋을 것 같아요.

대 상: 이○○ (여), 양천구 신월동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부모 11]

한: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이: 2남 2녀, 셋째(남), 넷째(여) 두 명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예요 4학년애가 여기 공부방 다니고 있어요.

한: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이: 아비지는 안 계셔요.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 져서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동사무소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4시에 퇴근하거나 자원봉사활동까지 해서 6시에 퇴근해요.
한: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공부방 다니는 애들은 거의 8시 넘어서 오는데 나머지 공부하거나 하면 9시에 와요. 큰 아이가 공부를 더 하고 오면 작은 아이도 기다려서 같이 9시에 와요. 공부방 끝나고 오면 피곤해서 쉬거나 자는 경우가 대부분, 특별히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한: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 옹달샘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공부방 보내기 전에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거나 자거나 그렇게 있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옹달샘 다니고 나서는 저녁식사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잘 보살펴 주고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한: 지역 공부방에 자녀를 보내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선 아이들이 밝아졌죠. 예전에는 약간 침울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밝아진 것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나 언니 동생들과 형체처럼 보살피며 지내요. 옹달샘 다니기 전에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옹달샘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 친하게 지내서 훨씬 밝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이 향상됐어요. 예전에는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늘어지고 의욕이 없었는데 스스로 부지런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정신력이 향상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챙기고 그런 모습이 달라졌어요.

한: 아이들이 공부방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 좋아해요. 특히 공부지도를 제가 직접 못하는데 공부지도를 잘 해주니까 공부방법도 알고 성적도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죠.

한: 두 자녀가 공부방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나 친 엄마처럼 잘 돌봐주셔서 너무 좋아해요.

한: 공부방에 자녀를 보낸 후 어머니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뭐든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공부를 어머니가 가르치기 힘들었는데 옹달샘에서 가르쳐 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공부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저녁 식사를 주기 때문에 식사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장 좋죠.

한: 자녀가 참가하는 공부방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만스러운 점이 아니어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다 만족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좀 불안하죠. 영어 수업을 전문적인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뒤떨어지는 학업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한명 가르쳐 주기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앞으로 계속해서 두 자녀를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이: 그럼요. 계속 보낼 생각이에요.

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학과공부를 잘 해주시고 학습부분에 더욱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 인터뷰 프로토콜 _ 교사 및 기관운영자용

1.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하는 인터뷰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아래의 칸에 적는다.

2-1. 사는 지역	(도, 시, 군, 읍, 면까지 자세히 물어본다)
2-2. 이름	
2-3. 생년	_____년도
2-4. 기관명	

3. 이 공부방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보충학습, 숙제지도, 특별활동 등 모든 것을 물어본다)

4.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5.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경위)

6.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입니까?

7. 이 공부방은 하루에 몇 시간 개방을 합니까?

8. 공부방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9. 빈곤아동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0. 지역 공부방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지역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습니까?

12.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수익자 부담인지,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

13.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4. 공부방이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15. 공부방이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16. 지역 공부방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7.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8.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19.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20.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럼없이 상담을 의뢰하거나 하나요?

21.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하고 어떤 면을 힘들어합니까?(각각 다 물어봐야 함)

22. 직원은 누가 있습니까?(생활복지사, 급식인력 등). 교사들은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자격 측면에서)

23. 교사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불만족한 부분이라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교사들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24. 공부방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25. 공부방이 활성화되는 것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6.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같은 다른 부처의 프로그램 /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 기타 공부방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 상: 송○○ (여), 1964년 생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교사 14]

한: 이 공부방은 어떻게 시작 되었나요?

송: 이곳에 처음 와서 지역조사부터 시작했어요. **(지역조사를 어떻게 하였나요?)** 처음에는 이 지역이 빈곤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후원하신 분도 여기가 한의원 공간이었는데 할머니 따라서 아이들을 보고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의원 원장님께서 여기 아이들이 정말 센터가 필요한데 센터가 여기에 없어서 부스러기에서 우선은 이쪽지역에 오자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대상아이들이 안보였어요. 그리고 주택은 많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퍼져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다 계셔서 애들이 보호자가 누구라도 다 한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학습이 안 되고 놀이가 안 되고 영양도 안 되고 그냥 보호자만 있는 상태여서 처음에는 저 아이들이 우리 센터로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의외로 가정에서 다 닫혀있었어요. 보내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학원을 보낼 거라고. 식사도 얘기를 하면 집에 할머니가 계셔서 식사가 다 된다고 그래서 우선은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해서 처음에 동사무소 방문해서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수급자. 그래서 주소지 다 방문해서 편지 라든지 판플렛 이라든지 홍보를 다 하고 나중에 전화한통씩 다 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다 돌아다닌 편이죠.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도 얘기하고, 처음에 지역조사 할 때는 우선은 구청에서 나온 실태조사 한 거 하고 동사무소 찾아가고 구청에서 이 지역에 있는 대상아이들이 어느 수준인건지, 몇 명 정도인지 그것도 보고 그렇게 지역조사는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잘 못 봤어요. 다 숨겨져 있어서.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송: 오면 바로 숙제지도, 알림장 검사해서 숙제지도 하고, 수학이랑 국어랑 기초학습 문제집 풀고, 책읽기는 시간 남을 때마다 읽도록 하고 독서기록 쓰는 것 하고 일기쓰기 하고 지금 특별활동으로는 영어하고 한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구요. 토요일은 2,4주가 노는 토요일이라 아이들하고 야외활동 해요. 나머지 1,3주는 비디오 보고 그냥 놀고 게임하고 그러고 가고 2,4주는 야외활동해요. 산행을 하거나 견학을 가거나 전시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양하게 해요.

한: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송: 재적인권이 30명 , 초등학생 28명 중학교 2명, 일일평균 이용아동은 23명에서 25명 정도.

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입니까?
송: 수급자가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역적 특성이 웬만큼 사시다가 망해서 막판에 밀려서 들어오신 분들 이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빨리 성공해서 이 지역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급자는 아닌데 부모님은 빨리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방치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수급자라던 지 편부가정 편모가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다 편부모 가정인데 학교에서 지도가 잘 안되어 있고 생활지도도 안 되어 있고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동사무소에서도 추천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일반가정의 아이 한명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통해서 주변에 아이들 몇 명 추천되어 들어오고. 처음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10명 정도에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모집할 때 힘들었고 밖에 나가서 센터 홍보할 때 벽이 많았고 ,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벽이 많은데 활동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아름아름 소개시켜주셔서 조금씩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이 공부방은 하루에 몇 시간 개방을 합니까?
송: 학교 방과 후부터 7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방을 하죠.

한: 공부방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송: 법인에서는 아이들이 야간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저희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고 집에는 누군가가, 할머니라도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저학년 위주로 할 때는 야간보호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고학년 생각하면 야간보호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조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잡아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선생님과 인건비, 등 전체적인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 빈곤아동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송: 수급권자하고 저소득까지 다 합하면 98%정도. 거의다고 볼 수 있죠.

일반가정으로 분류되어지는 건 지금 빚이 많아서 부모님이 잘 사셨던 가닥이 있어서 저소득이라고 분류 되는 거는 정말 싫어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저소득인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류하다보면 한명 빼고 다예요. 그중에 수급권이 6명 7명 정도 되요.

한: 지역 공부방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 격차가 줄어든 다기 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믿고 맞길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학원도 시간제잖아요. 딱 시간되면 돌아오고. 그리고 식사도 문제고. 근데 저희는 식사도 다 해결하고 시간이 7시 반 그 정도 되니까 얼추 생각 하시기 에는 다른데 다니기 보다는 마음이 좀 나으시고. 경제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전에도 학원 다니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원비가 절약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믿어라 하고 맡기는 곳이 있어서 조금 수월해 하시죠.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이들 다시 챙기고 밥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더 편안해 하세요.

한: 지역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 우선은 효과가 있긴 한데요. 외에 시간이 점검이 안 돼요. 여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거나 그러면 뭐하고 노는지 점검이 안 되고. 저희가 7시 반까지 하거든요.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한낮이잖아요. 거의 집에 들어가 봤자 아무도 없고. 저희가 7시 반에 끝나고 나머지 공부도 하거든요. 9시까지 필요한 아이들이 개별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까지 남기면 학습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집에는 안가고 부모님 없는 집에 가서 논다던지 아님 놀이터에 가서 논다던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차단이 다 되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점검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하고자만 하면 비행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안하고 있을 뿐이지 하자고 작정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죠.

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송: 법인 자체가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료이용이

원칙이구요. 아이들한테는 야외활동갈 때 차비 천 원 정도 받고 따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일 년 예산을 먼저 세워요. 운영비가 반, 법인지원비가 반 이렇게 해서 일 년 예산비가 8천만원정도 됐는데 법인에서 4천만 원 나오고 운영이랑 급식비랑 해서 4천만 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짰어요. 후원금이 포함되고 그래서. 근데 운영비가 저희한테 안 나온 거예요. 1년이 안됐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운영비가 안 나오고 급식비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하고 그 일부분은 후원을 얻어서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적인 근거가 여기에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라서 지역 안에서 후원을 얻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후원 연결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신문에 몇 번 나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신문에 몇 번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조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후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물품으로 전달되어진 것도 있고, 단체로 자원봉사로 오실 때는 현금을 가지고 오시거나 물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도 후원이 대체적으로 부족하죠.

한: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송: 급식비만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월 130만 원 정도. 올해 7~8백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4천만 원 계획했다가 7~8백만 원 받아서 나머지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식사는 도우미분이 오시고 유급으로 직원으로 해서 주방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급식비는 구청에서 일인당 3천 원 씩 지원을 받아요. 19명으로 지원을 받고 애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구청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 구청은 정원 안에서만 해결을 하도록 해요. 얼마 전에도 방학에 두 끼를 먹어야 되는데 식사는 한 끼만 제공이 되는 거. 돈이 예상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등록된 19명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다 하도록 했죠. 사실 운영비도 문제가 많지만 급식비도 사실 힘든 편이예요. 아무리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점심급식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쿠폰이 나가는 거예요. 이중으로 나가니까 지급할 수가 없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주는 건 그냥 식당에서 주거든요. 근데 그건 영양 면에서도 그렇고 급식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쿠폰이 3천 원짜린데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재료비가 다

삼천 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조리비도 들어가고 인권비도 들어가서 삼천 원 인거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주부식비로 삼천 원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비랑 인권비가 다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희는 법인을 끼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는데 개인이 하는데 는 정말 힘든 거죠.

한: 공부방이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다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송: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가정과의 연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학교선생님은 담임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보호자를 면담하거나 아이를 상담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정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있고 부모님과 의논해서 아이에게 개입할 수 있고, 복지관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더 자유롭죠. 복지관은 한정되어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지관은 건당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할 수 있고 복지관보다는 그래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공부방이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송: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죠.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 특기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죠. 다양하게 제공을 못하죠.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가지들만 제공할 뿐이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에게 까지 그 기회가 오는 건 별로 없어요. 기회가 온다고 해도 아이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공짜로 배우던지 반 만내고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아이들이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해도 우선적인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의 기회인거죠.

한: 지역 공부방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인식만 잘 되면 모든 지역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도 치료를 받는 아이가 있어요. ADHD인데 집에서는 그런 부분이 치료비로 지출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죠.

그 분이 항상 오셔서 아이의 문제를 상담하시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최근에는 동사무소와 연결이 되 있어서 아이들을 의뢰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서 좀 오픈하는 활동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는 옹담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단지 몇몇 군데에서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거지 지역 안에서는 긍정적 이예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해서 상의하고 요청도 오시고.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역할을 더 잘하고 조금만 더 공개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면 지역 안에서 지역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송: 제일 어려운건 구청하고의 문제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자체도 자기 업무에 대해 잘 몰라요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센터를 만들면서 많은 싸움을 하면서 만들어 낸 성과물이잖아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구청에 딱 갔는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는 척한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또 가마니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막 공문도 보내고 민원을 넣으면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네가 민원이 건수로 돼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라서 저희도 두 번인가 넣었는데 민원으로 접수 안하고 그냥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민원 넣으면 감정이 상하긴 하지만 그분들도 좀 안 좋잖아요. 구청하고 관계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분들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책임지는 걸 정말 싫어하시고 주도적으로 도와주는 걸 싫어하세요. 다른데 는 되는데 저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자체별로 다 틀린데 그걸 자기네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에 대해 법조항도 찾아가서 하면 아는 척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거만 풀리면 운영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구청하고 관계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양천구청은 정말 심각해요. 정말 고발하고 싶고 검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양천구에 8개 정도 있는 센터에 4개정도 돌아다녀봤는데 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급식비에서 재료비의 20%는 인권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청은 절대 안 된데요. 절대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막강하게 막고 있는 다는 게 너무 힘들고 더욱 힘든 건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엔 또 바뀐

다는 거예요. 또 다시 가서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했던 행정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가 예요. 적극적인 게 없어요.
동서무서 에도 얘기하면 구청 가서 얘기하라고 상위기관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한: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송: 선생님 한 명당 열 명 열두 명 정도 되죠. 근데 실제로 실무자가 두 명이 있어도 두 명 다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서 한명이 다른 일이 있거나 급하게 처리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행정일 을 해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아이들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한명이 열 명 정도 되는데 혼자하면 25명 정도를 다 봐야 하는 거죠. 봉사자가 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봉사자들은 좀 부수적인 역할을 하니까 사실 실무자 한명이 아이들을 많이 보는 거죠.

한: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럼없이 상담을 의뢰하거나 하나요?
송: 저는 돈독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되는것 같아요. 자기 내들 사이에 문제가 좀 있고 뭔가 조정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선생님을 찾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말은 잘 안하더라도 아이들이 표현하는 일기나 글을 보면 엄마 같다, 고맙다는 얘기를 가끔해요. 밉다고도 그러기도 하고. 조금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 오면 애들이 놀린다고 다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한번 왔다가 할머니 졸라서 학원을 그냥 다닌다고. 고학년들은 자체적으로 앙케트를 했는데 옹달샘에 오는 것을 친구들한테 속인 적이 한 반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이라고 , 센터가 아니라 학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한: 직원은 누가 있습니까? 교사들은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송: 부스러기 직원이에요. 정직. 저하고 다른 분 한명해서 두 명이 있어요.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아동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사람을 우선 뽑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는데요. 부스러기 자체에서 내부시스템이 잘 되 있어요. 자료집도 많고 각 파트별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북도 많고 해서 사원교육을 시키고 기관도 방문해보고 보고서도 제출하고 해서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뽑을 때 부스러기 내에서 뽑아서 내려 보내는 식으로 직원을 배치해요.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 있고, 아니면 사무국이나 그런 대로 가고 싶으면 자리가 비웠을 때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갈수도 있고 그래요. 자원 활동 선생님들은 이번학기 들어서 6명,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셔서 영어랑 한문은 꾸준히 해주시는 분이계시고, 나머지는 아이들 학습지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습생도 있고 실습생이 3명 정도 법인에서 내려왔어요.

한: 교사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불만족한 부분이라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교사들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송: 저는 이일을 정말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비전이랑 그런 게 이 일하고 많이 맞아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즐겁고 계획하는 것도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후원을 받는 것도 즐거워서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아요.

한: 공부방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송: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방학숙제 정성들여서 보냈는데 반 이상이 방학숙제 잘했다고 상 받을 때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결과물이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어질 때, 그리고 어떤 분이 어디선가 듣고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물으실 때 그럴 때 그리고 법인에서 인정받을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한: 공부방이 활성화되는 것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 그렇죠. 아이들을 끼고 있어서 직장을 못 구하신 분들이 여기에 아이를 맞기시고 직장을 구하신 분들이 한 세분정도 되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때문에 직장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아이들을 맞기고 난 후에

는 직장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 경우도 있고 편모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들은 워낙에 직장 때문에 아이들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역할을 좀 더 잘 하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듬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기타 공부방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 정책이 제대로 돼야죠. 좀 중앙의 문제는 중앙에서 했으면 좋겠고, 지자체에 넘기는 문제는 그것을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분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일들을 너무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는 학교에서하고 어떤 것은 또 다른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들에 대해 혼란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뽑혀서 여기와 가치가 맞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들 보면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설치만 해놓고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허가제가 아니라 세워놓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건물사서 세팅해놓는데 실제로 빈곤이나 저소득층 보다는 자기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체크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복지관은 자체평가하고 등수매기고 그러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온전히 개인적인 가치나 주관에 맞춰서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 상: 김○○ (여), 1978년 생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교사 15]

한: 이 공부방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 **(현재 공부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동들 학습부분이랑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전체적인 커리큘럼 같은 거 짜고 아이들 교과학습 담당하구요 방학 같은 경우에 음악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한: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김: 초등학생이 대부분 참여하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녁에 (수업 끝나는 시간) 시간 맞혀서 하고, 거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이랑 같이 이루어지죠.

한: 지역 공부방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저희 공부방만 봐서는 애들 간에도 그렇고 부모모임이 있어서 엄마들도 오시고 하는 거 보면 격차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데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학원을 보낸다 할지라도 학원비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아이들은 최대한 일대일로 끼고 가르쳐야 할애들,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는 애들은 선생님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지역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습니까?

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대부분 부모님이 계셔서 케어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은 괜찮겠지만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서 책을 읽더라도 아니면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 항상 하는 것 자체가 예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공부방이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다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김: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고 나서 또 아이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만한 체력과 에너지를 더 투자해서 갈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얼마만큼 그 선생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자원해서 이곳에 오시기 때문에.

한: 공부방이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김: 예산 부족인데요, 저희가 전문적인 선생님이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할 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저희는 다 일대일로 하나씩 봐주고 싶거든요. 일거수일투족, 학습면만 아니라 인성부분이나 품성적인 면, 다 해주고 싶은데 100% 다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 때 교사들 인력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김: 운영비 부분, 예산부족, 시설적인 면이 있는데요. 아시다 시피 저희가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을 덥게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환경을 줘야 하는데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좀 학습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있는 게 너무 더웠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라 잘 참고 견디긴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걸 해줄 수 없는 게…….

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김: 예산부분이랑 교사, 정말 전문적인 교사 있죠.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교사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김: 총 인원이 아이들이 40명 45명 되거든요. 근데 상근하시는 교사 분들은 사무국장님, 직원 분 빼고 세분 네 분밖에 안계세요. 그러면 거의 한 선생님 당 열다섯 열 명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럼없이 상담을 의뢰하거나 하나요?

김: 청소년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아이들이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힘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하루하루 보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런 게 다 들어나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여기 앞에

라도 나갔다 오면서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물어봐줬을 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직접적으로 와서 선생님 저 이런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한: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하고 어떤 면을 힘들어합니까?

김: 개인차가 있겠지만 거의 공부방에 오는 친구들은 싫어서 오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 하는 게 싫으면 단지 그거 하나겠지만 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여기 선생님들이 애들이 안가서 문을 못 닫고 늦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고요. 다 끝나도 여기 애들이 다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 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가고 집에 안가고 여기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교사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불만족한 부분이라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교사들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체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할 수 없어서 하는 거면 오래 할 수가 없죠.

한: 공부방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김: 저는 아이가 처음 왔을 때와 나중에 되서 아이의 행동변화를 봤을 때,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처음에 왔을 땐 천방지축에 인사도 안하고 그러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 안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 학습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더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고 캠프나 그런 걸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저런 면이 있었네. 하는 새로운 것을 느꼈을 때.

한: 공부방이 활성화되는 것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지금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출하기가 더 낫겠죠. 아니면 안하시던 분들도 여기 보내고 나셔서 일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가생활도 즐기시고.

한: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 등과 같은 다른 부처의 프로그램 /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하지 연계하면 좋죠. 정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응집력도 생기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연계가 되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연계가 되면 좋은 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활동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지역에 아동센터 네 개 공부방이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거든요? 공부방 끼리 선생님들이 같이 연락을 해서 학교 빌려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같이 어디를 간다던가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한: 기타 공부방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나 문서적인 부분이 뭔가 대부분 보니까 구청 간에도 다다르더라고요. 하시는 일들이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 어떤 구청은 지역아동센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고.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교육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참여하면서 공부방들이 단순히 보내는 곳이 아니라 본인들이 참여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있으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 상: 김○○ (남), 1963년 생
면담자: 한지연(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교사 16]

한: 이 공부방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 학교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로도 학습 프로그램을 짜는데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멘투멘으로 가르치면 좋은데 그룹으로 해도 선생님이 부족해서 멘투멘으로 못가르키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는 온라인 학습으로, 컴퓨터 온라인 학습으로 온라인 비를 주고 우리가 등록을 해서 아이디를 아이들에게 부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와서 여기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학 국어, 바른생활, 과학, 그런 것들을 듣고 거기서 저희가 프린트 물을 줘서 얼마나 잘 들었고 이해했는지,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토대로 시험을 다 풀죠. 틀렸을 때는 다시 풀게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해요. **(컴퓨터가 몇 대?)** 열대 있어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하고 있어요. **(과목은 정하나요?)** 프로그램이 짜있는 거니까 교과목 균형을 잘 마쳐서 하고 있죠. 전체 교과목을요. 그 다음은 특별활동들이 있어요. 품성, 품성을 외우게 하고, 서예, 일어, 영어,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독서예요. 우리 지역에서 사립문고 1호로 문광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책 무조건 한권씩 읽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저자 소재 주제,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토론하고, 발표능력도 늘어나고 있어요.

한: 참가하는 학생은 주로 몇 학년입니까?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40~45명 정도

한: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김: 대부분 주변에 소개로 오게 되고 있다 보니까 금세 알게 되잖아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야기해서 연계도 되고. **(공부방에 온 학생들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두 하게 되는지요?)** 학년별로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별도로 신청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입니까?
김: 첫 번째는 거의 무료이다 사피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잘 사는 사람들

보다 조금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을 하고, 그 학생들만 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낙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마이너스가 되요. 그래서 좀 섞어요. 사실은 이곳이 만들어진 동기는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곳인데. 그렇게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궁극적으로.

한: 이 공부방은 하루에 몇 시간 개방을 합니까?
김: 예전에는 수업 끝나면 가방매고 여기로 옵니다. 선생님들이 9시나 10시에 오시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해서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에는 9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엄마들은 일찍 보내주길 원하더라고요.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7시 반 되면 초등학생들은 다 보내요. 중학생들만 9시까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갈 때 10시나 10시 반에 문을 닫아요.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말은 토요일 주일은 일단 문을 닫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오픈을 하는데 주말에는 가정학습을 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와 이곳에만 있으면 부모와 관계가 좀 그래서 주말만은 가정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공부방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김: 문을 닫은 이후에 집에 가서 하는 활동이나 가정생활, 환경은 관여를 안 합니다. 이곳은 가정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 않고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만 파악을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합니다.
(공부방이 끝나고 학원이나 다른 곳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학원을 가는 학생도 있고 학원을 갔다가 오고, 특별히 특별활동, 태권도, 음악,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 쪽으로만 갔다가 오죠. 일부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를 하지만 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안가죠.

한: 빈곤아동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 차 상위 계층, 차 차 상위 계층 아이들이 대부분 이예요. 소년소녀는 많지 않고, 조부모, 한부모도 있어요.

한: 지역 공부방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그 격차는 예전에 양극화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계층을 나누는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지 정책적으로 그런 얘기 안 쓰면 계층, 양극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누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을 지어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보기에 그런 구분은 전혀 못 느끼고 계층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지역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또는 보호의 효과가 있나요?

김: 100%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어깨가 좀 올라가고 좀 말도 거슬리게 하고, 그런데 여기 아이들 오는 거 보면 PC방이나 놀이터, 노래방에서 놀고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에 오고는 싶은데 못 오는 아이들이 꽤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데리고 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죠. 여기 와서 아이들이 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는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해서 여기 아니면 놀려면 교회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어서 게임하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놀이터 아니면 여기 고소부지에 가서 술 먹고 담배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것만 해도 이곳이 지역에 헌신하는 거죠.

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 영광교회에서 만들어 졌는데 성도님들의 헌금과 대출로 센터를 만들었어요. 원칙적으로 회비는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곳들이 열악하잖아요. 정부에서 급식보조나 보조금은 조금 나오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선생님들은 다 자원봉사예요. 그리고 교통비 정도는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니까 주고. 열악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후원을 해주십쇼. 하고 부탁을 하죠. 한 구좌 당 삼 만 원 정도 정해놓죠.

(어느 정도?) 한 달 예산이 한 천만원정도 씁니다. 순수하게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쓰죠.

한: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김: 한 달 예산 천만 원에 반도 안 되죠. 한 4백정도 되고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죠.

한: 공부방이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다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비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김: 교육보다도 인성, 품성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다.

한: 여기서 하는 공부방이나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과는 어떤 면에서 좋은지, 어떤 면이 나쁜지?
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그건 특별 활동 특별프로그램이죠. 바이올린은 한다든지 고급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죠. 선생님들이 직접.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왜곡되었다고 많이 했죠. 거긴 비용을 많이 받잖아요.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학교가 피동적이란 말이죠. 정책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사업에 진짜 살아있는 묻어나는 것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헌신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이미 이곳에 들어오면 이미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들어가니까. 학교 방과 후 교실은 선생님들 의무에 의해서 하다못해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학교공부 하는 게. 아이들이 그 정책 속에서 학교들 속에서 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네끼리 치고 싸우고 하더라도 사랑이 묻어져서 어우러지는 것이죠. 같이 어울러서 밥해서 직접 하는 모습 봐가면서 그 밥을 지네들이 먹으면서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면서 또 그다음에 지역에서 와가지고, 여기 지금 봉사하시는 분은 국회의원 사모님 이예요. 바로 지역연계란 말 이예요. 또 오셔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분들 이예요. 하고 싶어서 오는데 여기에 짜증이 나겠어요. 항시 웃음으로 사랑으로 다 대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 실력하나 올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공부방이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김: 부족하다는 부분은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가 높잖아요. 그죠. 네트워크가 높다보니까 잘들 활용하잖아요. 저희 공부방 같은 경우는 사실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교환이 원활히 또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혜택들이 정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보고 통해서 많이 바꿨으면. 그 복지관이다 보니까 우선 정책이 그리 먼저 가는 게예요. 그다음에 인근으로 오고. 사실은 그런 정책이 거꾸로 올라가야 되요. 그래서 정책이 거꾸로 올라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조금 남죠. 다

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저희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희 적국에서 탐방하러 와요. 제주도에서 까지 여기로 탐방을 와서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저희가 특별프로그램 가장 좋은 게 품성 프로그램하고 복지 프로그램 이예요.

한: 지역 공부방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고가의 프로그램이고 특정대상이 있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은 어디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여기 오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소외된 아이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목적은 소외된 아이들, 조금은 다른 아이들 수준에 맞춰 업을 시키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모든 것이 연합이 되서 같이 가는 곳으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청소년 복지관 형태로 유아에서부터 최소한 고등학생까지 복지센터 그런 센터로 발전을 해서 독서, 학습 끼의 발산장소로 해서 아이들이 외각으로 빠지지 않고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발전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서 그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할 때 그 지역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 학생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지역 내에 이런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 져서 꼭 여기에는 소외된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하는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내가 소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가야해요. 저의 센터에는 전교에서 1, 2등하는 아이들도 와서 공부를 합니다. 학원을 안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제가 보람된 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침울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걸 봤을 때 보람을 느끼죠. 우리나라 정책, 복지부 쪽도 마찬가지고 인적자원부도 마찬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각 부처에서도 이권문제가 밥그릇싸움이거든요. 그건 국가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이 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교회에서 만들어 졌는데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만들어 졌는데 교회는 크고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벽돌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성전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성전은 지하로 내리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김: 정부에서 공부방 전세자금을 주고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새로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지은 줄 아는데 그래서 예외를 많이 시키는데 지원이 많이 적으니까.

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김: 운영측면에서는 예산이고, 아이들 섬기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생님부족이죠. 요 아이들이 실력의 사람, 인성의 사람으로 시르기 위해서는 살이 부딪쳐야 되요. 아이들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야단칠 때는 때로는 매질도 해가면서 같이 울어도 주고 사랑으로. 그게 진정 교육이거든요. 아쉬운0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회의한 게 온라인을 없애고, 우리가 어떤 대학교 어떤 축제나 좀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꾸준한 선생님들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오고 안 오고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니까 아이들이 혼돈이 없거든. 오히려 아이들이 산만해 진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최고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온라인 하는 거고. 그래서 인자 교육적인 운영측면에선 교사선생님들이 더 많았으면.

(교사선생님은 몇 명?) 현재 6명.

한: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김: 학생이 40명 45명 정도 되고 직접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세 명 정도 되니까 한사람이 열 명 이상씩 맡는 거죠.

한: 학생들과 교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럼없이 상담을 의뢰하거나 하나요?

김: 잘 하죠. 다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교회 청년들이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고, 비전은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션을 끌고 가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여기에. 학생들하고 관계는 다 좋고,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때로는 아빠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지내죠.

한: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면을 좋아하고 어떤 면을 힘들어합니까?

김: 그건 아이들한테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아이들 인터뷰 시켜보고 물어보면 좋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공부하는 게 지겨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 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오는 건 좋은데 공부 하는 게 싫다는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 다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와서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공부하고 그때그때 특별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들 그런걸. 다 좋아해요.

한: 직원은 누가 있습니까? 교사들은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김: 공부하는 학생,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고 지방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고 들어오는지?)** 일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차적으로 교사봉사는 많이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대학생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 3학년 4학년 급들 대학원생들은 교원에 대한 마인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학습도우미. 형태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봉사. 식당봉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을 먹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한 50명 먹이려면 쉽지 않죠. 그 봉사는 꾸준하게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봉사를 해 주셨고, 지금은 적십자사 연계해서 일부 밥. 그다음에 여성단체들 그리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단체에서 이미 교육을 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격증 같은 건 체크 안하죠.

한: 교사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불만족한 부분이라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교사들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김: 그 분들은 단체에서 보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를 모르신 분들도 있고, 보내서 오니까. 와서 그분들은 이미 봉사라는 개념을 자기 마음을 열고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고 가죠. 아이들 밥도 주고 하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손자 손녀 같고.

한: 공부방이 활성화되는 것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그거에 대해선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보냄으로

서 사회활동이든 여가활동이 되었든 한층 시간이 있죠. 여기 저녁까지 다 먹여서 보내니까.

한: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 등과 같은 다른 부처의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저희는 아직은 연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또 뭐 특별하게 저희한테 연계하자 참여해라 그런 것도 없고. 자율적으로 여름에는 비전 캠프, 겨울에는 OO캠프. 그래서 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호원에서 여기 사거리까지 걸어서. 동남아 해일 때문에 모금운동하면서 올라오고. 작년에는 우리 안보캠프. 비무장 지대. 안보캠프. 항시 캠프형태로. 올해는 캠프 프로그램들 있는 곳들 있잖아요. 집어넣어보자 하는 것도 있고.

한: 기타 공부방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가장 중요한건 지역아동들이 진짜 행복을 받으면서 커나가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 혹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너무 저희 지역아동센터 로는 너무 적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게 더 크게 만들어져서 그 지역마다 하나씩. 그 지역에 잇는 아이들이 어떤 유흥 그런 쪽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와가지고 모든 발산 할 수 있는 곳. 그런 종합 복지 청소년 관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비참여 학생, 학부모용

<방과 후 활동 비참가 학생>
대　상: 정○○ (여), 1994년 생, 광진구 군자동. 초등 6학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생 19]

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정: 아빠, 엄마, 동생, 저, 그리고 할머니, 또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아요. 아빠는 일찍 들어오실 때도 있고, 늦게 들어오실 때도 있고요, 엄마는 보통 4~5시쯤에 들어오세요. 방가 후에는 엄마가 안계세요.

심: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정: 저는 그냥 컴퓨터 하거나 TV볼 때도 있고, 책 읽을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다양해요. 솔직히 말하면, TV를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어요.

심: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됩니까?
정: 학원은 월·수·금에 가요. 3시쯤에 가서 5시쯤 넘어서 들어와요. 학원이 저희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일찍 출발해야 수업에 늦지 않을 수 있어서요.

심: 학원 다니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정: 처음에는 엄마가 가라고 권유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재밌고, 공부도 되게 잘 되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집중도 되고, 모자란 부분은 선생님이 다 채워주세요.

심: 방과 후 학교나 기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아뇨

심: 학원을 다니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정: 네. 제가 영어를 못 했었는데 학원을 다니고 나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으로서는 학원이 더 좋은 거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

게 되면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보면 집중도 안 되고. 학원 가면은 선생님도 잘 알아가고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학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심: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선생님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 아무래도 학교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선생님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선.

심: 수업의 질에서는 학교와 학원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정: 학교에서는 얘들 다 같이 모여 놓고 수업을 하니까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이 진도만 나가는 거니까 제 수준에 따라서 못 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하는데 학원은 선생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심: 방과 후 활동을 왜 하지 않나요?

정: 지금은 학원 한 개만 다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 한 개 한 개만 다니고 집에서 공부로 대신하고 있어요.

(방과 후에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확실히 마음 끌리거나 그렇게 원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학교에 프로그램 있는 거 보면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마음에 확 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영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반이 있으면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죠.

심: 학원과 방과 후 활동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정: 전 아무래도 학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학원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고, 지금 여기 학원에 와서 제 실력이 올라간 것을 확실히 느껴가지고 여기서 다니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요.

(중학교에도 방과 후 학교가 있을 수 있고 학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방과 후 학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가려면 따로 시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가야하는데, 방과 후 학교는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하면 되고, 또 학교에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심: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정: 교회에 조금 있다가, 집에 와서 집에서는 할머니랑 친척언니들이랑 있고, 주말에는 그렇게 지내요.

심: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정: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껏 놀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놀고 싶고, 따로 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싶은데

<방과 후 활동 비참가 학생>
대 상: 김○○ (여), 1992년 생, 방배2동 거주. 중학교 2학년
면담자: 한지연(한국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생 20]

한: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세 식구예요.

한: 부모님은 몇 시에 귀가를 하십니까?
김: 엄마는 계속 집에 계시고 아빠는 매번 틀려요. 늦게 오실 때도 있어요.
.
한: 학교가 끝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좀 쉬다가 과외 하죠. 금, 토, 일 빼고 과외해요. 과외 한지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한: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됩니까?
김: 과외는 수학이랑 영어해서 두 시간 해요. 수학 한 시간 영어 한시간해요.

한: 학원 다니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김: 제가 원해서 했어요. 원래는요 수학 성적이 낮아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가 더 성적이 안 좋아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 힘드니까 집에서 해요. 학원은 잘하는 애들 위주로 나가니까요. 일단은 제가 학원 다녔을 때는 배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차라리 한사람이 잡아주는 게 좋으

니까. 엄마랑 얘기해서 다니게 됐어요. 한 달 쯤 넘었는데 만족해요.

한: 방과 후 학교나 기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김: 학교에서 하는 거요? 학교 안에서 하는걸. 얘기는 들어봤는데 밖에서 하는걸. 잘 못 들어봤는데. **(주위에 하는 아이들 본적 없어요?)** 네.

한: 방과 후 학교나 기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하기 싫어서요. 학교에서 계속 있는데 뭐 하러 계속 또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그냥 과목 수업하세요.

한: 방과 후 학교나 기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 등에 비해서 학원이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 학교에서는 애들도 많고 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별로고, 할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주위에 하는 친구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안 물어 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한: 학원을 다니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늙으신 분이 있으니까 안 맞고 그랬어요.

한: 앞으로 방과 후 학교나 기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 등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겨워요. (학교에서 계속 있는 것이)

한: 만일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김: 그런 게 하기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했고, 해봤자 그냥 배우는 건 똑같으니까**(수업의 질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 이예요.

한: 주말에는 무엇을 하나요?
김: 금요일에는 숙제 같은 거 과제 하고 토요일에는 학교가거나 그러죠. 토

요일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놀아요. 주일날엔 집에서 쉬거나 놀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놀거나 그래요.

한: 마지막으로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김: 그냥 즐기면서 그냥 집에서 쉬거나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취미생활 같은 거, 음악 듣는 거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

<방과 후 활동 비참가 학생의 학부모>
대 상: 김○○ (여), 1969년 생, 용인시 죽전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12]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김: 두 명. 모두 남자아이.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심: 그럼 애들은 학교 끝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김: 주로 혼자 있는데요, 학원 다녀와서 간식을 혼자 먹고 매일 피아노를 갑니다. 그리고 월수금은 영어를 가고, 태권도도 하구요. 그러다가 7시 40분 정도가 되면 혼자 숙제를 하지요. 그 때는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은 집에 있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 네. 그럼요. 특기적성으로 1학년 때 컴퓨터하고 바둑을 배웠어요.

심: 지금은 왜 하지 않습니까?
김: 시간이 안 맞아서요. **(시간이 안 맞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학원에 매일 가야 하는데 방과 후 학교를 하고 가면 시간이 맞지 않아요. 괜히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심: 그럼 학원이 학교보다 나은 게 있는 거지요? 특별히 학원을 보내는 이유를 든 다면요?
김: 그렇지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선생님이 정규적이

지 않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의 질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고요, 우리 애는 영어를 하는데, 영어는 매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 하고, 방학 때는 또 안하고, 그러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별로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학원은 매일 하거나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고, 애가 만약에 안 나오면 금방 전화가 와서 애들이 왜 안 왔는지를 체크하고, 숙제를 안 해왔으면 왜 안 해왔는지 전화오고, 점검표를 보내주고 등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주지요.

심: 학원비가 많이 들 텐데도 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학원을 찾네요.
김: 일단 학교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학원은 소규모로 하고, 선생님의 수준도 학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애들의 실력 향상이 중요하니까 돈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심: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수준만 보장되면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 시간만 맞으면 보낼 수도 있어요. 로봇 만드는 반 같은 것은 우리 애가 되게 좋아하는데 연속성과 시간이 문제지요. 오히려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해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이 문제라는 거지요.

<방과 후 활동 비참가 학생의 학부모>
대 상: 김○○ (여), 1967년 생, 광진구 군자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13]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김: 딸만 2이요. 6학년 4학년

심: 가족사항은?
김: 아빠계시고 딸 둘하고 저하고 있고, 윗 층에는 할머니가 계세요, 고모도 계시고, 언니도 오빠도 있고 토탈 한 11명 정도가 살고 계세여.

심: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김: 아빠는 기원에서 바둑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기원을 경영을 하고 있

고, 저는 전업주부라고 하기는 참 모하고 그렇다고 어떠한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시댁에 몸이 불편한 아동이 있어요. 날 때부터 조산으로 인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지금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심: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김: 사촌오빠가 특수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들어가면서 스쿨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스쿨버스를 태워 보내고 제가 또 학교를 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등교 해 놓구 8:30분에 등교 해 놓고 제가 가고 아이들 하교 하는 건 제가 거의 못보죠. 아이들 보다 더 늦게 오니까. 거의 그래요. 저녁시간만 잠깐 보내요.

심: 자녀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김: 다른 여느 엄마들 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은 저녁에 밥 먹을 때 잠깐하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잠깐. 아빠는 더 바쁘시죠.

5. 어머님의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김: 지금은 월·수·금 상계동에 있는 제 친구가 하는 영어학원을 제가 보내요. 같이가요. 그리고 나머진 그냥 놀죠. 그냥 집에서 TV보고 스스로 공부해요. 공부를 하는지 노는지...거의 노는 거 같아요.

(그럼 자녀 둘다?)

그렇죠. 학원 다니고.

심: 귀가시간이 둘 다 같나요?

김: 6학년 언니는 방송 반에 있기 때문에 더 늦어요. 6학년 이다보니까 방송일 있고, 학급에 여자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으면 더러 늦고, 4학년 작은 녀석은 일찍 외요. 일찍 와서 자기가 숙제해 놓고 놀고 그래요.

심: 그럼 6학년 아이는 방송반 활동은 방과후 활동인가요? 특별활동 인가요?

김: 특별활동은 아니고 4학년 때부터 방송반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학교에서 방송 일을 보고 있죠. 방과 후에는 회의나 아니면 후배들 교육 시킬 때 잠깐 하고 학교에 행사가 있다고 할 때는 남죠. 방송반이니까.

심: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 들어봤죠. 접하지는 않았지만, 들어는 보고 알고는 있죠. 말 그대로 방과 후에 아이들 문화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심: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난 후 학원을 또 보내는 이유.

김: 그때 부모님 공개수업이 있었어요. 작은 아이 할 때 갔었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가지 않았지만 너무 성의 없이. 그 당시는 지금처럼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 한 2년 전이니까 강사선생님들이 제가 볼때 성의 없으신 거 같고, 준비도 좀 많이 부족한 것도 같고, 또 우리아이가 쉽게 실증을 잘 내요. 지속적으로 못하는 원인은 우리아이에 있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서 제가 도중에 하차를 한 셈이죠.

(그만둔 후에는 어떻게 보냈나요?) 1년 반 넘게 텀이 있었죠. 과에도 안하고 학습지도 안 하고.

심: 학원을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김: 거리도 굉장히 집에서 먼데. 친구가 거기에 학원을 시작했어요. 원장님으로 계셔서. 여기 YBM이라고도 학원을 보내봤는데, 거기보다는 믿는데가 낫다싶어서.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심: 고학년이다 보니까 공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학원을 선택을 해야 함에 있어서 아시는 분이 더 신뢰가 가니까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건가요?

김: 그렇죠. 우리 큰 아이는 참 고맙게도. 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큰 아이는 학과 수업으로만 으로도 매우 잘 했어요.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잘 해서, 그냥 그녀석이 잘하니까 작은 녀석도 잘 하겠지 하고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교만하다고 하면 교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냥 잘 하니까 그냥 나 두고. 큰 녀석은 중학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영어가 더 보충이 되어야 겠다. 싶어서 믿는 곳으로 제가 보냈죠.

심: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김: 공부하는 거 재미는 있어 하는데 거리도 있고, 학교 갔다오면 피곤하고 하니까 짜증을 많이 내죠. 10번 가면은 반 이상은 화내고 짜증내고 가기 싫어하고, 그래도 제가 거기만큼은 강요성을 띄고 제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래요.

심: 학원에 다녀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김: 큰 아이는 잘 하는데, 작은 아이는 좀 산만해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큰 학원보다는 친구가 하는 학원을 갔을 때, 아무래도 집중한다던지 그런 것도 있고, 영어 수업이 있는 영어시간에도 선생님이 칭찬을 하신데요. 발음도 좋고 한다고 해서 저도 더불어 기쁘죠.

심: 학원비가 많이 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다른 몇 개의 학원이 아닌 오직 그거 하나만 하기 때문에 부담이야 물론 그렇죠.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과목이라고 할 정도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은 무리해서라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하기 때문에 그리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 저렴하죠.

심: 방과 후 활동과 학원 다닐 때의 아이들의 관심도는?
김: 작은 녀석이 영어회화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읽을려고 하고, 자랑도 막해요 칭찬 받고서, 나 영어가 재미 있다고 그러고, 잘 읽는다. 그러고 발음도 막 되지도 않는 발음을 굴려서 읽고, 자랑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흥미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심: 만일 방과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다면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김: 그렇죠. 학교에서 하는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친구들하고도 아는 얼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니까 그런 또 장점은 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강사님을 만나서 그런지 신뢰감이나 그런 기대감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탑을 한 상태고.

(그럼, 지금 입장에서 다시 공개 수업후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학원을 그만두고 옮기실 의양은 있으신지요?)

김: 지금은 영어에 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지요. 왜냐면, 제 친구가 더 정성스럽게 가르쳐주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심: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면 자녀를 보내겠다고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할 점)

김: 공개수업 갔을 때에도 하는 아이들은 따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방관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그 아이들이 내 자녀는 아니어도 부모된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좋았어요. 아이를 불러 일으켜 세워서 그 아이를 회화를 시켜도 되고 질문을 해도 되는데 그 아이는 딴청을 하고 딴 짓을 하는데도 그냥 공개수업이니까 그냥 잘하는 얘들하고만 하는 그런걸 봤을 때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혹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리고 아빠가 옛날에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한테 수학을 또 배워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도 우리아빠게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은 아마도 졸업할 때 까지는 아마도 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질적인 면이 미흡하다?)그렇죠. 강사 분들이.

<방과 후 활동 비참가 학생의 학부모>
대 상: 최○○ (여), 1950년 생, 방배2동 거주.
면담자: 한지연(한국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학부모 14]

한: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최: 여자 중학생 2학년 한명 있어요.

한: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최: 나는 집에 있고 애 아빠는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한: 어머님의 자녀들은 현재 방과 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최: 학교 끝나고 와서 좀 쉬었다가 공부하죠. 공부 끝나고 텔레비전도 보고.

한: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 학교에서는 없어요. 그건 없어. **는. 중학생들이 있나? 고등학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방과 후 학교 그런 건 모르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는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거 같은데 텔레비전에 나오긴 하던데. 여기 있다는 건 못 들어봤어요.

한: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 저도 애를 학원에 보내보니까 내 생각은 다른 애들 같으면 잘 할 텐데 학원 같은 경우는 진도가 잘하는 애들 위주잖아요. 그럼 못하는 애들은 뒤에서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못 따라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애들은 학원을 가도 되는데 뒤쳐진 애들은 학원보다는 딱 옆에서 끼고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애를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성적에 차이
그리고 학원을 안가니까 안 피곤하죠. 학원가면 하루 종일 있으니까. 돈은 비싸도 과외가 편하지. 그리고 전 그런데는 안보내고 싶어요. 그냥 별로예요. 차라리 집에서 시키겠어요. 내 생각은 똑같이 안 가르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봐주면서 해주지 않고 그냥 모아놓고 할 거 같아요. 말하자면 없는 애들, 저 하층 애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학원에 갈 수 없는 애들,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애들,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모아놓고 학원도 갈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자원봉사자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런가 보던데.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아.남아서 한데요? 걔네들은 너무 떨어져서 따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보낼 의향이 있나?)** 나는 우리애가 특별하게 잘 하면 학원을 보낼 거 같아요. 방과 후 학교도 아니고 그냥 학원. 방과 후에 하는 거는 아예 싫고 왠지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아예 있는 애들은 대상도 안 돼.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전부다 저

기한 (가난한) 애들이던데 집도 막 쓰러지는데서 나와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고 그런 애들.
내 생각도 그렇지만은 다른, 내가 아는 엄마들 생각도 그럴 거 같아요. 웬만하면 학원을 보내지 왜 그런 데를 보내나. 그럴 거 같아.

한: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최: 스스로 잘 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시험도 많이 올랐고. 훨씬 나졌지. 두 달 됐는데.

한: 만일 방과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다면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최: 난 그냥 안보내고 싶어요. 그런데는 안보내고 싶어요. 선입견인지 먼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서 괜히 더 저기 할 것 같고. 저기한(어려운) 애들만 또 모이는데. 그리고 잘 사는 애들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못가고 학원비가 없는 애들을 가르치자 라고 해서 한 거죠.

<방과 후 활동 비참가 학생의 학부모>
대 상: 이○○ (여), 1963년 생, 양천구 목동
면담자: 심병모(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학부모 15]

심: 자녀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각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명. 모두 남자아이.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에요.

심: 현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십니까? 몇 시 쯤 귀가하십니까?
이: 네. 들어가는 시간은 대중없지만 대략 10시 경에 들어갑니다.

심: 어머님의 자녀는 현재 방과 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2개 과학 1가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본적으로 학교는 아이들의 진로에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애들의 시험날짜가 언제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특목고에 갈 수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아이에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의 경우는 과학고를 준비하는데, 과학고를 가려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서 2-3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면 졸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왜 졸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관심 없이 그냥 혼내거나 벌세우거나 관심조차 없거나 셋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보도 없고 담임은 방해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으로 따라가면서 특목고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심: 학원에 다녀서 자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이: 물론입니다. 학원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정말 고객감동이에요. 실력향상이 안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은 애들에게 완전히 All in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학교에서는 애가 공부가 뒤처지든 말든 결석을 하든 말든 상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을 수준별로 편성해서 그 애가 알 때까지 가르치고 시험을 봐서 또 틀리면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애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는 학원만큼 정성스럽지가 않아요.

심: 학원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돈이 없어서 하는 애들이 아니고는 아무리 싸도 학교를 택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절대로 학원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학교 수업은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어요. 질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죠. 특목고를 준비하는 애들은 오히려 선생님보다 낫거나 선생님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수준별 지도를 할 수가 없고 잘 하는 애들은 그냥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배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게는 불신감이 더 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요. 학교가 애들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에 비해서 학원은 애들이 일단 들어가면 애의 실력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10분만 늦어도 전화가 옵니다. 애가 안 왔다고. 또 애가 친척집에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들으면 개인적으로 보충학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디 그렇게 해주나요? 학원은 완전히 고객감동이에요. 학원비가 비싸긴 하지만 학원비만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지요.

심: 그러면 학교교육의 질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학교 교사들은 왜 학원선생님만큼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이: 물론 학교교사도 수준 높고 훌륭한 교사가 많이 있지요. 오히려 학원선생님은 교사 자격증도 없고,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그들은 노력을 해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기법이나 아이들 파악이나 관리, 부모님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애들을 선생님이 책임지고 이끌지요. 그에 비해서 학교 교사는 경쟁체제가 아니고 한번 교사가 되면 잘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심: 그런데 학원에서는 때린다고 들었는데요.
이: 물론 때리지요. 하지만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 그것은 진짜로 자신을 위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그건 괜히 성질나서 때리는구나 하지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학원은 필수라고 학부모들이나 애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불신감이 매우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괜히 방과 후 학교 한다고 붙잡아 두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쿠폰을 주어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애 실력향상에는 낫다고 생각하지요. 어디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 그러면 특기적성은 학교에서 괜찮기만 하면 할 의향이 있나요?
이: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회화나 일어, 컴퓨터, 텝스 등 학과공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만 하지 음악 같은 건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준이 맞지 않아서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과 후에서 가르치는 것은 순전히 초짜들이 깽깽거리는 수준이고 개인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놓고 대충 낮은 수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이 배운 아이들은 가서 배울게 없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개별적 지도는 되지 않으니까 다녀봤자 아무리 싸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요.
바이올린배울 때 개인교습하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일 가르치기 난감한 애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어설프게 배운 애들이랍니다. 기초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진도만 나가서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오히려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요.
그거 말고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외부 기업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였어요. 그건 사실상 학원이 학교로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학원의 운영체제와 똑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맘에 들었어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와서 하고, 애들이 안 오면 전화하고. 그러니깐 할 만 하더라고요. 과학도 외부에서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너무 기초수준이고 고급수준이 없어서 별로 배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두었지요.

심: 학원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드세요?
이: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오히려 학원은 비싸니까 돈 생각에 빼먹을 수가 없고요, 학교는 시간당 천원 뭐 그렇게 하니까 싼 맛에 좀 빼먹어도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질에 대해서도 학교는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하지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는 학교가 잘못 한 다기 보다는 학원이 너무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는요 아무리 잘해도 학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 그러면 질을 높인다고 한다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까요?
이: 글쎄요. 학교에서도 우수한 애들만을 모아서 우수반이라는 이름으로 전교 30등 까지를 모아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기를 쓰고 그 반에 들어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게 끝나면 또 학원에를 가요.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가 짧고, 학교강의만으로는 불안하니까요. 학원은 적어도 3시간씩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 자체도 다른 거지요. 게다가 물리적인 시설도 그렇잖아요. 학원은 여름엔 에어컨 나오죠, 겨울엔 난방 되지요, 시설도 깨끗하지요. 의자나 책상도 편안하구요. 그런데 학교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의자나 책상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

니까 기분 시설자체도 그래요.

심: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를 하는 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건요, 대통령이 보고서만 보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서비스 측면에서 학원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제발 교육 현실 좀 제대로 알고 우리 목소리 좀 듣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록 2. 설문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교사 의견 조사
(방과후 학교 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및 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양계민(Tel: 02-2188-8831, Email: yangkm@youthnet.re.kr)
오승근(Tel: 02-2188-8843, Email: osg87@youthnet.re.kr)
Fax: 02-2188-8819

Ⅰ. 다음은 선생님의 방과후 활동 지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_____①방과후 특기적성 _____②방과후 보충학습 _____③둘 다

2. 선생님께서는 이번 학기에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_____①담당하고 있다(☞ **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_____②담당하고 있지 않다(☞ **2-1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2-1.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담당할 과목 또는 활동이 없어서
_____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_____③원하지 않아서(☞ **2-2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2-2. 방과 후 활동 담당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노력에 비해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이 적기 때문에
_____②노력에 비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_____③자유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_____④기타_____
☞ 8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3. 선생님께서는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까?(해당되는 부분에만 기입)
___①교과과목(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_____)
___②특기적성(구체적으로기입해주십시오 _____)

4.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방과후 활동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_____①1-3 시간 _____②4-6시간 ____③7-10시간
_____④11-12시간 _____⑤13시간 이상

5.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방과후 활동 시간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많다 _____②약간 많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약간 적다 _____⑤너무 적다

6.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방과후 활동 강사료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많다 _____②약간 많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약간 적다 _____⑤너무 적다

7.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고 계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__①매우 만족스럽다 ____②만족스러운 편이 _____③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_____④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_⑤매우 불만족스럽다

8. 방과후 활동의 운영시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_②조금 긴 편이다 _____③적절하다
_____④조금 짧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짧다

9.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비싸다 _____②약간 비싼 편이다 _____③적절하다
_____④약간 싼 편이다 _____⑤너무 싸다

10.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저녁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전혀 필요 없다 _____②별로 필요 없다 ____③어느 정도 필요하다
_____④많이 필요하다 _____⑤매우 많이 필요하다

11.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 중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_____중_____명

II.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방과후 활동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효과들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5.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6.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III.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유능한 강사 채용의 어려움					
2. 교사의 업무 과중					
3. 담당교사와 비담당 교사간의 위화감					
4. 담당교사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족					
5. 교재구성의 어려움					
6.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7.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8. 학생의 열의부족					
9. 지도교사의 열의 부족					
10.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					

Ⅳ.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당되는 칸에 √표해 주세요.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난 후 학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4.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5.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준 것 같다					
9.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10.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11. 학원비가 줄었을 것이다					

Ⅴ. 다음은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각 문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중요하지않다	전혀중요하지않다
1.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2. 학생의 교사 선택권 보장					
3. 외부 전문강사 활용					
4. 능력별 반 편성					
5. 교재구성의 어려움 해소					
6. 학급당 학생수 대폭 축소					
7. 시간당 강사료 인상					
8. 담당 교사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9. 방과후 교실 담당을 위한 보조 교사 지원					
10. 문제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 교사 지원					
11. 방과후 전담교사 지정					
12. 문화예술 분야 강사 지원					
13. 방과후 학교 전담 행정인력 충원					
14.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등 업무 전산화					
15. 학교 시설 및 설비 보완					
16.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17. 방과후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18.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19. 방학 중 운영					
20. 운영시간 연장(5시 이후까지)					
21.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22.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제 확립					
2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24. 소규모 학교 연합 및 벨트형 프로그램 운영					
25. 멘토링 ·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Ⅵ.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나 학생을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	들어본 적		학생을 보내본 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방과후 아카데미				
2.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3. 방과후 보육				

Ⅶ. 선생님께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 운영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 지도 자 수준	외부에서초청 한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 그램 의질	특기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학습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 여건	학급당 학생수												
	교육 자료												
	시설/교실 환경												
4. 운영 방식	반 편성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 운영되는 시간												
5. 서 비 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Ⅷ.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인적 사항입니다. 해당 칸에 √표나 직접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 : _____①남자 _____②여자

2. 생년 : _____년도

3. 최종학력:

_____① 전문대 졸업 이하 _____④ 석사 졸업

_____② 4년제 대학교 졸업 _____⑤ 박사 과정

_____③ 석사 과정 _____⑥ 박사 졸업

4. 교사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5. 방과 후 활동 지도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6. 선생님께서 방과후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명

7.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어떤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의 칸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8.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칸에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문제점: **활성화 방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의견 조사
(방과후 학교 학부모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및 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양계민(Tel: 02-2188-8831, Email: yangkm@youthnet.re.kr)
오승근(Tel: 02-2188-8843, Email: osg87@youthnet.re.kr)
Fax: 02-2188-8819

Ⅰ. 다음은 학부모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칸에 √표나 직접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생년 : _____년도

2.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시, 군 단위까지 써주세요)

3. 현재 가족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써주세요)

_____

4.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_____①부부가 함께 산다 _____② 이혼 _____③ 별거
_____④ 사별 _____⑤기타(_____)

5. 학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_____	_____
② 중학교 졸업	_____	__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__	_____
④ 전문대 졸업	_____	_____
⑤ 대학교 졸업	_____	_____
⑥ 대학원 졸업	_____	_____

6. 학부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주십시오)
어머니 _____ 아버지 _____

7.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___① 100만원 미만 _____② 100-199 만원 ____③ 200-299 만원
___④ 300-399 만원 _____⑤ 400-499 만원 _____⑥ 500만원 이상

8. 귀댁 자녀의 성별, 학교, 학년을 해당하는 칸에 √ 표해 주십시오.

특성 / 자녀	성별		학교				학년						참여하는 방과후활동 (학원 포함하여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남	여	초	중	고	대	1	2	3	4	5	6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9. 자녀들의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_____① 20만원 이하 _____② 21-40 만원 _____③ 31-50 만원
_____④ 51-70 만원 _____⑤ 71-90만원 _____⑥ 90-110 만원
_____⑦ 111-150만원 ____⑧ 150-200만원 미만 ___⑨ 200-250만원 미만
_____⑩ 250만원 이상 _____(직접기입해 주십시오)

Ⅱ. 다음은 귀 댁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칸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 댁 가정의 자녀는 현재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_____①방과후 특기적성 _____②방과후 보충수업
_____③둘 다 한다 _____④**둘 다 하지 않는다****(☞ 7 페이지 Ⅵ 번으로)**

2. 학부모님께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자녀를 보내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실력 향상을 위하여 _____②특기 적성 개발을 위해서
_____③방과 후에 봐 줄 사람이 없어서 _____④학원보다 싸서
_____⑤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_____⑥기타(기입:)

3. 학부모님께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기를 바라십니까?

_____①학교 _____②학원 _____③주민자치센터
_____④복지관 _____⑤지역 공부방 _____⑥수련관

4. 학부모님께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누가 지도해주기를 바라십니까?

_____①학교 교사 _____②외부 전문 강사 _____③상관없다
_____④과목에 따라 적절히 섞였으면 좋겠다(구체적으로 기입:)

5. 학부모님께서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①숙제지도 _____②국·영·수 등 핵심과목 _____③예체능 과목
_____④인성교육 _____⑤특기 적성 개발 _____⑥기타(기입:)

6. 앞으로도 계속 자녀에게 방과후 활동을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_____①예(☞ 7번으로)　　_____②아니오(☞ 6-1번으로)

6-1. 만일 계속 시키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아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② 프로그램은 있지만 아이가 내용을 흥미 없어 해서
_____③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___④ 학원에 다니려고
_____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_____⑥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__⑦ 시간이 맞지 않아서
_____⑧ 수준이 맞지 않아서
_____⑨ 방학 때는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_____⑩ 기타_____(직접 기입)

7. 방과 후 활동의 운영시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_②조금 긴 편이다　　_____③적절하다
_____④조금 짧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짧다

8.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비싸다　　_____②약간 비싼 편이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약간 싼 편이다　　_____⑤너무 싸다

9. 만일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_____①전혀 없다　　_____②별로 없다　　_____③어느 정도 있다
_____④많이 있다　　_____⑤매우 많이 있다

10.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저녁 급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전혀 필요 없다　_____②별로 필요 없다　____③어느 정도 필요하다
_____④많이 필요하다　_____⑤매우 많이 필요하다

III. 귀 댁의 자녀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어느 정 도 효과가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 표해 주십시오.

자녀가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난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아이의 친구 관계가 더 좋아졌다					
2.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4. 아이가 일상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5.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6. 아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아이기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아이가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9.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10.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11.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12. 아이를 키우는 나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13. 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					
14. 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직장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Ⅳ. 다음은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각 문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학부모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2. 학생의 교사 선택권 보장					
3. 외부 전문강사 활용					
4. 능력별 반 편성					
5. 교재구성의 어려움 해소					
6. 학급당 학생수 대폭 축소					
7. 시간당 강사료 인상					
8. 담당 교사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9. 방과후 교실 담당을 위한 보조 교사 지원					
10. 문제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 교사 지원					
11. 방과후 전담교사 지정					
12. 문화예술 분야 강사 지원					
13. 방과후 학교 전담 행정인력 충원					
14.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등 업무 전산화					
15. 학교 시설 및 설비 보완					
16.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17. 방과후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18.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19. 방학 중 운영					
20. 운영시간 연장(5시 이후까지)					
21.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22.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 지원체제 확립					
2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24. 소규모 학교 연합 및 벨트형 프로그램 운영					
25. 멘토링 ·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Ⅴ. 학부모님께서는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학부모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 않음 (1)	중요 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 한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 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 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 방식	반 편성하는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방과후학교 운영되는시간												
5. 서비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Ⅵ.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나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들어본 적		자녀를 보내본 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방과후 아카데미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				
3. 방과후 보육				

Ⅶ.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u>방과후 활동의 효과</u>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에 제시된 효과들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6.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 다음 페이지부터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중 <u>현재 아무 것도 다니지 않는 학생의 학부모님</u>만 응답해 주십시오.

Ⅷ. 학부모님께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학부모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		

<해설>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1)	중요하지 않은 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 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 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 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 방식	반 편성하는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Ⅸ. 다음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방과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학부모님께서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 칸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이 맞지 않는다.					
2. 지도교사의 열의가 부족하다					
3. 수업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4.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7. 방학 중 운영을 하지 않아서 지속적 수강이 어렵다					
8. 각 활동의 기초수준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9. 시설이 학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다					
10.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11.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하지 않겠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감사의 표시로 문화상품권으로 사례를 하고자 하오니
별지의 영수증을 꼭 작성해서 담당 선생님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의견 조사

(방과후 학교 중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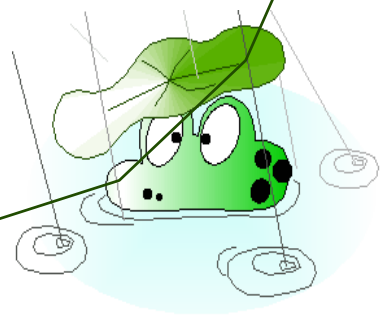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양계민, 오승근
(TEL: 02.2188.8831, 8843 FAX: 02.2188.8819)

2006. 9.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Ⅰ.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표 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은 ? _____①남 _____②여

2.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_____년도

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_____①초등학교 _____②중학교

4. 몇 학년 입니까? _____학년

5.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①상 ___②중 ___③ 하

6.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7.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 표해 주십시오)
_____① 아버지 ____② 어머니 _____③ 형/누나/오빠/언니(총_____명)
_____④ 동생 _____⑤ 할아버지 _____⑥ 할머니
_____⑦ 기타(누구인지 직접 써주세요) _____

8. 현재 부모님은 함께 사십니까?
_____①두 분이 함께 사신다 _____②이혼하셨다 _____③별거 하신다
_____④한 분이 돌아가셨다

9. 부모님의 학력을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부모님이 안계신 경우는 현재의 보호자 학력으로)

	아버지	어머니	현재 보호자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_____	_____
② 중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④ 전문대 졸업	_____	_____	_____
⑤ 대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⑥ 대학원 졸업	_____	_____	_____

10. 부모님은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오

11.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현재 보호자 _____

12.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____①상 ____②중 ____③하

II. 다음은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여러분은 현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_____①예 (☞ **2번**으로 가시오)
_____②아니오 (☞ **7 페이지의 처음에 있는 VI번**으로 가시오)

2. 만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현재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시고 과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①보충학습 ( )
_____②특기적성 ( )

3. 현재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얼마 동안 했나요?
_____①6개월 미만 _____②6개월 이상-1년 미만
_____③1년이상 - 2년미만 ____④2년 이상 - 3년 미만 ____⑤3년 이상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_____①스스로 원해서 ____②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_____③엄마가 하라고 해서 ____④기타 (이유를 써주세요)_____

5. 이번 **학기** 동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_____①결석을 한 적이 없다. _____②1-2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③3-4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④5번 이상 결석을 하였다

6. 방과 후 활동 중 교과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사람만 응답하십시오)

_____①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②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좋아 한다 _____⑤매우 좋아 한다

7. 방과후 활동 중 특기적성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사람만 응답하십시오)

_____①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②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좋아 한다 _____⑤매우 좋아 한다

8. 방과후 학교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예: 태권도, 리코더, 로봇교실 등)_____

9. 앞으로 계속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생각입니까?

_____①예 (☞ **9-1을 건너뛰고 III으로**) ____②아니오(☞ **9-1번으로**)

9-1. 참여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② 프로그램은 있지만 내용에 흥미가 없어서

_____③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___④ 학원에 다니려고

_____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_____⑥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__⑦ 시간이 맞지 않아서

_____⑧ 수준이 맞지 않아서

_____⑨ 방학 때는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_____⑩ 기타_____(직접 기입)

III.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항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원에 가는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다					
2. 한 곳에서 진행되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다					
3.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좋다					
4. 선생님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					
5. 수강료가 싸다					
6.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7. 활동이 재미있다					
8.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9.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10.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다					
11. 방학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12.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13. 학교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14.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것이 싫다					
15. 방과 후 학교가 끝나도 학원에 또 가기 때문에 힘들다					
16. 방과 후에 저녁 급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Ⅳ. 방과후 학교를 참가하고 난 후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세요.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난 후 나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4.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					
5.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였다					
8. 친구,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9. 자신감이 생겼다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11. 학원비가 줄었다					

Ⅴ. 여러분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지도자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그램의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학습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당 학생수												
	교육 자료												
	시설/교실 환경												
4. 운영방식	반 편성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방과후학교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Ⅵ. 다음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들어본 적		참여해본 적	
	있음	없음	있다	없다
1. 방과후 아카데미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				
3. 방과후 보육 시설				

Ⅶ. 다음은 여러분들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활동을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생각할 때 평소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만약 해당하는 답이 보기에 없으면 직접 적어주세요.

활 동 내 용	활동시간	보기
1. 집,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② 하루 평균 2시간~3시간 이내 ③ 하루 평균 1시간 ~ 2시간 이내 ④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⑤ 1주일에 3시간 이상 ⑥ 1주일에 2시간 ~ 3시간 이내 ⑦ 1주일에 1시간 ~ 2시간 이내 ⑧ 1주일에 1시간 이내 ⑨ 월평균 1~4시간 이내 ⑩ 하지 않는다
2.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3. TV나 비디오 보는 시간		
4. 독서시간		
5.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하는 시간		
6. 운동하는 시간		
7. 만화방, 노래방 가는 시간		
8. 친구와 또는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		
9. 봉사활동		
10. 영화, 연극, 각종 공연 관람		
11. 기타(_____)		

※ 다음 페이지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중 아무 것도 다니지 않는 학생만 응답해 주세요.

Ⅷ. 여러분은 다음에 제시된 내용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작성 방법 예시>

항목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없음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수준	외부에서 초청 한교사/ 강사				∨		

<<해설>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 그램 의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 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 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 방식	반 편성하는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IX. 여러분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					
2. 방과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3.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					
4. 실력에 따라 수준별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써주지 않는다					
6.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7. 방학 중에는 하지 않아서 계속 참여하기가 어렵다					
8.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9. 학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다					
10.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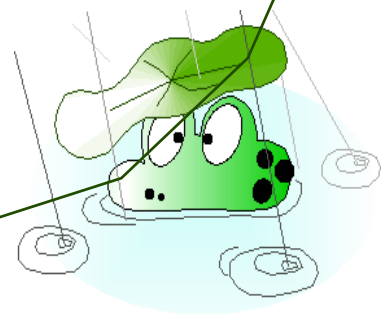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의견 조사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용)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양계민, 오승근

(TEL: 02.2188.8831, 8843 FAX: 02.2188.8819)

2006. 9.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Ⅰ.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표 하거나 직접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은 ? _____①남 _____②여

2.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_____년도

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_____①초등학교 _____②중학교

4. 몇 학년 입니까? _____학년

5.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_① 상 ____② 중 ___③ 하

6.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시, 군 단위까지 써주세요)

7.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 표해 주십시오)
_____① 아버지 ____② 어머니 ____③ 형/누나/오빠/언니(총____명)
_____④ 동생 _____⑤ 할아버지 _____⑥ 할머니
_____⑦기타(누구인지직접써주세요) _____

8. 현재 부모님은 함께 사십니까?
_____①두 분이 함께 사신다 _____②이혼하셨다 _____③별거 하신다
_____④한 분이 돌아가셨다

9. 부모님의 학력을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부모님이 안계신 경우는 현재의 보호자 학력으로)

	아버지	어머니	현재 보호자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_____	_____
② 중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④ 전문대 졸업	_____	_____	_____
⑤ 대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⑥ 대학원 졸업	_____	_____	_____

10. 부모님은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오

11.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_____ 현재 보호자 _____

12.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____①상 ____②중 ___③하

II. 다음은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여러분은 현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_____①예 (☞ **2번**으로) _____②아니오 (☞ **7 페이지 VI번**으로)

2. 만일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다면, 현재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 현재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얼마 동안 다녔나요?
_____①6개월 미만 ____② 6개월이상-1년미만 _____③1년이상~2년미만
_____④2년이상~3년미만 ____⑤3년 이상

4.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①내가 하고 싶어서
_____②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_____③부모님께서 하라고 해서
_____④기타다른이유때문에(이유를써주세요)_____

5. 이번 **학기** 동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_____①결석을 한 적이 없다. _____②1-2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③3-4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④5번 이상 결석을 하였다

6. 방과 후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__①매우 좋아 한다 _____②좋아 한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7. 방과후 학교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예: 태권도, 리코더, 로봇교실 등)_____

8. 앞으로 계속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생각입니까?

_____①예 (☞ **8-1을 건너뛰고 III으로**) _____②아니오(☞ **8-1번으로**)

8-1. 참여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② 프로그램은 있지만 내용에 흥미가 없어서

_____③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___④ 학원에 다니려고

_____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_____⑥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__⑦ 시간이 맞지 않아서

_____⑧ 수준이 맞지 않아서

_____⑨ 방학 때는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_____⑩ 기타_____(직접 기입)

III.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항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원에 가는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다					
2. 한 곳에서 진행되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다					
3.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좋다					
4. 선생님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					
5. 수강료가 싸다					
6.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7. 활동이 재미있다					
8.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9.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10.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다					
11. 방학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12.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13. 학교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14.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것이 싫다					
15. 방과 후 학교가 끝나도 학원에 또 가기 때문에 힘들다					
16. 방과 후에 저녁 급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IV. 방과후 학교를 참가하고 난 후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세요.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난 후 나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4.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					
5.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친구,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9. 자신감이 생겼다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11. 학원비가 줄었다					

Ⅴ. 여러분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사항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사항없음
		매우불만족 (1)	불만족하는편 (2)	그저그러함 (3)	만족하는편 (4)	매우만족 (5)		전혀중요하지않음 (1)	중요하지않은편 (2)	그저그러함 (3)	중요한편임 (4)	매우중요 (5)	
1. 강사/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 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방식	반 편성하는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Ⅵ. 다음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들어본 적		참여해본 적	
	있음	없음	있다	없다
1. 방과후 아카데미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				
3. 방과후 보육 시설				

Ⅶ. 다음은 여러분들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활동을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생각할 때 평소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만약 해당하는 답이 보기에 없으면 직접 적어주세요.

활 동 내 용	활동 시간	보기
1. 집이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② 하루 평균 2시간~3시간 이내 ③ 하루 평균 1시간 ~ 2시간 이내 ④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⑤ 1주일에 3시간 이상 ⑥ 1주일에 2시간 ~ 3시간 이내 ⑦ 1주일에 1시간 ~ 2시간 이내 ⑧ 1주일에 1시간 이내 ⑨ 월평균 1~4시간 이내 ⑩ 하지 않는다
2.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3. TV나 비디오 보는 시간		
4. 독서시간		
5.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하는 시간		
6. 운동하는 시간		
7. 만화방, 노래방 가는 시간		
8. 친구와 또는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		
9. 봉사활동		
10. 영화, 연극, 각종 공연 관람		
11. 기타(_____)		

※ 다음 페이지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중 아무 것도 다니지 않는 학생만 응답해 주세요.

Ⅷ. 여러분은 다음에 제시된 내용들이 **<u>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u>** 각각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작성 방법 예시>

항목		**<u>미래</u>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u>중요도</u>**					해당 사항없음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		

<<해설>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u>미래</u>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u>중요도</u>**					해당 사항 없음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그램 의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 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 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 방식	반 편성하는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IX. 여러분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2. 방과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3.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					
4. 실력에 따라 수준별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써주지 않는다					
6.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서 잘 배울 수가 없다					
7. 방학 중에는 하지 않아서 계속 참여하기가 어렵다					
8.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9. 학원에 비해 시설이 나쁘다					
10.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알맞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교사 의견 조사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자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및 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양계민(Tel: 02-2188-8831, Email: yangkm@youthnet.re.kr)
오승근(Tel: 02-2188-8843, Email: osg87@youthnet.re.kr)
Fax: 02-2188-8819

Ⅰ. 다음은 선생님의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지역과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이름을 써주십시오)

①지역:_____②기관명:_____

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_____①초등학생 _____②중학생 _____③둘 다

3. 선생님께서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시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_____①1-3 시간 _____②4-6시간 _____③7-10시간 ____④11시간 이상

4. 선생님께서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업무를 수행하시는 시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많다 _____②많은 편이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적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적다

5. 선생님께서 현재 받으시는 보수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매우 만족스럽다 ____②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_⑤매우 불만족스럽다

6.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__①매우 만족스럽다 ____②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③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____④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_⑤매우 불만족스럽다

7.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의 운영시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②조금 긴 편이다 _____③적절하다
_____④조금 짧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짧다

8.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과 후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	들어본 적	
	있음	없음
1. 방과후 학교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		
3. 방과후 보육시설		

II.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유능한 강사 채용의 어려움					
2. 교사의 업무 과중					
3. PM교사와 SM교사간의 위화감					
4. 아카데미 교사와 수련관 직원간의 위화감					
5. 교재구성의 어려움					
6.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7.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8. 학생의 열의부족					
9. 지도교사의 열의 부족					
10.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					
11.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Ⅲ.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각 문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중요하지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시설 및 설비 보완					
2.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3.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수준 관리					
5. 담당교사 선발 시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					
6. 예산운용의 융통성 확대					
7.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8.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적극적 홍보					
9. 유사 기관끼리의 상호의사소통 및 연계					
10. 멘토링 ·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Ⅳ.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방과후 활동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아래에 제시된 효과들을 얼마나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6.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Ⅴ. 학생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세요.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난 후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4.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5.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준 것 같다					
9.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10.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11. 학원비가 준 것 같다					

Ⅵ. 선생님께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 운영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지도자수준	외부에서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선생님												
2. 프로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활동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방식	반편성하는 방법												
	월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결석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Ⅶ. 방과 후 아카데미와 관련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응답을 골라 아래의 곳 중 하나에 √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없다					
3.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아이들이 남이나 주변 환경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5. 아이들이 피해의식이 있다					
6.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을 창피해 한다					
7.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한다					
8. 방과후 아카데미의 시설이 열악하다					
9. 학년별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10. 부모들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1. 부모들이 받는데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					
12. 부모들은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란다					
13.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14. 행정업무가 많아서 아이들을 대할 시간이 부족하다					
15. 업무에 매여서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다					
16. 지역사회나 자원봉사자의 연계 문제를 교사가 모두 직접 발로 뛰고 있어서 힘이 든다					
17. 초등, 중등 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18. PM과 SM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19.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0. 예산운용의 융통성이 떨어져서 효율적 집행이 어렵다					

Ⅷ.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인적 사항입니다. 해당 칸에 √표나 직접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 : _____①남 _____②여

2. 생년 : _____ 년도

3. 최종학력:

_____① 전문대 졸업 이하 _____②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_____③ 석사 과정 _____④ 석사 졸업

_____⑤ 박사 과정 _____⑥ 박사 졸업

4. 현재 선생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_____①PM _____②SM

5.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자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개월

6. 방과후 아카데미 교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청소년 지도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간:___년 개월/ 경력내용:_____)

7. 선생님께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은 얼마나 됩니까? ____명

8.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문제점**이 있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9.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감사의 표시로 문화상품권으로 사례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o._____

영 수 증

금 액 : 10,000원

성 명 :

전화번호 :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6년 월 일 _____ ㊞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의견 조사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및 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양계민(Tel: 02-2188-8831, Email: yangkm@youthnet.re.kr)
오승근(Tel: 02-2188-8843, Email: osg87@youthnet.re.kr)
Fax: 02-2188-8819

Ⅰ. 다음은 귀 댁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칸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 댁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어느 지역의 어떤 기관입니까?
①지역:_____②기관명:_____

2. 귀 댁의 자녀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①6개월 미만 _____②6개월 - 1년 미만
_____③1년 - 2년 미만 _____④2년 이상

3. 학부모님께서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_____①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_____②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_____③자녀의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_____④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_____⑤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4. 학부모님께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내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____②특기 적성 개발을 위해서
____③방과 후에 봐 줄 사람이 없어서 ____④비용이 싸서
____⑤기타(기입:)

5. 귀하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어디에서 맡아 지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_____①학교 _____②학원 _____③주민자치센터
_____④복지관 _____⑤지역 아동센터(공부방) _____⑥수련관
_____⑦보육시설(유치원) _____⑧기타_____

6.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은 자녀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_____①자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
_____②내가 하라고 시켰다
_____③자녀의 친구가 해서 같이 한다
_____④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_____⑤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직접 써주세요:_____)

7. 귀댁의 자녀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_____①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②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④좋아 한다 ___⑤매우 좋아 한다

8. 귀댁의 자녀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재미있어합니까?
_____①매우 재미있어 한다 ____②재미있어 하는 편이다
_____③보통이다 _____④재미없어 하는 편이다
_____⑤전혀 재미없어 한다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자녀의 학교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____①매우 도움이 된다 ____②약간 도움이 된다 ____③그저 그렇다
____④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특기 적성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_____①매우 도움이 된다 ____②약간 도움이 된다 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시간수가 체력이나 학습 능률면에서 어떻습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_②조금 긴 편이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조금 짧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짧다

12. 학부모님께서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_____①숙제지도 ____②국·영·수 등 핵심과목 ____③예체능 과목
_____④인성교육 ____⑤특기 적성 개발 ____⑥기타(기입:)

13. 방과후 아카데미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영어, 태권도 등)_____

14. 앞으로도 계속 자녀를 방과후 아카데미에 보내실 예정입니까?
_____①예(☞ 15번으로) _____②아니오(☞ 14-1번으로)

14-1. 만일 계속 보내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②프로그램은 있지만 흥미가 없어서
_____③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___④학원으로 보내려고
_____⑤아이가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_____⑥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__⑦아이가 너무 피곤해 해서
_____⑧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15. 만일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_____①전혀 없다 _____②별로 없다 ____③어느 정도 있다
_____④많이 있다 _____⑤매우 많이 있다

16.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들어본 적		자녀를 보내본 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방과후 학교				
2. 방과후 아카데미				
3. 방과후 보육시설				

II.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방과후 활동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이 아래에 제시된 효과들을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6.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Ⅲ. 귀 댁의 자녀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난 후 자녀와 가정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해 주십시오.

자녀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난 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의 친구 관계가 더 좋아졌다					
2.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4. 아이가 일상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5.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6. 아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아이기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아이가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9.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10.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11.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12. 아이를 키우는 나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13. 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					
14. 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직장이 있으신 분만)					

Ⅳ. 학부모님께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학부모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지도자수준	외부에서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선생님												
2. 프로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활동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방식	반편성하는 방법												
	월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결석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Ⅴ. 다음은 학부모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칸에 √표나 직접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생과의 관계 :

_____①아버지 _____② 어머니 _____③할머니 _____④할아버지

_____⑤기타_____(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2. 보호자의 생년: _____년도

3. 거주지 : _____(시, 군 단위까지 써주세요)

4. 현재 가족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써주세요)

_____

5.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_____①부부가 함께 산다 _____② 이혼 _____③ 별거

_____④ 사별 _____⑤기타(_____)

6. 학생의 부모님과 현재 보호자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을 경우 부모님과 현재 보호자에 대해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현재 보호자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_____	_____	_____
② 중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④ 전문대 졸업	_____	_____	_____
⑤ 대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⑥ 대학원 졸업	_____	_____	_____

7. 학생 부모님과 현재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 주십시오)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현재 보호자 _____

8.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____① 100만원 미만 ____② 100-199 만원 ____③ 200-299 만원

_____④ 300-399 만원 _____⑤ 400-499 만원 ____⑥ 500만원 이상

9. 귀댁 자녀의 성별, 학교, 학년을 해당하는 칸에 √ 표해 주십시오.

특성 / 자녀	성별		학교				학년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 (학원 포함하여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남	여	초	중	고	대	1	2	3	4	5	6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10. 자녀들의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_____① 20만원 이하 _____② 21-40 만원 _____③ 41-60 만원

_____④ 61-80 만원 _____⑤ 81-100만원 _____⑥ 100만원 초과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감사의 표시로 문화상품권으로 사례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o._____

영 수 증

금 액 : 5,000원

성 명 :

전화번호 :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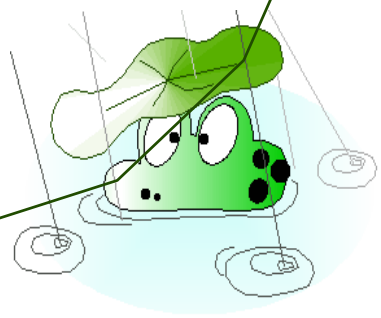
2006년 월 일 _____ ㊞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의견 조사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용)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양계민, 오승근

(TEL: 02.2188.8831, 8843 FAX: 02.2188.8819)

2006. 9.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Ⅰ. 다음은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①6개월 미만 _____②6개월 - 1년 미만
_____③1년 - 2년 미만 _____④2년 이상

2.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_____①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_____②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_____③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_____④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_____⑤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3. 지난 **학기** 동안 방과후 아카데미에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_____①결석을 한 적이 없다. _____②1-2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③3-4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④5번 이상 결석을 하였다.

4.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내가 하고 싶어서 _____②엄마가 하라고 해서
_____③친구가 해서 같이 _____④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서 _____⑤기타

5. 여러분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까?
_____① 매우 좋아 한다 _____②좋아 한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6.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재미있다고 생각합니까?
_____①매우 재미있다 _____②재미있는 편이다 _____③보통이다
_____④재미없는 편이다 _____⑤전혀 재미없다

7.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교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_____①매우 도움이 된다 _____②약간 도움이 된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특기 적성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_____①매우 도움이 된다 _____②약간 도움이 된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교과활동 시간이 자신의 체력이나 학습 능률면에서 어떻습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_②긴 편이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약간 짧다 _____⑤너무 짧다

10.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_____①숙제지도 _____②국·영·수 등 핵심과목 ____③예체능 과목
_____④인성교육 _____⑤특기 적성 개발 ____⑥편히 쉴 수 있는 공간
_____⑦기타(기입:)

11.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적어주세요 (예:영어,태권도 등)_____

12. 앞으로도 방과후 아카데미에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오

13. 참여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② 흥미가 없어서
_____③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___④학원으로 가려고
_____⑤남들이 아는 게 싫어서 _____⑥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__⑦몸이 너무 피곤해서 _____⑧기타_____(직접 기입하세요)

14. 학교 친구들에게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다는 것을 알렸습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오

15. 학교 친구들에게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어서 _____②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게 싫어서
____③기타 _____(직접 기입하세요)

16. 다음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나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방과후 활동	들어본 적 있다		참여해본 적 있다	
	있음	없음	있다	없다
1. 방과후 학교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				
3. 방과후 보육시설				

Ⅱ.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다					
2.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어서 좋다					
3. 선생님들이 학교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다					
4.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 물어보기가 편하다					
5. 억지로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6. 선생님들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					
7.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8.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다					
9. 개인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10. 수업이 재미있다					
11. 교과수업을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12. 취미나 예술, 스포츠 등 활동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13.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14.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15.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16. 형편만 되면 학원을 다니겠다					
17. 수준별 반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다					
18. 수강료가 싸다					
19. 너무 늦게까지 해서 몸이 피곤하다					
20. 시간표가 너무 빡빡해서 힘들다					
21.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					
22.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다					
23. 학교 친구들과 사귈 시간이 없다					
24. 학교가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25.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26.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다					
27.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닌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28. 급식을 해주어서 좋다					

Ⅲ.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당되는 칸에 √표해 주세요.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난 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4. 일상생활이 즐거워 졌다					
5. 학교생활이 즐거워 졌다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9. 자신감이 생겼다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11. 학원비가 줄었다					

Ⅳ. 다음은 여러분들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활동을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생각할 때 평소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만약 해당하는 답이 보기에 없으면 직접 적어주세요.

활 동 내 용	활동 시간	보기
1. 집,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② 하루 평균 2시간~3시간 이내 ③ 하루 평균 1시간 ~ 2시간 이내 ④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⑤ 1주일에 3시간 이상 ⑥ 1주일에 2시간 ~ 3시간 이내 ⑦ 1주일에 1시간 ~ 2시간 이내 ⑧ 1주일에 1시간 이내 ⑨ 월평균 1~4시간 이내 ⑩ 하지 않는다
2.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3. TV나 비디오 보는 시간		
4. 독서시간		
5.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하는 시간		
6. 운동하는 시간		
7. 만화방, 노래방 가는 시간		
8. 친구와 또는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		
9. 봉사활동		
10. 영화, 연극, 각종 공연 관람		
11. 기타(_____)		

V. 여러분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지도자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그램의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학습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당 학생수												
	교육 자료												
	시설/교실 환경												

4. 운영방식	반 편성 방법												
	월 수강료 및 활동비용												
	방과후학교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 / 결석 등의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VI. 다음 문항을 잘 읽고 <u>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u>을 하나만 골라 √표 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_____①남 _____②여

2.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_____년도

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_____①초등학교 _____②중학교

4. 몇 학년 입니까? _____학년

5.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___① 상 _____② 중 _____③ 하

6.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시, 군 단위까지 써주세요)

7.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u>모두</u>** √ 표해 주십시오)
_____① 아버지 _____② 어머니 ____③ 형/누나/오빠/언니(총_____명)
_____④ 동생 _____⑤ 할아버지 _____⑥ 할머니
_____⑦기타(누구인지직접써주세요)

8. 현재 부모님은 함께 사십니까?

_____① 두 분이 함께 사신다 _____② 이혼하셨다 _____③ 별거 하신다
_____④ 한 분이 돌아가셨다

9. 부모님의 학력을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_____
② 중학교 졸업	_____	__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__	_____
④ 전문대 졸업	_____	_____
⑤ 대학교 졸업	_____	_____
⑥ 대학원 졸업	_____	_____

10. 부모님은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오

11.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12.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_____①상 _____②중 _____③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교사 의견 조사
(지역아동센터 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및 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양계민(Tel: 02-2188-8831, Email: yangkm@youthnet.re.kr)
오승근(Tel: 02-2188-8843, Email: osg87@youthnet.re.kr)
Fax: 02-2188-8819

Ⅰ.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및 지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①지역:_____②기관명:_____

2. 선생님께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담당하는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____①초등학생 ___②중학생 ____③고등학교 ___④기타( )

3. 선생님께서 공부방에서 근무하시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____①1-3 시간 ____②4-6시간 _____③7-10시간 ___④11시간 이상

4. 선생님께서 현재 공부방에서 근무하시는 시간이 적절성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많다 _____②많은 편이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적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적다

5.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보수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매우 만족스럽다 ____②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_⑤매우 불만족스럽다

6. 선생님께서는 공부방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①매우 만족스럽다 ___②만족스러운 편이다 ___③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___④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⑤매우 불만족스럽다

7. 공부방의 운영시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_②조금 긴 편이다 _____③적절하다

_____④조금 짧은 편이다 ____⑤너무 짧다

8.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공부방의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초중고별로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9.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공부방의 아이들은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숙제지도 ___②국·영·수 등 핵심과목 _____③예체능 과목
___④인성교육 ___⑤특기나 취미 적성 개발 ____⑥기타(기입:)

Ⅱ.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유능한 교사 채용의 어려움					
2. 교사의 업무 과중					
3. 교재구성의 어려움					
4. 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5.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6. 학생의 열의부족					
7. 지도교사의 열의 부족					
8. 학부모 참여의지 부족					
9. 공부방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10. 행정지원체계의 비일관성					
11.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2.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동일 업무 반복 및 지원의 어려움					

Ⅲ.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각 문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시설 및 설비 보완					
2. 급식지도 또는 급식수준 관리					
3.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5. 교사 선발 시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					
6. 예산지원 확대					
7.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8.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적극적 홍보					
9. 유사 기관끼리의 상호의사소통 및 연계					
10. 멘토링 · 보조교사 등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Ⅳ.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당되는 칸에 √표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고 난 후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4. 일상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5.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든 것 같다					
9.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10. 성적이 향상된 것 같다					
11. 학원비가 준 것 같다					

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공부방을 이용함으로써 아래에 제시된 효과들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5.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6.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7.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8.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9.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0.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13.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Ⅵ.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없다					
3.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아이들이 남이나 주변 환경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5. 아이들이 피해의식이 있다					
6. 아이들이 공부방에 다니는 것을 창피해 한다					
7.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한다					
8. 공부방의 시설이 열악하다					
9. 학년별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10. 부모들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1. 부모들이 받는데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						
12.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13. 행정업무가 많아서 아이들을 대할 시간이 부족하다						
14. 업무에 매여서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다						
15. 지역사회나 자원봉사자의 연계 문제를 교사가 모두 직접 발로 뛰고 있어서 힘이 든다						
16.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17. 초등, 중등 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18. 교사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19.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0. 예산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21.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Ⅶ.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나 학생을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항	들어본 적		학생을 보내본 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방과후 학교				
2. 방과후 아카데미				
3. 방과후 보육 시설				

Ⅷ. 선생님께서는 <u>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u>, 이것이 **<u>앞으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u>** 각각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u>현재</u> 상태의 <u>만족 정도</u>**					해당 사항 없음	**<u>미래</u>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u>중요도</u>**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지도자수준	외부에서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선생님												
2. 프로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활동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방식	반편성하는 방법												
	월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결석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Ⅸ.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인적 사항입니다. 해당 하는 곳에 √표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_____①남 _____②여

2. 생년 : _____년도

3. 최종학력 :

_____① 전문대 졸업 이하 _____②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_____③ 석사 과정 _____④ 석사 졸업
_____⑤ 박사 과정 _____⑥ 박사 졸업

4.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맡은 역할은?

_____① 교사/강사 _____②총괄/회계
_____③ 관리/운영자 _____④기획/프로그램개발
_____⑤ 기타 (_____)

5.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_____년_____개월

6.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교사가 되기 이전에 청소년 지도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간:___년_____개월/ 경력내용:_____)

7. 선생님께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은 얼마나 됩니까?_____명

8. 선생님께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9. 선생님께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감사의 표시로 문화상품권으로 사례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o._____

영 수 증

금 액 : 10,000원

성 명 :

전화번호 :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6년 월 일 _____ ㊞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의견 조사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및 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양계민(Tel: 02-2188-8831, Email: yangkm@youthnet.re.kr)
오승근(Tel: 02-2188-8843, Email: osg87@youthnet.re.kr)
Fax: 02-2188-8819

Ⅰ. 다음은 귀 댁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칸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 댁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 센터(공부방)는 어느 지역의 어떤 기관입니까?
①지역:_____②기관명:_____

2. 자녀가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 다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①6개월 미만 _____②6개월 - 1년 미만
_____③1년 - 2년 미만 _____④2년 이상

3. 지역아동 센터(공부방)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_____①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_____②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_____③자녀의 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_____④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_____⑤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4. 학부모님께서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 자녀를 보내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실력 향상을 위하여 ____②특기 적성 개발을 위해서
____③방과 후에 봐 줄 사람이 없어서 ____④비용이 싸서
____⑤기타(기입:)

5. 귀하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어디에서 맡아 지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_____①학교 ____②학원 _____③주민자치센터
_____④복지관 ____⑤지역 공부방 _____⑥수련관
_____⑦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6.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 다니는 것은 자녀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_____①자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
_____②내가 하라고 시켰다
_____③자녀의 친구가 해서 같이 한다
_____④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_____⑤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유를 써주세요:)

7. 귀댁의 자녀는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_____①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②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좋아 한다 _____⑤매우 좋아 한다

8. 귀댁의 자녀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서 배우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재미있어합니까?
____①매우 재미있어 한다 ___②재미있어 하는 편이다 ___③보통이다
____④재미없어 하는 편이다 ____⑤전혀 재미없어 한다

9. 자녀가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자녀의 학교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_____①매우 도움이 된다 _____②약간 도움이 된다 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 자녀가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 참여하는 것이 특기 적성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_____①매우 도움이 된다 ____②약간 도움이 된다 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 현재 자녀가 참여하는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의 운영 시간수가 체력이나 학습 능률면에서 어떻습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_②긴 편이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짧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짧다

12. 학부모님께서는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서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_____①숙제지도 _____②국·영·수 등 핵심과목 ____③예체능 과목
_____④인성교육 _____⑤특기 적성 개발 ___⑥기타(기입:)

13.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적어주세요(예: 영어, 태권도 등) _____

14. 앞으로도 계속 자녀를 지역아동 센터(공부방)에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_____①예(☞ 15번으로) _____②아니오(☞ 14-1번으로)
14-1. 만일 계속 보내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② 프로그램은 있지만 흥미가 없어서
_____③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___④ 학원으로 가려고
_____⑤ 아이가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_____⑥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__⑦ 아이가 너무 피곤해 해서
_____⑧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15. 만일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_____①전혀 없다 _____②별로 없다 _____③어느 정도 있다
_____④많이 있다 _____⑤매우 많이 있다

II.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방과후 활동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프로그램이 아래에 제시된 효과들을 얼마나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2.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가 줄어들 것이다					
3.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					
4.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5.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6.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7.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8.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9.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할 것이다					
10.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이다					
14.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Ⅲ.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나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들어본 적		자녀를 보내본 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방과후 학교				
2. 방과후 아카데미				
3. 방과후 보육				

Ⅳ. 학부모님은 <u>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u>, 이것이 **<u>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u>** 각각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u>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u>**					해당 사항 없음	**<u>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u>**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지도자수준	외부에서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선생님												
2. 프로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보육활동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 당 학생수												
	교육자료 및 교구												
	시설/교실 환경												
4. 운영방식	반편성하는 방법												
	월수강료 및 활동비용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5. 서비스	출석/결석 관리												
	셔틀버스 운행												
	건강 관리 및 생활 지도												

Ⅴ. 귀 댁의 자녀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님으로써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 표해 주십시오.

자녀가 공부방에 다니고 난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아이의 친구 관계가 더 좋아졌다					
2.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4. 아이가 일상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5.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6. 아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아이기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아이가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9.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다					
10.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11.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12. 아이를 키우는 나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13.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이 더 편해졌다					
14. 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게 되었다 **(직장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Ⅵ. 다음은 학부모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칸에 √표나 직접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생과의 관계 : _____①아버지 _____② 어머니 _____③할머니 _____④할아버지_____⑤기타_____(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2. 보호자의 생년 : _____년도

3.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시, 군 단위까지 써주세요)

4. 현재 가족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써주세요)

_____

5.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_____①부부가 함께 산다 _____② 이혼 _____③ 별거

_____④ 사별 _____⑤기타(_____)

6. 학생 부모님과 현재 보호자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을 경우 부모님과 현재 보호자에 대해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현재 보호자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_____	_____	_____
② 중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④ 전문대 졸업	_____	_____	_____
⑤ 대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⑥ 대학원 졸업	_____	_____	_____

7. 학생 부모님과 현재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주십시오)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현재 보호자 _____

8.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_____① 100만원 미만 _____② 100-199 만원

_____③ 200-299 만원 _____④ 300-399 만원

_____⑤ 400-499 만원 _____⑥ 500만원 이상

9. 귀댁 자녀의 성별, 학교, 학년을 해당하는 칸에 √ 표해 주십시오.

특성 / 자녀	성별		학교				학년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 (학원 포함하여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남	여	초	중	고	대	1	2	3	4	5	6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10. 자녀들의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_____① 20만원 이하 _____② 21-40 만원 _____③ 41-60 만원

_____④ 61-80 만원 _____⑤ 81-100만원 _____⑥ 100만원 초과

◆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감사의 표시로 문화상품권으로 사례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o._____

영 수 증

금 액 : 5,000원

성 명 :

전화번호 :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6년 월 일 _____ ㊞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의견 조사
(지역아동센터 학생용)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양계민, 오승근
(TEL: 02.2188.8831, 8843 FAX: 02.2188.8819)

2006. 9.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Ⅰ. 다음은 여러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①6개월 미만 _____②6개월 - 1년 미만

_____③1년 - 2년 미만 _____④2년 이상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_____①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셨다

_____②동사무소(또는 구청)에서 연결해주었다

_____③친구가 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다

_____④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_____⑤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3. 지난 **학기** 동안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_____①결석을 한 적이 없다.

_____②1-2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③3-4번 결석을 하였다.

_____④5번 이상 결석을 하였다.

4.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내가 다니고 싶어서

_____②부모님께서 하라고 해서

_____③친구가 해서 같이 하려고

_____④선생님께서 추천해서

_____⑤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이유를써주세요:_____)

5.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까?

_____①매우 좋아한다 _____②좋아한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_____⑤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6.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재미있다고 생각합니까?

_____①매우 재미있다 _____②재미있는 편이다 _____③그저 그렇다
_____④재미없는 편이다 _____⑤전혀 재미없다

7.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시간이 자신의 체력이나 학습 능률면에서 어떻습니까?
_____①너무 길다 _____②좀 긴 편이다 _____③알맞다
_____④좀 짧은 편이다 _____⑤너무 짧다

8.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_____①숙제지도 _____②국·영·수 등 핵심과목 지도 _____③예체능 과목
_____④인성교육 _____⑤특기 적성 개발 ____⑥편히 쉴 수 있는 공간
_____⑦기타(기입:)

9.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예:영어, 태권도 등)._____

10.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계속 나올 생각입니까?
_____①예(☞ 11번으로 이동) _____②아니오(☞ 10-1번으로 이동)

10-1. 나오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②프로그램은 있지만 흥미가 없어서
_____③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___④학원에 다니려고
_____⑤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게 싫어서
_____⑥학교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__⑦몸이 너무 피곤해서
_____⑧기타_____(기입해주십시오)

11. 학교 친구들에게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닌다는 것을 알렸습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오

12. 학교 친구들에게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어서

_____②다니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게 싫어서

_____③기타_____(직접 기입해주십시오)

13. 다음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나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들어본 적 있다		참여해본 적 있다	
	있음	없음	있다	없다
1. 방과후 학교				
2. 방과후 아카데미				
3. 방과후 보육시설				

Ⅱ.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다					
2.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어서 좋다					
3. 선생님들이 학교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다					
4.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 물어보기가 편하다					
5. 억지로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6. 선생님들이 때리지 않아서 좋다					
7.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8.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다					
9. 개인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10. 수업이 재미있다					
11. 교과수업을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12. 취미나 예술, 스포츠 등 활동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13.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14.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15. 학원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16. 가정 형편만 되면 학원을 다니겠다					
17. 수준별 반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다					
18. 수강료가 싸다					
19.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다					
20. 학교 친구들과 사귈 시간이 없다					
21. 학교가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22.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23.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다					
24.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닌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25. 급식을 해주어서 좋다					

Ⅲ.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고 난 후 나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2.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					
4. 일상생활이 즐거워 졌다					
5. 학교생활이 즐거워 졌다					
6.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다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8. 친구나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줄었다					
9. 자신감이 생겼다					
10. 성적이 향상되었다					
11. 학원비가 줄었다					

Ⅳ. 다음은 여러분들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활동을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생각할 때 평소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만약 해당하는 답이 보기에 없으면 직접 적어주세요.

활 동 내 용	활동 시간	보기
1. 집,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② 하루 평균 2시간~3시간 이내 ③ 하루 평균 1시간 ~ 2시간 이내 ④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⑤ 1주일에 3시간 이상 ⑥ 1주일에 2시간 ~ 3시간 이내 ⑦ 1주일에 1시간 ~ 2시간 이내 ⑧ 1주일에 1시간 이내 ⑨ 월평균 1~4시간 이내 ⑩ 하지 않는다
2.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3. TV나 비디오 보는 시간		
4. 독서시간		
5.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하는 시간		
6. 운동하는 시간		
7. 만화방, 노래방 가는 시간		
8. 친구 또는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		
9. 봉사활동		
10. 영화, 연극, 각종 공연 관람		
11. 기타(_____)		

Ⅴ. 여러분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작성 방법 예시>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강사/ 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강사		∨								∨		

<<해설> 현재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앞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함.

항목		현재 상태의 만족 정도					해당 사항 없음	미래 성공적인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하는편 (2)	그저 그러함 (3)	만족 하는편 (4)	매우 만족 (5)		전혀중요 하지않음 (1)	중요하지 않은편 (2)	그저 그러함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 (5)	
1. 강사지도자 수준	외부에서 초청한 교사/ 강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2. 프로그램의 질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												
	교과학습지도 프로그램												
	보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학습 프로그램												
	급식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3. 시설여건	학급당 학생수												
	교육 자료												
	시설/교실 환경												

Ⅵ.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표 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_____①남 _____②여

2.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_____년도

3.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_____①초등학교 ____②중학교

4. 몇 학년 입니까? _____학년

5.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① 상 ___② 중 __③ 하

6.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시, 군 단위까지 써주세요)

7.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 표해 주십시오)

_____① 아버지 ____② 어머니 _____③ 형/누나/오빠/언니(총____명)

_____④ 동생 _____⑤ 할아버지 _____⑥ 할머니

_____⑦ 기타(누구인지 직접 써주세요) _____

8. 현재 부모님은 함께 사십니까?

_____① 두 분이 함께 사신다 _____② 이혼하셨다

_____③ 별거 하신다 _____④ 한 분이 돌아가셨다

9.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현재 보호자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_____	_____
② 중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④ 전문대 졸업	_____	_____	_____
⑤ 대학교 졸업	_____	_____	_____
⑥ 대학원 졸업	_____	_____	_____

10. 부모님은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____①예 ____②아니오

11.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현재 보호자_____

12.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_____①상 _____②중 _____③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Ⅳ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김기헌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 · 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 · 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Ⅰ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상욱 · 김신영 · 박승호 · 유성렬 · 임지연 · 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상욱 · 김신영 · 박승호 · 유성렬 · 임지연 · 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 · 오승근 · 권두승 · 전명기 · 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 · 박영균 · 김진호 · 임성택 · 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 · 천정웅 · 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 · 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 · 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 · De-Ping Lu · 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 · 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 · 조정문 · 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 · 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 · 조흥식 · 김향초 · 이규미 · 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 · 김지혜 · 류명화 · 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 · 권해수 · 정찬석 · 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Ⅰ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이기재 · 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 · 홍승아 · 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 마츠다 시게끼 · 무꾸오 아사코 · 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온 · 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헌 · 이경상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평가 / 김성벽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용역과제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윤숙 · 이혜연 · 이창호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장현 · 신순갑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윤숙 · 오승근 · 양계민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헌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헌 · 임지연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헌 · 장근영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헌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혜정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헌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6.17)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6.21)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 중간발표 워크숍」(6.23)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7.7~8)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Ⅳ · 최종발표 워크숍」(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24)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김한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연구교수
노경란 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정기섭 인하대학교・교수

◈ 자 문 진 ◈

김수동 동국대학교・교수
김은정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김인순 한국여성개발원・전문연구원
김정석 교육인적자원부・교육연구관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이사장
손경재 태랑초등학교・교감
오운홍 면동초등학교・교장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사무국장
이광호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정책단장
이정의 미국 매사츄세츠 로웰대학・박사후 과정
이향란 중앙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교수
임선정 중구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PM
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교수
한도희 국가청소년위원회・전문위원
홍은주 서울보육정보센터・소장

연구보고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 쇄 2006년 12월 3일
발 행 2006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16-4 93330